**무비스님의 서장 강의**

큰스님에게 삼배하옵고,

서장강의를 수록하오니 불법의 공부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강 강의를 올립니다.

**왜 지금 看話禪인가 ?**

**佛敎의 탄생과 종류**

\* 부처님 成道이후 成道의 내용을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설함.

\* 원시, 근본, 상좌, 대중, 부파, 소승, 대승, 비밀(밀교), 선(禪), 호국, 기복, 천도, 기도,   염불, (종파), (교파),

   통(通),  인간(人佛思想).

\* 한국의 불교-화엄, 천태, 법상, 비밀, 禪, 호국, 기복, 천도, 기도, 통(通)

\* 선불교-觀心禪, 黙照禪, 간화선, 念佛선, 觀照선(위빠사나)

\* 한국의 전통선-간화선(간화선불교)

**전등계보와 五家七宗, 看話禪派와 黙照禪派 대혜(大慧,1089~1163)선사**

釋迦牟尼佛 …… → 菩提達磨 → 神光慧可 → 鑑智僧璨 → 破頭道信 → 黃梅弘忍 → 南嶽懷讓 → 馬祖道一 → 百丈懷海 黃檗希運 → 臨濟義玄**(臨濟宗)** → 興化存獎  潙山靈祐  仰山**(潙仰宗)** 興化存獎 → 寶應慧顒 → 風穴延沼 → 首山省念 → 汾陽善昭 → 石霜楚圓 → 石霜楚圓 楊岐方會**(楊岐派)** → 白雲守端 → 五祖法演→ 圜悟克勤  黃龍慧南**(黃龍派)** → 圜悟克勤 → 大慧宗杲**(看話禪간화선)**

\* 대혜스님은 임제(臨濟)스님의 11대 법손

  → 虎丘紹隆--應菴曇華--密菴咸傑--破菴祖先--無準圓照--雪菴慧郞 -及菴宗信--石屋淸珙--**(韓)**太古普愚--幻庵混修 靑原行思→石頭希遷 藥山惟儼→雲巖曇晟→洞山良价\*→ 天皇道悟  雪峰  雲門文偃**(雲門宗)** 玄沙師備 羅漢 法眼文益**(法眼宗)**

\*洞山良价 雲居道膺 → 同安道丕 → 同安觀志 → 梁山緣觀 →大陽警玄 曹山本寂**(曹洞宗)** 大陽警玄 → 投子義靑 →芙蓉道楷 → 丹霞子涥 → 宏智正覺**(黙照禪묵조선)**

**\* 서장**은 大慧書, 또는 大慧普覺禪師書다. 서기1134년 46세부터 1159년 71세까지의 사대    부들과 간화선(看話禪)과 불교적 견해에 대해서 주고받은 편지글이다. 간화선불교의 지침    서로서 고려 보조스님이후 8백여 년간 강원의 교과서다.

\* 書狀의 大旨--斥邪解 顯正見 \* 선기(禪機)의 선양. 禪機란 선의 체화, 인격화다.

禪機는 선의 7가지 의미와 또는 선의 7대 정신으로 표현한다.

**1. 簡素, 2. 脫俗, 3. 自然, 4. 幽玄, 5. 枯高, 6. 靜寂, 7. 變化**

**禪佛敎의 特長--聖解不留 凡情脫落.**

**즉 禪은 성스러운 견해에도 머물지 않고 범속한 생각도 벗어난 사람의 삶이다.**

서장 대 강좌 제 1 - 1 강

세상은 참으로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난 좋은 인연으로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 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하신 신도회 회장님. 인재개발원 담당자 여러분. 또 우리 총무원 기획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동참 하셔서 좋은 공부 함께 해보겠다고 먼 곳에서 와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 불자님들. 또 여러 스님들도 많이 계ㄴ네요. 고맙습니다. 10회를 기한으로 하고, 書狀(서장)을 통해서 요즘 한창 인기 좋은 看話禪(간화선)에 대해서 함께 의논 해보고, 생각해보고, 간화선의 원조이신 대혜스님의 간화선 지침서로 함께 생각해보는 아주 희유하고도 다행스럽고, 경사스러운 시간을 함께하게 된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 합니다.

“왜 지금 간화선인가”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 마디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잘 살다 보니까 모두 명품을 찾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간화선에 대해서 공부 해보겠다는 여러분도 어쩌면 ‘시시한 불교는 관심 없다. 명품 불교가 없나?’ 그렇습니다. 이 간화선은 많은 종류의 선불교 중에서도 명품 선불교가 간화선 불교입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얼마만치 여러분의 기대에 이 서장을 가지고 최상의 불교로 기대하는데 부응할지 저도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른다든지, 종교를 선택하는 일도, 불교 안에서 수행을 선택하는 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것을 고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간화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서장이라는 것이 800 여년이 넘은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800 여년 동안 뛰어난 분의 엄밀한 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과 상당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10회에 걸쳐서 강의 하면서 강의 중에, 또는 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간화선인가? 불교의 탄생과 종류를 대강 일별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불교의 탄생은 부처님이 성도한 이후 그 성도의 내용을,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내용을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들에게 설 하는 것으로부터 불교가 출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불교. 또는 원시불교. 근본불교. 상좌부불교. 대중불교. 부파불교. 소승불교. 이런 시대에 따라서 다종다양한 불교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불교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은 불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인지가 발달하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5~600 년경에는, 그 동안의 수많은 불교도 사람들의 지적 욕구를, 또는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난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죠. 대승불교 운동을 거치면서 또 발생한 것이, 대승불교 운동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비밀불교. 소위 밀교라는 것이 한 쪽에서는 생기게 되고, 중국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면서 소위 선종불교, 선불교가 발생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소위 선불교는 달마스님께서 중국에 오셔서 9년 면벽 이후부터, 혜가를 만나면서부터 시작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선불교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불교를 달마스님이 가르침 대로 觀心一法(관심일법)이 總攝諸行(총섭제행)이다. 마음의 문제를 잘 관찰하는 것이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하고 있다는 기치아래 선불교를 주창한 것이 관심선입니다. 관심선이 초기 선불교입니다. 그리고는 默照禪(묵조선)도 생기고, 看話禪(간화선)도 생기고, 念佛禪(염불선)도 생기고, 관조하는 觀照禪(관조선)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선불교가 그렇게 등장을 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쩔 수 없이 불교도 아닌 호국 불교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기복 불교니 기도불교니 천도불교니 염불불교니, 종파에 따라서 별별 불교, 교파에 따라서 별의별 불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마디로 그것을 아우르는 말이 생겼어요. 한국불교는 통불교라는 표현을 하는데 상당이 근사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절하는 불교도 있고, 주문 외우는 불교도 있고, 참선하는 불교도 있고, 기복하는 불교도 있고, 기도하는 불교도 있고, 호국 불교도 있고, 별별 불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불교를 통해서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선불교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불교로 초점을 모아 봤는데도 불구하고, 선불교가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서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될 묵조선 같은 것.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간화선입니다만, 항간에 염불선이라는 말도 많이 등장을 해서 지금도 염불선을 하는 사찰이나 스님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또 위빠사나 라는 것이 관조선인데요. 우리가 호흡하는 일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나의 행위를 일체 관조하는. 예의주시하고 예의 관찰하는 남방 수행법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일일이 이 선은 이렇게 하고, 저 선은 저렇게 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간화선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간화선은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공부 하려는 이 서장이 제일 지침서 이면서 800 여년 동안 강원의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치 간화선을 하는 데는 고전이면서 지금 어떤 지침서보다도, 더 나은 지침서가 800년이 넘은 이 서장이라는 최고 오래된 지침서가 지금도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도 이 순간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간화선 불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간화선 불교만을 한 열 달 동안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대혜스님은 어떤 분인가? 복잡한 것은 일일이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대혜스님의 傳燈系譜(전등계보). 五家七宗(오가칠종). 看話禪派(간화선파)와 간화선의 상대가 되는 당시의 默照禪派(묵조선파). 그것은 어뗳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가? 그것을 도표로 그렸습니다. 석가모니불부터 보리달마로 해서 쭉 내려와서 육조혜능. 육조단경을 통해서 누누이 들어왔던 육조혜능. 육조혜능 밑에 큰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소위 오가칠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남악회양과 청원행사. 두 거대한 산맥이 육조스님으로부터 뻗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남악회양 밑에 마조도일. 백장회해. 황벽희운. 임제의현. 그래서 소위 임제종이 등장하게 됐고, 우리 한국의 禪脈(선맥)은 바로 이 임제의현의 임제종을 근거로한 선맥 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승들 비문에 가 보면, “석가모니로부터 몇 대 제자” “몇 대 손” 이렇게 쓰지를 않고, 꼭 “임제 몇 대 손”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서 우리가 중국 스님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우리도 임제종 계통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충 짐작을 하지요. 우리나라 스님들 碑文(비문)을 보면, 거의가 “임제 몇 대 손” “임제 몇 대 손” 모두가 가섭존자의 몇 대 손도 아니고, 달마의 몇 대 손도 아니고, 육조혜능의 몇 대 손도 아니고, 전부 “임제 몇 대 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임제록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교재를 먼저 정 했으니까 임제록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우선 간화선이 지금 상당히 목말라하고 있는 선불교니까 일단 간화선 지침서로 하자고 되기는 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이렇게 임제스님을 가장 숭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열반하시면요? 축원문에 꼭 들어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님 열반하셨으니까 速還娑婆(속환사바). 사바세계에 빨리 다시 돌아오셔서 永作人天之眼目(영작인천지안목). 임제스님의 문중에서 길이 인천의 안목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축원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얼마나 임제스님을 그리워하고, 임제스님의 사상이 중요하고, 임제스님의 정신을 본받고 싶고, 임제스님 밑으로 줄을 서고 싶으면, 축원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회가 되시면 임제록 한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어록입니다. 어록의 왕이라고 하지요. 바로 그러한 큰 산맥이 내려오다가 우뚝하게 높이 솟은 산과 같은 임제스님의 뒤를 이어서 흥화존장. 보응혜응. 풍혈연소. 수산성념. 분양선소. 석산초원. 양기방회. 이렇게 해서 양기스님을 양기파. 황룡스님 밑으로 황룡파. 이렇게 두 파가 생겨서 오가칠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기스님 밑으로 백운수단. 오조법연. 원오극근. 서장의 주인공인 대혜스님의 스승 되시는 분이 원오스님이십니다. 첫 장에도 원오스님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대혜종고 스님은 간화선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대혜스님은 임제스님의 11대 법손입니다. 저는 임제스님의 40대 법손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제자면 41대 법손이 됩니다. 임제스님하고 법이 대등하냐는 것은 따질 것 없고,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못난 저가 그 자리를 매 꾸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대에는 여러분들이 법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여러분은 그 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의 선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듯이... 선대보다 꼭 훌륭해야만 대를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하면 더욱 좋지만, 못 한 대로 대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저절로 자연스럽게 대는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로왕의 몇 대손 이라고 이름표를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대손은 몇 대손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똑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은 과거 우리 선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무시할 일이 아니라고요. 물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과거 훌륭한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이런 큰 홍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선배들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식이 현대인들에게 참 부족해서 제가 평소에 느낀 마음이 있어서 전해드린 아마 말씀 같습니다.

묵조선은 동산양개스님으로부터... 동산양개스님은 청원행사 쪽으로 내려갔지요? 남악. 청원. 두 산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원행사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산양개스님이 있고, 동산양개스님 밑으로 대양경현. 대양경현 밑으로 투자의천. 부영도해. 단하자순. 굉지정각. 이렇게 해서 묵조선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대혜스님의 서장을 공부하다보면 끊임없이 묵조선을 이야기 하게 됩니다. 서장은 대혜서. 또는 대혜보각선사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34년 대혜스님이 46세 때부터 1159년 71세까지 당시 사대부들과 간화선에 대해서 주고받은 편지글입니다. 그 편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시사 하는바가 많고, 우리들 공부에 지침이 되기에 800년 동안 이 편지를 이렇게 읽고 외우고 시험치고, 이 순간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번역서. 연구서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편지글이 일본 동경대학에 가면, 실지로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서장에는 대혜스님이 쓰신 편지가 그대로 사진이 찍혀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선종 총서를 보시면, 그 편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참 반갑더라고요. 강원에서 활자본으로 된 것으로 공부 하다가 제가 일본 책을 사서 실지로 그 편지의 실물을 사진 찍어서 영인본이지만 보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연대도 우리 고려 때 불일보조스님이 대혜스님보다 3~40년 늦게 탄생하셨는데, 그 때 벌써 우리나라에 전래 되어서 고려 보조스님께서 이것을 늘 옆에 두고 도반으로... 사실은 서양에서 눈을 떴습니다. 항상 옆에 두고 도반으로 모시고 수시로 탐독 하셨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보조스님께서 송원사 수선사에서 학인들을 제접 해서 제자들을 키우면서 계초심학인문을 지어서 총림에 청규로 삼았고, 또 교과서로써 당신이 좋아하시는 육조단경과 서장을 그 당시 승려들을 교육하는데 썼습니다. 그때 보조스님께서 교과서로 쓰신 이후 오늘 이 순간까지 강원에서 교과서로 쓰고 있습니다.

서장 대 강좌 제 1 - 2 강

앞에서 책 소개 많이 했습니다만, 책 한권 써서 800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대혜스님의 그 지견.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어도 좋습니다. 당나라 때는 로마 제국시대. 우리나라는 신라. 한참 인류의 문명의 꽃이 활짝 피고, 그 꽃이 만개의 시기가 곧 넘어가려고 하는 무렵. 그 당시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가 됩니다. 그 무렵에 등장했기 때문에 대혜스님의 지혜는 정말 걸러지고, 걸러지고 검증받고, 검증받고 또 검증받은 유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중국 천하에 내 노라 하는 사대부들이 모두가 대혜스님의 신도였습니다. 부처님 신도보다도 대혜스님의 신도가 훨씬 우수한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이 아주 부러운 점이지요. 그 만치 대혜스님은 위대했던 당시의 聖者(성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 아마 대혜스님의 가르침의 구절구절이 더 감동적으로 와 닿고, 더 의미 있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는 대혜스님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서장의 대지! 대개 불교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제목이 그 뜻을 나타내있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간단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大旨(대지)라는, 글자 여섯 자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斥邪解現正見(척사해현정견)” 그래요. 삿된 소견을 물리치고, 바른 견해를 들어낸다. 이것이 大慧(대혜) 書狀(서장)의 主題(주제)입니다. 여기서 삿된 견해란 무엇이며, 정견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펴볼...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이고, 제가 덧붙인 것이 “禪機(선기)의 宣揚(선양)이다.” 그랬습니다. 선기란 무엇인가? 선의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축약해서 표현할 때 선기라고 합니다. 기틀 기(機)자는 뭔가? 근원. 뿌리. 중심. 핵심. 그러면서 電燈(전등)으로 치면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간단 하지만 딱 올리면 온 강당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내리면 그냥 꺼져 버려요. 아무리 넓은 공간도 캄캄 합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기” 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글자입니다.

그냥 “선기!” 그렇게만 아세요. 선의 모든 것이 선기라는 이 말에 다 집약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애매모호한 것도 같고요. 그래서 조금 빗나간 것 같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기란 선의 體化(체화). 또는 인격화다. 선기는 선의 일곱 가지 의미와 또는 선의 7대 정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가 일곱 가지 의미. 7대 정신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선불교” “선불교” 하면서도 통불교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선 행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설선법회다.” “선강좌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선의 정신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선행사를 과연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절이라고 구체적으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완전히 무당이 굿판을 벌리듯이 장엄을 해요. 요즘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프린트도 많이 하고, 현수막도 많이 걸고, 깃발을 펄럭이면서 별별 장엄을 하고서 선을 선양 한다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무당굿판을 벌려 놓고는 선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선의 정신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선의 정신을 이 기회에... 우리는 한국의 통불교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선불교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중에서는 선불교가 명품불교니까요.

“선” 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 “선”의 브랜드 값이 얼마나 높은가? “선” 아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도 “선 화장품”입니다. 조선일보에 난 것을 제가 봤어요. 요즘 종합 격투기 하는 것 보시죠? 세계 싸움꾼들 다 모아놓고 싸우는 거기 밑바닥에 써진 글씨를 보셨어요? “선기”라고 써 놨어요. 그때의 “기”자는 기운 氣(기)를 써놓고 영어로 “X 에너지”라고 써 놨어요. 선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싸움 잘 하는 사람도 선의 기운으로 한다는 겁니다. 저는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선”자... 미국 어느 체육관에서 하는데 그 “선”자가 눈에 띄어서 자세히 보니까 “禪氣”라고 써 놨어요. 제가 쓰는 機자가 아니고 氣자를 써서 선 기운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싸움판에도 선이 등장 했어요. “禪” 상표가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아주 값이 비싸요. 온갖 잡동사니 다 모아놓고 “禪食(선식)” 이러는데 선은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簡素(간소).” 멋지잖아요? 이것이 선입니다. 간단하고 소박하다.

선은 첫째, 간단명료하고 소박해야 돼요. 禪房(선방)에 한번 가 보세요. 그 방석정리라든지 신발정리라든지 가사장삼 걸어놓은 정리라든지 그냥 선이 느껴지잖아요. 선이 뭔지 모르지만 선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조계종이 선불교를 표방함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위상이 높아요. 이런 시간을 마련 한 것이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이런 시간을 자주 마련해서, 많은 선지식들에게 선을 많이 들어서 정말 거기서 검증 하고 선별해서, 선의 오롯한 정신을 정리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禪은 脫俗(탈속) 해야 됩니다. 俗氣(속기)가 너덜너덜 붙어서 禪師(선사)가 됐던지, 禪氣(선기)가 됐던지, 禪房(선방)이 됐던지, 禪寺刹(선사찰)이 됐던지, 禪자를 붙였으면 탈속해야 됩니다. 아파트도 선 스타일 이라는 광고 들어 보셨지요? 어떻게 지어놓고 선 스타일 이라고 하는가? 하고 제가 보니까 아주 간소 합니다. 장치가 거의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리고 탈속해 보여요. 어딘가 모르게 탈속해 보여요. 벽장이 많고, 걸 것이 많고, 널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自然(자연). 천지자연이 아니고, 저절로 그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자연의 춘하추동 자연도 사실 저절로 그러함이지요. 그런데 선은 체화. 우리들 자신이 선을 익혀서, 선의 정신을 도입을 해서, 내 삶의 어떤 한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조작이 있고 뭔가 억지가 있는 것은 선사가 아니고, 禪客(선객)이 아니고, 禪人(선인)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선은 좋은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지금 간화선인가? 선중에도 간화선은 오로지 화두 하나뿐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오로지 화두 하나뿐이라고요. 여기 서장에 들어가면 나오지만 천 가지 문제, 만 가지 문제 얽히고설킨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문제, 집안의 문제, 자기가 처해있는 소속 기관의 문제, 사회의 문제, 하고 있는 온갖 일들, 어마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혜스님이 그랬어요. 천 가지 문제와 만 가지 문제가 오직 이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되니, 이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천 가지 문제, 만 가지 문제가 다 일시에 소멸이라는 말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치 단순해요. 간결해요. 소박해요.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저 앞에 데모한다고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것을 다 뒤로하고, 이 자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잎 따고 가지치고, 줄기 다 베어 버리고,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고, 뭔가 이름 모를 그 하나! 그것 하나만 내 마음 속에, 내 인생에 하나만 남겨놓는 시간을 가져보는 이것이 선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그러함 뿐만이 아니고, 촐랑대면 안 돼요. 깊이가 있어야 돼요. 유연한 것. 이 선은 선사가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선을 하는 보살이나 선을 하는 거사나, 선을 하는 처녀나 선을 하는 총각은 유연해요. 깊이가 있어요. 침착해요. 이것이 또 선의 특징 중의 하나예요

枯高(고고)! 이것은 아주 권위입니다. 저~ 높은 바위 벼랑위에 서있는 아주 깡마른 枯木(고목). 그 고목이 몇 백 년. 몇 천 년이 되었는지 모르는, 그러면서도 도대체 넘어지지 않고, 가까이 가면 살을 베일 듯한 그런 날카로움도 있고 위엄도 있고... 오대산 비로봉에 가면 더러 몇 천 년 된 그런 主木(주목)이 있습니다. 그 전에 상원사에 있으면서 가을에는 으레 거기를 몇 바퀴를 도는데 그런 주목을 보면, 야~ 이런 수 천년 된 주목이 이렇게 말라 있는데... 얼마나 거기에 위엄이 서려 있는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선도 이 고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선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것이 있습니다. 호락호락 하지를 않아요. 호락호락할 턱이 있습니까? 돈이니 명예니 그런 시시한 것에 호락호락 하면 그것은 선이 아니지요. 고고함! 아~ 멋진 의미 아닙니까?

靜寂(정적)인데요. 禪은 무조건 고요해야 돼요. 바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선자를 생각만 해도 저절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그 끝 모를 깊이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그런 마음. 이것이 또 선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참선하신 분도 많으실 줄 믿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회사 일이 어떻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떻고, 大選(대선)이 어떻고, 무슨 이전투구가 되어서 물고 물리고, 선하는 사람은 그것 알바 없어요. 그냥 좌복을 펴놓고 앉으면. 가다가 공원에서도 좋고, 찻간에서도 좋고, 척, 선을 생각하면 그것이 화두가 됐던지, 선 이라는 글자가 됐던지, 아니면 하다못해 대혜 서장이 됐던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 하는 이 순간을 기억 하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다 선에 속하니까요. 이렇게 딱 하면 그 순간 모든 시끄러움. 모든 번잡함이 착~ 가라앉는 것! 이것이것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이것이 정적입니다. 적정하고 또 달라요. 수준이 다른 것이 정적입니다. 글자 하나 뒤바꾸어 놓은 것인데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사 하지요? 정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참선 좀 한다. 공부 좀 한다. 불교 좀 한다. 모두 한 불교 하는 분들 모였네요. 한 불교 한다 하면 그만 자기 아집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틀이 딱 생겨요. 불교를 안한 사람은 없는데 한 불교 한다는 사람은 전부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틀이 생기는 겁니다. 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변화라는 말이 참 매력 있지요? 선은 꼭 이래야 된다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아주 거부 합니다. 사실은요. 댓돌 위에 신을 가지런하게 벗어놓고, 또 선방에 가 보면 방석을 손이 베일 정도로 모를 세워서 착~ 정리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질서 할 때는 아주 무질서 합니다. 어디를 찾아볼 수 없게 무질서한 것이 수좌들, 선객들입니다. 그러면서 질서가 있을 때는 정말 서릿발 같은 질서를 세울 줄 아는 것이 禪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변화! 고정 되어 있지 않아요. 가지런하지가 않아요. 한결 같지가 않아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선을 제대로 한사람은 그런 변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이지요. 선은 생명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극대화 하는 한 작업이고, 한 방편이 이 선이고, 그 중에서도 간화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못해서 호국불교니 기도불교니 기복 불교니 별별 불교를 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선이 있어요. 선이 생명입니다. 선불교가 면면이 중심에서 자리를 지켜 왔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불교도 아닌 그 잡다한 불교. 불교 간판만 걸어놓고 저~기 타 종교인들 보다도 더 못하게 그냥 내달리고, 무당보다도 더 무당같이 하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꿋꿋이 자기 갈길 가는 것은 바로 그 중심에 선불교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달마스님 이후로, 그리고 800년 전 보조스님께서 이 간화선의 지침서를 도입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이후로 끊임없이 이것을 최소한도 불교 전문가. 정말 진정 전문가는 오로지 이 공부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特長(특장)은 다시 줄이면 성에불유 범영탈락.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즉 선은 아주 성스럽다고 하는 그런 견에도 머물지 않고, 그렇다고 저질적인 범속한 생각에도 머물러 있지 않지요. 그런 것도 벗어난 사람의 삶이다. 이랬습니다. 성스러운 견에도 머물지 않고, 범속한 생각도 벗어난 사람의 삶이 바로 선이다. 서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이서장 공부하는 사이사이에 이것이 연관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부수적으로 선은 표현할 것이 많습니다. 두고두고 표현하겠지만,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마디씩 지어 오세요. 제가 보기에 선은 “밥이다.” 영답답하면 그렇게라도 짓든지... 왜냐? 선방에 가면 밥 먹여 주니까요. 하하하하 여러분이 선을 느끼는 대로, 또 공부해 가면서 선을 알아가는 대로, 또 그 동안도 공부하신 것도 많으실 테니까 한 마디로... 이것 임자 없습니다. 하는 사람 것이니까요. “선은 뭐다.”라고 한번 지어 보세요.

서장 대 강좌 제 1 - 3 강

“禪(선)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참선하고 있으면 자기가 환하게 보여요. 조선시대에 우리 스님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평생 事判(사판)만 하던 스님이 禪房(선방) 문고리만 한번 잡아도 지옥을 면한다는데 ‘에라 문고리 한번 잡을 것이 아니라, 한철 가서 공부를 할 밖에 없다.’ 나이도 들었고 해서... 선방에 올라가서... 사판 하던 스님이 선방에 올라가면 세금 꽤 내야 돼요. 대중공양도 많이 내야 되고... 찰떡을 몇 말 내고는 한 철을 지내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내다가 모두들 참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알았다.” 이러는 겁니다. ‘야~ 저 스님이 평생 주지 살고 원주만 산 것이 아니라 공부혼자 독실 하게 많이 했는가 보다.’ 고 여기 와서 한 달 만에 알았다고 하니까

많이 알았는가 보다. 고... 대중들이 전부 방선해서는 궁금해서 “뭘 알았냐?”고, “뭘 알았냐?”고. 평생에 알았다는 사람 못 봤으니까 신기해서... 20년 전에 내가 돈을 5전을 꿔 줬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꿔 줬는지 몰랐는데 이제사 알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방 한 철만 지내본 사람이면 다 듣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절대 아니에요. 그 만치 선은 자기 자신을 비춰 준다니까요. 맑게 해 준다니까요. 혹시 중요한 것 잃어버렸는데 찾고 싶으면, 집에 가서 당장에 선 하세요. 재미있는 선 이야기 아주 수두룩합니다. 제가 어디가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너저리하게 약력을 소개해서 제가 약력을 써다 줬어요. 10대에 동진 출가해서,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하동산스님 말 들어 봤죠? 효봉스님. 제가 한 철 이상씩 살았어요. 그러니 그 후대, 구산스님. 성철스님. 향곡스님 말할 것도 없지요. 전강스님 밑에서는 인천에서도 살고, 용주사에서도 살고, 다 살았어요. 거의 회상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 밑에서는 한 철씩. 두 철씩. 세 철씩.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거기에 쌓인 이야기들 많아요. 열 달 동안 이거 다 풀어야 되는데 서장 교재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고... 50년 가까이 걸망 생활을 하면서 선 쪽으로, 敎(교)는 교 쪽으로, 선지식 밑에 다 다니면서 중노릇 하는 혜택이 그거에요. 시간 자유롭고 마음대로 이동 자유롭고... 한 때는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流浪雜僧(유랑잡승)” 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한 곳에 가만히 안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망월사 춘성스님 밑에 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50년 동안 동산스님부터 지금까지 봐 오면서 중 한 사람을 꼽으라면 춘성스님을 꼽겠어요. 아주 감동적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때 70대였었는데 당신 이불이 없어요. 당신 요가 없어요. 깔고 앉았던 방석하나 배에 걸치고, 탁자 밑에 가서 목침하나 꺼내면 그것이 당신 침구입니다. 대중 방에서 그렇게 우리 같이 잤어요. 야~ 이참, 우리나라에도 그런 위대한 중이 있었어요. 망월사에 가서 영정에라도 참배 하세요.그런분입니다.

敎材(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가 解題(해제)가 있고 行狀(행장)이 있어요. 해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시고, 행장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니까 해제를 잘 읽으시고... 행장을 살펴보면, **대혜스님은 서당에 다니다가 향교에서 동학들 하고 장난을 치다가 벼루를 잘못 던져서 선생님의 모자를 맞혀서 상당히 보상을 많이 하고, 그 길로 출가를 했어요. 16세에 출가를 했습니다. 17세에 비구계를 받고, 19세에 태평주 은적암에 가서 운봉열 선사의 후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처음 曺洞宗(조동종)의 여러 선사를 참례하고 그 宗旨(종지)를 다 터득 했으나** 일본에 조동종이 있어요. 默照禪(묵조선) 계통의 宗派(종파)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해서 좀 폄하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그래요. **선사들을 참례하고 그 종지를 다 터득을 했으나 선사는 오히려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21세에 담당문준 선사를 참례했다. 7년 동안 담당문준 선사를 모시고 크게 知見(지견)을 얻었는데 담당스님께서 임종 하실 때** 추천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가 원오극근 선사입니다. 이렇게 추천해서 원오극근 선사를 참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오극근 선사에게 비로소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어서 그 法脈(법맥)을, 담당문준 선사에게서 7년이나 공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에 만난 원오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동안 수많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 했겠지요. 그 중에 제일 마음이 기우는 분을 이렇게 “나는 누구 제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선사들 서암스님. 서옹스님. 참 훌륭한 스님들. 성철스님 등등 많이 모시고 살았지요. 그렇지만 제일 마음이 가는 스님. 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스님이 경허스님으로 한암스님으로 그리고 탄허스님으로. 탄허스님 밑에 제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자리를 매꾸고 있습니다. 늘 생각하면 그저 공부가 부족한 것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런 것도 나이가 들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스님의 나이 37세에 처음 변경 천녕사에서 원오 선사를 참례하고 겨우 40일이 지났는데 하루는 원오 선사가 당을 열고[開堂(개당)]설법을 할 때 어떤 스님이 운문스님에게 묻되 ‘어떤 것이 모든 부처가 나온 곳입니까?’** 행장은 고전으로 원래 서장 육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장은 네 가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이 앞에 소개가 됩니다. 첫째, 성불의 문제. 이것이 諸佛出身處(제불출신처). 모든 부처가 나온 곳.  “부처가 어디서 나왔나?” “성불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입니다. 말 바꾸면 “어디가 부처가 나온 곳입니까?”하는 말은 “성불 이란 뭡니까?”이 뜻이거든요.

“부처가 됐다는 뜻은 뭡니까?”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불교 상식 가지고, 아니면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나름대로 대답이 있을 거예요. “아, 금강경에 보니까 제불과 제불 아뇩다라삼먁삼보리법이 皆從此經出(개종차경출). 다 이 경에서 나왔다고 하더라.” 금강경 읽은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대답도 얼마든지 있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문스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문스님 수준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대답이 그래요. “동산이 물위로 간다.” 동산수상행. 이렇게 되죠. “어떤 것이 모든 부처가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제 소견으로 말을 바꾸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조계사 회관에 앉아서, “서울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묻는다면 ‘저 스님이 돌았나?’ ‘정말 몰라서 묻는가? 누구 놀리려고 묻는가?’ 아니면 ‘저렇게도 모를까? 서울을 저렇게도 모를까?’ ‘벌써 서울에 들어 온지가 언젠데, 서울 하고도 종로 한 복판인데, 여기서 서울을 묻다니?’ 이 질문하고 같아요. “어떤 것이 부처가 나온 곳입니까?” 한 마디로, 묻는 그 사실이 부처의 작용입니다.

부처가 아니면 물을 수가 없어요. 부처 아닌 존재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위대한 존재지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부처가 부처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서울이 어디입니까? 하는 질문하고 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문스님이 보기에 되도 않는 소리를 해 버린 겁니다. “동산이 물위로 간다.” 산이 물위로 간다. 그 질문이나 저 질문이나 이 대답이나 그만그만 해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풀어주니까... 엉터리로 풀어주니까... 여긴 풀자고 앉았습니다. 이해하세요. 아까 경전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에 일체제불이 이경에서 나왔다. 개종차경출. 그랬다고요. 이 경은 뭔가? 물론 문자반야라고 해서 글자로 된 경전도 이 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우리가 請法(청법)할 때 그래요. 此經甚深意(차경심심의) 大衆心渴仰(대중심갈앙).“이 경전의 깊고 깊은 뜻을 대중들이 목말라 듣고 싶어 합니다.” 할 때 이 경전입니다.

그것은 종이로 된 經典(경전)을 펴 놓고는 있지만 사실은, 다 짐작하고 있는 경전. 그러나 指稱(지칭)할 수는 없는 경전. 그저 이심전심으로 아는 경전입니다. 그 정도는 여기 있는 분들도 느끼고 알지요. 바로 그 경의 도리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此經甚深意. 이 경전의 깊고 깊은 뜻을 법사님께서는 잘 해설해 주십시오. 대중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까짓 종이로 된 경전. 그거야 글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데요. 그것이 아니죠.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我有一卷經(아유일권경)하니. 나에게 한권의 경이 있으니 不因紙墨成(불인지묵성)이라.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展開無一字(전개무일자). 종이와 먹으로 되어 있으면 펴면 글자가 있을 텐데, 종이와 먹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펴봐야 아무 글자 없어요. 그러면서 常放大光明(상방대광명)입니다. 제가 좀 저질스런 소리하면 ‘에이 스님, 창피하게 저런 소리 하고 있다.’ 벌써 속에서 광명을 놓고 있어요. 찌푸린 광명을 놓고 있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 그냥 하하하 하면서 그 나름의 광명을 놓고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요? 참 신통방통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웃고 울고, 화내고 슬퍼하고,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神(신)이 있다면 그 보다 더 위대한 신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있다면 그 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부처님이 있다면 그 보다 더 위대한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서론에 인간불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간불교를 알아야 됩니다. 행장의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신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다. 天寧(천녕) 이라는 것은 원오스님 자신이거든요.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집에 서늘한 기운이 생긴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야 집에 서늘함을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그야말로 저절로 그러함입니까? 이것이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아무 흔적도 없는 겁니다. 諸佛出身處(제불출신처). 모든 부처님이 나오신 곳.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나오신 곳. 서산스님의 오도송 중에 昨夜松潭風雨惡(작야송담풍우악) 魚生一角鶴三聲(어생일각학삼성)이라. 지난밤에 비바람이 아주 심하게 몰아쳤어요. 새벽에 깨어보니까 그 못에 고기들이 저 한곳에 모여서 헤엄치고 놀고 있더라.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털끝 하나도 조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불출신처. 부처가 나온 곳. 아니, 부처 그 자리. 당체. 지금 기침하고 기침 나오는 그 사실입니다. 아프면 아파하고 죽으면 죽고, 이상한 것은 절대 외도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소견이지 그것이 정법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친구가 죽을 때, ‘나는 거꾸로 서서 죽어야 되겠다.’ 딴에는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비구니로 있는 누나가 와서 “이 자식은 살았을 때도 골치 썩히더니 죽어서도 골치 썩힌다고... 욕을 퍼 부어 버리니까 ‘아이고 못 말리는 우리 누님 왔다.”고 그러면서 스르르 넘어졌어요. 거꾸로 서 있으면 장례를 어떻게 치루라고... 죽을 때 되면 고이 누워서 죽는 것이 부처예요. 그것이 산부처예요. 그것이 진짜 부처라고요. 안 죽으면 몰라요. 천 년 만년 안 죽고 있으면 봐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왕 죽을 바에는 고이 죽지, 거꾸로 죽고 앉아서 죽고... 앉아서 죽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억지로 앉히기도 하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냥 여기 脫俗(탈속)해야 돼요. 俗氣(속기)가 없어야 돼요. 그거다 속된 생각입니다. 저절로 그러 해야지요. 자연스러워야지요.

우리가 선을 공부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스럽다는 견해. 그렇다고 아주 범속한 상념에 젖어있는 것들을 다 벗어난 사람의 삶이예요. 선은... 그 삶을 얼마나 제대로 살 것인가 그 방편으로서 간화선. 화두가 필요한 것이죠. 좌선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재미있고, 이것이 좋고, 이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여기 모였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집에 서늘한 기운이 생긴다.’** 얼마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지난밤에 풍우가 몰아치면 고기들은 저 못가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비가 오면 고기들은 한 쪽으로 모이거든요. 큰물 지면 고기들은 한 쪽으로 모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뭐가 이상할 것이 있습니까? 거기는 한 점의 티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는 한 점의 티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혜스님은 그 말을 듣고 홀연히 앞생각 뒷생각이 끊어지니 원오 선사가 그로 하여금 擇木堂(택목당)에 머물러서 조금도 시중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전심으로 保任(보임)케 하였다.** 그대로 잘 간수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깨달았지요. 이 분이 여러 번 깨닫습니다. **대혜는 그 뒤에 원오 스님이 방 가운데서 어떤 스님에게 ‘있다는 의미와 없다는 의미가 칡이 나무를 의지한 것과 같다.’는 화두를 물은 것이다.** 이것이 행장에 있어서의 두 번째 문제. 有(유)와 無(무)의 문제. 있음과 없음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있다 없다도 있음과 없음의 문제이고요. 명예가 있다 없다도 있음과 없음의 문제이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있음과 없음의 문제이고요. 모두가 헤어짐도 있음과 없음의 문제이고요.

모든 관계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유. 무입니다. 있음과 없음의 문제. 있다는 의미와 없다는 문제가 **칡이 나무를 의지한 것과 같다.** 참 표현 잘해 놨네요. 칡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요? 그러면 나무 따라서 칡은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있음과 없음은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내려와야지요. 저도 올라왔으니까 내려가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왔으니까 나가야 돼요. 이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나무와 칡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존재의 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없는데도 치우쳐서는 안 되어요. 그런데 있는 것을 잘 살려야 됩니다. 있는 이것이 妙(묘)입니다. 없는 것이 묘가 아니고요.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공부했지만, 무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 다 없고, 색성향미촉법 다 없다.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말하고 듣고 보고 있잖아요? 웃고 울고 화내고 싸움박질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있는 것이 묘라고요. 이것을 잘 살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까?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음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서양에서 선을 공부라는 리차드칼슨 같은 사람들은 “이 유리컵이 깨어진 것으로 보고 사용 하라.” 반야심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아요. “컵이 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 하라.” 서양 사람들 표현을 참 잘 해요. 우리는 그것을 뜯어서 푼다고 緣起(연기)가 어떻고 中道(중도)가 어떻고 그러지요. 컵이 깨어져 있는 줄로 알고 사용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줄 알고 살자 이겁니다. 그것이 납득이 되면 끝이에요. 그것이 납득이 되면 해탈입니다. 걸릴 것 없어요. 당당해요. 하나도 겁날 것 없어요. 이미 죽은 몸인데요. 제가 한번 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번 죽어보니까 이미 죽은 몸으로 알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저 스님 아프고 나더니 영 공부가 달라졌다.” 고 그래요. 실지로 달라져요. 왜냐? 죽은 몸이니까요. 서양사람 표현이 참 멋지잖아요. 반야심경 한 편을 “컵이 이미 깨어져 있는 줄 알고 사용하라.” 이래 버려요. 이 몸이 죽은 줄 알고 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몸에 딸려 있는 수많은 부속품들. 부속품 많지요? 첫째 돈이 있을 것이고,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명예가 있을 것이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자기 방도 있을 것이고, 소지품도 있고, 안경도 있을 것이고, 연필도 있을 것이고, 전부가 명예니 돈이니 권세니 아내니 남편이니 자식이니 부모니, 전부가 내 이 한 몸에 딸려 있는 부속품입니다. 전부가 부속품이라고요. 몸이 죽었는데 나머지 부속품이야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몸이 죽어 자빠졌는데 나머지 부속품이야 문제될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 있음과 없음의 문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행장에서 꼭 유의해야 할 것이, “부처란 뭐냐?” 그 문제하고 “있음과 없음의 문제” 있다는 의미와 없다는 의미가 **칡이 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는 화두를 묻는 것을 들었다. 대혜 스님이 드디어 묻기를 “듣건대 화상께서 5조스님 회상에 일찍이 이 화두를 물었다고 하니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오 스님이 웃고 대답하지 아니하니 대혜 스님이 말하기를 “이미 대중들 앞에서 물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원오 스님이 마지못하여 이르기를 “내가 5조에게 묻되 있다는 의미와 없다는 의미가 칡이 나무를 의지한 것과 같다는 뜻이 어떠합니까?” 하니, 5조가 말하기를 “그 관계의 미묘함을 본뜨려 해도 본뜰 수 없고 그리려 해도 그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설명은 합니다.

모든 존재의 연관관계성을 설명은 하지마는 한 마디로 똑 떨어지게 이야기는 안 되잖아요. 선의 묘미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처럼 너절하게 길게 실컷 설명해 놓고도 설명이 부족해서 불만스러워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이 선의 묘미입니다. **본뜨려 해도 본뜰 수 없고 그리려 해도 그릴 수 없다.** 이래버리면 되는 것을 그렇게 뭣이 어떻고, 뭣이 어떻고 내가 있음으로 네가 있고, 네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음으로 이것이 없다. 별별 소리를 다해도 그만 안 되는 겁니다. 정곡을 찌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묻기를 **“칡이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는데 나무가 넘어지고 칡이 마를 때는 어떠합니까?”** 서로 관계가 다 떠났다. 그럴 때는 **“어떠합니까?”** 하니까 **5조가 말하기를 “서로 따라 온다.”** 같이 다 죽지요. 서로 따라 오지요. **선사가 그 자리에서 환하게 깨달았다.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 원오가 여러 가지 인연에 대하여 차례로 힐문하되, “여러 가지 인연에 대하여”** 라는 이 말은 과거 조사 스님들이 어떤 법을 들어 보인다. 한 마디로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였는데 왜 꽃을 들어 보였는가? 네가 한 번 일러봐라. 이런 것들이 인연입니다. 이것을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니까 환하게 다 대답 하더라 이겁니다.

一通一切通(일통일체통)이니까요. 하나 통하면 다 통합니다. 어디는 통하고 어디는 못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힘이 없거늘 원오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속이지 못하겠구나.” 고 하며 臨濟正宗記(임제정종기)를 부촉하고 그로 하여금 記室(기실)을 관장하게 하니, 대혜 스님이 이에 원오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얼마 안 되어 원오가 蜀(촉)으로 돌아가니 대혜 스님은 이에 지취를 숨기고 암자를 지어 거처했다. 뒤에 虎丘寺(호구사)에서 여름을 보내며 화엄경을 보다가 제7지 보살이 無生法忍(무생법인)을 얻는 자리에 이르러 湛當(담당) 스님이 보인 바 앙굴마라가 바루를 가지고 아이 낳는 부인을 구제하는 인연을 홀연히 환하게 깨달았다.**

이상한 일이 스승에게서 완전히 깨닫고 화엄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여기 사대부 중에 제일 첫째 증시랑에게 보내는 편지에 화엄경이 상당히 장황하게 이야기됩니다. 깨닫고 나서. 또는 “참선 한다.” 하면 그냥 참선 일변도로 경전이나 어록은 다 무시해 버리고, 그거다 모르고 귀찮아서 하는 소리지요. 그렇게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선사는 선과 교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역대 어느 선사가 선과 교에 막힘이 있었습니까? 육조스님이 무식한 분으로 출발 했지만, 나중에 법문 하는 데는 경전을 수십 가지를 인용하거든요. 수십 가지 경전을 인용한다고요.

보십시오. 이렇게 깨닫고 화엄경을 열심히 봤어요. 그 전에도 물론 많이 보신 분인데 그렇게 했고... 화엄경을 보시다가 우연히 엉뚱한 앙굴마라 화두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앙굴마라는 부처님 당시 다른 종교를 믿어서 살인을 많이 했잖아요. 살인을 많이 했는데 그 살인은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을 잘 지어야 돼요. 살인의 기운이... 그냥 상당히 감동한 겁니다. 그 때는 잡아 가두지도 아니 했는지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99명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처형도 안 시키고 잡아 가두지도 않고 내버려 뒀을까요? 중으로 돌아다니게... 말도 아니죠. 이야기인즉슨 그렇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살인의 기운이 감도니까... 어느 집에 탁발을 가니까 마침 산모가 있었어요. 그 살인의 기운 때문에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 부모는, 스님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앙굴마라는 부처님 뛰어왔어요. “내가 어느 집에 탁발을 갔는데 이러이러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나 보고 해결해 달라는데 부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알거든요. 저 사람은 살인을 많이한 사람이라 항상 살인의 기운이 감도는데 아무나 모르지요. 몰라요. 트릿 해서 알 수가 있나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는 거죠. 어린아이는 천연자연 그대로 아닙니까? 비록 뱃속에 있어도 온 대지의 기운을 다 느끼고, 누가 지나가는지 말이 지나가는지 소가 지나가는지 살인자가 지나가는지 그냥 느끼고, 10리밖에 있어도 다 느낍니다.

그 “氣(기)” 라는 것이요. 우리가 못 느끼고, 못 보고 내 자신이 트릿 하니까 못 느껴서 그렇지, 일체가 다 그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운이 어린 아이니까 정말 맑으니까요. 뱃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살인자가 밖에 있는데... 못 나오지요. 그래 부처님이 가르쳤잖아요. “나는 부처님을 만난 이후로 한 사람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이 말만 네가 해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크게 “나는 부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참회가 다 되고, 그 기운도 사라지고, 기운이 사라지니까 아이가 순산 했다. 아주 극적인 이야기지요. 아이 밴 어머니는 김치쪽도 반듯하게 썰어지지 않으면 안 먹고, 김도 반듯하게 썰어지지 않으면 안 먹는 우리 선조들의 태교법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험한 것 안 보고 안 듣고, 그 가까이 안 가고, 뻔히 다 아는 일입니다 그것이... 살인을 99명이나 한 사람이 왔는데 그 기운이 오죽 했겠어요? 어쨌든 화엄경 보다가 그 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참선하다가 깨달았는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사후의 문제. 죽음과 사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장 대 강좌 제 1 - 4 강

**조칙으로 쌍경사에 머물게 되었는데 하루는 윈오의 訃音(부음)이 왔다.** 은사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왔다는 말입니다. **선사는 스스로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그렇지요. 꼭 거기까지 안 가도 스승이 돌아가셨다면 스스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 小參法門(소참법문)이지요. 저녁에 법문을 하는데, 자기도 한 회상을 가지고 있고, 또 제자들도 많은데 자기 법사 스님이 열반 하셨다는데 한 마디 없을 수가 없지요. 불교는 이 生死解脫(생사해탈)의 문제가 제일 과제입니다. 생사해탈이 제일 과제라고요. 깨달음도 생사해탈을 위한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과 생사해탈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一大事因緣(일대사인연) 이 일. 그냥 이 일이라고 그래요. 이 일하면 깨달음. 그리고 생사해탈. 이 문제가 다 포함 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문제를 이 기회에 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정말 야무지게 들으시기 바래요. **어떤 스님이** 장사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장사 스님에게 묻되 ‘남전 스님이 돌아가심에** 남전 스님도 아주 훌륭한 스님입니다. 개인 인적사항은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하시고. 스님이 돌아가심에 **어디를 향하여 갔습니까** 중요한 문제지요.

남전 스님 가신 것은 놔두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를 향하여 갔습니까? 경전에 혹시 나와 있는 이야기 없어요? 우리의 제일조사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서 어디를 향해 갔는가? 이것을 누가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장사가 대답하기를** 여기 대답이 나옵니다. **‘동쪽 마을에서 노새가 되고 서쪽 마을에서 말이 되었다.’ 고 했다.** 이것은 도 잘 닦은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축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축생이 되었다는 표현이지요. **그 스님이 묻기를 ‘그 뜻이 뭡니까?’ 하니까 장사 스님이 대답하기를** 축생이 되었으니까 **‘타고 싶으면 타고 내리고 싶으면 내린다’고 하였다.** 축생은 그렇지요. 타게 되면 타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축생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죽음과 사후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행장에서 짚고 있어요. 네 가지 인데... **경산 같으면 곧 그렇지 않겠다.** 경산은 대혜 스님 자신이죠. **만약 어떤 스님이 묻되** 자기 법사스님. **‘원오 선사가돌아가심에 어느 곳을 향하여 갔는가?’** 사찰에서는 이런 식이 관례입니다. 누가 죽으면 그 죽음의 근본을 들춰서 제대로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한수 더 뜹니다. **‘아비지옥을 향하여 갔다.’** 자기 법사스님이 **아비지옥을 향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법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비지옥에 갔으니까 **‘배고프면 구리를 먹고 목마르면 쇳물을 마신다.’고 하겠다.** 지옥 생활이 그거니까요. 지옥에는 쌀로 밥하는 것 필요 없어요. 그것이 안 통해요. 지옥에서는 이것이 밥입니다. 끓는 구리물. 끓는 쇳물이 지옥의 식사라고요. 당연지사입니다. 너무 평범한 일이라고요. 또 저 앞에서 축생이 됐다. 소나 말이 되었을 때 타게 되면 타고, 짐을 싣게 되면 싣고, 그냥 가게 되면 그냥 가는 이것이 보통 축생의 삶입니다. 축생의 당연짓입니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똑 같습니다.

**‘도리어 구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 고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 늙은이(원오스님)의 일상에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다.’하겠다.** 이것이요.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우리 불자가 이 생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데서 견해를 확실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느 사찰에서 신도회장님이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큰스님, 어떤 큰스님. 그때 큰스님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스님이 돌아가신지가 벌써 몇 십 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교화를 한다느니 어쩌느니 그렇게 하는데 그 스님 지금 어디서 태어났느냐? 과거에 수많은 도인들이 지금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내가 교화를 하노라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묻더라고요. 지금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생소급 하는 최면술 걸어서 비정상적인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견강부회해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선의 7대 정신이 있었지요? 저절로 그러함이에요.

저절로 그러함이 선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위대함입니다. 죽어서 없으면 죽어서 없는 대로입니다.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인연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지금 알 바가 아닙니다. 글쎄 그것을 알면 우리 생활이 조금 달라질까요? 그것을 알아서 생활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가지고는 크게 보탬이 안 돼요.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축생이 되고 지옥에 갔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도인이 죽어서 축생이 되어 지옥에 갔다. 이대로 있는 액면대로 우리가 봅시다. 축생도 되고 지옥에 갈 수도 있지요. 가서 그렇게 살면 그냥 그 사람의 삶입니다. 축생이 되어서 살아도 그 사람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 아이고 축생이 되면 되느냐고 그렇지요. 축생이 되어 보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또... 그대로 살만합니다. 그대로 살만 하다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 하니까 그것이 이상하지요. 지옥도 살만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아주 고통스럽고 힘 드는 것 같지요. 기존의 지옥이라고 하는 관념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선도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별의별 방편의 말이 많지만...

사실은 이 입장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입장에서 가차 없이 표현 한다면, 지옥의 삶도 그 나름의 삶이요. 축생의 삶도 그 나름의 삶이요. 성인의 삶도 그 나름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석가모니 같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될 필요도 없고 되지도 않고요. 各者(각자)의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불이라고요. 모두가 여기 올라와서 저처럼 강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치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임을 받았으니 이 소임 다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앉아서 들으면 듣는 역할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완전무결 하지요. 완전무결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저 혼자라고 생각 하니까 세상 편하더만... 아파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아픈 것이다. 비교 않으니까... 건강할 때도 비교 안하고, 다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비교 안하고 전부 다 놓아 버리니까요. 놓아 버리면 놓아져요. 전부 다 놓아 버리니까 아주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나 혼자라고 하는 사실. 진짜 혼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혼자라서 외롭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완전히 혼자. 절대적인 경지에 들어가면 외롭고 그런 것 없어요. 말을 하자니 편하다고 그러지, 편한 것도 아니지요. 안 편한 것은 더욱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민감한 문제이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불교를 접하면서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물었을 것 아닙니까? 과거부터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는 데로 갔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온데가 어디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전설에 의하면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전설의 이야기고요. 온데로 갔다는 말은 정답은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어디로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이야기면서 중요한 이야기이고, 여기 있는 대로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절대 달리 설명 아니 해요. 그것이 세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귀양살이를 상당히 했어요. 제가 대혜 스님께 부러운 점이 부처님 신도보다도 당시의 지성인들. 정말 최고의 지성인들을 거의 망라해서 대혜 스님 신도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하고도 휩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5년 동안 귀양살이도 했던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15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고나서 돌아왔습니다. 효종원년에 명월당에 있었는데, 하루 저녁에는 대중이 별 하나가 절 서쪽으로 떨어지는데, 그 흐르는 빛이 밝은 것을 보았다. 대혜 스님이 微疾(미질)을 보이다가 8월 9일에 대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내일 갈 것이다.” 하더니, 이날 저녁 五鼓(오고)에 손수 임금께 드리는 글을 쓰고 아울러 대중에게 뒷일을 부탁하였다.** 이것 보세요. 당신이 돌아가시며 임금께 글을 써야할 정도로 사회적인 비중이 높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대부들. 최고의 지성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고 그 들을 가르치고 교화 했다고 하는 것 참 누구도 이런 스님은 없었어요. 신수 스님 같은 이가 다섯 명의 천자의 존경을 받았어요. 王師(왕사) 같이 모셨어요. 그런 존경을 받았어도 대혜 스님 같은 이런 신도는 없었어요. 대혜 스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요현 스님이 게송을 청하니 선사가 크게 써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열반송의 문제입니다. 행장에서 네 가지 문제를 제가 짚었는데 마지막으로 열반송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이런 명 열반송이 없습니다. **生也祇麽(생야지마)며 死也祇麽(사야지마)어늘 有偈無偈(유게무게) 是甚麽熱(시삼마열)고.** 사는 것도 그저 그렇고 죽는 것도 그저 그렇다.  게송이 있든 없든 뭘 그리 마음 쓰는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熱자는 마음 쓰는걸 말하는 겁니다. 안달 하는 것. 게송이 있든 없든 뭘 그리 마음 쓰는가? 요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이 스님, 우리 체면도 있지 열반송(임종게) 하나 남기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장례식 할 때 써 붙일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 때도 있었는데 이건 지금도 계속 있네요. 지금도... 없으면 조작빼기로 지어서라도 붙여놔요 또... 열반송이다 해서 그거 짓느라고 어떤 장례식에 가면 저 보고 지어 달라고 생혼이 나는 수도 있고 그래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때에 8백 몇 십 년 전에 요현 스님이라는 이가 다 죽어가는 스님보고 게송하나 써 내라고, 써 내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대혜 스님 통장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가?... 통장이라도 가지고 있었고, 밭문서 집문서라도 가지고 있었던가 뭘 그리 얻어 내려고 졸라요? 그 쯤 되면 삶이라는 것도 그저 그렇고, **祇麽**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죽음 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그런 겁니다. 이 순간에 와서 삶이니 죽음이니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속품. 그야말로 딸린 부속품 중에서도 눈에 띄지도 않는 부속품. 그 까짓 것 열반송 그것 하나. 게송이 있든 없든 뭘 그리 안달 하느냐? 내가 지금 숨을 거둘 판에... 뭘 그리 내 놔라고 하느냐? 참 근사 하지요? 참 멋집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열반송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라는 열반송이 있어요. 그것이 왜 생겼느냐? 스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상좌들이 여럿이 모였어요. 가장 가까운 상좌 보고, 네가 열반송 하나 얻어 내라, 얻어 내라고 옆에서 자꾸 조르니까 지키고 있어요. 뭐 나오기를 기다리며 지키고 있는데, 거의 돌아가실 무렵입니다. 옆에 다른 제자들이 물었어요. “야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얼른 외워서 스님 열반송이 “아무 말이 없어” 하하하하 근사하지요? 그런 열반송도 있습니다. 게송 써내라니까 지금 죽기 바쁜데 언제 말할 겨를이 있나요? 그래 아무 말이 없거든요. “아무 말이 없어” 이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라고 했는줄 알고는 “아무 말이 없어”라고 했다고... 열반송의 문제 재미있지요? 우리 집안에 아주 특유한 풍속이면서도 재미있고, 또 좋은 일입니다. 저는 아까 죽었다가 살았다고 했으니까 저도 열반송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문득 하나 지었어요. 아예 오늘 공개 해 버리지요. 죽는 거야 언제 죽든지 그 까짓것 상관있나요?

육신이라는 장난감. 그 동안 잘 가지고 놀았다. 이제 버리고 간다. 시자야 그만 갖다 태워라. 이것이 저의 열반송입니다. 괜찮지요? 이거요. 죽을 고비 안 넘기면 이런 말 못해요. 나중에 진짜 죽을 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못 쓰니까 하하하 못 쓰니까 지금 미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 놨으니까 저의 열반송을 못 찾아서 애 먹지는 않겠지요. 이렇게 하고 **75세 법랍 58년에 돌아가셨지요. 임금이 애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시호를 내리기를 普覺(보각)이라 하고 탑명은 普光(보광)이라고 하였다.** 이 스님의 어록이 80권인데 대장경 속에 들어가요. 대장경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유행하게 됐고, 이 서장은 워낙 우리 공부 지침서로 뛰어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출간이 됐고, 그것이 멀리 가지도 않고, 당나라를 거쳐서 송나라 때니까 교류가 빈번한 때 이므로 지금부터 불과 8백 4~50년 된 때이니까요. 바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서, 보조 스님께서 이것을 스승으로 또는 벗으로 삼고, 정혜결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오늘 이 순간 까지 아주 최고의 선불교! 선불교 지침서의 원조로 이렇게 인기가 높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선불교의 바른 길을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것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교재로 선택 했습니다.

                                                                         1강 끝

http://cafe40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Gh8I&fldid=Kk4p&contentval=0000K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BD%C3%B9%CE%BC%B1%B9%E6&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서장 대 강좌 2 - 1 강

지난 시간 행장을 통해서 불교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접해야할 네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諸佛出身處(제불출신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성불 하십시오.” “성불 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듯이 성불이란 우리 불자들의 지상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불의 문제. 이것을 물론 각자의 공부. 각자의 살림살이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겠지만,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있음과 없음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있고,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다시말해서 있음과 없음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死後(사후)의 문제. 열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과거 조사스님의 죽음을 통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열반송의 문제. 열반송을 하나씩 지어 보라고 했는데, 지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왜 看話禪(간화선)인가?** 하는 이 타이틀로 오늘도 서장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 동안 왜 看話禪인가? 하는 이 말에는 많은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간 숱한 불교 많이 접해 왔습니다. 기도도 해 봤고, 경도 읽어 봤고, 복도 빌어 봤고, 관세음보살도 불러 봤고, 지장보살도 불러 봤고, 숱한 불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불교로서는 성이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불교. 최고의 불교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쉽게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불교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모였다.’ 불교의 고수는 바로 인생의 高手(고수)라고 쉽게 정례 를 해 봅니다.

교재 41쪽 **대혜보각선사서.**

**1. 증시랑 천유가 질문하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듯이 여기는 수많은 사대부들이 희대의 대선지식 대혜 스님에게 편지로 서신왕래를 통해서 불교를 질문하고, 선을 질문하고, 인생사를 질문하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불고계의 최고의 고수들! 승려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스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그래도 대다수가 거사분들. 보살님들이 모이셨습니다. 당시 그야말로 불교계의 최고의 고수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고수들만 대혜스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지식에게 불교와, 인생사, 세상사를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증시랑 이라고 하는 이분은 시랑 벼슬을 한분인데 6부중에 하나를 맡은 호구시랑. 이부시랑. 예부시랑. 병부시랑. 형부시랑. 이렇게 6부가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직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맡았든 종三품 벼슬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지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장관에 해당되는 분인데요. 이분이 질문한 편지입니다. 질문한 편지는 불과 세 편밖에 안 됩니다. 질문한 사람의 내용을 알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혜스님이 어떻게 법문을 하셨는가가 우리의 관심사니까 대혜스님의 답을 중심으로 우리 교재가 짜여져 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동물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생명을 그냥 유지하는 단순한 삶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但念水草(단념수초)요 餘無所知(여무소지)라. 그랬어요. 다만 생각하는 것이 오직 먹고 마시고 할 것. 水草. 물과 풀만을 생각한다. 그 외에는 생각 하는바가 없다고 하는 이런 신란한 표현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을 두고 하는 소리 같지만, 사실은 동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뭔가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 하는 마음에서 불교를 찾았고, 또 시시한 불교는 재미없다. 좀 더 나은 불교. 차원이 다른 불교가 없을까? 그런 마음에서 선불교. 그 중에서도 이 간화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다행한 일이고, 당연히 이렇게 좋은 강당에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왜 이제야 이런 좋은 강당에서 하는지 내 참 궁금하구만...

이 편지는 1134년에 대혜 스님으로서는 46세에 민중 예양산에 있을 때, 서신 편지로서는 처음 보내게 된 질문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대혜스님이 그 때부터 편지로서 교화를 펴기 시작하고 당신의 사상을 선양하기 시작하고 엮어가게 됩니다. **제[開]가 옛날 장사라는 땅에 있을 때 圓悟老師(원오노사)의 편지를 받았는데, 스님에 대하여 칭찬하시기를 ‘늦게 서로 만났으나 얻은 것이 매우 기특하고 훌륭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원오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앞에 행장에서도 보았듯이 대혜스님의 스승입니다. 늦게 만났지요. 상당히 나이가 서로 들어서 만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증시랑, 천유. 이 분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알고족인지 그 당시 선지식들을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대혜스님의 스승인 원오스님도 찾아뵙고 법문을 많이 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당신 제자인 대혜스님을 천거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당신을 칭찬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을 생각한 지가 이제 8년이 되었으나 직접 법문을 듣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오직 간절히 공경하고, 우러러 바라볼 뿐입니다.** 처음 편지를 보내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사연을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분은 벼슬을 하면서도 불법에, 인생에 있어서 보다 더 차원 높은 뜻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야말로 물과 풀만을 생각하고, 그 외에는 아는 바가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마음을 내어 선지식을 참례하고 이 일을 물었으나 弱冠(약관)의 나이가 된 뒤에는 곧 혼인하고 벼슬하는 일에 쫓겨 공부를 하는 것이 순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물었으나’** 하는 이 말이 자주 나오는데, 간단하게 불교라고 해 둡시다. 불교에 대해서 물었다. 불교라고 하면 복잡하지요. 解脫(해탈)의 문제. 成佛(성불)의 문제. 生死大事(생사대사)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이일**이라고 표현 합니다. **그럭저럭 노년에 이르렀으되 들은 것이 없어서 항상 부끄럽고 한탄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살아온 것과 소감을 간략하게 표현했지요. **그러나 뜻을 세우고 願(원)을 세운 것은 실제 얕은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그만이겠습니다만, 깨닫는다면 모름지기 바로 古人(고인)이 친히 깨달은 곳에 이르는 것이 바야흐로 크게 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접했으면, 좀 더 나은 차원의 불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절에 다닌지, 또 불교에 출입한지 2년 3년 된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안 되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되었어도 처음 당신이 상상하고, 당신이 그려놓고, 당신이 절에 올 때 보자기에 싸온 그 불교를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 불교를 40년 50년하고 있습니다. 그 불교를 안고 돌아가실 겁니다. 그 점이 참 안타까워요. 당신이 낳은 아이들은 얼마나 잘 성장합니까? 잘 자라지요. 유치원 나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다가 온갖 과외를 다 시켜가면서 빨리빨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눈을 높이 뜨고,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사.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직결 되어있습니다.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처음에 싸다니던 그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불교. 절에 오기 전부터 싸다니던 그 불교. 절에 와서는 그 불교 펴놓고 한참 자기 나름대로 뭘 하다가 그냥 또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서 집에 갖다 놨다가 또 절에 올 때는 그 보따리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스님들의 법문이 귀에 들어갑니까? 경전의 강의가 귀에 들어갑니까? 강의 한다 해도 관심 없어요. 설법을 해도 관심 없어요. 자기 불교가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데 무슨 다른 불교가 들어가겠습니까? 폭우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요? 물 한 방울 고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가랑비에도 물이 고여요. 우리 마음 자세가 그와 같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 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지만,깨닫는다면 모름지기 고인이 친히 깨달은 곳에 이르는 것이 바야흐로 내가 크게 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깨어난 인생을 살고 싶다하는 그런 말로 대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비록 한 생각도 물러나지 않았으나 공부가 끝내 순일하지 못함을 自覺(자각)하니 뜻과 원은 크되 힘이 작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志願大而力量小(지원대이역량소). “뜻과 원은 크지만 내 힘이 작습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옛날에 원오 노사께 매우 간청하였더니 노사께서 法語(법어)의 여섯 단을 보이셨습니다.**법어를 여섯 단락을 보이셨는데 **그 처음은 바로 이일을 보이시고, ‘이일’** 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바는 없으나 그냥 **‘이일’** 이라고 표현 하면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뒤에는 운문, 조주 스님의 방하착과 수미산 두 인연을 들어서 둔한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간화선의 냄새가 나기 시작 합니다.

운문 스님은 수미산이라고 하는 화두를 냈고, 조주 스님은 방하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알듯 말듯한 큰 스님들의 말씀이 비로소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심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평생 천근 만근의 무게로 짊어지고 다니면서 끙끙대고 있습니다. 지금 하안거 중이죠. 스님들이 2200명 결제하고 계시고, 또 일반불자들이 한 만 여명 선방에서 이런 화두를 들고, 끙끙대고 좌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한두 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운문 스님은 수미산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가? 뒤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 했을 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허물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는 허물도 없고 복도 없어요. 아예 허물이니 복이니 할 것이 없어요. 생각을 일으킴으로 해서 생긴 것이니까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 했을 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으니까 수미산이라고 대답했어요. 혹자는 “수미산처럼 많다. 네가 그 질문을 한 것이 벌써 이미 한 생각 일으킨 것이고, 한 생각은 두 생각, 세 생각, 열 생각, 백 생각, 천 생각, 만 생각이 따라오니까 수미산처럼 많지 않으냐?” 이렇게 풀이도합니다. 영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간화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지요.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운문 스님만이 압니다.

조주스님이 ‘방하착’ 했는데 “一物(일물)도 不將來時如何(부장내시여하)닛꼬?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아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내려놓아라.” 이랬어요. 그것이 ‘방하착’입니다.= 내려놓아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아니 했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려놓기 싫거든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것도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공부가 되지, 이것을 저처럼 이렇게 풀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됩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 했을 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산” 하면 거기에 그만 은산철벽이 돼서 꽉 막혀버려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世智辯聰(세지변총)이 발달해서, 세지변총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속된 지혜만 그저 끝없이 발달해서 이 내용 모른 사람 없어요. 어지간히 불교 했다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또 放下着(방하착)도 그렇지요.“한 물건도 가져오지 아니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려놓아라.” 벌써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아니 했다고 하는 그 말은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 무슨 손에 들고 온 것만 물건이냐?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 겁니다. 하하하 그냥 “내려놓아라.” 하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하착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조주스님과의 대화를 떠나서 불교의 명구중에 아주 명구입니다. “내려놓자” 사랑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따라서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마음도 좀 내려놓고, 내려놓는다고 다 내려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아이 그러면 허무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것이 空에 떨어질까 염려해서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허무하고 허전한 인생이 될까봐 차마 못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자식생각. 남편생각. 아내생각. 친구생각. 내 그동안 사회적으로 쌓아놓은 온갖 명성과 업적. 이런 것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서 못 내려놨다. 이런 인간 심리를 너무 잘 파악해서 뒤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내려놓는 것. 이것은 화두로서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삶의 지침으로도 방하착이라고 하는 말. 너무 좋습니다. 화두와 관계없이 이것은 꼭 우리가 지니십시오. 다른 것은 내려놓더라도 방하착만은 가지세요. **항상 스스로 惺惺(성성)하게 화두를 들어라.** 거각하라. **오래고 오래면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와 같건마는 둔하고 막힌 것이 지극히 심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 동안 제자하고 인연을 새롭게 맺게 되니까 스승에게서 들은 지도의 내용. 그리고 자기공부. 이것을 여기서 간단하게 피력을 한 대목이지요.

서장 대 강좌 2 - 2 강

**지금 다행히 집안의 세속 인연을 다 마치고 한가하게 지내며 다른 일이 없으니,** 여기도 모두 정년퇴직하고 이 분하고 비슷한 분이 상당히 많네요. 하하하 **스스로 채찍질해서 처음 뜻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15년 내지 20년쯤 늘어났고, 이제 할 일은 어디서 크게 받아주지도 않고 하니까 불교공부 뿐입니다. 그것도 나이 들어서는 복잡한 공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두 딱 하나들고, 다 털어버리고 통장도 하나로 집약 시키세요. 여러 통장 해 놓으면 어디 얼마 갖다 놨는지 어디 얼마 놨는지 몰라요.

이 看話禪(간화선)의 정신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요? 선의 정신은 簡素(간소). 그랬지요? 선의 정신은 첫째 간소에 있다. 간단하고 소박한 인생. 왜 화두만 들고 살라고 하느냐? 화두가 밥 먹여 주느냐?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다. 간단하고 소박한 깔끔한 삶이 너무 멋있어요. 그것이 인생 고수들이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채찍질해서 처음 뜻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친히 가르치심을 얻지 못함을 한탄할 뿐입니다. 일생 동안의 허물을 이미 하나하나 보여 드렸으니, 반드시 제 마음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자세하게 경계하고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청법과 지도편달을 당부 하는데, 소위 그 당시 중국 천하에 육부 장관을 지냈다는 겁니다. 종삼품 벼슬이라면 천하에 자존심과 아만과 긍지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청법을 합니다. 이 자세가 참 바람직하고 좋지요. 법에 있어선 이래야 되는 겁니다. **평소 마땅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다른 길에 빠지지 않고 바로 本地風光(본지풍광)과 서로 契合(계합)하겠습니까?** 本地風光. 無位眞人(무위진인). 참 나. 부처자리. 진여. 뭐라고 해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뭐라고 표현해도 답답해요. 답답할 뿐입니다.

임제스님이 이런 고급 불교용어들을 수없이 공부하다가 이것이 불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 다 제쳐놓고, 황벽 스님을 찾아가서... 황벽 스님 찾아가서도 3년 동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또 질문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냥 갑갑할 뿐입니다. 금방 소개한 고급 용어들을 수없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것은 말에 불과하고 그냥 사람들이 편의상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니까 갑갑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목주 스님의 안내를 받아서 “니 여기 온지 3년이나 됐는데 왜 여태 조실스님한테 가서 질문 하지 않고 그랬냐?” “뭘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너무 갑갑한 겁니다. “네가 불교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뭐가 불교입니까? 하고 물어라.” 그러니까 그 순진한 임제스님이 그대로 올라가서 “스님, 뭐가 진짜 불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있다가 -스님들 주장자 있지요? 아주 무겁고 굵고 그냥 우둘투둘해서 한 방만 맞아도 어디가 깨지든지 상처가 날, 그런 방망이 인데요. 무려 20방망이를 다짜고짜 후려 쳐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제일 아주 좋은 법문입니다. 그동안 본지풍광이 어떻고, 본래면목이 어떻고, 진여가 어떻고, 불성이 어떻고, 열반이 어떻고, 이런 쓰레기 같은 잡다한 용어들만 머릿속에 꽉 차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불교는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어릴 때 그것이 좋은 줄 알고는 불교사전을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했고, 대명법수라고 하는 상 하권으로 된 법수 책만 있어요. 그것은 숫자를 통해서 불교의 교리를 나타내는 그것이 법수인데요. 그것만 그냥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 했어요.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쭉 이렇게 설명 되어 있는 것. 그런데 지금쯤 제가 철이 나면서 그것이 불교가 아니고, 그것은 진짜 가짜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고, 여기 임제스님이 황벽스님을 만나서 20 방망이를 얻어맞고, 또 20 방망이. 또 20 방망이. 도합 60 방망이를 얻어맞고도 아무 소득이 없었던 그런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의 질문도 일종의 그런 질문입니다.

“무엇이 진짜 불교입니까? **바로 本地風光(본지풍광)과 서로 契合(계합)하겠습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본지풍광하고 계합하겠습니까?** 이것이 간화선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거거든요. **이와 같은 말도 허물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만 다만 정성을 바칩니다. 스스로 피하기 어려우니 진실로 가련하여 지극히 묻습니다.**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편지입니다. 이것은 대혜스님의 법문은 아니고, -서장 편집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러한 분의 질문하는 편지를 서두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비로소 대혜스님의 법문을 이끌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p. 46 2. 증시랑에게 답함 (1)**

증시랑에게는 여섯 편의 편지로 답하는 것이 실려 있습니다. 대혜스님이 여섯 번의 편지를 보냈을 때는 증시랑은 얼마나 보냈겠습니까? 줄잡아 열 번은 더 보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하는 편지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던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혜스님이 인용하는 글들이 있으니까 그 인용하는 글들을 보면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대혜 스님의 친서를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어릴 때부터 벼슬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큰스승을 찾아뵙다가 중간에 科擧(과거)와 婚姻(혼인), 벼슬하는 일 때문에 세속 생각과 습관에 빠져서 순수하게 한결같이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을 큰 죄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제주도에 처음 가서 원명사라는 절에 있었는데, 시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스님들 댓명하고 같이 나온 일이 있었어요. 나왔는데 술주정뱅이가 고함을 고래고래 치고, 그냥 헤집고 다니다가 우리를 보더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누가 꾸중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도 겁이 나서 피해야할 그런 입장인데,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광경을 제가 못 잊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서 사잇골목으로 도망 가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겠는데, 또 바람직한 태도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속 생활을 한 것.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이것이 큰 죄냐? 이 문제예요. 큰 죄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대혜 스님 말 한마디에 달렸어요. 천하의 대선지식 대혜스님 말씀이니까 이것은 큰 문제라고요. **큰 죄라 하였습니다.** 또 편지 속에 **無常(무상)한 세간이 여러 가지 허망한 환상[虛幻(허환)]이어서 한 가지도 즐길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리에 오신분들 세상사 어지간히 졸업하시고, 가끔 한 번씩 마음이 끄달릴 때도 있지만 어지간히 세상사 졸업했다고 봅시다. 거의 인생의 高手(고수)가 돼 가려고 하는 판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진짜 불교의 고수가 되고, 인생 고수가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열 번 준다 해도 그거 시시하게 보입니다. 대통령 열 번도 시시한데 그 까짓 것, 국회의원이니 장관이니... 사업 잘 해서 부자 된 것. 그것은 下手(하수)들이나 하는 것이지요. 장관이니 국회의원이니 대통령이니 무슨 그룹회장이니 하는 것은 전부 인생 하수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 정도는 알지요? 얼른 마음이 그렇게 다가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불자들은 그 쯤 안다고요. 알기는 아는데 아직도 갈등이 좀 있어요. 하하하 갈등이 있다고요. -우째 그리 잘 아노? 속을 환히 들여다본다 내가...이 분은 그래도 그랬어요. **모두가 허망한 것이라 즐길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대혜스님에게 했어요. **그 때문에 마음을 다 하여 이 一大事因緣(일대사인연)을 참구 하고자 한다 하시니 제 마음에 매우 흡족합니다.** 대혜스님 마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세상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스님에게 공부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제일 이쁘지요.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흡족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대사인연을 참구 한다.** 이것도 불법. 불교. 성불. 깨달음. 여기에 크게 벗어난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큰 인연] 그랬어요. 그것은 곧 법화경 같은데서는 “佛知見(불지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다.” 부처님의 지혜를 일대사인연이라고도 한다.**이미 선비가 되었기 때문에 봉급을 받아 생계를 해결해야 하고, 과거와 혼인과 벼슬살이도 세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신의 잘못이 아닌데, 작은 잘못으로 큰 두려움을 내었습니다.**

그렇지요. 세상에 살면서 당연지사지, 그거 뭐 죄라고 할 거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이 몸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면 세상의 관례에 따라서 교육 받아야 되고, 成人(성인)이 되면 결혼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자녀들 먹여 살리려면 어떻해요? 나쁜 줄도 알고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짓인 줄 모르고도 나쁜 짓 하고, 이래저래 더불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남 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 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대혜스님 법문은 또 다릅니다.

**시작 없는 오랜 세월부터 참된 선지식을 섬기고, 깊은 반야의 지혜를 익히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그렇지요. 여기 와서 이런 시간을 우리가 내는 이것이 부처님하고 또는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여기는 **오랜 세월부터 참된 선지식을 섬기고, 깊은 반야의 지혜를 익히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생각을,**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사실 불법을 공부 하겠다고 스님이 됐어도, 전문가인 스님이 되어서도 정말 골똘하게 불법.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오롯이 살다간 사람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열 명에 한 두 사람 될까 말까? 그 외에는 살다보면 그냥 적당히 살고 마는 겁니다. 습관대로 관례대로 세상 통례대로 그렇게 적당히 삽니다. 하물며 세속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위 없지요. 글쎄 저도 세속에 살았다면 이렇게 와서 이런 공부를 할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대혜스님이 이분에 대한 평도 참 올바르고 맞는 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법문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한 큰 죄라는 것은 聖賢(성현)도 또한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석가 달마도 다 장가갔고 직업도 있었어요. 그 분들은 아주 고위 공직자입니다. 둘 다 태자잖아요. 아주 고위 공직자입니다. 월급도 아주 많이 받고요. 또 공자 맹자도 역시 그랬고요. 공자 같은 이들은 어땠습니까? 어디 가서 한 자리 하려고 그야말로 상가집 개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한 자리 해보려고 중국 천하를 헤맸던 분 아닙니까?  맹자 같은이도 역시 그랬어요. 맹자 양현담에 보면 “당신은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맹자가 첫 마디에 “하필 왜 이익이꼬?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仁(인)과 義(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인과 의가 있다는 식으로 하지마는 그것이 통합니까? 인의예지가 통하나요? 권력자들에게 仁義禮智(인의예지)는 안 통하거든요. 오로지 이익과 권력만 통하는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까 성현들도 면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다만 헛된 환상이며 구경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경의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변하지 않는 법. 최후의 법이 구경의 법입니다. “환상이다” 이것이지요. 여기 환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한참 이야기 해 나갑니다.

**능히 마음을 진리의 문안으로 돌려 지혜의 물로써 먼지로 오염된 때를 씻어 버리고 깨끗하게 스스로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한 칼로 두 동강을 내고 다시는 相續(상속)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앞도 생각하지 말고, 뒤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상사와 출세간 사를 둘로 보지 아니 하면서 또한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과 출세간적인 삶의 가치관에 대한 확립을 우선적으로 세워야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의 물로써 먼지로 오염된 때를 씻어라** 그랬어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환상이다.” 그랬어요. **헛된 환상이며 구경의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환상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환상입니다. 뒤에 그 이야기가 쭉 실타래 풀리듯이 풀어 나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6~7 십 년 세속에 묻혀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낸 이상은 일도양단으로 **한 칼로 두 동강을 내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상속** 하지 않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뭐 할겁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제도 잘못하고 오늘도 잘못한것이 되는겁니다

어제 잘못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 버려야지, 오늘 또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또 잘못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속** 하지 말라. 계속해 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 **앞도 생각하지 말고, 뒤도 생각하지 말라.** 공부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뉘우쳐서 참회 하면 좋은 일 아니냐? 이것은 간화선 입장에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하는 말이지요. 선불교에서는 뉘우치고 참회하고 지난 일을 거울삼아서 어쩌고 하는, 세속에서 말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런 것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하면, 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됩니다. 참선은 놔두더라도 서장공부부터 제대로 안 됩니다. 설령 어제 큰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또 그 죄를 10분의 1은 짓는 것이 돼버립니다. 대혜스님 말씀이 당신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정말 선불교의 관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참회” 라는 말이 영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크게 여기서 숭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헛된 환상이라고 말한다면, 지을 때도 또한 환상이며,** “나쁜 짓 할 때도 또한 환상이며” 이 말입니다. 나쁜 짓해서 그 과보를 **받을 때도 또한 환상이며,** 복을 짓는 것도 환상이며, 복을 받는 것도 환상이며, 죄업만이 환상이 아니에요.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고수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을 짓는 것도 환상이면 복 지을 필요 없네요. 맞아요. 복 짓지 마세요 오늘부터... 선불교에서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상식들 다 떨어 버리세요. 脫俗(탈속). 그것 俗氣(속기)예요. 복 지어서 복 받고, 죄 지어서 참회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것은 속된 일입니다. 속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은 속된 생각입니다.

**지각할 때도 또한 환상이며,** 환상임을 아는 그 사실도 환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이 환상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만났던 사람. 어제 내가 한 일. 무엇이 있습니까? 하물며 1년 전 일이야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환상이라고 하니까 눈이 밝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이것 아니에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금방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 일을 여러분들 한 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지금 있는가?... 뭐가 손에 잡힙니까? 이것이 환상 아니고 뭡니까? 어제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다 환상입니다. 어제 아무리 좋은 대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순간 아무 것도 없어요. 다 환상입니다.

色卽是空(색즉시공)이라고요. 그대로 공이지, 세월이 가서 공이 아니고요. 즉시공이라고요. 분석해서 원자가 어떻느니 분자가 어떻느니 하는 것은 분석공입니다. 성문 연각들이나 하는 일이지 보살만 하더라도 즉시공입니다. 그대로 공입니다. 바로 공이라고 하는 것이지, 분석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이나 아주 저급한 불교의 유치원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방금 우리 반야심경 외웠잖아요. 그것도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서 외웠지요. 즉시공입니다. 그대로 공이지 무슨 분석해서 원자가 어떻고 분자가 어떻고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성문 연각... **오늘 잘못을 알았다면 환상의 약으로 다시 환상의 병을 치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아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는 그 즉시 知幻卽離(지환즉이)라, 不作方便(부작방편)이요. 환 인줄, 환상 인줄 이는 그 순간 곧 떠나 버려요. 아, 어제 일 아무 것도 아니구나. 어제 일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구나. 그 순간 환상은 사라져 버렸어요. 어제 좋은 일도 환상이요. 어제 나빴던 일도 환상이요. 더 이상 필요 없지요.

**병이 나아서 약이 필요 없게 되면, 그 전과 같이 다만 옛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어제 사람이 오늘 사람이고, 오늘 사람이 내일 사람입니다. 몸살을 앓다가 낫고 보면, 앓을 때 아팠지 낫고 보면 역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속뜻이 뭐냐? 깨달았다 하는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 “깨달음” “깨달음” 불교에서는 “불교” 하면 “깨달음의 가르침”아닙니까? “부처님” 하면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인데요. 깨달았다는 것도 그래요. 특별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나서도 그 이튿날 밥 먹어야 돼요. 목마르면 물 마셔야 돼요. 피곤하면 잠자야 돼요. 그 이튿날도 또 물마시고, 밥 먹고, 잠자고, 사람 만나면 대화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깨닫기 전 그 사람이라고요.

그럼 깨달을 필요 없네요. 깨달을 필요 없어요. 깨달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 왜? 깨달을 필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다. 저의 이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깨달아져 있고, 깨달아봐야 역시 그 사람입니다. 너무 차원 높아서 못 알아듣겠지요? 하하하 너무 어려운 말을 하니까... 제가 좋은 말도 나쁜 것도 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전부 환상이라고 했는데요. 초발심자경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用如幻悲(용여환비)라. 환상과 같은 자비와 지혜를 쓴다. 그랬어요. 이 보십시오. 복 짓는 것도 환상이고 복을 받는 것도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으면 최소한 그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특별히 따로 사람이 있고, 별도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삿된 마군인 外道(외도)의 견해입니다. 당신은 깊이 생각하여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해 가되,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말은 현상을 바르게 보라. 꿰뚫어 보는 공부. 여기서는 그 공부입니다. 꿰뚫어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거기서 우리는 뭔가 공부를 그동안 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뭔가 달리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뭔가 오해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때때로 고요할 때에 須彌山(수미산), 放下着(방하착)의 두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이 **수미산,방하착** 이라고 하는 두 가지 화두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 때만 하더라도 화두를 어떻게 드는 것이 헤매지 않고, 제대로 초심자가 들 수 있겠는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정리가 덜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견강부회 하느라고 이렇게 **두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했다고 해서 두 개를 같이 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만 들어야 된다. 이것은 주해를 단 사람의 소견이고, 대혜스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화두 많이 알지요? 여러분이 아는 화두 소개할까요? 부처님이 꽃을 들고 있거라. 이것이 선불교의 지론 아닙니까? 한송이의 꽃을 통해서 출발 했다고요. 여러분 그 화두 알지요?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뭐가 이 몸뚱이 끌고 왔느냐 이겁니다. 無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오늘도 소개 받은 것이 **수미산,방하착.**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많습니다. 대혜스님도 그렇지만 과거 고봉스님등등 많은 스님의 어록을 통해서 보면, A라는 화두를 들고 있었는데 문득 B라는 화두에 콱 막혀 버려요. 그리고는 C라는 화두에서 눈이 번쩍 뜨여요. 저는 처음에 강원에 있을 때는, 萬法歸一 一歸何處(만법귀일 일귀하처)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정작 선방에 들어가서는 무자 화두를 가지고 공부 했어요. 이 서장 영향입니다. 강원에서는 禪要(선요) 영향으로 만법귀일 일귀하처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선방에 와서는 서장 영향으로 무자 화두를 몇 년을 하다가 저절로 拈華示衆(염화시중)이 돼버려요. 무자 화두는 어디 가 버리고 그냥 저절로 염화시중이 머리에 떠올라서 아무리 들어내려야 들어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염화시중을 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 할 때도 화두의 원조! 염화시중을 소개를 합니다. 또 그것 내용을 다 아니까 설명하기도 쉽고요. 가나오나 꽃 천지니까요. 꽃만 보면 생각나니까 잊어버릴 염려도 별로 없고요. ‘염화시중이라’ 꽃 척보면 ‘염화시중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부처님이 낭랑한 음성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꽃을 들어 보이셨을까? 한두 시간 번쩍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들어라. 둘을 번갈아 가면서 들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뒷사람들이 붙인 말이고요. 대혜스님은 분명히 두 개의 화두를 소개 했어요. 원오스님이 또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대혜스님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바로 착실하게 공부를 해갈지언정 이미 지나간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또 나오네요. 우리가 살아온 업장들.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또한 반드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곧 도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서장 대 강좌 2 - 3 강

지난 시간 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것이, 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분들은 가슴을 짓누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삶이, 꼭 부처님의 삶도 아니고 불교의 거울도 아닌데, 각자 자기 마음대로 거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부처님 마음은, 불교적 삶은 이런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그 거울에다 자신을 비춰보니까 ‘아 이건 나는 죄인이고 이건 크게 인생을 잘못 살았고, 이래서 어쩌나’ 하고 자탄하고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스스로 죄인시 보는, 어떻게 보면 착한 성품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꼭 인생을 바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선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설사 이런저런 도덕적으로 좀 잘못 살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이 자리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불교를 만나서 선 법문을 듣는 자리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건 아니에요. 깡그리 잊어버리십시오. 앞도 뒤도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 뛰어가지 말라. 생각을 이어 가지 말라.

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복을 짓고, 회관 짓는데 돈을 얼마 냈었고, 어디 불사에 내가 얼마 했었고 내 나름대로 애써서 힘들게 부지런히 살아왔노라고 하는 그런 상념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과거 살아왔던 그거 다 放下着(방하착). 오늘 좋은 것 배웠죠? 방하착 합시다. 그거 좋은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誓願(서원)을 세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처님 앞에 큰 소원 세우기를 ‘이 마음이 견고해서 영원히물러나지 않고, 모든부처님의 加被力(가피력)에 의거해서 선지식을 만나서, 한 마디 말 아래 생사를 한 순간에 잊고,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지혜를 깨달아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서 모든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를 갚게 해 주소서’** 이런 원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공부 한다면 이런 원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됐든지 또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이 순간 실행에 옮기고요. 바로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실행에 옮기고, 내일 바로 실행에 옮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기를 오래오래 하면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p. 49** 이것은 선재동자의 이야기를 이끌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원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장죽. 증시랑에게 깊이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화엄경. 소위 대경이라고도 하는데요. 불교의 경전중에 최고의 경전으로 꼽는 화엄경의 이야기인데 곧 뜻으로만 인용을 했습니다. 많이 생략을 했지요. 이것을 또 너무 길어서 또 생략을 해야 할 판인데 한 번 쭉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선재동자는 수행자의 대표입니다. 이 시대가 됐든 그 시대가 됐든 간에 수행자하면 선재동자가 모델입니다. 수행자는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이 첫째 요건이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다니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53선지식을 만나게 되죠. 53선지식 법회 많이 열리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수행자니까 수행자는 선지식을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53선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문수보살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보현보살을 만나요.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보현은 실천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를 구축한 뒤에는 그것이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지혜와 실천! 문수 보현이 등장을 해서 화엄경을 이끌어 가고, 그것이 부처님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것도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으로서 펼쳐 보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지혜와 그 실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축하고, 그 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이 그 실천이거든요. 세상에는 돈을 벌어서 쓰는 것. 두 가지 아닙니까? 간단해요. 돈 벌고 쓰고 하는 것.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지혜를 개발하고 그 지혜를 쓰는 것.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래 문수 보현입니다. 이 문수와 보현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로 하면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다 못할 불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을 따라서 보리심을 내어 점차 남쪽으로 가서 110개의 성을 지나서 53선지식을 참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손가락 퉁기는 사이에 지내온 여러 선지식으로부터 얻은 가르침을 한 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혜 스님이 인용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미륵보살은 만났는데 보현보살은 만나기 전이예요. 미륵보살은 만났는데 손가락 퉁긴다는 것이 이렇게 퉁긴다는 겁니다. 절에서는 화장실에 가서 노크 하는 것도 뚜두리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을 퉁기는 겁니다.

그동안 53선지식에게서 들은 모든 법문을 다 잊어버렸지요.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좋은 법문! 최고의 선지식 53명에게 들은 그 어마어마한 법문을 다 잊어버렸어요. 손가락 한번 퉁기는 사이에... 그런데 세세생생 지어온 악업이 남아있을 까닭이 있나요? 善業(선업)도 놓쳐버렸는데 惡業(악업)인들 안 놓치고 배기나요? 다 사라졌다 이겁니다. 다 사라졌다. 이것이 비록 화엄경이라는 경전의 이야기지만 아주 참 멋있어요. 불교하고 인연 맺어서 선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화엄경 한번쯤 읽어볼 인연 맺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미륵보살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문수보살을 뵙고자 생각했는데** 그렇지요. “다시 문수보살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이에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손을 펴서 110 유순을 지나서 선재동자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랬는데 다 잊어버렸으니까 “너 지금까지 공부한 것 아무 것도 없다.”이겁니다. “그래 그럼 다시 공부 해야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선재동자는 미륵보살이 그렇게 말 하니까 그냥 그대로 아무 의심도 없고, 회한도 없고,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가서 수 천 년이 걸리더라도 그 선지식들 다 만나서 공부 해야죠.”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문수보살이 척 살펴보고 **110 유순** 이라고 이것이 수 억 만리의 먼 거리를 손을 뻗어서 **선재동자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만약 믿음을 잃었다면, 마음이 庸劣(용렬)하여 근심하고 후회하며, 공덕의 행위를 갖추지 못하고 정진도 하지 않아서, 마음이 한 선근에 집착하며, 적은 공덕에 문득 만족했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겨우 한 시간 듣고 힘 든다고 그러고 다음에 올까말까 하는데...여기 53 선지식 만난 것을 제가 年度數(연도수)를 계산해보니까 수백 년 걸렸어요. 또 어떤 한 분에게는 찾아가는데 12년 걸린 것도 있어요. 12년 가서 불과 몇 시간 그저 법문 들은 겁니다. 그런 예들도 많다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 왔는데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것도 어디 크게 얻어맞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손가락 탁 퉁기는 사이에 다 잊어버리고는 다시 가서 “그럼 네가 다시 가서 처음부터 문수보살 만나서 그 때 그 선지식 다 그대로 찾아보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발길을 돌려서 가는 겁니다. 문수보살부터 가서 만나서 그 53선지식을 다 만나 뵙고 하는 그 순간에 문수보살은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수행자의 모델이지요. 불자의 모델이 선재동자입니다. 우리 모델은 이렇게 참 근사합니다. 젊은 청년이지요. 동자라고 했지만 어린아이가 아니고, 17~8세된 아주 젊은 청년이 그런 기특한 마음을 냅니다.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깨달았다 합시다. 그 다음 뭐 할래요? 어제 살아왔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죠? 밥 먹고 잠자고 직장에 나가고 가족 돌보고... 어제 살았듯이 그렇게 또 사는 겁니다. 오늘 불교 이야기 다 했네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선재동자가 지가 다 잊었든 안 잊었든 간에 그렇게 선지식 친견하면서 정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삶이라고요. 제가 그랬지요? 선은 그냥 삶이라고요. 선의 7대 정신 있지요? 그런 정신만 갖춰서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 어떻게 사느냐? 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일곱 가지 정신 다 외우시죠? 簡素(간소)하고 脫俗(탈속)하고 自然(자연)스럽고 유현(幽玄)하고 枯高(고고)하고 寂靜(적정)하고 變化無雙(변화무쌍)하고 ←이런 등등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옳은 방법으로 願力(원력)과 實踐(실천)을 일으키지도 못하며, 선지식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法性(법성)과 理趣(이취)와 法門(법문)과 실천과 境界(경계)까지도 통달하여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족을 했더라면, 작은 공덕에 만족을 했더라면, **한 선근에 집착**을 해서 ‘아이구 내가 어떤 스님, 어떤 스님 만나서 공부 다 했는데’ 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면, 조그마한 살림살이, 조그마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더라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 周徧知(주변지)와 種種知(종종지)와 근원을 다한 것과 통달하여 아는 것과 趣入(취입)과 解脫(해탈)과 分別(분별)과 證知(증지)와 獲得(획득)도 다 능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다시 말해서 불교적인 모든 정진이 다 이루어 졌을 때, 거기에 막 그냥 밝은 하늘에 별빛이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이런 수익들이, 여기에 쭉 나열해놓은 이것이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말만 다 해 놨습니다. **주변지. 종종지. 이취. 법문. 법성. 해탈. 분별. 증지** 이런 것을 다 얻지 **못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소득이 그냥 쏟아졌는데 만약에 적은 공덕에 만족을 했더라면 그런 소득이 돌아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미륵보살이 다시 그 처음 걸었던 길을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뚜벅뚜벅 처음 갔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야 우리 잘 들어서 아시듯이 一念卽是無量劫(일념즉시무량겁)이고, 또 一微塵中含十方(일미진중함시방)이고, 알고 보면 지금 우리의 이 한 생각 속에 수많은 지옥과 아귀와 축생 이런 것만 있는가 하면, 부처도 있고 보살도 있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도 우리의 이 순간 한 생각 속에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여기에 선재동자가 쏟아진 많은 소득들. 이것 알고 보면 간단한 겁니다. 우리들 이 순간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문수보살이 이와 같이 선재동자에게 보였는데 선재동자는 바로 한량없는 법문을 성취해서 한량없이 큰 지혜의 광명을 갖추었습니다. 보현보살의 세계에 들어가**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등장하지요? 이것은 보현행을 실천한다는 내용입니다. 화엄경은 화엄경의 표현 방식이 있고, 상징하는 바가 많아요. 불교는 상징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禪詩(선시)나 禪文學(선문학)도 아주 뛰어 나지만, 이 화엄경의 문학성도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깊이가 있고 뛰어납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아 이것은 보현보살의 실천덕목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세계에 들어갔다.** 뭐라고요? 문수보살을 통해서 지혜를 성취했으니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죠. 중생을 위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돈을 벌었으면 바로 오늘도 저녁부터 쓰고, 내일도 쓰고, 써야 되거든요. 불교도 알았다면 당장에 집에 가서 식구나 가족이나 친구들 앉혀놓고, 서장에서 공부한 것을 이야기 하세요. 하다못해 방하착 이라도 하나 이야기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선재동자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한 생각 가운데서 삼천대천세계의 작은 먼지 수만큼의 모든 선지식을 다 만나보고 다 친근하며 공경하여 섬기고 그 가르침을 받아 실천하여 不忘念智(불망념지)로 莊嚴(장엄)한 解脫(해탈)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불망념지**입니다. 이것 한번 얻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럼 경 한번 보면 다 외우고... **보현보살의 털구멍 세계에 들어가서 한 털구멍에 한 걸음을 옮기되 이루 말할 수 없는 微塵數(미진수)의 부처님 세계를 지나서, 보현보살과 같으며 모든 부처님과 같으며세계도 같으며 행위도 같으며 해탈하여 自在(자재)함이 다 같고 둘이 아니며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 온 중생과 한 몸이 된 보현보살의 크나큰 願力(원력)입니다. 우리는 제발 한 식구만이라도 내 몸같이 좀 생각을 하자고요. 이웃은 놔두고 한 식구만이라도 좀 내 몸같이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그야말로 老吾老以及 人之老(노오로이급 인지로) 한다고 맹자의 뜻이 우리 늙은이를 늙은이로 섬기듯이 이웃 어른도 우리 어른 섬기듯이 하면 그대로 세계평화지요. 이 보현의 정신은 바로 온 세상 인류를 내 몸과 하나로 보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해서 얼른 와 닿지가 않겠지요?

**이런 때가 되어야 비로소 三毒(삼독)을 돌이켜 三聚淨戒(삼취정계)를 이루며,** 이것이 攝善法戒(섭선법계). 攝律儀戒(섭율의계). 攝衆生戒(섭중생계). 그 밑에 주해를 잘 달아 놨네요. **六識(육식)을돌이켜서 六神通(육신통)을 이루며,** 眼耳鼻舌身意(안이비설신의)가 그대로 神通妙用(신통묘용)이다 이겁니다. **삼독**이 뭡니까? 탐진치 삼독. 貪慾(탐욕). 嗔心(진심). 癡心(치심). 이것이 전부 중생을 위하는 일로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탐욕. 진심. 치심 없애려고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애려고 한들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도 안 돼요. 그것 없으면 삼천세계가 없어져요. 그 동안 들은 불교하고 좀 다르지요? 또 **육식을돌이켜서 육신통을 이룬다.** 그랬어요. **육신통**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인식하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통입니다.

**煩惱(번뇌)를 돌이켜 菩提(보리)를 이루며,** 깨달음. 도. 그것이 뭡니까? 그 지긋지긋한 번뇌 망상이 그대로 깨달음 이고, 도 다. 이겁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무명을 돌이켜 큰 지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혜” “지혜” 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 깨달은 사람의 지혜 이것이 뭡니까? 그 지긋지긋한 번뇌 무명이 그대로 부처님의 깨달음, 지혜다. 이겁니다. 夢寐(몽매)에도 그리워하던 깨달음의 지혜가 바로 그 지긋지긋한 번뇌 무명이 바로 그 지혜인줄 누가 알았으랴? **위에서 말한 한 꾸러미의 일들은 다만 당사자의 마지막 한 생각 진실한 것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전에 송광사 문수전에서 공부할 때, 위에는 3년 결사한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냥 일반 선방 대중으로서 문수전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때는 선방에서 옆에 있는 법당들 다 관리 했어요.

아주 옛날이야기입니다. 그래 제가 관음전 부전을 봤어요. 문수전에서 나가면 바로 송광사 관음전입니다.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왔을 때니까요. 캄캄해요. 그 날따라서 너무너무 캄캄해요. 3시에 일어났는데 구름이 꽉 끼었던 가봐요.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구름이 꽉 끼어서 차라리 눈을 감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익숙한 곳에서는 눈을 감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눈 떠도 안 보이는 데요. 차라리 그럴 바엔 눈 감고하지. 대강 더듬더듬 세수를 하고, 가사장삼을 입고, 늘 출입하던 곳이니까요. 눈 감고 가도 감각적으로라도 몇 발 걸어서 몇도 방향으로 몸을 틀면 법당을 향하고, 거기 가서 손을 두 번만 음직이면 문고리를 잡고, 거기서 늘 익힌 업이 참 무서워요. 눈을 감고 그렇게 몇 걸음 걸어갔으니까 하나도 착오가 없어요. 눈 뜨고 하는 것 하고 꼭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음전 법당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 송광사 가시거든 문수전하고 관음전 확인 하세요. 얼마 안 됩니다.

문수전에서 관음전은... 요즘 문수전에 외국 스님들이 참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두운 곳에 가서 관음전 옆문을 열고 들어가서, 몸을 몇 각도로 틀어서 몇 걸음 걸어서 손을 뻗으면 탁자가 나오고, 탁자에서 손을 두 번만 움직이면 성냥통이 손에 잡히지요. 불을 켜면서 눈을 떴다고요. 그러니까 그 캄캄하던 법당이 환하게 밝아졌잖아요. 내가 문을 닫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불빛에 의해서 어둠이 문틈으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문도 아니 열어 놨으니까요. 틈도 없었어요. 그렇게 칠흙같이 어두운 그 어둠이 어디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덩어리 그것이 그대로 밝음이지요. 그래서 무명번뇌가 바로 보리이고, 번뇌가 지혜다. 지혜 따로 있고 번뇌 따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아주 여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어둠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냥 밝음뿐이더라고요. 그 촛불 하나 켰는데 어둠이 어디 나갈 틈이 있어야 나가죠. 나가려면 줄을 서서 나가느라고 한참 걸릴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그것 하나 꼭 기억 하세요. 번뇌무명, 온갖 탐 진 치 삼독,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아이고 시기 질투하는 것 때문에 죽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자학을 합니까? 자기 가족을 학대를 하고, 엄청나게 증오를 하고 그러거든요. 절대 그렇게 증오할 일이 아니고, 미워할 일이 아니고, 부정할 일이 아닙니다. 탐 진 치 삼독을... 그것이 그대로 지혜입니다. 번뇌무명이 그대로 지혜입니다. 여기 그대로 해놨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불이고 뭐고 다... 예불 끝났는데 예불할 것이 뭐 있나요?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 번뇌라는 것이 그렇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본래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번뇌를 하나도 걱정 안 하고 번뇌 하자는 대로 하고 살아요. 대혜 스님이 이런 증시랑 같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또 성실하게 정성껏 자기 그 자존심, 자기의 어떤 경력 다 팽개쳐 버리고, 대혜 스님에게 자기의 그 내장을 통째로 들어 보이면서 법문을 청하는데, 여기에 쏟아 붓는 대혜 스님의 말씀이 어찌 추호라도 거짓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추호라도 무슨 방편이 있겠습니까? 방편 없습니다. 그대로 곧이 곧 대로, 사실대로 깨달으신 대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장 대 강좌 2 - 4 강

**선재동자는 미륵보살이 한 번 손가락을 퉁기는 사이에 오히려 선지식으로부터 증득한 三昧(삼매)도 한순간에 잊어버렸는데 하물며 오랜 세월의 虛僞(허위)와 惡業(악업)과 習氣(습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삼매도 악업도**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덕도 업장도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가 다 無常(무상)이고 無我(무아)고 空(공)이고 虛無(허무)입니다. 그대로가 허무다 이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 지금 이 순간에 뭐가 있습니까? 어제 나의 인생은 참 소중했고, 그 나름대로 진지했고, 그 나름대로 안달하면서 살았는데 이 순간 뭐가 있습니까? 안달하던 어제 일이 뭐가 손에 잡힙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의 지경. 선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 앞에 지은 바 잘못을 실제로 여긴다면** 2-3에서 세속 생활이 “잘못 살았다.” 이렇게 표현 했는데 그것을 **실제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지금 제가 다 이야기 해 버렸기 때문에 어제 내가 나쁜 짓 한 것이, 아니면 좋은 일 한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손에 잡히느냐? 이것으로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만, **지금의 눈앞의 경계도 다 실제로 여길 것이며, 관직과 부귀와 恩愛(은애)도 다 실제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것들을 실제로 여긴다면, 지옥과 천당도 또한 실제이며, 번뇌와 무명도 실제이며, 업을 짓는 것도 실제이며, 果報(과보) 받는 것도 또한 실제이며, 깨달은 법문도 실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견해를 갖는다면 미래를 다하더라도 다시 어떤 사람도 부처님 가르침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의 갖가지 방편이 도리어 妄語(망어)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중요한 문제이고,또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선불교와 간화 참선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왜 증시랑에게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어떻게 보면 공허하다. 무상이다. 무아다. 허무다. 전부 없는 것이다. 無眼耳鼻舌身意(무안이비설신의) 無色聲香味觸法(무색성향미촉법) 無眼界乃至(무안계내지) 이런 식으로 일변도로만 이렇게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는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소견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는 우리 마음. 우리 육신. 이 마이크. 우리의 법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법회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존재 원리가 있어요.

무엇이 존재하든 존재하는 데는 그 나름의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고, 법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것이 道입니다. 똑 같다고요. 법회라고 하는 사실이나, 마이크라고 하는 사실이나,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이나, 부처라고 하는 사실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나, 이 모든 것이 중생이라고 부르든, 부처라고 부르든, 이 모든 것이 다 有相無相(유상무상).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보시를 한다. 지계를 한다. 인욕을 한다. 육바라밀을 닦는다. 불사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하나의 통일된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다고요. 이것을 존재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나? 통일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원리인가? 이렇게 법회가 잘 이뤄지고 있지요? 그런데 시간 전에는 없었어요. 또 시간 이 후에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 보통 불교적인 표현으로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어요. 아시겠지요? 간단하지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이 마음인데, 정작 찾아보면 없지요.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어요.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봐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보면 세상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렇게만 설명하지 말고, 한 마디로 무슨 말을 지어서 얼른 그 말 한 마디면 딱 그냥 그 원리가 머리에 떠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그것이 중론 이라고 하는 데서, 中道(중도)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中論(중론)! 그것이 중도 본입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말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도의 원리라고요.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이것으로 말을 한 마디 지어야 되겠는데 말을 짓다 보니까 제일 근사한 말이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말은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중도적으로 되었으니까 중도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보는 견해예요. 뭐가 아닙니다. 불성이 아닙니다. 마음도 아닙니다. 마음도 중도적으로 되었고, 불성도 중도적으로 되었고, 육신도 중도적으로 되었고, 일체가 어떤 공식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공식을 중도라고 합니다. 제발 중도라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도가 불성이 있듯이 있고, 육신이 있듯이 있고, 마음이 있듯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존재하는 어떤 일관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통일이 됐더라고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똑 같아요. 그것을 뭐라고 한 마디로 표현 하려다 보니까 중도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것이 제일 근사해요. 꼭 맞는 말은 아닌데 근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행을 하는데, 모든 수행을 치우치거나 집착하지 말고 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중도적으로 하라. 만선동귀 중도송이라는 제가 억지로 붙였는데요. 치우치거나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노릇도 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 노릇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리심의 문제. 불도의 문제. 아름다운 행동의 문제. 참다운 지혜의 문제. 연민심을 일으키는 문제. 자비를 행하는 문제. 보시. 지계. 정진. 인욕. 반야. 선정. 다 있습니다. 육바라밀** 다 있지요? **몸이 없음을 보되 모양을 잘 갖추고,鑒無身而具相(감무신이구상)이라.** 관세음보살이 제일 진주 영락을 많이 건 분이고, 치장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수 십 억원어치의 치장을 하고 다녀요. 그 분이 쓰는 화장품은 천상에서 구해온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뭐라고요? 五蘊皆空 度一切苦厄(오온개공 도일체고액)하는 분입니다. 無眼耳鼻舌身意(무안이비설신의) 無色聲香(무색성향)하는 분입니다. **감무신이구상이라.** 몸이 없는 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만 모양을 멋들어지게 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불교 어줍잖게 해서 배워서 절에 갈 때, 후줄근하게 화장도 다 지우고 먹물 옷 척 걸치고 절순이가 되고서 다니니까 우리는 천하 못 봐줍니다.

절에 오는데 화장 좀 하고 이쁜 옷 입고, 멋들어지게 하고 오지... 관세음보살한테 예배를 할 줄 알면서 관세음보살의 치장한 것은 왜 못 배워요? 감무신이구상입니다. 몸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 반야심경 잘 알 잖아요?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화장 잘 하고, 누구보다도 온갖 진주 영락 수 백 원어치 몸에 걸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 집착하는 분이 아닙니다. 몸뚱이도 없는 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 까짓 것 몸에 딸린 부속품에 대해서 뭐 그렇게 집착이 있는 분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말 할 것이 없는 이치를 알고 설법한다.** 이것은 제가 알아야 될 일이네요. **물에 비친 달그림자의 도량을 건립하고, 建立水月道場(건립수월도량)이라.** 우리 축원할 때 스님들은 그래요. ‘수월도량’이라고, 물에 비친 달그림자와 같은 도량이라. 그렇게 알면 뭐 도량 건립할 것이 있겠나? 그렇게 알고 열심히 도량 건립해야 돼요. 도량을 건립하되 그렇게 알고 건립해야 그것은, 절을 천 곳에 만 곳에 지어서 주지를 천개 만개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지를 못하고, 물에 비친 달그림자와 같은 있는 듯 없는 듯.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앞에서 중도 이야기 다 했지요? 그렇게 알고 건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색이 텅 빈 세상을 장엄하라. **환상과 같은 공양꺼리를 많이 장만하여,** 아! 근사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여래에게 공양을 올리라.’ 오늘 좋은 것 너무 가르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요? 올리면서 이것이 환화와 같은 공양구라고 생각하고 많이 올려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라고 손을 대면되느니, 꼭 마스크를 해서 마지를 올려야 되느니, 그래서 거기에 혹시 조금이라도 침이 튀면, 밥을 새로 지어서 올리느니. 옛날 노장님들 그랬어요. 그랬다고요. 그것이 집착입니다. 여기에 뭐라고요? “치우치거나 집착하지 말고 하라.” 모든 것이 몸뚱이부터 우리 마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살자 이것이지요. 남자라고 꼭 계속 남자가 어떻게? 또 여자라고 계속 여자가 어떻게? (그 집 참 살림 잘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구성이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죄가 본래 없는 줄을 알고한다.** 죄가 본래 없는데 무슨 참회를 합니까? 죄가 본래 없는 줄 알고 참회를 하는 이것이 진짜 참회입니다. 이것은 천수경 수준입니다. 지금 서장 수준이 아니라고요. 罪無自性從心起(죄무자성종심기) 心若滅時罪亦亡(심약멸시죄역망) 천수경 있잖아요?

**법신은 항상 하지만 오래 머물기를 권청하라. 회향은 얻을 것이 없는 줄을 알고 한다.** 우리가 회향을 하면 자기에게 뭔가 돌아올 줄 알고 하는 회향이 많지요. **누구나 복은 진여와 같지만 따라서 기뻐하라.** 다 부처입니다. 다 부처님인데 달리 누구 부러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隨喜(수희). 따라서 기뻐하라 이겁니다. 다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로 기뻐하고 말고 할 것이 없잖아요. 다 똑 같은데... 그렇게 알고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건성건성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좀 사실은 아깝기도 합니다.

**남을 찬탄하나 너도 나도 텅 비어 없는 것. 부처님과 같기를 발원하지만 실은 평등하다.** 야~ 근사하네요. 우리가 발원할 때 항상 부처님하고 같기를 발원 하지요. 궁극에 [皆共成佛道(개공성불도)] 그러지요. 실은 평등해요. 이미 평등해요. 이미 똑 같아요. 그렇게 알고 개공성불도를 발원하는 것이죠. **그림자와 같은 법회에 예배하고 동참하여,** 그림자지 뭐예요. 금방 조금 있으면 흩어질 시간이 다 돼가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림자 인줄 예배하고 동참하고, **도량을 거닐되 발은 늘 허공을 밟으며... 향을 사르되 생멸이 없는 이치를 잘 알고,**

**경전을 읽되 존재의 실상을 깊이 통달하라. 꽃을 뿌리는 것은 집착이 없는 이치를 나타내는 것은 집착이 없는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요.** 요즘 散華(산화)하지 않고, 꽃을 그냥 올리지요?

**손가락을 퉁기는 것은 번뇌를 버리는 것을 표현한 것. 메아리와 같은 육바라밀을 행하고, 허공 꽃과 같은 만 가지 덕목을 닦아라 인연으로 생기는 성품 바다에 깊이 들어가 환상과 같은 법문에서 항상 노닐라. 본래 물들지 않는 번뇌를 맹세코 끊고,** 번뇌에 물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맹세코 끊는다. 끊는 것이 뭐예요? 끊어지지도 않고요. 우리 생각하듯이 하나하나 번뇌 제거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건 들어내듯이 한 개 들어내고, 한 개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불을 탁 켜는 순간 캄캄한 것이 밝음이더라고요. 번뇌가 그대로 지혜라고 아는 것이 번뇌를 끊는 것입니다.

**유심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라.** 유심정토인데 어디 태어나요? 태어날 것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정토인데요. 그렇게 알고 태어나기를 발원하고요. **실제적인 이치의 땅을 밟고, 얻을 것이 없는 관법의 문에 출입하라. 거울에 비친 그림자의 마군을 항복받으며,** 마군이라고 하는 것도 환상입니다. 환영이라고요.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꿈속의 불사를 크게 지으라. 大作夢中佛事(대작몽중불사)하라.** 꿈꾸듯 하는 것이 우리 불사입니다. 그러나 크게 해야 돼요. 이 [총무원 청사] 얼마나 근사하게 지었습니까? 여러분 모두 [국제 회의장]에서 이렇게 최고의 시설. 최고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몽중불사**입니다. 몽중공부라고요. 꿈속에서 하는 공부라고요. 그렇게 알아야지 하~ 무비 스님 서장강의 어쩌고저쩌고... 일어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꿈 깨듯이... 어릴 때는 꿈도 잘 기억이 나더니만 나이 드니까 기억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깨면서 그만 어디로 가버리고 없네요. 불법 공부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깨면서 다 사라져 버려요. 다시 기억하려고 그 꿈 기억을 쫓아서 추적해도 도대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어릴 때는 기억이 생생 하더라고요. 어릴 때라고 해서 꼭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도 꿈이라는데, 꿈 자꾸 기억해서 뭐합니까? **꿈속의 불사를 크게 지으라.** 우리가 어떤 훌륭한 불사를 하더라도 꿈속 불사인줄 알고 짓고... 짓되 꿈속 불사인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불사도 설렁설렁 잘 되어요. 어떤 스님들은 불사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해서 자살하고, 절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고 감당도 못하고, 일찍이 와서 이런 것 공부 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환상과 같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적멸한 보리를 다 함께 증득하라.** 텅 빈 보리라면 증득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고 **다 함께 증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분은 **永明延壽禪師(영명연수선사)**라고 **萬善同歸集(만선동귀집)**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이것은 제 소리가 아니고 아미타불 後身(후신)이라고 까지 추앙 받는 아주 천하의 대선지식! 念佛宗(염불종)의 宗主(종주)이고, 법안 禪宗(선종)의 대를 이은 대단히 뛰어난 분입니다. 이 분의 글 속에 당신의 깨달음과 불교적 이론을 이 게송으로서 다 정리한 겁니다. 이것이면 다 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교. 이것이면 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복 받았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터득하고, 납득이 돼도 이것은 큰 수확입니다. 보통 수확이 아니에요. 아주 뛰어나신 분의 평생 공부가 이 게송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흔 두 구절의 이 게송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대혜 스님이 인생사 모두 허망하다. 무아다. 공이다. 무상이다. 허무하다. 이렇게만 전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보완하느라고 그렇게만 알면 이것은 너무 재미없고, 너무 허전하고, 어깨가 너무 쓰리잖아요. 허리에 바람이 들어와요. 이렇게 알고 살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중도적 실천 수행이고, 중도적 실천 수행이란 치우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 수행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전부 이렇게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야지 너무 치우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서로가 아프고, 다치는 일이지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있으면 한 30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 성철 종정 스님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셨습니다. 지난주 강의 시간에 스님께서 “자연” 이라고 설명 하셨는데 자연을 그대로 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답: 지난 시간에 제가 선의정신 중에 자연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뜻입니다. 거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그러함” 지금 거사님이 질문 하시면 제가 대답하고, 제가 소리를 낮춰서 이야기 하면 조금 들리고, 크게 하면 크게 들리고, 이런 것이 전부 “저절로 그러함”입니다.

그런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그 법문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보니까,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존재 하는가? 하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라고 하는 것. 요는 관점의 문제에 달렸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삶이 어떻게 존재 하는가? 이것 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사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렸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 달라요.

그런데 불교적인 안목에서, 세상과 인생을 보는데 五時敎(오시교)라고 하면 다섯 가지로 보는 것이고, 三時敎(삼시교)라고 하면 세 가지로 보는 것인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보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한 것은, 오늘 공부에다가 연관 시켜서 생각하면 증시랑. 이 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통 우리들의 관점대로 대혜 스님에게 피력한 그것입니다. 벼슬하고 혼인하고, 집안일 꾸려가고 하는 그것을 우리 상식대로 보는 그대로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혜 스님이 그것을 뭐라고 했지요?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야.” “허상이야” “환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영명연수선사의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집착하지 말고 수행하라”는 이야기로서 “중도적으로 보라.” 왜냐? 전부 중도적으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다. 중도적으로 존재하니까, 우리도 중도적으로 보고, 중도적으로 실천 수행을 하면 탈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곧 **산은 다만 산이고, 물은 다만 물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가 산 정상이라면, 이 바닥에 처음에 올라가지도 않고 있을 때가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증시랑의 입장이고, 대혜 스님이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야.” 라고 하신 것은 산 정상에 올라와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일체사를 다 부정한 것. 부정한 면이 있으니까요. 오온개공이고, 무안의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이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안의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반야심경이 270자인가인데 저는 그것을 넉자로, 우리말로 넉자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앞으로 그것을 외울까요? 간단한데...  “나는 없다.” 나는 없다더라고요. 제가 반야심경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관세음보살 기도보다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한 번 나오더라고요. “나는 없다.”라고... 그런데 “나는 없다.”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기분이 나쁜 것도 있고, 또 환희심도 있을 수가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없는 것보다도...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없는 줄 알고, 다시 현실로 내려 왔을 때, **산은 다만 산이고, 물은 다만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 가지 견해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세속적인 관점과, 그 모든 것을 부정한 관점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내려 왔지만, 올라가기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리인 것이 중도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相(상)은 다만 상이고, 물은 다만 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原題(원제)는 중국 고대 선사 스님들이 즐겨 쓰던 표현입니다. 그것을 교학적인 용어로는 相(상) · 空(공) · 性(성). 이래요. 상 ·공 · 성. 삼종이라고 강원에 다녀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도서, 절요(都序, 節要)에서 수천 번 듣는 말이거든요. 성도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교학도 아무리 복잡하게 8만 대장경 펼쳐져 있어도 세 가지 견해로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정리하면, “간단하고 제일 명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자연 = 저절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질문 하셔서 아주 멋진 이야기 들었네요.

질문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차타고 돌아가다가 ‘아이 이것 질문 할 걸’ 한 생각 떠오르면, 잠도 잘 안 옵니다. ‘이것 질문 할 걸’ 하고요. 아무 것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서장하고 관계없는... 제가 불법의 고수. 인생의 고수라고 해 놓으니까 하수라는 소리 들을까 겁이 나서 질문 못 할 것 없이... 하수니까 질문 하지요. 하세요.

총무원 기획실 하고 우리 신도회 인재 개발원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불교 일 번지, 조계사하고도 총무원. 그리고 국제 회의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이런 좋은 강당에서 강의 했겠어요? 달마 스님도 못 했을 겁니다. 임제 황벽도 못 했을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삽니다.

진시황이 아무리 복을 누렸다 해도요. 한 달에 기껏 100만원 남짓한 월급 받는 사람보다도 복이 적습니다. 그 사람 이런 아스팔트 길 구경도 못 했습니다. 버스 얼마나 근사한데... 요즘엔 에어콘 척 나온 버스 타고 다니지... 진시황이 그런 복 못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의 차원을 좀 달리해서 출세간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홍복 중에 큰 홍복이라고 생각 하시고, 저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신심 있는 불자 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은 더 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제가 어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는 공부할 때, 그저 내 궁금해서 공부하고, 내 답답해서 공부했을 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부족한 강의지만, 함께하고 같이 웃어주시고, 기뻐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 되고, 또 널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 되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복도에 꽉 차게 앉았으면 더욱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2강 끝 -

서장 대 강좌 3 - 1 강

거의 3000년의 세월이 경과 하면서,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데 까지 발전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까지 알 수 있는 최첨단의 불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지금 왜 간화선인가? 라는 질문에 일부 부응하는 답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한 순간 入禪(입선)을 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한 순간 입선을 했을 때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가장 청정하고, 혹 마음속에 망상은 끓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순간 가장 내 자신을 비울 수 있었고, 온갖 이런저런 복잡한 사회와 내 생활과 환경 속에서 그래도 가장 간단명료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순간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禪佛敎(선불교)가 우리들의 삶에 답하는 정확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분간, 또는 10초간 잠깐의 입선을 머릿속에 상기하면 불교적인 가장 지고한 삶. 청정한 삶. 텅 빈 삶. 깨끗한 삶. 그것이 부처의 삶이라고 하든지 조사의 삶이라고 하든지 그런 삶이 바로 이러한 순간의 삶이구나. 우리가 좌선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이것이 연결 되어야 되고 지속 되어야 되는데, 요는 그것이 문제겠지요. 일부러 1분이든 2분이든 입선을 하면 그것이 유효하고, 입선을 놓아 버리면 그만 그것이 무효해서 그만 복잡하고, 시시비비와 온갖 희로애락이 뒤범벅이 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문제겠지요.

우리가 그런 일상 속에서 한 1분간, 연습했던 그런 깨끗하고 청정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삶의 순간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 견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과제라면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書狀(서장)이라는 이 교재로 看話禪(간화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법회를 개설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장은 최초의 간화선의 지침서이고, 지금까지도 이만한 지침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머리로 이것을 다시 간추려서 더 선명하게 이해시키는 데는, 그래도 어딘가 좀 量(량)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오늘도 유인물을 살펴봅시다. **看話禪(간화선)**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자신의 선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혹 가족이나 이웃이나 어느 단체나 어떤 소모임에서 간화선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장을 일 년 읽어봐야 정리가 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장을 공부하되 좀 더 간추려진. 좀 더 선명한 이해를 위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이런 것만 정리가 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이 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화선- 화두를 유심히 그리고 면밀히 보며 참구하는 참선 공부.** 다 아는 이야기지요? **화두(話頭)란 공안(公案). 고칙(古則-옛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화두는 “말”이란 뜻인데 두(頭)는 별 뜻이 없는 어조사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헤집고 파헤치다 보면, 머리 頭(두)자. 별것 아닌 것도 머리에 걸려요.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노파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도(道)를 판단하고 이치를 가르치는 법말, 참말을 화두라고 합니다. 또한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관청의 공문서’란 뜻인데, 나라의 정사를 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어떤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을 밝히려면 공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안” “공안”그래요.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만인이 따라야 되고, 만인의 일 처리는 이 관청에서 정해 놓은 공문서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잘못 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기연(機緣), 즉 참 이치를 똑바로 가르친 말이나 몸짓.** 예를 들어서 꽃을 들어 보였다든지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든지, 방망이를 썼다든지 할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혹 어떤 방법을 막론하고 그것은 모두 진리의 바른 법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듣고 하여 알거나 깨닫게 되고 알지 못하면 부득이 참구(參究) 하게 됩니다. 참구하는 것을 ‘화두를 의심한다.’ 또는 ‘화두를 본다[看].’ ‘화두를 든다[擧].’라고도 합니다.** “화두를 본다.” “看話(간화)”라고 그러지요. “화두를 든다.” 들 擧(거)자도 많이 씁니다. 의심한다.

본다. 든다. ←이것이 서장에서 자주 나오고, 우리가 보통 禪房(선방)에서 또는 참선하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화두를 의심한다.” “화두를 본다.” “화두를 든다.” 그렇게 해요. 타이틀을 간화선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이 看(간)자는 그냥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看話(간화).**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고, 눈 目(목)자 위에 손 手(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불빛이, 지금 불빛이 정상적으로 잘 비추니까 제가 손을 이마에 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면에서 불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불빛을 가리고 유심히 보면 그 때 보입니다. 이 看(간)자는요.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꽃을 들었다.” 하면 ‘아 꽃을 들었는가 보다.’ 하면 看(간)이 아닙니다. ‘꽃을 들었어?’ ←이렇게 “왜?”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한 걸음 퇴보해서 참구하는 것이 됩니다. “꽃을 들었단다.”하면 거기에서 그냥 숨이 멈추는 겁니다. 죽든 말든 거기에서 그냥 숨이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숨이 멈춘다는 말은 모든 思考(사고). 思量分別 (사량분별)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의식의 진행이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화두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수표를 오늘 은행에 갖다 넣으려고 옷을 입으면서 책상 위에다 얹어 놨어요. 옷을 입고 수표를 지갑에다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1억짜리 수표를 얹어 놨거든요. 그런데 옷을 입고 돌아서니까 없어요. 그 때 여러분들 숨 멈춥니다. 1억짜리만 해도 숨이 딱 멈춰요. 숨 안 멈추는 장사 있겠어요? 방에는 아무도 없어요. 부인도 들어온 적이 없고 남편도 들어온 적이 없고, 아이들은 벌써 학교에 갔고요. 틀림없이 혼자 금방 빼놓고 다시 새 주머니에다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옷을 입으면서 돌아섰는데 없다면 그때 숨이 멈추듯이, 그때 온갖 사량 분별과 의식의 진행이 올 스톱 되듯이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보통 우리가 “화두를 든다.”고 할 때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바람직한 자세라고요. 왜? 꽃을 들었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

왜? 왜?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소위 念話頭(염화두)니 誦話頭(송화두)니, 염불 하듯이 화두를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화두하고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看(간)자가 아주 심도 있게 유심히. 설사 광선이 나를 비춘다 하더라도 그 광선을 꿰뚫고 사물을 볼 수 있는 정도로 꿰뚫어보는 자세인데요. 오늘 여기 간화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和盤托出(화반탁출). “떡을 쪄서 손 하나 안대고 소반 채 다 들어내 논다.” ←이것이 조사스님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소반 채. 한 숟가락도 떠먹지 않고 그대로 다 들어내 놓는 것을 화반탁출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화두에 대한 모든 비밀을 화반탁출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소염시(小艶詩)』**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시는 오조법연선사가 진제형이라는 거사에게 선을 이야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처음 인용한 이후 선가에서 격외언어(格外言語)로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법연선사가 진제형에게 소염시를 들어 말할 때 제자인 원오극근선사.** 우리의 스승. 대혜스님의 스승이 원오극근선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를 일부러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공부와 연관이 있는 시입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필히 이 시의 저의를 알아야 되고요. 저의를 알아야 됩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이 시의 저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의 저의를 모르고 참선하면 말짱 헛것입니다.

**원오극근선사(대혜스님의 스승)가 창 밖에서 이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선지(禪旨)나 심요(心要)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일이 아닙니다. 말이나 글이나 어떤 행위는 불가피한 방편일 뿐입니다. 모든 화두가 이 방편에 해당합니다.** 모든 화두는 목적이 아닙니다. 방편입니다. 흔히 선가에서 **‘콧구멍을 밟아버린다. 답착비공(踏着鼻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을 타파한다는 말입니다.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無. 이것 모두 근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거품입니다. 진짜 물은 따로 있습니다. **사자는 사람을 물고 똥개는 흙덩이를 따라간다.[獅子咬人(사자교인) 韓盧逐塊(한노축괴)]** 흙덩이를 사자에게 던지면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물어요. 그런데 똥개는 흙덩이가 먹을 것인냥 킁킁 거리면서 지 죽이려고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똥개는 흙덩이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조사스님들의 그야말로 寸鐵殺人(촌철살인)과 같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도 화두의 근본. **踏着鼻孔.** 화두의 근본을 밟아서 죽여 없애야 하는 것이지, 그 말을 쫓아가면 그야말로 염불이 돼버리고 맙니다. 염불하면 차라리 부처님의 명호니까 공덕이라도 있지요. **“간시궐(乾屎橛).”** 하면 똥 막대기라는 말이니까 그것은 외워 봐도 공덕도 되지 않아요. 우리 고사에 ‘守株待兎(수주대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갔는데요. 하루는 토끼가 지나가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서 죽었어요. 농부는 토끼를 한 마리 공짜로 주웠다고요. 그 다음부터 농부는 농사는 작파하고, 그 나무 그루터기 옆에 계속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토끼가 지나가다가 죽으면 하루 일하는 것보다 쉽다.’해서 계속 기다리는 것. 우리 프로들 한 2000명이 내일 모레 해제니까 아직은 정진하고 있어요. 아마추어 참선인들 한 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어쩌면 그 농부처럼 그 나무 그루터기 옆에서 토끼가 지나가다가 넘어져 죽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들은 혹 그렇게 공부하고나 있지 않을까? 여기서는 간화선 이야기니까요. 그야말로 화반탁출 해서 이야기할 것 다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 해봐야 됩니다. 설사 화두를 드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불교적인 신행생활을 혹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런 식으로...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해서 그때. 약으로 치면 初湯(초탕). 초탕 마시고 병을 고친 사람은 있어요. 그 때는 그 농부가 처음 토끼를 주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누가 그 소문 듣고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혹시 우리가 화두를 한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불교적인 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화두의 사례는 흔히 1700 공안이라고 해요. **염화시중(拈花示衆)**이라든지 **시삼마(是甚徼)**라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방하착(放下着). 수미산(須彌山). 무(無).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간시궐(乾屎橛).** 이런 등등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의 잣나무.”** 그랬어요.

**화두의 비밀.** 이런 말도 아마 감히 누가 함부로 못 쓰는 말입니다. 화두의 비밀이라니요? 화두를 숭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화두의 비밀이라니요? 이 점을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아주 빛나는 날입니다. 이것이 소염시와 연결이 된 것인데요. **당나라의 현종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양귀비가 정인(情人)인** (안록산 난을 일으킨 내용이지요.) **안록산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린 소염시다. 송나라 때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시다. 양귀비는 현종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안록산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깊어지자 안록산은 몰래 양귀비의 처소를 찾곤 했다.**

선사들도 틈이 많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 이기도한 것이, 선사들이 도를 나누는 그 준엄한 자리에 양귀비와 안록산이 바람피우는 시로 선을 가르쳤어요. 그 말에 또 깨달아요. 대혜스님의 스승, 원오극근선사가 그 말에 또 깨달은 겁니다. 재미있잖아요. 절 집안. 특히 “禪師(선사)”하면 그냥 근엄하고 무섭고 서릿발 같고... 선의 7대 정신을 이야기할 때 枯高(고고)라는 말이 있지요. 고고하고 幽玄(유현)한 것. 이것만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변화무쌍 합니다. 이 선사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염시를 하늘같은 선사들이 소염시를 거침없이 인용하는 겁니다. 다시 소염시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그 맵시, 그림으로 그리려 해도 그리지 못하리니, 깊고 깊은 규방에서 내 마음을 알리노라. 자주자주 소옥을 부르지만 소옥에겐 일이 없고 오직 님께 제 소리를 알리려는 뜻이라네. 일단풍광화불성(一段風光畵不成) 동방심처진여정(洞房深處陳予情)** 내 정을 알린다. 내 마음을 알린다. **빈호소옥원무사(頻呼小玉元無事)**라. 소옥은 양귀비의 시녀입니다. 몸종이예요. “소옥아”는 한국식이고 “소옥” “소옥” 이랬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소옥아”했겠지요. 그런데 소옥이는 바로 옆이 있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 “소옥아” “소옥아”자꾸 부르는 겁니다. 소옥에게는 사실 볼 일이 없어요. **지요단랑인득성(只要檀郞認得聲)이**라. 오직 님께 제 소리를 알리려는 뜻이라네. 내가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저 담 넘어 숨어 있는 안록산. 빨리 담 뛰어 오시오.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를 들어내는 말입니다. **소염시의 내용처럼 양귀비가 시녀인 소옥을 부르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편이지 소옥을 찾는 것은 아니다. 양귀비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을 알았다면 안록산도 곧 자신을 드러내는데 지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임제스님이, 우리 모두는 임제스님의 후손입니다. 임제스님이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황벽스님께 가서 물었어요. 그랬는데 황벽스님은 그 많은 8만 대장경을 놔두고, 몽둥이로 후려쳤어요. 황벽스님은 아주 장사입니다. 몽둥이도 보통 몽둥이가 아닙니다. 20번을 후려쳤어요. 그것을 무려 세 번이나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화반탁출. 속까지 다 드러내서, 다시 말해서 화두의 비밀을 이야기하기로 하면 바로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이고, 그것 밖에 달리 불교가 없습니다. 그것 밖에 달리 도가 없습니다. 도라면 그것이 도이고, 불교라면 바로 그것이 불교입니다.

“소옥아”라고 불렀습니다.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똑 같은 말이지요.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앞에서 오조 법연스님이 이것을 설명 했지요? 장제형의 이야기 거사. 여기에 거사님들 보살님들 스님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일반불자들이 많으니까 더 잘 어울리네요. 장제형이라고 하는 법무관쯤 되는 거사분이 원오스님에게 법을 물었는데 오조 법연스님이 이 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옥아” “소옥아”라고 불렀지만, 어디 소옥이가 옆에 있는데요 뭘... 소옥이가 귀먹었나요? 물 다 떠다줬고 옷 갖다 줬고 차 다려 줬고 할 일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소옥이 부르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어지간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면 이 말에 다 아는 것이지요. “아~!”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뭐라고 말을 했던 지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임제스님은 그렇게 60방망이를 얻어맞고도, 자기를 드러낼 줄을 몰랐어요. 지체 했어요. 여기는 안록산이가 지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면 자신을 드러낸 양귀비의 처지와 그 심사가 어떠하겠는가?** “에이 오늘 장사 글렀다.” “오늘 틀렸다.” 그러니까 임제스님이 황벽스님에게 계속 쫓겨난 것입니다. 계속 쫓겨난 것이라고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저~ 멀리 대우스님한테 가서 그때야, 그때야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세 번 콱콱 쥐어박았어요. 그때는 몇 달이 걸린 뒤입니다. 황벽스님한테 그렇게 60방망이를 얻어맞고는, 아무런 자기표현을 할 길이 없었어요. 할 줄 몰랐으면 못해야지요.  “소옥아” “소옥아” 아무리 불러도 안록산이가 그 소식을 모르면, 감히 담을 못 뛰어넘어 옵니다. 그 소식을 알면 얼른 뛰어넘어 오는 겁니다. 그 말을 알아들으면요. 양귀비가 자기를 표현 했으면 안록산이도 자기를 표현해야 옳을 것 아닙니까? 아마 안록산도 처음에는 몇 번 그 소옥이를 부르는 소리를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나중에야 알았지요.

**만약 안록산이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담장 밖에서 ‘소옥이를 왜 부르는가?’= 이뭐꼬? 無라? 간시궐이라? 잣나무라? 판치생모라?** (1700가지 화두를 다 갖다 들이대도 소용없어요.) **하면서 서성이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뜻을 몰라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말을 참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아이구 양귀비가 배가 아픈가?’ ‘소옥이가 없는가? 없어서 저렇게 부르는가?’ ‘있어도 배가 아파도 많이 아파서 저렇게 자꾸 부르겠지?’ 별별 궁리를 다 할 겁니다. 별별 참구를 다 할 겁니다. 화두의 실체란 이런 것입니다.

**부처를 묻고, 불법을 묻고, 조사를 묻더라도 다만 그 묻는 존재가 드러났을 뿐이고** 어떻게 답을 하던 석가모니 같이 꽃을 들었든, 구지화상 같이 손가락을 들었든, 황벽스님 같이 몽둥이로 후려 갈겼든, 그 외 1700가지 온갖 화두들. **이런 것은 답을 하는 존재가 드러났을 뿐 그 외에는 달리 다른 것이 없다.** 무어라고 답을 했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 쫓아가는 똥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말 하는 그 놈을 무는 사자가 되어야 되고, **답착비공(踏着鼻孔)**이라 그랬지요? 근본을 밟을 줄 알아야지, 庭前柏樹子(정전백수자)라고 했다. 정전백수자가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는데, 백림사엔가 가보니까 잣나무가 아니고 측백나무더라. 이 柏자는 측백나무 백자라고도 쓴다. 그래서는 지대방에서 야단입니다.

측백나무면 어떻고 잣나무면 어떻습니까? 소나무라면 또 어때요? 버드나무라고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잣나무가 아니고 측백나무백자라고 해서 얼마나 선방에서 한참 왈가왈부 했는지 말도 못해요. 지대방이라는 데가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거기가 아주 재미있는 동네거든요. 그야말로 殺佛殺祖(살불살조) 하고, 온갖 세상 사람들 과거에 부처고 조사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정보가 다 제공이 되고, 죽이고 살리고 거기서 다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측백나무다. 아니다 잣나무다. 옛날부터 잣나무라고 알았다고 해서 그냥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측백나무라 했든, 잣나무라 했든, 그 말하는 그 놈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나무라고 했느냐?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옥아” 소옥이 한테 뜻이 있나요? 소옥이 부른 그 속을 알아차려야지요. 소옥이는 별 의미 없어요. 소옥이 옆에 있는 데요. 옆에 두고 부르는 거니까요. 이제 화두 다 아시겠지요? 화두의 실체를, 화두의 비밀을 다 아시겠지요? 이것은 옛날에 이야기 다 한 것입니다. 선방에 다니는 사람치고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선방 수좌치고 소염시 못 외우는 사람 없어요. **육조스님 밑에 남악스님. 남악 밑에 마조스님.- 백장스님.- 황벽스님.- 임제스님** ←이렇게 내려옵니다. 한국 불교도 이 법맥을 이어서 내려오는데 대주혜해 선사가 처음에 마조스님한테 참배하러 갔어요.

**“어디서 왔느냐?” “월주의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무엇하러 왔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보물창고는 돌보지 않고 집안을 내팽개쳐 놓고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내가 있는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려 하는가?” 대주선사가 마조에게 절을 올리고 여쭈었다.  “어떤 것이 제 집에 있는 보물창고입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대가 바로 보물창고이다.** 묻고 있는 그 사실 “소옥아”라고 부르는 그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소옥아라고 불렀든, 무비야라고 불렀든 의미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어찌하여 밖으로만 그것을 구하려하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무량대복이 그 안에 있고, 8만4천 신통이 거기에 있어요. 가장 성공한 인생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요. 최고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대주선사는 자기의 본래의 마음을 깨닫고 뛸 듯이 기뻐하며 예배하고 떠났다.** 영리한 사람은 이렇게 한 마디 일러주면 끝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조사스님들에 이르기까지 깨달은 사람들 의 안목은 시종일관 바로 그겁니다. 자기보물.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보여줬고, 60방망이 후두두려 패면서 보여줬고, 맞아도 모르니까 엉뚱한데 가서 그때사 눈을 뜨고는 표현을 했는데요. 세 번 물으러 갔다가 세 번 맞은 영향이 있어서 주먹으로 세 번 허리를 쾅쾅 쥐어박으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참으로 근사하잖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비록 큰 눈을 뜨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 선불교, 선문답에 맛을 들이면요? 다른 것 보기가 싫어요. 선문답 기록해 놓은 禪書(선서)가 그렇게 재미있고 멋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승 경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좀 너저분하거든요. 사실은... 너무 친절하고요. 그런데 선문답은 친절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명료해요. 그리고 또 의미심장하다고요. 우리의 자랑. 직지심체요절. 백운화상이 모은 직지심체요절. 얼마나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떠들고 야단입니까? 그 제목이 뭡니까? **白雲和尙抄錄(백운화상초록) 直指心體要節(직지심체요절)**인데요. **直指心體.** ←이것이 뭐예요? 과거칠불에서부터 저~ 밑에 조사들의 가르침을 전부 다 뽑아놨어요. 다~요약해 놓은 겁니다. 절요예요. 그야말로 요절입니다. 아주 요긴한 절목만 딱 갖다 놨는데요. 그것을 한 마디로 直指心體다. ‘우리들의 心體를 바로 가르친 것이다.’ 이것 밖에 달리 없어요. 백운화상은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모든 가르침을 “直指心體”라고 보신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선불교전통이 뭐지요? 直指人心(직지인심) 見性成佛(견성성불)이잖아요. 백운화상은 그것을 直指心體. ←이렇게 더 분명하게 했어요. 直指人心이나 直指心體나 그것이 그것이지만, 直指心體라. 그것이 금속활자가 어떻게 되었고, 독일의 쿠텐베르크 보다 80 몇 년이나 앞섰고, 이거 떠드는 것도 좋은데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좀 알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直指心體입니다. 심체를 바로 가리킨 것입니다. 전부. 시종일관 모든 가르침이 바로 심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불교 다예요. 간단해요. 불교 간추리기가 좀 좋아요? 그 보다 더 간단한 것은 黃檗佛法無多子(황벽불법무다자). 황벽불법 참 간단하구나. 주먹으로, 방망이로 후두두려팬 것. 그냥 자기 드러낸 겁니다. 자기 드러내는데 손가락을 세웠든, 꽃을 들었든, 안경을 들었든 이것은 내 심체를 드러낸 겁니다. 내 심체가 없이는 이런동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손가락을 들어도, 꽃을 들어도, 안경을 들어도 이것은 곧 내 심체입니다. 나라고요. 그것 봤으면 끝입니다. ‘저 스님이 안경을 바꿔 달라는 뜻인가?’ ‘수건 갖다가 좀 닦으라는 뜻인가?’ ←이렇게 되면 8만4천 법문이 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불교가 한 눈에 확 들어오시죠? 팔만대장경을 모셔놓은 해인사에 여러분들 가보셨지요? 거기에 주련에 혹시 이 구절을 보셨어요? 그 많고 많은 팔만대장경에서 가장 값진 말. 팔만대장경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圓覺道場何處(원각도량하처) 現今生死卽是(현금생사즉시).** 이것은 팔만대장경을 요약한 말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圓覺道場**이 뭡니까? 부처님이, 조사스님들이 깨닫고, 그 깨달음의 세계를 펼쳐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이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저기 나무에다 새겨놓은 나무가 **圓覺道場**이냐? 그렇다손 치자. 그 안에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럼 그 주된 뜻이 뭐냐? **現今生死**가 **卽是**다. 지금 우리 한마음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이 일어나면 **生**이요. 다음 생각에서 그 일어났던 생각이 사라지면 **死**입니다. **現今生死**입니다. “호흡” “호흡” 이것도 생사입니다. 가고오고, 가고오고, 이것도 생사입니다. **現今**에 **生死.** 부단히 하루에도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생사를 반복하고 있고, 그러다가 한100여년쯤 가까워 오면 큰 생사 한 번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루 중에는 잠들고 깨고, 잠들고 깨는 것도 하루의 생사입니다. 또 한 순간의 생사는 이 생각 일어났다 저 생각으로 바뀌고, 또 호흡도 생사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現今生死**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 마음. 이 심체로 살아가는 그 삶을 **現今生死**라고 한다고요. **現今生死**가 바로 **圓覺道場**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 마음. 이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圓覺道場**이다. **圓覺道場**이 어디 있더냐? 바로 **現今**에 죽고살고, 죽고살고 하는 이 순간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卽是**다. 오늘 팔만대장경을 졸업 했어요. 이 한 마디로 졸업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直指心體도 기억 하세요. 우리의 자랑스런 백운화상께서 편집하시고, 또 청주에서 그렇게 최초의 금속활자로 활자본을 만들어서 세계에 아주 자랑꺼리. 얼마전에 유엔에서 전시를 했대요. 뉴스에도 났었는데 금속활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발명이 돼서, 우리가 지금 어깨가 우쭐한 내용이 直指心體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집약한 것입니다. 상 하 두 권으로 집약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心體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 외에 달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 심체를 가리킨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화두인들 거기서 뭐가 벗어났겠어요? 뭐가 벗어날 일이 있겠어요? 화두인들... 그 어떤 기상천외한 표현을 썼다한들 벗어날 이유가 어디 있겠으며, 벗어난들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을 벗어난들 어디 가겠느냐 이겁니다. 불교에는 온갖 방편이 많고 거품이 많아서, 우리 초보자들은 방편 쫓아가고 거품 속에서 헤매느라고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또 聖人(성인)의 말씀이고 부처님말씀이니까 겁이 나서 해석도 함부로 못하겠고요. 우리 불교의 경전은 괜찮아요. 다른 종교의 경전은 아주 대단해요. 손 올려놓고 뭐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불교의 경전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초보 불자들은 아주 신성시 합니다. 아주 신성시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존경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쳐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전 종이는 화장지로 쓰기도 불편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툭 트여야 됩니다. 다른 종교 믿는 것처럼 갑갑하게 살지 말고, 툭 터지게 시원시원하게 사셔야지, 이렇게 시원시원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우리 불자가 갑갑해서야 불자된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서장 강의가 세 번째인데요. 간화선이라는 타이틀을 걸어 놨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간화선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간화선의 숨은 뜻은 무엇이고, 화두의 숨은 뜻은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간화선을 공부하는데 세 번이나 왔으니까, 정리해서 간화선에 대해서 어디 가서 말씀 드릴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앉아서 좌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헛 시간이 안 되고 허물이 없습니다.

서장 대 강좌 3 - 2 강

지난 시간에 증시랑이라는 분의 편지를다 끝내지 못했는데 53쪽. 이것은 정성의 문제입니다. 精誠(정성). 정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誠연구단체라는 것도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에든지 정성을 다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 무엇을 하던지 정성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도 강의 하루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정성을 들이고 올라옵니다.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다

**받아 보니,당신이 편지를 보낼 때에 모든 성인을 위하여 향을 사르고, 멀리 암자 쪽으로 예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참 좋은 자세지요? **그대의 정성스런 마음이 지극히 간절합니다.** 이것이 정성이 아니면 성인들에게 향을 사르고, 예배를 하고 북쪽에 대혜스님이 계신다면 북쪽을 향해서 향을 사르고, 예배를 하고... 우리가 객지에 살 때, 정월 초하루 되면 부모가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한다든지, 또 스승 계신 곳을 향해서, 세배를 못 가면 그 쪽을 향해서 예배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북 쪽을 향해서 세배를 올리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성이지요.

**서로 떨어진 거리가 비록 많이 멀지는 않지만 만나서 말하지 못했으므로 뜻 따라 손 따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지럽게 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편지가 좀 길어졌으니까요. 뜻 따라 손 따라 내 마음 가는 데로 손 가는 데로 한껏 썼다는 말입니다. 당신 정성이 그렇게 지극하니까 난들 그냥 있을 수 있나? **비록 번거로우나 또한 성의와 지극한 마음에서 나와서 한 마디의 말과 한 글자도 서로 속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대를 속인다면 이것은 제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나도 진실을 쏟아서 이렇게 답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또 기억해 보니** 선재동자 이야기가 전번에 나왔지요?

**선재동자가 적정바라문(寂靜婆羅門)을 만나고 성어해탈(誠語解脫)을 얻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보살이 아뇩보리(阿褥菩提)에서, 과거에도 이미 물러남이 없었고, 현재에도 물러남이 없으며, 미래에도 물러나지 않아서, 구하는 것을 이루지 않음이 없었던 것은 다 성실함이 지극한 데에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정성 문제를 대혜스님께서 말씀하다 보니까 앞에서 화엄경의 선재동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기억이 나서,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화엄경에 성실함. 정성의 지극함 때문에 이 **최적정바라문이성어해탈을** 얻게 된 사례를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정성 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요. **당신이 이미 대나무 의자와 포단으로 친구를 삼는다고 하니,**이것은 좌선입니다. 좌선할 때 절에서는 좌복이라고 합니다. 세속에서는 방석이지요. 방석 위에 앉아서 좌선하는 것으로서 친구를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화엄경에다 배대를 해보면 **선재동자가 최적정바라문(最寂靜婆羅門)을 만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재동자가 최적정바라문을 만났으면 이제는 공부는 떼 논 당상이다 이겁니다. 당신이 그 정도로 열심히 좌선을 한다면 깨닫는 것은 떼 논 당상이다. 염려할 것 없다 이것이지요.

**또 운문(雲門)에게 편지를 보낼 때 모든 성인을 대하고 멀리서 예배 한 뒤에 보낸 것은 다만 저를 믿은 것이니, 이것은 정성이 매우 지극한 것입니다. 다만 자세히 들으십시오. 다만 이 같이 공부를 해 가면아뇩보리(阿褥菩提)를 틀림없이 원만(圓滿)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증시랑에게 보낸 편지. 이것은 증시랑에게 당신이 그렇게 정성을 보냈고, 나도 정성을 표현 했습니다는 말만 했지만, 속뜻은 앞으로 계속 문제해결의 열쇠는 정성을 들이는데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인물에서 화두의 비밀과 화두의 모든 열쇠. 그야말로 和盤托出(화반탁출) 해서 다 드러냈지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정성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는 정성이지요. 그만치 우리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았을 때, 그것이 내 살림살이가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시랑에게 답함**

이분하고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이것은 발심한 것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부귀하되 부귀에 굴복 당하지 않았으니, 전생에 반야의 種智(종지)를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혹시 큰 그룹 회장님 안 계시죠?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장 차관도 없지요? 있어요? 장 차관이나 큰 그룹 회장쯤 되면, 전부 거기에 굴복 당해서... 설령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항상 相(상)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자기의 我相(아상)으로 남아있어서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聖人(성인)들의 최고의 가르침! 인생 최고의 지침서인 이런 서장 같은 것. 참선 공부 같은 것에 관심을 기울일 겨를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뭐 좀 했다는 아상이 있어서... 사업 좀 어쩌다가 잘 되어서... 혹 재수 있거나 줄을 잘 타서 돈 좀 벌었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아상이 꽉차버려요.

여기 이 분은 시랑벼슬. 대단한 벼슬인데요. 그야말로 **부귀하되 부귀에 굴복 당하지 않고,** 벼슬을 했고 부귀를 했는데, 거기에 **굴복 당한다**고 표현했어요. 거기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자신은 도취해서 자랑스럽게 살지만, 聖人이 보기에는 굴복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從(종) 이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회장이 되고, 한 번 그렇게 장 차관이 되면 그 다음 부터는 노예가 돼버립니다. ‘내가 장관 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뭐였는데...’하고서 그것이 굴복당하고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깊이 새겨야할 표현입니까? 굴복당한 것입니다.

天上天下唯我獨尊(천상천하유아독존). 이 세상에 주인이 되어서 그 알량한 돈이나 재산이나 벼슬에 굴복 당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내동댕이친다면 말이 아니지요. 인생에 눈을 뜬 사람은 그렇게 굴복 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발심을 찬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생에 반야의 種智를** 심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반야의 種智를** 심는 일이 되겠지요. **다만 중간에 이 뜻을 잊어버리고 예리한 聰明(총명)의 장애를 받아 얻을 것이 있다는 마음이 앞에 문득 가로 놓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聰明과** 有所得心(유소득심)은 病(병)입니다. 뭔가 얻을 것이 있다는 그것이 병이 돼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영리했으니까 그 총명한 머리로 이래저래 계산하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반야심경 외웠지만, 반야심경의 핵심은 무소득입니다 무소득. 얻을 바 없다는 以無所得(이무소득). 그래서 삼세제불이 이무소득. 무소득 때문에 삼세제불은 이렇게 했고, 또 무소득 때문에 보리살타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소득이 중심에 딱 있고, 양쪽으로 부처와 보살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반야심경을 도표로 그리면 딱 중심에 이무소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출발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끊어버리는, 빠르고 중요한 고인의 가르침의에 따라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서 곧 쉬지 못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의 편지를 딱 보고, 감정을 해보니까 바로 이 분의 병과 염려스러운 점이 이 점이더라 이것이지요. **이 病은 賢士大夫(현사대부)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스님들도 또한 그러하여,**

사대부들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전문적으로 공부 한다는 스님들도 대개 그런 병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더는 곳에 나아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힘을 더는 곳이 힘을 얻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란 바로 힘이 덜리는 것이다. 省力處(생력처)가 得力處(득력처)이고, 得力處가 省力處라는 말이 서장에 자주 나옵니다. “힘을 얻었다.” 하면 힘이 덜 들지요. 운전 처음 배울 때 그렇지요. 처음에는 힘이 잔뜩 들다가 나중에는 옆에 다 살피면서 곧잘 갑니다. 그것이 힘을 얻어서 그런 겁니다. 힘이 덜 드는 겁니다. 공부에도 그래요. 공부도 처음에는 좀 힘이 들지요. 좀 하다보면 힘이 덜 들어요. 힘이 덜 든다는 것은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힘을 얻었다는 것은 따로 근육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교공부는... 힘이 덜 들어요. 쉽게 돼요.

더운 날씨이지만, 이런 곳에 오는 것도 자꾸 “간다.”는 마음을 한 번 딱 작정을 해버리면, 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그 더운데 어떻게 가느냐?”고, “얼마나 힘 드느냐?”고, 힘 안 든다고요. 쉽게 와져요. 그것이 득력입니다. 벌써 힘을 얻었기 때문에 힘을 안 들이고 오는 겁니다. **다만 총명과 의식, 계교와 사량으로 밖을 향해 달려가 구하며, 선지식이 총명과 의식 계교와 사량하는 밖을 향하여 本分(본분)의 糧食(양식)을 언뜻 듣고는** 本分의 양식. 이겁니다. **本分의 양식을 언뜻 듣고는** 그러니까 임제스님이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황벽스님이 몽둥이로 후려쳤어요. 이것이 本分의 糧食입니다. 본분이 우리 心體(심체)예요. 심체의 양식입니다. 부처님의 팔만장경도 양식이지만, 꽃을 들어 보인 것이 진짜 본분의 양식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좋은 양식이라고요. 그것하나 잘 먹으면 다른 것 안 먹어도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니까 우리가 팔만장경을 다 뒤져도 배가 고픈 겁니다. 허기진다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꽃 든 것. 그것을 하나 잘 소화 해버리면 그 다음에 안 먹어도 돼요. 평생 안 먹어도 됩니다. 세세생생 안 먹어도 된다고요. 아시겠지요? 이제 뭔가, 이 선불교가 그림이 어렴풋이 그려지죠?

**양식을 언뜻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대면하고서도 어긋나 지나칩니다.** ‘부처님이 저 꽃을 처음 봤는가?’ ‘부처님이 저 꽃을 왜 들었는가?’ ‘우리 구경시켜주려고 들었는가?’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겁니다. 꽃을 들어 보인 것은 그야말로 우리 본분의 양식인데요. 그것을 덥석 먹고 소화를 해버려야 되는데 ‘부처님이 꽃을 왜 들었는가?’이렇게 어긋나 지나치고 마는 것이지요. **옛 부터 고덕(古德)이 실법(實法)을 사람에게 준다고 하니,** 실다운 법. 사실은 무소득이잖아요. 반야심경만 해도 무소득인데 이 선불교는요. 반야심경보다 한참 높아요. 한참 높은 것이 선불교입니다. 반야심경도 무소득인데 선불교야 말할 것도 없지요. **실법을 사람에게 준다고 하니 조주의 방하착(放下着)과 운문의 수미산(須彌山)의 류가 이것입니다.** 이것도 본분의 양식입니다. 진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덥석 먹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수미산?’  ‘방하착?’ ‘왜 수미산이라고 했는가?’  ‘왜 방하착이라고 했는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느라고 이 더운 여름에 용맹정진. 지금 한창 용맹정진의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안 되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것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것이 좋은 방편이라고요.

서장 대 강좌 3 - 3 강

증시에게 답한 두 번째 편지 중간, 대혜스님께서는 경전도 다 섭렵하시고, 또 당시까지의 깨달은 선지식들의 모든 어록들을 다 섭렵하셔서 이 서장이 한낱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치지 않고, 경전과 어록. 거기에다 당신의 깨달음의 안목을 피력 하셨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장의 한 마디에 깨달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당시까지의 불교가 가장 발전된 소위 불교로서 看話禪(간화선). 話頭(화두)를 유심히 관찰하고 살피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떨어 버리는 아주 간단하고 소박하고, 깊이 있고 고고하게 갖추어가는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장이 간화선의 지침서로서, 비록 간화선이라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첨예한 방편이, 발전된 방편으로서 오늘 날 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효용이 큰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p. 57.**

**암두 스님이 말하기를 “물건을 물리치는 것이 상(上, 道人)이 되고 물건을 쫓아가는 것이 하(下, 衆生)가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렇지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입니다. 나 아닌 모든 다른 것은 경계이고 대상입니다. 그것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지요. 물건을 쫓아간다는 것은 거기에 끌려가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上이다. 下다. 道人이다. 衆生이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네요. **또 말하기를 “종지(宗旨)는 모름지기 한 글귀를 알아야 하니, 宗旨.** 근본 종지는 **한 글귀를 알아야 된다.** 종지라는 말을 불교에서 잘 쓰는데 참 좋은 말입니다. 으뜸가는 宗자지요. 이것이 한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를 뜻합니다. 그 근본 취지를 알아야 된다는데, 그 근본 취지는 **모름지기 한 글귀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무엇이 한 글귀인가?** 여기 해석을 합니다.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를 바른 글귀[正句]라고 한다.** 정구라고 한다.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호흡이 뚝 끊어질 때. 1억짜리 수표를 놨는데 금방 없어졌어요. 돌아보니까 없다 이겁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숨이 끊어져요. 화두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개가 불성이 없다니 “없다.”하면 그것이 “왜 없다 했는가?”가 아니고, “없어?” “없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1억짜리 수표가 없어졌다. “어??” 그때부터 숨이 올 스톱 되어 있어요. 그때 숨이 끊어져도 안 죽어요. 이상하게... 안 죽는다고요.

화두가 그렇게 접어들면 며칠 안 갑니다. 3일. 길어야 7일이라고, 禪要(선요)에서 그렇게 했어요. 길어야 7일이고 3일이면 끝난다. 정 둔한 사람은 한철. 그런 정도로 이야기 해 놨습니다. 둔하면 한철까지는 가는데 대개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수표가 금방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출근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못합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밥을 먹겠습니까? 잠도 안 오고 밥 못 먹습니다. 출근이 문제입니까? 평생 모아도 월급쟁이는 못 모을 것인데요. 어떻게 출근 하겠습니까? 출근하면 뭐해요? 그 까짓 것... 돈 1억 잃어버리고... 그렇게 들어가면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렇게만 들어가면...

부처님이 꽃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설법 잘 하시더니 오늘은 왜 입이 다물어졌나? 입에 마비가 생겼나? 왜 꽃을 들었는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꽃??” 그리고 숨이 딱 멈춰야 됩니다. 구지선사의 손가락 알지요? “손가락??” 이러고 숨이 그냥 끊어져야 됩니다. 사량 분별. 일체 의식의 진행이 뚝 끊어져야 되는데 ‘저 손가락 왜 들었을까?’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되면 3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30년도 가는 겁니다. 그 순간 들었을 때, “소옥아”이렇게 불렀을 때 척. 담 뛰어 넘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들으면 척. 담 뛰어 넘지요. 머뭇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머뭇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 해 놨잖아요. 이렇게 알고 화두를 들면, 상당히 소득이 있을 겁니다. 지금 화두 들고 열심히 정진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 실수로 깨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실수로라도 깨달았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실수로 깨달았다.” ←이 소리도 여태, 수 십 년 동안 못 들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실수로라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많은 사람이 그 오랫동안 하면...

이미 다 깨달아 버려서 깨달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럼 깨닫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깨닫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를 바른 정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한 글귀를 알아야 하는데 무엇을 한 글귀라고 하는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억” 하고 그만 숨이 딱 멈춰진 그 상태입니다. **또한 이마에 머무는 것.거정(居頂)**이러는데,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이마에 머무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경지입니다. **또한 머묾을 얻었다 득주(得住).** 비로소 머묾을 얻는다. 계속 흘러가지요.계속 흘러가는데 “억”하고 숨이 멎었을 때 그때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호흡이 쉬어지지 않아도 죽지도 않아요. 생각이 어디로 흘러갈 까닭이 없어요. 머문다고요. 평소에는 無所住(무소주)입니다.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본마음의 모습이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생각 다 그냥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여기 앉아서 온갖 친구, 온갖 볼 일 다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本領(본령)입니다. 마음의 본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무소주잖아요. 應無所住(응무소주) 而生其心(이생기심)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본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忠(충)을 하라. 孝(효)를 하라. 뭐를 하라. 뭐를 하라. 딱 한 곳에 매달아 놓으려는 가르침이나 그런 사상은 틀린 겁니다. 잘못 된 것입니다. 어디에 목을 매달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應無所住 而生其心. 우리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저는 눈만 아니면... 세상의 체면과 눈만 아니면 벌써 어떻게 되었지요 사실은... 안 그래요? 마음 하자는 대로 했으면 벌써... 이대로 있겠어요? 이대로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체면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원래 우리 마음은 應無所住 而生其心입니다. 머물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머묾입니다. 진짜 그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방편이라고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어서 한생각도 사량 분별심이 뚝 끊어졌을 때는 머무는 겁니다. 최고의 방편입니다.방편치고는 최고의 방편이라고요. 그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 간화선에서는 그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머물지 않는 것이 본령인데, 머물기를 강요하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강요해요. 이것은 진짜 강요입니다.

**머묾을 얻었다고 하며, 또한 역력(歷歷)하다고 하며, 또한 성성(惺惺)하다고** 그때 “화두가 역력하다.” “화두가 성성하다.” 그 생각 하나 뿐이니까요. “無” 하면 그 생각 하나 뿐입니다. 왜 무라고 했느냐? 부처님은 有情(유정) 無情(무정)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는 왜 없다고 했느냐? 이렇게 그냥 염불 하듯이 그렇게 해나가면 이것은 벌써 아닙니다. 그것은 뭐죠? 무소주입니다. 應無所住 而生其心입니다. 보통 마음입니다. 그것은 평상심입니다.

그런데 간화선은 평상심 아닙니다. 평상심을 반역하는 겁니다.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 **得住**라고 하는 것이지요. **머묾을 얻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에 뭐라고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두 든다.”하는 그 마음과 화두를 들지 않는 우리 평소의 평상심과 아시겠지요? 그 화두를 들지 않는 평상심은 물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고, 굳이 화두라는 이방편으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정신세계로 몰입해 본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요즘 [단기출가]도 있고, [시민선방]도 있고 많지요? [토요 참선회]도 있고, [철야 정진회]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할 때는 무소주를 주로, 머물지 않는 것을 머무는 것으로 한 번 다잡아보는 겁니다. 이거 한 번 해볼 필요 있습니다. 해볼 필요 있어요. 해보면 별별 현상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빌려줬던 돈도 기억나고요. 온갖 것이 다 기억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이상한 정신적인 현상이 버러집니다. 정신도 상당히 강력해지고요. 깨닫는 것은 차치하고... 이 마음 상태가 이상해져요. 아주 상당히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식에 근육이 생깁니다. 뼈가 생겨요. 근육이 생겼다가 그것이 뼈로 되어요. 체조 같은 것을 안 하다가 하면 근육이 생기지요? 알통이 생겨요. 우리 어릴 때 해보면 조금 생기면 알통 자랑한다고요. 그와 같이 우리 정신에 알통이 생깁니다. 화두 드는 훈련하면요. 그것은 제가 하듯이 하는 화두 드는 것이지요. 제대로 드는 화두가 아니고요. 그냥 억지로라도 마음을 붙잡아 매어 보는 것. '왜 無라고 했을까?''왜 無라고 했을까?' 이렇게 계속 흩어지는 마음을 한 곳에다 집중시키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루에 10시간쯤 해 보세요. 그것을 한 철을 하니까 사람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정신에 근육이 생기고, 뼈도 생기려고 해요. 그리고 정신이 박력이 있다고 할까? 강하다고 할까? 아주 다이나믹 해져서 밀어붙이고. 자기 성격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한 철간 경험해본 것입니다. 옛날은 그렇게 부드럽고 사람이 그렇게 좋고 호인이라고 하고 자비롭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본래심이 나타나 버려요.

본래심이... 그리고 화 낼 때 팍 화내고 웃을 때 파악 웃어버리고요.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저도 놀랐지요. 억지로 화두 드는 일도 그렇게 정신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육신만 단련한다면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육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신도 단련하니까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심지어 뼈까지 생긴다고요. 이거 아니 해본 사람은 경험 못해요. 한철만 독하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그런 정신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得住**라고 했고, 여기 一句라는 것이 화두 드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대혜스님도 암두스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역력(歷歷)이라고 하고 성성(惺惺)이라고 한다. 또 “이러한 때”** 이것은 뭐라고 뭐라고 표현을 못해서 **“이러한 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를 가지고 일체의 시비를 모두 타파하여**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옳다 그르다하는 것이 뚝 끊어지지요. 우리 한 생각이 딱. 머물러버리면, 흘러가던 마음이 흘러가지 않고 한곳에 딱. 집중되면 거기에 시비가 붙을 수가 없지요.

善惡(선악)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너다 나다 하는 것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일체의 시비를 모두 타파하여 겨우 이러하면 문득 이러하지 않아서 옳은 것도 깎아버리고 그른 것도 깎아버려야 합니다.** 다 깎여져요. 없어져요. 옳다 그르다가 다 떠나 버려요. 떠나 버린다고요. 저절로 내 마음에서 다 올 스톱 돼버려요. 잘 났다. 못 났다. 있다. 없다 이런 것이 다 스톱 되어버린다고요.

**한 덩어리의 불과 같아서 닿으면 바로 타버릴 것이니, 어느 곳을 향할 것입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와 같아요. 종이나 책을 넣으면 금방 불이 돼버려요. 눈이 펑펑 쏟아지더라도 그 눈송이가 불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눈이 타는 것 봤어요? 눈이 타요. 불꽃을 일으키면서 탄다니까요. 밖에서 우리가 장작불을 많이 지펴 놓찮아요? 그럴 때 눈이 갑자기 쏟아져요. 그러면 눈이 불꽃을 일으키면서 타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사량 분별과 옳다, 그르다. 온갖 사량 분별과 망상 번뇌는 우리 한 생각이 딱. 한곳으로 집중 될 때는 어떤 생각도 어떤 사량 분별도 거기 와서 다 타버려요. 홀랑 다 타버려요.

그런 표현이 서장 외에도 선 지침서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있어요. 如一團火相似(여일단화상사)라. 한 덩어리의 불과 같아서, 接着遍消(접착편소)라. 닿기만 하면 다 타버린다.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다 타버린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파리가 어디 안 붙는 데가 없지요? 임금님 밥상에 붙는 것이 파리지만, 불 위에는 못 붙지요. 불 위에 붙으면 타 버리잖아요. 파리가 임금님 밥상에도 겁 없이 붙지만, 불덩어리 위에는 타버린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의식의 세계가 화두라고 하는 한곳으로 몰록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차원이 있습니다.

임제스님이 후두두려 맞았을 때, 몰랐잖아요. ‘왜 때렸을까?’ ‘왜 때렸을까?’우리는 할 수없이 ‘왜 때렸을까?’ ‘왜 때렸을까?’ 이 차원입니다. 꽃을 들어 보였을 때 가섭존자는 빙긋이 웃었지요. 그것은 아주 지금 우리 몫이 아니지요. 우리 몫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부처님이 ‘왜 꽃을 들었을까?’ 이 차원입니다. 그럼 그 차원만으로도 밀어붙입니다. 계속 밀어붙입니다. ‘왜 꽃을 들었을까?’라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것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작정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신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겁이 없어져요. 소극적인 마음이 적극적으로 되고, 시시한 심리적인 어떤 병은요. 싹 다 고쳐요. 억지로 밀어붙이는 공부도, 소소한 마음병은 다 고쳐져요. 아주 대단한 근육이 생깁니다. 정신에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이 뼈가된다 이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운동만 하면 우리 몸에 알통만 생기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화두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정신에 뼈가 생겨요. 정신이라는 것이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체가 없는데 근육이 생겨요. 경험 아니해본 사람은 이런 소리 못해요. 저도 선방에 한 10년 다닌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고 박력이 있어졌지요. 하하하 그렇더라니까요.

서장 대 강좌 3 - 4 강

그렇더라니까요. 겁이 없어요. 무식해도 겁이 없어요. 어떤 이는 그냥 들이밀어요. 세상을 사는데요. 그것 아주 중요해요. 작정을 하고 한 철만... 3개월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시간. 12시간을 한 철을 용맹정진한 적도 있어요. 한 철을 용맹정진! 정진이 온전히 되지는 않지요. 온전히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제쳐놓고 그냥 해 보는 겁니다. 내 힘닿는데 까지 한 철간 해 보는 겁니다. 잠 안자고 그냥... 머리를 벽에 박기도 하고요. 하도 졸려서 포행 한다고 돌다가 오대산 같은데 눈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잠깐 앉았다 누워서 눈을 자꾸 덮는 거예요. 이불이라고 자꾸 눈을 끌어 들이는 거예요. 입선 죽비를 쳤는데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화장실에 가 봐도 없고요. 마당에 돌아다녀 보니까 눈을 자꾸 끌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저러다 병 안 날까? 그런 것 걱정 하면 공부인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크게 병 안나요. 왜냐? 정신에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요.

**한 덩어리의 불과 같아서 닿으면 바로 타버릴 것이니,** 참 이것 멋진 말이지요. **어느 곳을 향할 것입니까? 지금 사대부가 사량과 계교로 소굴을 삼아** 이것이 머리 돌리는 겁니다. 머리 굴리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 동안 배운 지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별별 지식들이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無라? 無爲(무위) 철학인가?’ ‘道敎(도교)의 무위 철학하고 어떤가? 저떤가?’ 하고, 왜 없다고 했는가? 진짜 없는가? 그런 것을 여기 다 이야기 해놔요. 그런 생각들을 **사량과 계교.** 그래요. 그것을 **소굴을 삼아** 살 곳으로 삼아 **이러한 말을 들으면 곧 말하기를 ‘공(空)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지가 공에, 공 맛도 못보고 혹시 그것도 한 생각 뚝 끊어져서 아무 생각도 없는 데로 이 의식을 몰고 가면, 이것이 공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공 맛도 못 본 놈이 그러고 있다고요. 한 생각을 모으고 들어가는 것을... 옛날에 쥐 잡을 때 소 뿔. 소뿔을 가지고 쥐 잡는다대요. 소뿔 저~ 안에다가 냄새나는 먹을 것을 놔두면 쥐가 그 냄새 맡고, 큰 물 소뿔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와도 없지요. 계속 끝까지 들어와서는 머리가 딱 박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쥐가 그만 그 속에서 죽는대요. 그것이 쥐틀입니다. 옛날 쥐틀이 소뿔이라고요.

우리가 화두를 들고, 일부러 의식을 몰아가는 것이 그와 같은 거라고요. 이제 화두 드는 것이 좀 그려지지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옴짝달싹 못해서 거기서 죽어야 돼요. 쥐처럼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의식이 거기서 한 마음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불덩어리 처럼요.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괜히 가보지도 않고, **‘空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디서공에 떨어지면 안 좋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었는가?

**비유하건대 이것은 배가 전복(顚覆)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심히 불쌍한 일입니다.** 배가 출렁출렁 하니까 배가 넘어 가는 것 같다고 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허부적 허부적하는데 배는 멀쩡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강서(江西)에 이르러서 여거인(呂居仁)을 만나니 그가 마음을 이 인연에 둔 지가 오래되었으나, 또한 이 병이 깊었습니다.**사량 분별의 병입니다. **여거인** 이라고 하는 사람. 거사 분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어찌 그분이 총명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일찍이 말하기를 “당신이 공(空)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니, 능히 두려움을 아는 자는 공합니까? 공하지 않습니까? 시험 삼아 한번 일러보십시오.” 하였습니다.** 참 이거 멋진 말입니다. 이거 줄 쫙 입니다. 두 줄 쫙~ 모든 것이 공하다.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香味觸法). 공한 면이 있기야 있어요. 있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니 그 두려워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합니까? 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이겁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그 놈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근래에 여래장 사상 가지고 한참 왈가왈부 하지요? 무아(無我)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요.

아무리 무아다. 여래장이 있다 없다 그래도 무아다 라고 하는 그 놈은 뭐냐? 이겁니다. 아니 경전 다 제쳐놓고, 지금 이제 경전 가지고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경보다도 좀 앞서면 안 되나요? 경보다도 한걸음 앞서면 안 되냐고요. 경도 사람이 한 건데요. 경은 제쳐놓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자고요. 지금 “무아다.” “공이다.” “뭐다.”하는 그 놈은 뭐냐? 이겁니다. 그 놈은... 그것을 어떻게 부정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여래장이라고 하든지, 불성이라고 하든지, 무슨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다. 이름 안 붙여도 좋다 이겁니다. 개똥이 소똥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 못하지 않느냐? 지금 시시비비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부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알고 보면 간단해요. 無我(무아)라고 했든, 唯我(유아)라고 했든, 緣起(연기)라고 했든, 空(공)이라고 했든, 그까짓 소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옳다 그르다 화내고 웃고 불고 슬퍼하는 이 사실. 이렇게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것. 이렇게 홀로 있는 것. 이것만 있는 것. 지금 이것만 있으므로 孤明(고명)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있는,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봐요. 멋지잖아요?

**두려움을 아는 자는 공합니까? 공하지 않습니까? 시험 삼아 한번 일러보십시오. 그 분이 생각해서 계교로 대답하고자 하기에, 이때에 한번 할(喝)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할까? 뭐라고 대답할까? 온갖 지식을 주워섬기려고 하는데, **이때에 한번 할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아득하여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옥아”라고 불렀는데 ‘왜 소옥을 옆에다 두고 불렀는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돌아올 길이 참 막연합니다. 그래도 차선책으로 ‘왜 소옥이를 불렀는가?’ ←이렇게라도 하면 정신에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는 차선책이라도 쓸 수밖에 없지요. 우리 그릇이 거기까지고, 우리 근기가 거기까지니까 그래서 모두 선방에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지요.

**이는 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앞에 문득 놓여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만든 것이지, 다른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깨닫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깨닫고 말고 할 것이 없다고요. 소옥이라고 부르면서 양귀비가 자기를 표현 했으니까 안록산이는 담만 뛰어 넘어가면 그뿐입니다. 거기에 깨닫고 말고 할 것이 있어요? 양귀비도 자기표현 했고, 안록산이도 자기표현 했어요. 황벽스님이 그렇게 후두두려 패면서 자기표현 했는데, 그때는 몰랐지요. 몰라서 엉뚱하게 몇 달 뒤에 대우스님한테 가서 주먹을 내지르면서 그때야 자기표현 했어요. 부처님이 3000년 전에 꽃을 들었는데, 부처님의 자기표현을 가섭존자는 알아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표현 했어요.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는 아직도 맞장구를 못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맞장구를 쳐야 되는 겁니다. 담을 뛰어 넘든지...

**당신이 시험 삼아 이와 같이 공부를 해 가서,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日久月深] 저절로 잘 계합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가지고 쉬기를 기다린다면, 미륵부처가 하생(下生)할 때까지 참구(參究)해 가더라도, 또한 능히 깨달음을 얻지 못하며, 또한 쉼을 얻지 못하고 점점 미혹함만 더할 것입니다. 평전화상(平田和尙)이 말하기를** 이것은 또 알음알이 문제에 대해서, 알음알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辭典(사전)으로 計巧(계교). 思量(사량). 分別(분별)하는 것. 의식으로 이리저리 마음을 헤아리는 것. **“신령한 광명이 어둡지 아니하여 만고에 아름다우니, 이 문에 들어오려면 알음알이[知解]를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 아주 유명한 말이지요. 다음 페이지에(60쪽)**平田和尙(평전화상)이 曰(왈) 神光(신광)이 不昧(불매)하야 萬古徽猷(만고휘유)니 入此門來(입차문래)인댄 莫存知解(막존지해)하라.** 유명한 말입니다. 큰절 입구에 가면 대개 이런 주련 하나는 써 붙여 놨어요. 세속에서 박사학위 10개 20개 받은 것. 가짜 박사인지 진짜 박사인지 받은 것 다 내려놓고, ‘여기서는 다 내려놔라.’ 여기서는 진짜이든 가짜이든 별 의미 없다 이겁니다. 다 내려놓고, **入此門來인댄 莫存知解하라.**우리 불교 문에 이것은 절문(寺門)이 아니고 佛敎門(불교문)에 들어오려면 지식. 지해. 박사학위. 가짜진짜. 한국박사든지 미국박사든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莫存知解**라고 했잖아요. 지해가 뭡니까? 박사학위증 10개입니다. 알음알이.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해서 아는 것. ←이것 두지 말라.

이것이 제일 문제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는 문제네요 요즘도... 도를 아는데도 문제고 세상살이에도 문제고요. 그것 한 구절 외웁시다. **또 고덕(古德)이 이르기를 “이 일은 유심(有心)으로도 구할 수 없으며, 무심(無心)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말로도 지을 수 없으며, 말 없음으로도 통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밑에 원문이 좋네요. **此事(차사)는 不可以有心求(불가이유심구)며 不可以無心得(불가이무심득)이며 不可以語言造(불가이어언조)며 不可以寂黙通(불가이적묵통)이라**. 아주 이것 참. 말이지만, 어디까지나 말이지만 정말 주옥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흙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의 가장 최고의 가르침인데,** 진흙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진흙에 들어가야 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老婆心(노파심). 자비의 최고 극치에 이르는 말이지요. **가끔 참선하는 사람이 다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지나치고, 특별히 이것이 무슨 도리인지를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다.**

**莫存知解(막존지해).** 가짜든 진짜든아는 것 좀 내려놔라. 알음알이 좀 제발 내려놔라. 아는 것 자랑하고, “아 나는 무슨 학교 나왔네 어쨌네.” 그러면 지대방에서 앉아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저 중은 쌈지가 덜렁덜렁 해”이런다고요. 옛날에 쌈지차고 다녔잖아요? “쌈지가 덜렁덜렁한다.” 속물이 안 빠졌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절에 들어가면 俗물이 빠지고 衆물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물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러는 겁니다. 20년, 30년 나이가 50대쯤 접어들면요. 그때는 “저 사람 아직도 중물이 안 빠졌어”이래요. 처음에는 중물이 안 들었다고 핀잔을 주더니, 또 나중에 세월이 한참 가니까 중물이 안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래 되어야 돼요.

중물이 빠져야 됩니다. 저도 중물 빼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어려서 와가지고 중물이 너무 들어서는 도대체가 잘 안 빠집니다. 그것이 中道(중도)입니다. 중도가 별것 아닙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것. 우리 중도. 공부 했지요? 어떤 좋은 경지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출가한 사람이 세속적인 마음과 사고에 치우쳐 있어서 쌈지가 덜렁덜렁하면 그 꼴이 뭡니까? 그런데 상당히 공부 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중물이 안 빠져서, “아~ 중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 아만심. 자존심. 독 오른 독사뱀처럼 고개 쳐들고 안하무인이 되면 도 닦는 사람이 그것은 또 무슨 꼴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 편견이고 치우친 삶이지요. 모양새가 아니지요.

**만약에 힘줄과 뼈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거착(擧着)하는 것을 듣고는** ‘힘줄과 뼈가 있는 사람’ 여기 말 나왔네요? 정신에 힘줄과 뼈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거착 하는 것을 듣고는** 꽃을 들었든지 손가락을 들었든지 개가 불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을 들었든지 간에... **바로 금강왕의 보검을 가지고 단번에 이 네 갈래 갈등을 끊어버린다면, 생사의 길도 또한 끊어지며, 범인과 성인의 길도 또한 끊어지며, 계교하고 사량하는 것도 또한 끊어지며, 득실시비(得失是非)도 끊어져서 그 사람의 본분자리가** 앉은자리, 선 자리지요. **본분자리가 분명하고 깨끗해서 잡을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어찌 쾌활하지 않으며, 이 어찌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四路(사로) 갈등은 앞에서 말했던 **유심(有心). 무심(無心). 유언(有言 言語). 무언(無言 寂黙)** ←이런 말을 **네 갈래 갈등.** 밑에 주해를 달아 놨네요. 그렇습니다. 일체 것이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마디 딱. 들면 거기에서 끊어져야 된다고, 숨이 막혀야 된다고, 숨이 올 스톱 돼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무슨 얻고 잃고 득실시비가 어디 있으며, 있고 없음이 거기에 붙을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관계화상(灌谿和尙)이 처음 임제스님을 참례할 때** 관계스님이 임제스님을 참례한 거예요. **임제스님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문득 법상[繩床]에서 내려가** 사람이 오는데 바로, 法床(법상)이 아니라 앉아 있던 자리예요. **繩床(승상)**이라고 했네요. **승상**이란 그냥 스님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적당한 평상이나 의자 같은 겁니다. **내려가 곧바로 가슴을 움켜잡으니,** 멱살을 탁 잡은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그 내용 가지고 충분히 가늠이 갑니다. 이것이 짐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딱 잡았다 이겁니다. “소옥아”하고 불렀습니다. **관계화상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소옥아”라고 부르니까 담 뛰어 넘어오는 소리가 “쿵”하는 겁니다. **임제스님이 그가 이미 투철히 깨달았음을 알고 곧 밀어내서 다시 말로 상량함이 없었습니다.** 뭘 재차 물어보고 그렇게 아니 했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는데요. 꽃을 들었는데 빙긋이 웃었으면 끝났지 거기에 무슨 “너왜 웃었느냐? 뜻이나 알고 웃었느냐?”이럴 까닭이 없잖아요. **이때 관계화상이 어찌 알음알이로 서로 상대하여 얻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알음알이. ‘저게 왜 저랬을까?’ 하고 온갖 지식을 동원했을 까닭이 없지요. **옛날에는 이와 같은 모범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다만 헤아리고 비교하는 거친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이것이 차선책이니까요.

**관계화상이 처음에 만약 조금이라도 깨달음과 증득함과 쉬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앞에 있었다면, 가슴이 움켜잡혔을 바로 그때 깨달았다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득 손발을 묶고 휘둘러 한 바퀴를 돌아오더라도 또한 쉼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힘차게 다리가 부러져라고 크게 뚜두려패야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가락 딱 들면 됩니다. 손가락 들어서 안 되는 것을 온 지구를 다 돈다고 그것이 되나요? 여기의 말이 그 말입니다. 멱살을 한번 딱 잡았는데, 딱. 알았으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통하면 **손발을 묶고 온 세계를** 막 끌고 다닌다 하더라도 이것이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럼 흔히 선방에서 하는 말로 “更參三十年(갱참삼십년)”하라고 합니다. “다시 30년을 참구해라.”

**일상에 계교하고 안배하는 것도 식정(識情)이며,** 알음알이다 이겁니다. **계교하고 안배하는 것은, 안배(安排)**는 갖다 꿰어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노자의 무의 철학하고 흡사한데’ 하고 맞추는 것을 안배라고 합니다. **계교(計較)**는 혼자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고요. **생사를 따라 옮겨 흐르는 것도 또한 식정이며,** 보통 사람들의 의식은 늘 흘러가잖아요. 경계 따라서 흘러가지요. 그것도 역시 **식정(識情)**이다 이겁니다. 보통 의식이다 이 말이지요. **두려워하는 것도 또한 식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병을 알지 못하고, 다만 이 속에서 생멸하니,** 죽었다 살아났다 하니, **경교(經敎) 가운데에 이른바 ‘식정을 따라 행하고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식정**이라는 것이 우리 보통생각. 보통 사람들의 의식을 **식정**이라고 하고, 거기에 한 눈을 더 뜨고 사물을 판단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지요. 여기에 보면 그것을 나눠 놨어요. **식정을 따라 행동하고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요는 한 눈을 더 뜨고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 **이 때문에 본지풍광(本地風光), 본래면목(本來面目)에 어두우니[愚昧]** 이것이 우리의 참 생명이지요. **本來面目**이라고도 하고, **本地風光**이라고도 하는데 **本地風光**은 뭡니까? 본래의 경치다 이 말입니다. 본 경치. 우리 마음의 본 경치가 있어요. 그것이 또 참 얼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량 분별로 말하고 듣고 하는 이 사실이면서 또 이 사실이 아니고, 이 사실이 아니면서 또 이 사실입니다. 좀 알쏭달쏭 한데요.

“스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대화하고, 시간되면 집에 갈 줄 아는 이것하고 본지풍광 본래면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좀 알쏭달쏭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것뿐입니다. 손 흔들고 손 흔드는 줄 아는 것. 지금 이것뿐입니다. 말하면 말하는 것 듣고, 거기에 그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하는 이것뿐인데 이것 말고 본래면목. 본지풍광. 달리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이것뿐이다.”라고만 알면 거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떠나서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보고 듣는 이것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면서 또 이것이 모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본래면목에 어두우니 만약 한 때라도 놓아서 일체 헤아리고 비교하지 않으면,** 한 순간이라도 이 말입니다. **홀연히 알음알이가 사라져 콧구멍을 밟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踏着鼻孔(답착비공)이라고 제가 유인물에서 말씀드렸지요? **콧구멍.** 생명의 근본 뿌리를 우리가 콧구멍이라고 그러지요? 鼻底(비저)라는 말을 쓰듯이, 이것이 바로 “**밟아 버린다.”**하는 것은 생사해탈을 말하는 것이고, 온갖 문제해결을 말하는 것이고, 근본을 타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 정식이 진공묘지(眞空妙智)가 되어 다시 특별히 얻을 지혜도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정식**은 보통 사량 분별입니다. **眞空妙智** 라고 하는 것은 **本來面目.本地風光**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대로 **本來面目**이 되고, **本地風光**이 되어서 특별히 얻을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특별히 얻을 것이 있으며 증득할 바가 있으면, 또한 도리어 옳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혹할 때에 동쪽을 불러 서쪽이라고 하다가, 깨닫고 나서는 서쪽이 문득 동쪽이어서 따로 동쪽이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는데 아주 알쏭달쏭하면서도 긴가민가싶기도하고, 또 이것이 확실하지 않는 문제를 하나 던졌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식정(識情)**이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들의 의식과 깨달음의 안목에서 보는 의식을 여기서 **眞空妙智. 本地風光.本來面目.**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여기서 약간 언급을 했지요?

**이 정식이 眞空妙智가 되어 다시 특별히 얻을 지혜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로서 따로 특별히 정신세계가 있지는 않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능력. 이 사실인데요. 이 사실 외에 다른 것이 달리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인데, 이 사실이 가슴에 콱 뚫고 들어오지가 않아요. 맴돌고 있어요. 밖으로 맴돌고 있어요. 한마디로 소신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소신이...“아! 이거다!!”하는 소신이 없어요.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소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가 **만약 특별히 얻을 것이 있으며 증득할 바가 있으면, 또한 도리어 옳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에서 더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동과 서를 잘못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쪽이 문득 동쪽이고 따로 동쪽이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중생. 중생이라고 합시다. 저는 중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 중생의 의식이 부처의 의식인데, 중생의식 따로 놔두고 부처의식이 따로 없거든요. 그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의식일 뿐입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하는 것 뿐이라고요. 불교를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제일 큰 과제인데, 그것을 여기서 짚어나가는 것입니다. 잘 한 번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잠깐 질문 받겠습니다.

서장 대 강좌 3 강 중 [질문과 답변]

답변만 녹취 했습니다.

맨 서두에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빨리 깨닫는 것과 수십 년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안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저는 처음 선의 7대 요소, 내지 일곱 가지 정신을 소개를 하면서, “선은 삶”이라는 말을 했어요. 서장에도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병**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설명은 깨달음을 기다리고 깨달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잘못이라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설사 깨달았다 합시다. 그 다음엔 뭘 하시겠어요? 역시 禪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입니다. 그래서 “선은 삶”이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야말로 枯高(고고)하게 살고, 幽玄(유현)하게 살고, 簡素(간소)하게 살고, 아주 淸淨(청정)하게 살고, 그렇다고 어디에 고정불변하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무쌍하게 살고, 그런 일곱 가지 요소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화두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그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 다른 어떤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일체 세속적인 가치관이 다 사라져버린 오직 화두 하나만 至高(지고)히 갖추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 했던 지간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깨달아도 역시 그 삶이고, 깨닫지 못해도 역시 그 삶이예요. 그 삶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한 때 국민선사로 추앙 받던 모모스님 아시지요? 지금은 열반하신지 10여년이 넘었지요? 國民禪師(국민선사)입니다. 그 분이 깨달았든 깨달았지 못했든 그것으로 존경하고 추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의 고고한 삶.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고, 실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누더기 한 벌. 검은 고무신 한 켤레. 그 분이 선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 삶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밀듯이 찾아가고 존경하고 우리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금세기 국민선사로서 지금도 존경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뭘 깨달아서 존경 받는 것도 아니고, 못 깨달아서 존경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분의 삶이 그런 아주 소박하고 고고하고, 호랑이 말도 듣고 어린 아이들하고 친구이기도 하고요. 변화무쌍하고 위엄 있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탈속하고요. 그런 삶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천번 만번 깨달았다손 치더라도 그런 삶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대강 숫자를 언급 했습니다만, 프로가 2000명. 아마추어가 한 만 명쯤 됩니다. 참선에 종사하는 이들이요.

여기 어느 선원, 저기 어디 선원하면 신도님들이 한 800명, 1000명이 결제하고서 지금 참선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이웃에... 그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제가 줄잡아 만 명 이라고 하는데요. 신도님들 만 명이 더 넘습니다. 참선하는 신도님들이... 결제를 해서 최소한도 선방에서 참선하는 그 순간에는 설사, 속에서 무슨 망상을 피우고, 무슨 육도산맥을 그리고 있더라도, 최소한도 선방에 앉아있는 그 순간은 탈속하고 자연스럽고, 간결하고 소박하고 청정하지요. 그 순간 그 삶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깨닫고 못 깨닫고는 별 의미 없어요. 한 예를 들었던 그 스님. 소위 “국민선사”라는 말도 처음 듣지요? 그런 스님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스님이 우리에게 왜 감동을 주었던가? 깨달아서 감동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못 깨달았다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왈가왈부해서 상좌보고, 어떤 모임에서, 세미나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좌가 “나는 직접 말할 수가 없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녹음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하고 책 몇 페이지를 들고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깨달음은 그 스님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직도 下手(하수)입니다. 高手(고수)가 아니라고요. 禪의 高手는 깨달음을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7대 정신에 입각해서 사느냐? 못 사느냐로 평가를 합니다. 도인과 도인 아닌 것을 八風(팔풍)으로 평가를 합니다. 바람이 여덟 가지가 있는 데요. 선풍기가 여덟 개 있어요. 선풍기 대고서 바람을 쏴~악 보내보세요. 이익이라는 선풍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익이라고 하는 바람결에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를 보고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해요.

손해라고 하는 선풍기가 또 있어요. 선풍기가 여덟 개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손해라고 하는 선풍기를 대고 바람을 쏘여보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를 보고 그냥 아는 겁니다.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고결한 삶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수정해야할 것 같아요. 서장에서도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앞에 놓여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그랬듯이, 정말 禪은 남 다른 삶. 정말 남 다른 특별한 삶을 선적 삶이라고 하고, 禪人(선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좀 관심 있고, 그것이 좀 향기롭고 취미가 있고 ‘야~ 그것이 뭔가?’ 싶어서 이제 세상 경험 다 했어요. 다 하고 이 선의 정신에 입각한 삶이 좀 궁금해서 이렇게 모여서 800년 전 서장으로 한 번 더듬어 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교에서 이상적인 삶이라고 정리 하는 것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찰에 들어 왔는데 아직도 세속적인 사고. 세속적인 가치에 연연한다면 이것이 쌈지물이고, 衆물이 안 들었고, 또 제대로 중노릇을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제대로 중노릇 못하니까 외형적인 것. “뭐는 하면 된다.” “뭐는 하면 안 된다.” 옛날에 밥을 얻어 왔는데, 절 까지오니까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는 해 그림자로 12시 시간을 쟀잖아요? 멀리서 밥을 얻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났다고 못 먹는 겁니다. 一種食(일종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해 그림자가 지나간 것 까지는 봐 주자는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중부 상좌부가 나눠진 것이 아닙니까? 상좌부는 원리원칙대로 딱. 딱. 손가락 한 마디가 아니라 반 마디만 지나가도 시간 지났으니까 못 먹는다는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절 집안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다고요.

250계. 348계가 문제 아닙니다. 문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규율이 또 엄청 많습니다. 구두로 전해 내려오는 규칙이 무지무지하게 또 많거든요. 그런 것 까지 다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무슨 수행이나 되고, 그것이 무슨 도나 되는 냥, 그것을 못 지키면 사람 취급도 아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물이 잘못 들었지요. 중물이 잘못 든겁니다. 그것도 치우친 겁니다. 이상적인 삶을 살자고 수행자의 삶을 또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더 잘못된 겁니다. 더 치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중물이 들었느냐? 말았느냐? 중물이 빠졌느냐? 말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衆도 아니고 소[俗人]도 아니고, 중도 되고 소도 되고, 소라는 말은 牛가 아니고 속인이라는 말을 줄여서 “소”라고 그래요. 절물이 아주 들어서, 소위 우리 스님들이 하는 말로 “절 순이”라고 합니다. 절 순이가 되어서... 그것도 참 우리는 보기 곤란해요. 그것이 다 치우친 삶입니다. 때로는 불보살처럼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속인처럼, 아주 혼탁한 속인이 되어서 살 수도 있고요. 어디에 걸리지 않아야지요. 치우치지 않고요. 어떤 것도 “지상의 가치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이 중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삶은 중도적으로 살아야 바람직한 것이다.” 왜냐? 모든 존재는 하나의 존재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중도원리”라고 불교에서 명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안경”이라면 다 분해하면 안경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또 조립을 하면 안경이 된다고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사람도 똑 같아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경우 따라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요. 어디에도 편협하지 말고요. 우리가 중도를 이야기할 때 뗏목이 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강을 따라서 내려갈 때 양쪽에 언덕이 있어요. 물길을 만들어 놓은 양쪽에 언덕이 있어요. 양쪽에 언덕이 있으므로 해서 배가 잘 내려갈 수 있어요. 선과 악이 있으므로 해서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은 양언덕이 있어서 물길이 생겼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배가 닿아버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요.

두 언덕을 통해서 배가 잘 갈 수가 있어요. 두 언덕이 고맙기는 하지만 거기에 가서 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치우친다고 하는 겁니다. 衆物(중물)이 좋지만 중물이 들어서 안 빠지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소견. 자기고집에 딱. 집착해서 요지부동으로 되면 소견머리가 빽빽 하다고 바늘구멍 같은 좁은 소견이라고 흔히 이야기 합니다. 모든 존재가 중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 원리에 맞게 사는 것이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布施(보시)를 하든, 持戒(지계)를 하든, 육바라밀을 닦든지 불사를 하든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든지, 전부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정말 바람직하게 수행을 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3강 終 -

서장 대 강좌 4 - 1 강

태풍영향으로 비가 대단히 많이 내렸는데, 이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법을 설하는 법사는 청중들이 정성과 열의로 참여해 주시는 그 마음을 잘 감지하고,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역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성의를 다 할 때, 여러 불자님들에게는 상당히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상부상조하는데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만약에 이것은 이야기해 주기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 마디라도 들으려고 여기까기 왔는데 만약에 법을 아낀다면 정말 이것은 큰 잘못이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만, 들을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高峻(고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또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요.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 관계가 되려면 오늘 같은 이러한 모습을 서로서로 보여줌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문득 해 봅니다.

그 동안 禪(선) 내지 看話禪(간화선)의 전체 그림을 대강 3회에 걸쳐서 그려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장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역사적으로 제가 아주 부러워하는 큰 선지식! 대혜스님의 법문이라면 더 이상 덮을 것이 없는 법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공부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대혜스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정확하게 귀담아 들을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큰 이익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63쪽. 지난 시간 증시랑 에게 두 번째 답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眞空妙智(진공묘지)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좀 있었습니다. 진공묘지와 허공. 허공을 진공묘지에 비유를 했는데요. 진공묘지라는 말은 우리가 상당히 유의 깊게 들어야할 내용입니다. 불교의 양대 사상이라고 제가 대강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불교 안에도 다양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대 사상을 이야기를 하면, 無我思想(무아사상)과 如來藏(여래장)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불교신문을 보신 분들은 무아사상과 여래장사상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논쟁이 약간 벌어졌던 것을 아마 보셨을 줄 믿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불교 안에서는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논쟁을 할 일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안에서의 사상적인 것을 갖고 논쟁을 해야 옳습니다. 禪房(선방)에서도 法擧揚(법거량)을 하느라고 싸움이 벌어져야지 다른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법거량 때문에 심한 경우 멱살도 잡고, 목침이 오고가고 하는 것도 다 용납이 되고, 또 그러한 시대를 상당히 선망하고,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마저도 객기를 부리면서 선문답을 장난삼아라도 주고받는 이런 풍토가 상당히 사라져 버려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간화선의 열기가 이렇게 계속 분다면, 아마 그런 분위기도 금방 살아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양대 사상이라고 하면, 무아사상과 여래장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무아는 두 말할 것 없이 空思想(공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은 緣起(연기)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고, 또 공을 저변에 깔고 연기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공이니 연기니 무아니 하는 것은 같은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여래장사상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一心思想(일심사상). 佛性思想(불성사상). 自性思想(자성사상). 一物(일물)이니 心主(심주)니 眞如(진여)니 불성이니 法性(법성)이니,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는 사상이 여래장사상입니다. 오늘 공부하려는 眞空妙智(진공묘지)라는 것은 바로 여래장사상에 연관되는 것인데, 이 진공묘지라고 하더라도 그 낱말이 보여줬듯이 진공이면서 참으로 공한 것이면서 아주 아름다운 지혜! 아주 미묘한 지혜가 죽지 않고 활발발 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진공묘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듣는 이 사실이 아주 미묘한 지혜가 활발발 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바탕을 추궁해보면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활발발한가? ←이것을 추적해보면 사실은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진공이면서 묘지이고 묘지이면서 진공라고 보는 것이지요.

무아니 공이니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일물사상. 금강경오가해 에서도 보면 아주 우리 불교사에 안목이 밝으신 분으로서 글도 아주 뛰어나게 잘하신 분들을 신라는 원효를 꼽고, 고려에 와서는 조선 초기까지 사셨지만 함허득통선사를 꼽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서산을 대개 꼽는데 함허득통선사께서 금강경오가해를 편집하셔서 서문을 쓰시면서 **有一物於此(유일물어차)하니 絶名相(절명상)호대** 하는 아주 유명한 서문이 있습니다. 또 불교에 글 중에서 서문을 쳐 주거든요. 왜냐하면 서문 속에는 한 권의 경전 내용이 함축되어있기 때문에요. 오가해 서문은 아주 명문으로 꼽습니다. 거기도 서두에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절명상이라.** 이름과 형상이 없으되, **貫古今(관고금)이라.**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까지 꿰뚫고 있다고 했어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이지만, 과거와 미래를 꿰뚫고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나갑니다. 그러다 저기 중반에 가면 이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 그 까닭을 알지 못 하겠도다. **空耶(공야)아 有耶(유야)아 吾未知其所以(오미지기소이)로다.** 라고 아주 멋진 글을 남기셨습니다.

진공묘지. 대혜스님의 법문을 봅시다. **p.63**

**이 眞空妙智(진공묘지)가** 비유하자면 太虛空(태허공)입니다. **태허공과 더불어 수명을 가지런히 합니다.** 우리의無量功德生命(무량공덕생명). 이렇게 떠도는 이 참 생명은 그야말로 허공의 수명과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 태허공 가운데서 도리어 한 물건이 장애가 됩니까? 한 물건의 장애도 받지 않아서 모든 물건이 공중에 왕래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걸어 다녀도, 비행기가 날아 다녀도, 차가 지나 다녀도, 건물을 세워도, 건물을 부수어도 허공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 진공묘지도 또한 그러해서 生死(생사)와 凡夫(범부) 聖人(성인)과 垢染(구염)이 조금도 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태어나고, 범부다. 성인이다. 때 묻었다. 물들여졌다. 천차만별의 인간상들이 진공묘지라는 누구나 공히 갖고 있는, 이것은 누구나 아주 평등한 추호도 차이가 있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온갖 차별된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 차별된 현상은 우리 한 마음자리에는 조금도 붙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붙을 수는 없으나, 생사 범성이 그 가운데서 왕래하는 것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부가 됐든지 성인이 됐든지 죽었든지 태어났든지, 또 어떤 훌륭한 일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참 생명 자리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좀 우리가 이해가 되고 감이 좀 잡혀야 됩니다. 불교공부를 제대로 맛을 들일려면 이 문제가 좀 감이 잡혀야 됩니다. 일물의 문제! 일심의 문제! **이와 같이 믿음이 미치고 보기를 철저히 하면, 바야흐로 나고 죽음에 大自由(대자유)를 얻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나의 진실이고, 그것이 내 생명이고, 그것이 내 참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대자유를 얻지요. 그것과 더불어 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죽고, 잘나고 못난 차별상만 봅니다. 차별상만 보지만 차별상 이면에 활발발한 그 한 물건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참 생명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살림살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소리를 듣는데 유식 무식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남녀가 관계가 있습니까? 僧俗(승속)이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에 이 말 소리 듣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비록 사량 분별이고 망상으로 짐작하는 것이지만, 망상으로 짐작하는 것이라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혀 차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런 대단한 존재를 우리가 공기 활용하면서 공기 사용 하듯이 쓰면서, 오히려 공기보다도 더 가까이 쓰면서, 거기에 대해 이해도 없고, 알려는 관심도 없는데서, 내가 이것이면서 이것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산다는 것이지요. 짧은 글이지만 대혜스님이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화두를 든다는 간화선의 문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비로소 조주의 방하착과 운문의 수미산과 더불어 조금 상응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대자유를 얻은 사람! 그 한 물건에 대한 깊은 이해! 그것을 사물을 보듯이 확고부동하게 본 것을 見性(견성)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듯이 보는 것을 성품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조주스님의 방하착이라는 화두. 운문스님의 수미산이라는 화두가 별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 표현입니다. 무슨 소리를 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왜냐? 그것 떠나서는 어떤 이야기도 성립될 수 없으니까요. 바로 진공묘지라고 합시다. 여기 대혜스님이 진공묘지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요. 이름이 수 만 가지인데...

진공묘지라는 것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표현도 放下着(방하착)이 됐든지, 須彌山(수미산)이 됐든지, 이 뭣꼬가 됐든지, 無자가 됐든지, 板齒生毛(판치생모)가 됐든지, 乾屎橛(간시궐)이 됐든지, 庭前栢樹子(정전백수자)가 됐든지, 그 어떤 기상천외한 격외소식도 그것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그것의 한 줄기요. 그것의 한 표현이고, 그것의 한 잎입니다. 그것의 한 물결입니다. 그것의 한 바람결입니다. 진공묘지의 한 바람결이라고요. 어떤 기상천외한 格外道理(격외도리)를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요. 전부 거기서 나온 것이지요. 금으로 불상을 만들었든, 사람 죽이는 칼을 만들었든 금입니다.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었다고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칼을 만들었든 불상을 만들었든 금은 값 차이 안 납니다. 골동품이나 되면 몰라도 막 만들었다면 큰 차이 안 납니다. 똑 같이 상당히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잡담에서부터 선사들의 고준한 법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바로 이 진공묘지의 한 표현입니다. 진공묘지에서 나왔습니다. 금으로 뭘 만들었든지 간에 불상을 만들었든지, 칼을 만들었든지 돼지를 조각을 했던지 물고기를 만들었는지 간에 역시 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상을 모셔놓고 점안할 때, 첫 법문에 염불 소리 잘 들어보면 **栴檀木做衆生像(전단목주중생상)**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及與如來菩薩形(급여여래보살형)** 전단 나무로 중생의 모습도 만들고 부처님모습도 만들고, 보살모습 나한모습 온갖 모습을 다 만들었다. 천 가지 만 가지 얼굴이 각각 달라요. 부처님제자의 모습을 만들었으면 부처님제자이고, 불상을 만들었으면 불상입니다. 그렇지만 **萬面千頭雖各異(만면천두수각이)**나 만 가지 얼굴 천 가지 머리가 다 각각 다르지만, **若聞薰氣一般香(약문훈기일반향)**이라. 만약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생선 조각을 해놔도 생선 냄새가 아니 나고 전단향기가 납니다. 불상을 만들어도 똑 같이 전단향기가 납니다. 보살상을 만들어도 역시 똑 같이 전단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불교의 생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참 생명입니다. 진공묘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형체가 있다고 오해하실 일은 없지요. 그렇게 오해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그것은 길게 설명을 아니 해도... 그러면 운문 수미산. 조주 방하착 이까짓 것 별 문제없다 이겁니다. 여기 표현상 조금 상응할 것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도 다 잘 이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도리어 청컨대 하나의 수미산을 짊어지고 도처에 행각하여 눈 밝은 사람을 만나서 분명히 들어 보이십시오. 한바탕 웃게 될 것이요.** 제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청컨댄 하나의 수미산**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문제의식을 갖고, 무슨 수미산. 방하착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화두를 든다는 것은 대혜스님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화두를 들고 공부한다는 이 문제는 이것을 일반화 시키고 공부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역시 대혜스님 이십니다. 그럼 대혜스님은 왜 그런 방법을 새롭게 제기를 했는가 하면, 그 당시까지 소위 默照禪(묵조선)이라고 해서 좌선 중심이었습니다. 앉아서... 앉아 있는 것 중심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철저히 앉는 것입니다. “앉는다.” 하면 몸도 마음도 철저히 다 앉는 것입니다. 앉아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데에 도망가면 그것은 앉는 것이 아니지요. 몸만 앉았지 앉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앉아라”“앉아라”“앉아라”“좌선”“좌선”“좌선”이것을 아주 철저히 권한 수행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혜도 나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시간낭비만 하고, 수행에 폐단이 너무 많다고 해서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간화선 운동입니다. 대혜스님의 간화선 운동은 모두 앉아서만 수행한다고 생각하던 것을 전부 일으켜 세운 운동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듯이 서장은 전부 사부 대중을 향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특히 거사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99%가 거사 분들을 대상으로한 가르침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사 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펼치려면 앉아 있는 것을 권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가서 공무보고 와야지, 퇴근한 뒤에 잠깐 앉으면 앉을 수 있든지 하면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行住坐臥(행주좌와). 語默動靜(어묵동정). 어디를 가든, 공무를 보든, 대화를 나누든 대인 접하를 아무 관계없이 공부가 되는 공부라야만 되겠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간화선을 제창한 것입니다. 제가 엇 그저께 기본 선원에도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간화선이라는 것이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놨더니 요즘은 돌아앉아 버렸다고... 대혜스님은 분명히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전부 앉아서 공부하던 사람을 전부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활동선. 생활선. 생활 속에서 선이 되도록 가르친 것인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요즘은 돌아앉아 버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간화선에 관심이 없으면 몰라도, 간화선에 관심을 갖는 한은 간화선이 그런 선 인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간화선을 주창 하게 된 이면에 默照邪禪(묵조사선)이라는 것. 앉아서만 모든 공부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비판하는 내용이 서장에 반은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중복 되는 것은 생략도 하고 넘어가야할 입장인데요.

**p. 65 증시랑에게 답함(3)**

**노방이 “다만 모든 있는 바를 비우기를 바랄지언정 간절히 모든 없는 바를 실재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두 글귀를 알면 필생의 공부를 마친 것입니다.** 거사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유마거사. 중국에는 **노방 =** 방거사. 신라 때 부설거사. 또 근년에 계셨던 백봉거사. 김기추 선생이라고 저도 그 분 밑에서도 공부했는데 아주 대단한 거사 분이었어요. 아직도 그 분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 신행단체도 있습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 소견이 아주 뛰어났던 백봉거사분인데, 모르겠어요. 근래에는 또 어떤 거사 분들이 선지식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여기 **노방**이라는 방거사는 그런 분입니다.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있는 것. 지금 우리 의식 속에서 있다는 것을 지우는 것. 무 안이비설신의. 무 색성향미촉법.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 해야 되는데, 없는 것마저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없는 것마저도 있도록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비우는 것이 불교의 공부입니다. 불교는 비우는 공부입니다. 비우는 것을 바랄지언정 없는 것을 있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왕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고, 또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의식화 운동입니다. 없는 것을“있다”“있다”“있다”하면 꼭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꼭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니까요. 일체유심조니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의식이 만들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但願空諸所有(단원공제소유)언정 切勿實諸所無(절물실제소무)**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머리 깎은 한 외도가 자기 눈도 밝지 않으면서 다만 사람들에게 죽은 고슴도치 같이 쉬고 쉬어가라고 합니다.** 고슴도치가 죽은 듯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큰 동물이 오면 가시를 세운 채 죽은 듯이 가만히 있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짐승이 와서 입을 대면 그 가시에 찔리잖아요. 꼼짝도 안 하니까요. 죽은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가만히 쉬고 쉬어라** 묵조선은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앉아서 공부하는 것. **만약 이와 같이 쉬면 일천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또한 쉴 수가 없어서 점점 마음이 혼미하고 답답하게 될 뿐입니다.** 마음이 쉬어지는 겁니까? 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잘 배웠듯이 **應無所住(응무소주) 而生其心(이생기심).** 마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흘러가면서 마음 쓰라 이겁니다.

주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마음 쓰라. 그런데 대개 살아온 습관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하고 마음을 어떤 틀에다 매달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여기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이 앉아서 좌선할 때 쉬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쉬라”“쉬라”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앉아만 있어집니까? 눕기도 하고, 화장실에도 가고,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해야 되지요. 그럴 때는 공부가 안 되고, 같이 마음이 들고 일어난다면 그것이 무슨 공부입니까? 그것은 공부 아니잖아요? 한 자리에 가만히 오랫동안 놔둔 석상 같은 것을 공부 잘 한다고 봐야지요. 사람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때, 그런 공부가 유행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인연을 따라 오로지 지속하여 識情(식정)을 잊고 고요히 비추어 보라.** 이것이 어떻게 觀照禪(관조선)! 제가 관조선이라고 하는데요. **인연을 따라 오로지 지속하여 식정을 잊고 고요히 비추어 보라.** 이것은 가만히 예의주시 하는 것입니다. 예의관찰 하는 것이지요. 내가 걸어가면 걸어가는 것. 누구를 만나면 만나는 것. 말 하면 말을 하는 것. 공부하면 공부하는 것. 또 하나의 나를 뒤에, 이면에 세워놓고 내가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인형이 사람이 조절하는 대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내가 이면에서 나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조선이고, 요즘 흔히 위빠사나가 그런 선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차분해질 수는 있어요. 차분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녹취당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녹취록이 올라간 한함후에 동영상이오른 관계로 동영상과 약간 발란스가 안 맞네요.

4 - 2입니다.

**비추어 오고 비추어 가며, 지속해 오고 지속해 감에 점점 혼미하고 답답함이 더하여 통달할 기약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비추어 오고 비추어 가며,** 예의주시. 제가 위빠사나가 하도 바람이 세기에 본격적으로 위빠사나만 공부를 했지요. 옛날에 강원에서 “비발사나”라고 해서 경전에 나오는 소위“비발사나”라고 할 때는 그냥 대충 止觀(지관). 망상을 그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관찰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강 이론적인 것을 배웠는데, 근년에 위빠사나가 유행을 많이 해서 그 분들이 강의한 테잎. 책.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서... 강의한 것도 여러 사람이 강의한 것을 다 들어보았는데 결국은 여기에 뭡니까? **비추어 오고 비추어 가며, 지속해 오고 지속해 감에** 이런 말입니다. 예의주시 하는 것. 예의 관찰하는 것. 처음에 숨 쉬는 것을 관찰하고 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 하고 예의관찰하는 것. 급하게 달리면 안돼요. 놓쳐버리니까요. 천천히 걸어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도 천천히 하게 되고요. 또 예의관찰하다 보면 천천히 할 수 밖에 없어요. 밥도 천천히 먹게 되고요. 한편으로 관찰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걸어가면서 관찰하고 관찰하면서 걸어가야 하니까 천천히 될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공부법도 있어요.

**특히 조사의 방편을 잃고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헛되게 살고 죽게 합니다.** 간화선 말고 간화선이 일어나게 된 묵조선을 비판하는데 **쉬어가고 쉬어가라. 인연을 따라 오로지 지속하고 비추고 비추라. 다시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간섭하지 말라.** 죽든 살든 생사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 이겁니다. 죽으면 죽는 것을 보고, 살면 사는 것을 보고... 간섭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갖지 말라는 식이지요. **다만 이렇게 쉬어 가고 쉬어 옴에 情念(정념)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 이러한 때에 이르러 가만히 앎이 없지 않다. 바로 이것이 惺惺(성성)하고 歷歷(역력)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묵조선의 병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시 毒害(독해)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증시랑이 이런 가르침의 스승들을 만날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찰의 스님들도 그러려니와 그 당시 송나라 때 유식한 사람들은, 전부 한 禪해야 어디 가서 명함을 내놓는 겁니다. 서양 학자들이 요즘 선문답 몇 구절은 다 외우고 있어서 대화에 선문답 몇 마디는 쓸 줄 알아야 요즘 서양 학자들이 명함을 낸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듯이, 송나라 때 이 당시는 그야말로 한 禪해야 유식한 사람이라고, 명함을 내밀 정도니까 그것이 대개 묵조선이었습니다. 대혜스님께서 아주 그냥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비판하고 사정없이 곳곳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운문은** 대혜스님 자신입니다. **평소에 이런 무리를 보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미 스스로의 눈이 밝지 않아서 다만 책자 위의 말을 가지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사람을 믿을 것 같으면 영겁 동안 참구해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운문도 평소에 사람에게 좌선을 하게 하되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앉아서 공부하는 것 괜찮다.”이겁니다. 行 住 坐 臥 語 默 動 靜.(행주좌와어묵동정) 그 가운데 좌가 하나 들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앉는 것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앉아서 하게 되는 경우라면 “앉아서도 해라.” 이 정도로 가르쳐주지 무조건 “좌선만 해라.” 只管打坐(지관타좌) 그래요. 只 管 打 坐. 일본에는 조동종이 선종으로서는 상당히 盛(성)하거든요. 임제종은 크게 성하지가 않습니다. 일본에는 조동종이 아주 성하거든요. 조동종에서는 지관타좌. 오로지 “앉아 있으라.” “철저히 앉아 있으라.” “몸도 마음도 다 앉아 있으라.”여기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거기는 화두선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앉는 것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면 “나는 그런 것을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서 다시 덧붙일 것은 간화선은 앉아있는 선에서 서서 활동하는 선으로 전환시킨 선이다. 여기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서, 간화선에 관심이 있다면 ‘아, 이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구나!’대혜스님의 신도는 전부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하고, 일상생활 하면서 참선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년퇴직해서 아주 철저히 이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용기를 갖고 간화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도 되는 공부입니다.

서장 대 강좌 4 - 2 강 **p. 67**

道를 배운다는 문제와, 진짜 도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황벽 화상이 이르기를 “우리 이 선종은 위로부터 서로 이어온 이래로 사람으로 하여금 지(知)와 해(解)를 구하게 한 적이 없고, 다만 道(도)를 배우라 일렀다.”고 하였습니다. 入**此門來(입차문래) 莫存知解(막존지해) 사찰에 들어가면서 일주문에나 천왕문에 써 붙여 놓은 것 아시지요? 이 문에 들어오려거든, 불교 문에 들어오려거든,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만 들어갈 때, 막존지해. 알음알이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불교. 제대로 된 불교. 참 불교를 공부하려거든, 알음알이 제치고, 알음알이 다 파헤쳐 버리고, 알음알이 밑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지요.

막존지해. ←알음알이 두지 말라. 이 문에 들어오려면... 불교라는 문에 들어오려면 알음알이 두지 말라. 요즘은 불교전적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서, 또 머리들이 좀 좋습니까?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두 살 세 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알음알이 쪽으로 공부는 아주 발전 했어요. 그래서 불교도 대개 알음알이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안 하는 것 보다는 낫지만, 진짜 불교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것은 사람을 提接(제접)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을 제접 하는 말이지요.

사람을 끌어 들일 때는 천수경도 외우라. 반야심경도 외우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낚시 밥은 될지언정 고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도는 또한 배울 수 없는 것이어서, 도를 배우는데 情識(정식)을 두면** 이것은 보통 알음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리어 도에 어둡게 됩니다.** 정말 도는 딱 들어내 놓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無我思想(무아사상)하고 如來藏思想(여래장사상)하고 이론이 분분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책을 너무 많이 본겁니다. 책의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저도 이야기를 하려니까 옛날 스님들 이야기. 유일물어차하니 해서 함허스님의 이야기 등등. 그 동안 주워들은 일물에 대한 心性(심성)에 대한 명사들을 자꾸 열거를 하는데, 그런 것 다 제쳐놓고, 불교용어 하나도 쓰지 말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고, 화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이것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정할 길이 없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떨쳐 버리려고 “無我(무아)다” “무아다” “무아다”“空이다”“공이다”“공이다” 아무리 천만 번을 공이라고 하고, 무아라고해도, 무 안이비설신의. 무 색성향미촉법 해도 그 놈! 무 안이비설신의. 무 색성향미촉법하는 그 놈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놈이 있어서 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고요. 그 놈이 있어서 공이라고 하고,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불성인지 일물인지 진여인지 법성인지 자성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따위 용어 다 팽개쳐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옳으니 그르니 무아사상이 옳으니 여래장사상이 옳으니 하는 그러면서 다투기도 하고, 열도내고 고함도 치는 그놈을 도대체 우리가 어쩌지 못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이 불교적인 경전이나 용어. 다 배제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불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에이, 불교 싫다. 스님도 싫고, 불상도 싫고, 일체가 다 싫다고 혼자 저~~ 멀리, 달 뒷면까지 도망갔다 손쳐도 거기까지 역시 따라와 있는 것입니다. 나 보다 먼저 가있는 놈이 그 놈입니다.

왜 이렇게 캄캄하냐? 왜 이렇게 추우냐? 하는 바로 그 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불교는 천불 만불. 천 조사 만 조사. 천 보살 만 보살이 수많은 세월동안 나타나서 별별 주장을 했어도, 바로 그 점 하나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좌지우지 한다는 사실. 그것 하나 잘 굴리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좀 우리 일상에 이끌어다가 설명하면 그렇게도 되는 것이지요.

여기 보십시오. **도가 方所(방소)가 없는 것을 이름 하여 대승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장소, 법칙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굳이 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는 일정한 장소가 없는 것을 이름 하여 대승심.** 이런 말을 좀 써야 그래도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뭐라고 했지요? **一切法(일체법)이 皆是佛法(개시불법)** 그랬잖아요. 그럼 이야기 다 했잖아요? **일체법이 개시불법** 인데 무슨 법당에만 불법이 있고, 교회에는 불법이 없어요?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리지요. **일체법이 개시불법** 이라면서요? 일체법이 다 불법인데요. **道無方所(도무방소)**라면서요? **도는 일정한 장소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도교에서도 그랬잖아요? 道不可須臾離(도불가수유리)니可離(가리)면 非道也(비도야). 도라는 것은 한 순간도 떠나 있을 수 없으니 가히 떠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달 뒷면에 가 보세요. 안 따라오는가? 벌써 나 보다 먼저 와있어요. 달 뒷면에 가 있어도... 그것을 흔히 하는 말로 대승의 마음이라. **대승심**이다. 최고의 마음. 가장 큰 마음. **이 마음은 안과 밖, 중간에도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방소가 없습니다.**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첫째로 알음알이[知解(지해)]를 짓지 마십시오. 다만 이것은 당신이 情量處(정량처)를 도로 여기는 것이니, 정량처 =** 머리로 헤아리는 겁니다. 사변으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는 것을 도 로 말하니 **정량이 만약 다하면 마음에 방소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량 분별이 뚝 떨어져버리면, 사량 분별 그 너머에 그야말로 툭 터져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집 넓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땅 따먹기 해보면, 아이들 그 조그만 손으로 뼘으로 재면서 땅 따먹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냥 치고받고 싸우며 울고불고 야단이었습니다. 조금만 침범을 더하면 그러다가 어지간히 재미가 없어서 끝나면, 그것 싹 지워 버려요. 線(선)을 그어 놨을 때는 네 꺼 내꺼 있어서 울고불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그것 다 지워 버리면, **道無方所(도무방소)**입니다. 거기에 사량 분별로서 네 꺼다 내꺼다 차별적인 틀과 선을 그을 때는 그것이 **정량**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땅은 그렇게 그어있지 안잖아요? 우리가 괜히 그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공연히 한 생각 일으켜서는, 재미있게 놀자는 한 생각을 일으켜서 선을 그어 놓고는 거기서 땅 따먹기 하고, 거기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주먹이 오고 가고 싸우고 울고 야단이라고요. 아이들 싸움이 나중에는 어른 싸움이 되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본래 넓은 마당인데 공연히 그렇게 선을 그어서 그런 것이지요. 재미없으면 갈 때는 발로 싹 문질러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 마당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지금 이런 저런 차별적이고, 너니 나니 하는... 일단 선을 그어 놓으면 잘 보이지요. 선이 없을 때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밟고 다니며 놀이를 하면서도 땅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차별적인 이런 중생심으로서 생활할 때는 눈에 잘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람들이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그 선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만 큰 한 마당이 되듯이, 내 마음도 역시 하나가 된다. **道無方所(도무방소)**입니다. 어떤일정한 처소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승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큰 마당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대승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眞空妙智(진공묘지)는 太虛空(태허공)과 같다고 했잖아요. 허공과 같다. 그 허공에는 아무리 건물을 짓고 비행기다 오고가고 해도 아무 이상 없지요. 큰 마당에는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선을 그어도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그 마당은 그냥 마당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는 건데요 이거는... 하하하하하하, 그림이 그려지면 소승심이 돼 버려요. 대승심이 아니고...

**이 도는 天眞(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정식 가운데 미혹해 있어서 모든 부처님께서 출현하셔서 이 일을 說破(설파)하셨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다 부처님입니다. 안 깨달아도 부처님인데, 깨달은 사람이야 더 부처님이지요.**당신 같은 사람들이 통달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우셨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분별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름. 우리는 이름을 자꾸 부르다보니까본인은 어디 가 버리고 이름이 그만 머릿속에 더 박혀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불교공부 한다고 경전 외우고, 또 법수라는 책이 있어요. 삼보. 삼아승지겁. 사홍서원. 육바라밀, 삼십칠조도품. 숫자로 된 불교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고 大明法數(대명법수) 라고해서 상하권으로 된 두꺼운 책을 다 외우려는 식으로 심취하고, 빠져있고, 열중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든 것이 본래 경전에서 설해진 대로 그냥 그것이 본래 있고, 이치라든지 어떤 현상은 그 이후에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十信(십신). 十住(십). 十行(십행).十廻向(십회향). 十地(십지)와 等覺(등각). 妙覺(묘각).須陀洹(수다원). 斯多含(사다함). 阿那含(아나함). 阿羅漢(아라한). ←이런 것들이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줄로... 제가 한참동안 그렇게 알았어요. 그것이 진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빠져 있었다니까요. 하다보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환상이라고 할까? 의식화 됐다고나 할까? 그것이 意識化(의식화)가 된다니까요. 원효는 8지 보살이다 하고, 이구지 보살에 오르면 옷에 때도 안 탄다 그러고, 스님들끼리 그러거든요. 한 달쯤 빨래 아니하고 게으른 스님들이 있어요. 그래 놀린다고 “아, 이사람, 자네는 이구지 보살에 오르는가? 옷에 때도 하나도 안타고...” 이런 식으로 경책을 하고, 핀잔을 주고 그래요. 그러면 슬며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교리적으로 익힌 것이 실지로 적용화 된 것으로 착각이 되더라니까요. 의식화 돼요. 그것이 의식화지요.

내 의식이 자꾸 그 쪽으로 가니까 그것이 균형이 잡혀버리더라니까요. 실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니 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방편으로 이름을 가설해 놨을 뿐입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오직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도 보살도 성문 연각. 아무 것도 없어요. 오로지 사람하나 있을 뿐입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사람이 그냥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면, 수행 계위가 있었다면, 제가 아무리 수행을 잘못해도 어느 만치는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십신. 십주에는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아등바등 했어도 십지에는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무슨 십지 표현이 있어요? 제가 큰스님이라는 분들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원효스님은 팔지 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지금 있느니 없느니, 시시비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사람 인품이 좀 낫다 못하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못난 사람도 좀 참으면 인품이 근사해 보여요. 그런데 아주 밖에 나와서는 인품이 근사한 사람도 집에 들어가면 형편없는 사람 많아요. 그것 아무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차이 별 것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존재는 있어요. 오늘 처음부터 배운 진공묘지라는 것! 경계를 긋지 않은 땅과 같은 大智(대지). 大乘心(대승심).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無位眞人(무위진인)입니다. 차별 없는 참 사람. 그것이 참 나고, 나의 무량공덕생명이고, 부처님의 무량공덕생명이고, 여러분들의 참 생명이고, ←이것 하나 확인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 하나 내 것으로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처지에 살든지 간에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당당하게 죽고요. 그것이면 다입니다. 그것을 부처라고 하고, 그것을 조사라고 하고, 보살이라고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것 하나 갖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p. 69**

**당신이 이미 깨끗하게 살아서 도를 향하는 한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졌으니 공부가 순일하고 순일하지 않는 것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만 옛사람의 言句(언구)위에 탑을 쌓는 것과 같이 하여 한 층을 마치고 또 한 층을 마치려고 하지 말아야 하니 공부를 잘못 하면 마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한층 쌓고 또 한층 쌓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십신위에 십주 있고, 십주위에 그것도 제가 십신 하니까 열단계를 한꺼번에 이야기 하지만, 십신. 1신 2신 3신 4신... 십주도 1주 1주 3주 4주... 십지도 십회향도 전부 그렇게 그래서 五十二位(오십이위) 그러잖아요. 오십이위 지위지 점차...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53 선지식입니다. 52위인데요. 53 선지식도 지위 점차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가 먹혀드는 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교가 한참 성행을 하다가 그 불교를 폐기해 버리고 선불교로 발전한 것 아닙니까? 대승불교 얼마나 근사한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폐기하고, 폐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불교로 나선 겁니다. 가끔 대승경전에서 한 구절 두 구절 주워 쓸 일이 있으면 주워 쓰지 선불교는 거기에 통째로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면 얻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니,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저절로 축대가 맞고 맷돌이 맞듯이 계합하여 문득 살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축착 합착한다. 서장 배울 때 제일 많이 쓰는 소리가 **축대가 맞고 맷돌이 맞듯이** 축대 돌입니다. 축대를 쌓기 위해서 돌 깎아 놓은 것 있지요? 갖다 척척 놓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 쌓기 좋도록 돌을 아예 다듬어놨으니까 척척 갖다놓으면 되는 겁니다. 맷돌도 이미 일을 마쳤잖아요? 아무리 나 뒹굴어져서 돌아다녀도 가져다가 꽂으면 맞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일이 착착착 그렇게 순리적으로 진행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도리어 허물이 있습니까?”하니, 이르기를 “수미산이다.”라고 했습니다.“한 물건도 가져 오지 않은 때는 어떠합니까?” 하니, 이르기를 “내려 놔라.”했습니다. 이 속에서 의심이 깨어지지 않거든 다만 이 속을 참구할지언정** 화두입니다. **다시 스스로 지엽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두를 이렇게 저 앞에서 몇 가지를 소개 했지만 여기서도 둘을 소개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화두 드는 관념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화두 하나만 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화두를 하나만 들라고 이렇게 고집했다면 대혜스님이 이렇게 소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나를 믿는다면(대혜스님 자신) 다만 이렇게 참구할지언정 달리 불법을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여 줌이 없느니라.** 내 지시 방법은 이것뿐이다 이겁니다.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한다면, 강북과 강남 왕노에게 물어서** 선지식입니다. 온 세상 선지식에게 물어서 **한번 의심 하고 나서, 또 한 번 의심을 하는 것에 맡깁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 가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자기 발전이 있습니다. “불교 다 안다.” 그렇지만 또 한 생각. 궁금한 생각을 가질 때 한 마디라도 귀에 들어오고, 소득이 있고, 또 내 인생에 보탬이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지요.

서장 대 강좌 4 - 3 강 **p.72 증시랑에게 답함(4)**

여기의 내용은 고요함과 시끄러움. 세상사와 출세간사. 일반 신자로서의 수행과 출가해서 스님으로서의 수행.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참 세속에 있는 분들도 수행을 좀 하려고 하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출가해서 고요한데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다 시끄러운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겁니다. ‘아이고 세속에 시끄러운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공부 되겠나?’아예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밑에 깔고 살아가요. 그런데 고요한 선방에서 수행하는 이 들은 늘 고요해요. 寺(사)중에서 항상 고요한 분위기를 잘 보호해 줍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수련대회 왔다든지 학생들이 방학 중에 짧은 기간 동안 템프스테이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도량이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우면 생야단이 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시끄러운 것을 혐오하는 병이 도져서 그렇습니다. 이 법문을 잘 들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사 그런 시끄럽고 고요한데 끄달린다 손치더라도 그렇더라도‘아, 기본적으로 시끄러움의 문제와 고요함의 문제는 이런 것이구나!’하는 것을 머릿속에다 제대로 정리 해놓을 수가 있어요.

**보내온 편지를 자세히 읽고서야, 四威儀(사위의) =** 行住坐臥(행주좌와). **가운데 間斷(간단)함이 없어서 번거로운 공무에 빼앗기지 않고, 급한 흐름 가운데 항상 맹렬히 살피고 다만 게으르지 아니하여, 道心(도심)이 오래 될수록 더욱 견고함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지를 가만히 읽어 보니까 아, 이분이 행주좌와 어묵동정 가운데, 그리고 또 공무를 집행하는 중에 세상살이 번거롭게 살아가면서도 도심을 잃지 않고, 도에 대한 마음은 갈수록 더욱 더 견고 해진다는 것을 표현을 했고, 대혜스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제 마음에 심히 맞습니다.** 참 기분 좋다는 겁니다. 도 닦는 사람은 도에 관심 깊은 사람을 만나면 同志(동지)지요.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니까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세간의 번뇌는 불 같이 熾盛(치성)하니 어느 때에 끝내겠습니까? 정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서 공부하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라는 말은 선방에 앉아서 참선 하는 것. 개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좌선을 일부러 한다고 할 때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시끄러운데 공무를 집행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지시하고, 별별 일을 다 하면서도 **방석 위에** 앉아서 “이 뭣꼬”“이 뭣꼬”하고 밀어붙이던 그 때의 공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마음을 고요한 데에 두는 것은** 잘 들으세요. 마음을 고요한데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히 시끄러운 가운데서 쓰기 위함입니다.** 고요한 선방에 앉아서 참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일상생활에 농사짓고 나무해오고 물 긷고, 장사하고, 공무 집행하는 데에서 써먹기 위해서 事前(사전)에 연습하는 것입니다. 선방은 연습장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은 實戰(실전)장소고요.

**만약 시끄러운 가운데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가 잘 안된다면그러면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도리어 같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나마나 똑 같다는 것입니다. 캬~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선방에 스님들 절에 들어와서 이것이 사집이니까 2년차에 다 배웁니다. 2년차에 다 배운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한다고 공부가 안된다면 고요한데 앉아서 좌선하나마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禪에서 일으켜 세운 선이라니까요. “좌선”“좌선”좌선을 부르짖는 것은 묵조 사선에서 하는 짓입니다. 앉아있는 부처가 어디 있어요? 뭐라고했지요? **若坐若臥(약좌약와) 若來若去(약래약거)** 만약 앉았다거나 누웠다거나 섰다거나 간다거나 라고 한다면 **是人(시인)不解我所說義(불해아소설의)** 이 사람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여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의 여래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여래도 역시 똑 같아요. 이것이 앉아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받아 보니 과거의 인연이 복잡하여** 의례히 대는 핑계지요. 여러분들이 잘 대는 핑계입니다. **지금 이 과보를 받는다고 탄식하니,** 세상사와 도입니다. 과거 인연이 복잡해서 지금 공부하려고 해도, 마음은 있는데 도대체 공부가 안 된다고 탄식하는 것이지요. 어찌 그리 속을 잘 알고 해놨는지... **유독 이 말만은 감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은 당신 말 다 받아들여도 오직 **이 말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하면 도에 장애가 됩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인연이 어디 있어요? 과거 업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선방에 있다고 해서, 자고 일어나고 옷 입고 청소하고 밥 먹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온갖 일상생활. 그것을 타피부득처라. 피하려하나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직장생활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일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 많아요. 그것은 정도차이 뿐이라고요. 禪要(선요)의 고봉스님은 한 번도 앉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앉은 적이 없고, 항상 도량을 걸어 다니면서 일 하면서 공부 했어요.

**고덕이** 고덕은 마라나존자입니다. **이르기를 “흐름에 따라 성품을 알게 되면, 기쁠 것도 없고 또한 근심할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참 유명한 말입니다. 흐름이 뭡니까? 밥 먹고 옷 입고 걸어가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기에서 성품을 알아요. 거기에서 마음을 챙겨요. 화두면 화두를 챙기고, 염불이면 염불을 챙기고, 입으로만 챙기지 말고 마음까지 다 챙겨요. 그쯤 되면 **기쁠 것도 없고 또한 근심할 것도 없다. 無喜亦無憂(무희역무우)라.** 유명한 관세음보살에 대한 바람직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萬緣都放下(만연도방하), 온갖 만 가지 인연 다 놓아버리고, 但念觀世音(단념관세음). 다만 관세음만 외운다. 그러면 此是如來禪(차시여래선)이며, 如其祖師禪(여기조사선)이다. 그것이 여래선이고 조사선이다 이겁니다. 뭘 하든지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하면 그것이 여래선이고 조사선이고, 최고의 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앉았다고 공부 특별히 더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절대 더 안 돼요. 앉아서 좌선 해보십시오. 앉아서 좌선이 잘 된다면, 그냥 곳곳에서 터지는 소리가 뻥뻥 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간화선 지침서의 중의 하나인 서장과 선요. 선요의 주인공인 고봉스님은 일부러 앉지를 않았다니까요. 절대 앉지 않았어요.

**정명이 이르기를** 유마거사 나왔네요.**“비유하자면 고원 육지에 연꽃이 피지 아니하고,** 저 높은 언덕이나 잘 닦여진 화단에는 연꽃이 아니 피어요. **낮고 젖은 진흙에 이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불교 꽃이 연꽃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불교 다 깨닫고, 열 번이라도 깨닫고 남지요 사실은... 진흙에 뿌리를 내려야만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연근 먹으려고 행자 때 우리가 사와서 다듬어 보면, 세상에 그렇게 두루 뭉치로, 못났잖아요. 그것이...퉁퉁한 것이 진흙투성이가 되어서...여기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꽃이 필까? 그 못난 연근을 없애고 따로 아름다운 연꽃이 없잖아요. 더러운 진흙탕 그것이 그대로 아름다운 연꽃입니다. 아름다운 연꽃 그대로가 더러운 진흙탕입니다. 그런데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거기서 만약에 분별이 되고, 거기서도 공부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면 그것은 초보자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문제 삼고 따진다면 초보자도 아닙니다. **노호께서 이르시기를** 노호는 부처님입니다.**“眞如(진여)는 自性(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인연을 따라서 일체법을 성취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여는 진공묘지 있었지요? **진여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아니 한다 이겁니다. **인연을 따라서 일체법을 성취한다.** 와서 서장 공부할 때는 서장 공부하고, 얼른 집에 돌아가게 되고, 비 오면 우산 쓸 줄 알고, 비 안 오면 우산 걷을 줄 아는 이것이 뭡니까? 굳어 있으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햇빛 쨍쨍 나는데도 계속 우산 펴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없고요. 비가 오는데도 우산 안 펴들고 갈사람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진여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인연을 따라서 일체법을 성취한다.** 인연 따라서 상황 따라서 거기에 척 척 척 척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울 때는 시끄럽고, 고요할 때는 고요하고, 잠 잘 때는 잠자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앞에 있었던 **고덕이이르기를 “흐름에 따라 성품을 알게 되면”**하는 그 성품. 그것이 원래는 [心隨萬境轉(심수만경전)이나 轉處悉能幽(전처실능유)]라 그랬어요. **또 이르시기를** 역시 부처님이지요? **“인연을 따라 感應(감응)함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되, 항상 이 菩提座(보리좌)에 처해 있다.”고 하셨으니,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이 인연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적응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연을 따라서 감응함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 어디든지 다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보리좌에 처해 있다.** 부처님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본성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흘러가든지 우리의 주인이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경계가 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제스님은 隨處作主 立處皆眞(수처작주 입처개진). 그랬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노릇을 하라. 그러면 그대가 있는 그 곳이 다 참 행복이다.화엄경의 구절을 두 번이나 인용을 했고, 대혜스님은 깨닫고 나서 어디 가서 화엄경공부를 하셨다고 되어있지요? 저 앞에 행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승경전도 아주 발전된 경전이니까요. 불교 경전 중에서는 법화경. 화엄경 같은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5·6백년 후에 결집된 경전이라서 아주 뛰어난 경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대승불교까지 폐기하고 선불교로 발전 했다고 하지만, 대승불교 안에서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빛나는 말씀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지요.

**만약 고요한 곳을 옳게 여기고 시끄러운 곳을 그르게 여긴다면, 이것은 世間相(세간상)을 버리고 實相(실상)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온갖 시시비비로 꿰어 세상에 찌들어서 옳다 그르다, 사기도 치고,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세간상**이 그대로 실상이다. 진리의 모습이다 이겁니다.**生滅(생멸)을 버리고 寂滅(적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지요. 생멸 그대로가 적멸의 도리이고, 적멸 그대로가 생멸의 도리이고, 실상 그대로가 세간상이고, 세간상 그대로가 진리의 세계입니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 할 때에 정히 좋게 힘을 써야 합니다. 문득 시끄러운 속에서 고요한 때의 소식으로 뒤집으면 그 힘이 대나무 의자, 방석 위에 앉아 하는 공부보다 천만 억 배나 강할 것입니다. 다만 자세히 들으십시오. 결단코 서로 그릇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가운데 자기에게 처해진, 불가피한 일들을 그대로 다 행하면서 공부 하는 겁니다. 화두를 드는 사람 화두 들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염불외우는 사람 염불외우고, 경전외우는 사람 경전외우고 그렇게한 사람이, 그 공부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목에다 줄을 해서 책을 걸어 놓고, 밭도 매고 논도 매면서 공부한 출세한 사람들이 많지요. 예컨대 그와 같이 우리도 일상생활, 일할 때가 정신이 오히려 또렷또렷 하거든요.

공부 한다고 일부러 좌선하고 앉아 있으면 편안하니까 금방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면 그만 졸기 시작합니다. 흐릿합니다. 조는 맛이 얼마나 달콤하다고요. 이것은 누워서 자는 맛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맛이 아주 달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익숙해져요. 습관이 들어버려요. 정작 누우면 잠이 안와요. 그것 참 묘하지요. 앉아서는 그렇게 달콤한 잠이 퍼부어 오는데 ‘이러느니 차라리 누워서 확실하게 한숨 자고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지대방에 가서 눕는 거예요.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서 도대체가 잠이 안 옵니다. 왜 그런지 공부에는 별별 장애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때 정신이 초롱초롱 하잖아요. 그 때 챙겨요. 이 뭣꼬를 챙기든지, 관세음보살을 챙기든지, 뭘 챙기든지...

**또 받으니 노방의 두 글귀로** 아까 **“다만 모든 있는 것을 비우기를 원할지언정 간절히 모든 없는 바를 있도록 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두 글귀지요. **노방의 두 글귀.** 앞에 소개 됐었습니다. 이것을 **行住坐臥(행주좌와)의 교훈을 삼는다고 하니 좋기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사네요. 그러니까 대혜스님이 기분이 좋다는 것이지요.**만약 시끄러울 때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이것은 스스로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분별심이 일어날 때에 다만 노방의 두 글귀를 떠올리면 문득 열이 날 때 淸涼散(청량산)을 한 번 복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가 망상이 많이 끓고, ‘공부가 안 된다’‘공부가 안 된다’그럴 때는 이런 명구를 하나씩 기억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기억하면 더 좋겠네요.

**但願空諸所有(단원공제소유)언정 切勿實諸所無(절물실제소무)어다.** ←66쪽에. 최소한도 지금 최첨단. 최고급불교, 선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정도 글자 몇 자 외우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화두는요? 글자 몇 자 외우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 수승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殊勝(수승)한 것이라고요.저도 어릴 때 관세음보살 외워서 덕본일이 참 많아요. 어디 다니다가 무서울 때라든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무조건 관세음보살 열심히 외우면, 상당히 첫째 마음이 안정되고, 영험도 나타나고, 참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우습지만, 그러나 참선공부에도 여기 대혜스님이 지도 하셨듯이 아주 지침이 되는 간단한 명구. 꼭 필요합니다. 간단한 명구는 꼭 필요하다고요. 여기 딱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늘 목에 걸어 두라고 했는데 이 거사는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분이어서, 대혜스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노방의 두 글귀를 떠올리면 문득 열이 날 때 청량산을 한 번 복용하는 것과 같다.”**아주 열이 펄펄 끓을 때 청량산이라는 아주 시원한 약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먹으면 그만 그 순간 열이 사~ㄱ 내려가듯이 **단원공제소유)언정 절물실제소무어다.** 있는 것을 비워야지 왜 없는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알면 더 간단해요. 있는 것을 비워야지 왜 없는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느냐? “있는 것 비우자.”“있는 것 비우자.”←이렇게 해도 시원해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반야심경 주력을 많이 했는데요. 반야심경을 하도 외우다보니까 요령이 딱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짧은 글귀로 그것이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나는 없다.”“나는 없다.”입니다. 270자가 “나는 없다.”넉자로 딱 요약이 돼 버려요. 그것도 한글로 하니까 더 간단하고 훨씬 영험도 있고 이해가 잘 돼요. “나는 없다.”무 안이비설신의 무 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 다 없어요.

“나는 없다.”“나는 없다.”←이것을 아주 속이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질 때, 반야심경 외우니까 길어서 안 되겠고 그래서“나는 없다.” “나는 없다.”하고 외우니까 속이 청량산 먹은 것 같이 효과가 있습디다. 한 순간이라도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니까 다른 것은... 내가 있으므로 해서 일어났던 열 오르는 일들. 세속적인 표현으로 뚜껑 열리는 일들. 어느 정도는 사라져요. 꼭 한번 써 보십시오. 반야심경 복잡하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대혜스님이 마침 이 거사님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또 이분도 잘 따라서 그렇게 했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결정적 믿음을 갖추었으니 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진리에 대한 관심과 신앙심. 믿음. 이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몇 표 더 얻으려고 열을 올려서 조작빼기 이야기. 주먹을 내두드리면서 해봤자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高手(고수)들은 그런 데에 관심 없어요. 여기오신 분들은 다 인생의 고수들입니다. 그런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바야흐로 이런 말을 감히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識業(식업)이 아득하게 많고 교만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해주면 이것은 그에게 악업의 짐 덩어리를 더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禪門(선문)의 갖가지 병은 이미 앞의 편지에 갖추어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일찍이 자세히 이해했습니까?**이것은 오늘 편지도 이해했느냐는 뜻도 되고, **선문의 갖가지 병.** 제가 앞에 생략한 묵조선의 병폐. 처음에 묵조선 비판 이야기. 그 속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장 대 강좌 4 - 4 강

다음은 방편과 실법의 문제입니다. 불교에 방편이라는 말이 참 많지요. 한국불교 99%가 방편입니다. 방편불교입니다. 사실은 거의 거품불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하고도 서울장안 한복판. 바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實法(실법)으로 우리가 論(논) 하지만, 잠깐만 벗어나면 큰 법당에서도 방편이 난무하는 겁니다. 방편과 실법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그런 방편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방편입니다. 우리가 실법이라고 생각 했는데 그것마저도 방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p. 76   증시랑에게 답함 (5)

편지를 받아보니,‘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을 없애서 마음이 장벽과 같이 되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것은 달마스님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 말은 방편의 가르침입니다.‘방편의 가르침을 빌려서 도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만, 방편을 固守(고수)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보내 온 말과 제 생각이 같아서 읽고 뛸 듯이 기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증시랑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나는 달마스님의 이런 말씀을 방편으로 생각합니다.’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대혜스님이 그것을 읽고는 뛸 듯이 기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도를 사모하기에, 도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의 글을 읽고는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방편인데, 저는 제발 여기까지만이라도 갔어도 좋겠어요.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을 없애서 마음이 장벽과 같이 되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방편이거든요. 이것이 도는 아니라고요. 도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되기도 참 어려운 것이지요. 지금 여러 어리석은 무리들은 다만 방편을 고수하고 버리지 아니하며, 실법으로 사람에게 지시해 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실법과 방편을 제대로 알아야지요. 말하자면 방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요. 실법은 달 그 자체라는 말이지요. 뗏목은 강을 건너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뗏목은 방편입니다. 강을 건너가는 것이 실법입니다. 불교는 방편을 써야 된다는 이런 말은 필요악인데 방편이라는 미명하에 방편이 너무 난무해서 별별 방편을 만들어서 많이 쓰니 이것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런데 그 방편이 먹혀들어요. 먹혀드니까 장사를 하는 겁니다. 고객이 있으니까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쌍방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이 없어 봐요. 방편이 장사가 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할 시간도 없고, 지적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지적하면 지탄받을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바름과 삿됨을 변별하는 논설[辨邪正說(변사정설)]’을 만들어 이를 구원했습니다.“변사정설”이라는 것을 지어서 사와 정을, 어떤 것이 방편이고, 어떤 것이 실법이고. 어떤 것이 삿된 것이고, 어떤 것이 정법이라는 것을 구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세에 魔軍(마군)은 강하고 법은 약하여 담담하고 맑은 곳에 들어가서 湛湛(담담)하고 맑은 곳에 합쳐지는 것으로 究竟(구경)을 삼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공부된 사람들의 병인데, 마음이 깨끗해져서 화두도 없고, 망상도 없으니까 기분은 아주 좋지요. 정신은 아주 가뿐하고 맑고, 그런데 ‘아, 이것이면 됐구나. 이런 안락처가 있구나. 이렇게 깨끗하고 편안한 곳이 있단 말인가?’하고‘아, 바로 성불자리가 이 자리구나.’하고 딱 주저앉는 겁니다. ←여기까지 4-3강입니다.

그것을 구경이라고, 최후라고 삼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또 방편을 고수하여 버리지 않는 것으로 宗師(종사)를 삼는 사람이 삼대나 좁쌀같이 많습니다. 삼. 그것을 요즘은 대마초라고 걸리지만, 우리 어릴 때는 삼 많이 심었거든요. 삼대가 빽빽하게 들어섰어요. 좁쌀도 얼마나 개수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근간에 일찍이 승려들과 이 두 가지를 거론했더니 정히 보내온 편지에 말한 것과 같아서 한 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반야 가운데 마음을 두었으되 생각 생각이 사이에 끊어졌다면, 능히 위로부터 모든 성인의 다른 방편을 밝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간단없이 지속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편과 실법을 가려낼 수 있었고, 邪法(사법)과 正法(정법)을 가려낼수 있었다.

당신은 이미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공부가“어지간히 됐습니다.”이 말입니다. 상당히 불퇴전의 지위에 올랐다. 더 이상 잘못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칼자루를 잡았으니 상대를 베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이미 칼자루를 잡았는데 어찌 방편을 버리고 도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근심합니까? 다만 이와 같이 공부를 하되 경전의 가르침과 고인의 어록과 여러 가지 다른 언구를 보고도 또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방편으로 알고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어록과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전부 방편으로 알고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수미산과 방하착, 개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 죽비 화두, 한 입에 서강수 물을 다 마신다는 화두, 뜰 앞의 잣나무라는 화두와 같은 것에도 또한 방편으로 알고 공부하십시오. 다시 따로 다른 분별심을 내거나, 도리를 구하며, 기량을 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능히 급류(급류라는 일상생활입니다.) 속을 향하여 항상 이와 같이 스스로 잡아가고도 만약 道業(도업)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험이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아! 이거 아주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화두들. 그 잘난 화두들. 그 훌륭한 어록과 경전이 전부 방편이다. 일체 법문이 방편이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화두가지고 우리가 논 한다면, 화두가 방편이다. 아니다. 아직 결론 내릴 수도 없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분명히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방편입니다. 方便(방편). 하는 소리입니다.

“소옥아” “소옥아” 부르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手段(수단). 자기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그것이 안록산이 보고 얼른 담 뛰어 넘어오라는 신호지요. 소옥이라는 시녀에게 뭐 볼 일이 있겠어요? 할 것 다 해놨는데요. 구름이 확 벗겨지지요? 확 벗겨집니다. 방편이라는 구름이 다 벗겨집니다. 여기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삼돌장이라고 해서 咄(돌) 돌 돌 꾸짖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서장에는 처음에 앞에 증시랑. 이 사람이 증개입니다. 이름이 開(개)거든요. 이름이 하필 개입니다. 그래서 “증개장”이런다고요. 돌이 세 번 나와서 “삼돌장”맹자에는 “곡석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곡석장에 얽힌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거든요. 옛날에 서당에 아주 둔한 학동이 있었어요. 도무지 과거에 급제할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머리 총명한 친구들이 “야 이번 시험에는 곡석장에 시험문제가 나온단다.” 이렇게 일러 줬어요. 그 소문을 듣고는 곡석장만 계속 외운 겁니다. 맹자 앞부분에 있거든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몰고 가는데 벌써 떨리는 겁니다. 자기 죽일 것을 감지하고 떠는 것이지요. 떠는 것을 보고는 불쌍하니까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어쨌거나 그랬는데요. 곡석장에서 시험문제가 나온다니까 이 천진한 청년은 계속 곡석장만 외우니까 거짓말 해준 친구들은 “아이고 저 맹꽁이 같은 것이 다른 것은 공부 아니 하고 곡석장만 읽어서 너는 떨어졌다.”이러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해의 과거 시험문제는 곡석장만 나와서 그 사람만 합격이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지로 서당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역사가 오래된 데는요.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별별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경전에 전해지지 않은 불교가 또 많습니다. 口傳(구전)으로 전해진 불교가 또 얼마나 많은지...

 p.79

이것은 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받아보니, 밤 꿈에 향을 사르고 저의 방에 들어와서 매우 고요했다고 하니,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대혜스님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간절히 꿈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참으로 방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옛날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묻기를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말하니 깨어 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하니, 수보리가 말하기를 “이 뜻은 깊고 깊어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미륵대사가 계시니 당신께서는 그분에게 가서 물어 보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돌! 했다고요. “틀렸어”이런 말이지요.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 말인가 하니 대혜스님 말이지요.

설두스님이 이르기를 “당시에 만약 놓아 보내지 않았다면 한 방망이 때려 주어야 했는데, 누가 미륵이라 이름하며, 어떻게 때려주는가 하면,‘미륵보살한테 가 봐라’했으니까요. 미륵은 도대체 누가 이름 지었고, 미륵은 누가 미륵인가? 그렇게 해서 미륵을 부정해버리면 거기에 사리불 하고 수보리까지도 싹 부정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득 얼음이 녹고 기와장이 풀어지는 것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돌! 에이 그런 설명도 틀렸다. 설두 또한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설두가 그렇게 해설을 했는데 대혜스님 보기에는 “설두도 틀렸다.”

혹 어떤 사람이 “다만 증시제가 밤 꿈에 운문의 방에 들어갔다고 하니, 또 말씀하십시오.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묻는다면, 운문은 곧 그를 향하여 말하겠습니다.‘누가 방에 들어간 사람이며, 누가 방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며, 누가 꿈을 꾼 사람이며, 누가 꿈을 말한 사람이며, 누가 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며, 누가 진실로 방에 들어간 사람입니까?’라고 할 것입니다. 에이 말 너무 많다 이거. 이것은 진짜 돌! 이네요.또한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고 대혜스님도 너무 그렇구만... 하하하 그건 그렇고, 유명한 서산스님의 꿈 시가 있지요? 主人夢說客(주인몽설객)하고, 客夢說主人(객몽설주인). 객이 어느 여관에 들어가서 자고는 주인이 “아이, 나그네 나그네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는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객몽설주인이라. 객은 꿈 이야기를 주인에게 한다. 今說二夢客(금설이몽객)이 亦是夢中人(역시몽중인)이라. 지금 꿈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이 내가 보기엔 다 꿈속의 사람이다. 서산스님이 있었더라면 이까짓 것 한방에 쓸어버리는 것을... 그렇습니다. 대혜·사리불·증시랑·수보리·미륵·설두·서산스님이야기까지... 어제 있었던 일들. 아니, 이 시간 이전까지 있었던 일들. 아니, 지금. 이것이 도대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참말로 알지 못할 일이로다.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p. 81 증시랑에게 답함 (6) 증시랑에게 답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편지가 많은데 그 중에 추린 것입니다. 대혜스님의 이 친필이 지금 일본 어느 대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송나라 때니까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지요. 일본 사람들이 서장 책을 출판한데는 보면 친필을 어떻게 어떻게 입수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책이 있습니다. 간화선생활. 선불교의 생활. 그것은 그 자체로서 최상의 인생이다. 이것이 마지막 편지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보내온 편지를 여러 번 자세히 읽고 鐵石(철석)과 같은 마음을 갖추고 결정적인 뜻을 세워 대강 대강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아주 철석같은 마음이라는 말이지요.

다만 이와 같이 점점 나아가 죽는 날에 이르면 또한 능히 염라대왕과 서로 겨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염라대왕 만날 일도 없지만,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진검승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최고의 눈을 열어서 금강왕 보검을 잡고 비로정상에 앉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정말 철석과 같은 마음을 갖추고 결정적인 뜻을 세워서 대충대충 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 일에 몰두하고 살아간다면 그걸로 됐다는 겁니다. 禪은 삶이라고 그랬지요? “선은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선사. 국민선사라고 전번에 언제 제가 이야기 했지요? 그 분은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느냐?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바로 그 삶이 사람을 감동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 대표선사. 국민선사로 추앙 받잖아요. 가신지가 벌써 여러 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선사 이전에 선사 없고, 그 선사 이후에 선사 없어요. 하하하하하 이전에야 있었지요. 표현을 하자면...

제가 일찍이 바깥 도우(道友)에게 말하기를 세속 도반들입니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만 빠른 효과만 구하고 그릇되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빨리, 후닥닥 그냥 한 방에 해치우려고 성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사는 거라니까요. 도의 정신으로 살고, 선의 일곱 가지 정신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간소하고, 소박하고, 아주 유현하고, 탈속하고, 첫 시간에 소개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말하기를“일을 없애고 인연을 덜고 고요히 앉아서 참구하며, 헛되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몇 권의 경전이라도 보고 염불을 하며, 부처님 앞에 예배를 많이 하고 평생 지은 죄와 허물을 懺悔(참회)해서 염라대왕의 손 가운데 쇠몽둥이를 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선불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뒤에 진국태북이라는 보살님이 한 분 나와요. 유일한 보살님이 한 분 나오는데, 그 분은 아주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루에 아미타불을 수 만 번하고, 책을 여러 권보고, 관세음보살도 여러 번 부르고, 여섯 번 예불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화두 들고, 그렇게 했는데 대혜스님이 지도해서 “그거 다 때려치우라. 치우고 화두만 해라.”그랬어요. 신앙심이 깊어서 대혜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얼마 하니까 그거 다 놓아 버리니까 금방 깨닫게 된 이야기를 기대 하십시오. 저 뒤에 나옵니다. 바쁜 사람은 진국태북이라고 찾아서 읽으십시오.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공부하다보면 참 크게 대두 됩니다. 특히 세속에 있으면서 적당하게 액세서리로 불교 하는 사람들이야 별것 아니지만, 정말 투기하듯이 내 인생을 다 던져서 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하다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이판사판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묻고 선지식이 답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중몽선사라고 고봉스님의 제자인데 “산방야화” 라고 너무너무 멋있는 책 제목들이 있어요.“竹窓隨筆(죽창수필)”얼마나 근사합니까? 산방의 이슥한 겨울밤에 도란도란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山房夜話(산방야화). 또 우리나라의 스님으로서는 책은 없어지고 제목만 전해지는 한암스님 一鉢緣(일발록). 당신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좋은 내용들. 적고 싶은 내용들을 적었던 책인데요. 일발록 이라고 제목만 전해져요. 산방야화에 보면 우리가 깨치지 못하고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대혜스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 같이 되어있어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 경 안 읽어도 좋고, 염불 안 해도 좋고, 예불 안 해도 좋은데, 이거하나 되던 안 되든 밀어붙이는 이 생각 하나만 들고나가라. 그러면 못 깨치고 죽었다손 치더라도 그 업이 어디 가겠는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문천화 한다. 한 마디 듣고는 그냥 깨친다. 그 때는 참선 아니 해도 바로 깨칠 수 있는 인연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자기의 삶을 추슬러가는 지침 중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선하는 데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참선도 물론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삶도 정말 내가 다음 생에 스님노릇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흉내 내세요. 자꾸 스님 흉내 내세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라든지, 경 읽고 염불하는 것이라든지 일체를 자꾸 흉내 내세요. 그러면 바로 태어나자마자 그 인연이 제일 가까우니까요.

무거운 데로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빚잔치 할 때 제일 빚 많이 준 사람이 제일 권한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내가 어느 인연으로 태어날 것인가? 인연이 가장 무거운 데로 태어나고, 가장 많이 인연 지어놓은 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 누가 피아노 치는 것이 너무 환상적이어서 나도 내생에는 아주 명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하고 될 일은 없어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죽는 순간까지 죽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에 바로 그 쪽으로... 한 예로 말입니다. 무슨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을 권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일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장 강의가 감동적이다.’해서 집에 가서도 또 읽고, 그러다가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봐요.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겠는가? 바로 이 서장 강의 들었던 것부터 떠오른다고요.

그리고 온갖 잡다한 것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똑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잠을 자고나서 다음 생을 맞이할 때도 역시 똑 같아요. 우리 오늘 무슨 큰 일이 있었던 것. 기쁜 일이 있었거나, 슬픈 일이 있었거나... 슬픈 일이 있어 봐요. 잠 속에서도 계속 슬픈 것이 침범 해있고 깨어나면... 예를 들어서 아니 할 말로 친구가 잘못 됐거나 가족이 잘못 됐거나하면 피곤해서 잠이야 오겠지요. 그렇지만 깨어나면 언제 내 온 몸과 내 온 의식 속에는 이미 그 슬픔이 꽉 절여져 있습니다. 화두도 그와 같고, 공부도 그와 같이 하면 다음 생은 그것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과학적인 것이고, 콩 심은데 콩 나는 도리지 별것입니까?

다음은 神仙道(신선도)와 佛法(불법) 이야기인데요. p. 82

지금 道家(도가)의 무리들이 망상하는 마음으로 해와 달의 精華(정화)를 상상하며, 노을을 삼키고 기운을 복용하더라도, 오히려 몸을 세상에 두어 추위와 더위의 핍박을 면하는데 신선도가 상당히 무르익으면, 장수하고 건강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돌려 오로지 반야 가운데 두는 것이겠습니까? 그 시시한 신선도도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보는데, 이 마음과 이 몸을 반야 가운데 두고 열심히 정진 한다면 그거야 더 말할 나위 있느냐 이겁니다. 틀림없다 이겁니다. 절대 그 생각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 갖지 말라. 信心(신심)! 이것이요. 참선 하는데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 많아요. 전제조건이 있어요. 전제조건 가운데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낱낱이 1. 2. 3. 4. ←이렇게 해가면서 전제조건을 제가 나열할 것은 아니로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 찰떡 같은 믿음!

옛 성인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비유하자면 파리가 어느 곳에나 능히 앉을 수 있으나 오직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으니, 중생도 또한 이러해서 곳곳에 능히 攀緣(반연)하되 오직 반야 위에서는 반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생각마다 초심에서 물러나지 않고, 세간의 진로와 반연하는 자기의 心識(심식)을 잡아 반야 위에 돌려놓으면, 비록 금생에 철저하지 못하더라도 임종할 때에 결단코 악업에 끌려가거나 악도에 흘러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나의 금생 원력을 따라서 반드시 반야 가운데 있어서 現成(현성)하여 受用(수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일이라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여기에 정리 되어있습니다.

중생계 안의 일은 배우지 않아도 시작 없는 옛날부터 習性(습성)이 익숙하며, 참 그렇지요. 안 배웠는데 어찌 그리 잘 아는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기가 학원비 들여가면서 배우지 않았는데, 잘도 아네요. 길도 또한익숙하여 저절로 取(취)함에 좌우에서 그 근원을 만나니 모름지기 버려두십시오. 세상사 그거 안 배워도 잘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출세간에서 반야를 배우는 마음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등지고 어긋났습니다. 언제 해 본적이 있어야지요. 금생에 어쩌다가 천만다행으로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나마 귀에라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지요. 잠깐 선지식이 말하는 것을 들어도 저절로 이해하지 못하니,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을 세우며 그것과 더불어 주관을 세워 결단코 두 가지를 세우지 마십시오. 바로 이 반야공부 하는 것.

이곳(반야)에 만약 들어가기를 깊이 하면 저곳(세상사)에는 물리쳐 보내지 아니해도 모든 마군과 외도가 저절로 없어지고 굴복할 것입니다. 불교공부 제대로 하면요. 다른 일 저절로 소원해져요. 저절로 소원해진다고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모든 일은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놓고, 한 달을 돌리면 일이 피해갑니다. 이 날은 일이 안 생겨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소용돌이거든요. 소용돌이가 힘차게 돌아가면 다른 것 다 피하게 돼있습니다. 다른 일이 다른 날 온다고요. 그것 참 묘한 일이지요. 그것이 一切唯心造(일체유심조) 도리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 여러 번 경험 했다니까요.

그전에 한참 힘 좋을 때, 매주 목요일에 강의를 했거든요. 목요일에는 왠지 일이 없는 겁니다. 연락도 안 오고요. 그래서 곤란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마음에 딱 결정을 해버리니까 몇 년을 그렇게 됐습니다. 나오는 사람도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목요일에는 도대체 아침부터 전화 한번 없다고요.

생소한 곳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은 생소하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대혜스님이 자주 주장하는 것입니다. 生處(생처)는 放敎熟(방교숙)하고 熟處(숙처)는 放敎生(방교생).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소한 것. 덜 익은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생소하게 하는 것. 뭐가 덜 익고 뭐가 익숙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날로 공부를 하는 곳에 칼자루를 잡아서 딱 주관을 가져서 확실하게 잡아라. 칼자루를 잡으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잡아서 점점 힘 덜림을 아는 때가 문득 힘을 얻는 곳입니다. 해보면 힘이 덜 드는 겁니다. 그것이 得力(득력)입니다. 운전해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옆에 것.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그런데 한 달하고 두 달하고 나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구경하고 간판 다 읽어가면서... 그것이 득력처가 생력처이고, 생력처가 득력처다. 힘 덜 드는 것이 힘얻는 곳이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힘이 덜 든다. 生力處(생력처) 得力處(득력처) ←이것도 서장에 여러 번 나오고, 生處(생처) 熟處(숙처).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 선 것. 선 것과 익숙한 것. 이 관계도 아주 여러 번 서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강 終 -

서장 대 강좌 5 - 1 강

서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식과 어찌 보면 불교의 백지 상태인 일반 거사님들과의 절차를 뛰어넘은 순서를 전혀 관계하지 않고, 불교를 바로 이해시키려는 선지식의 가르침이고, 또 서장 안에 등장하는 많은 거사님들이 언제 천수경 외우고 반야심경 외우고 108배 할 줄 아는 그런 절차를 밟은 뒤에야 비로소 불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전혀 없는 입장에서 불교를 바로 질러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관계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런 저런 인연으로 해서 불교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너무 많고, 그것이 또 어찌 보면 불교를 제대로 아는데 사실은 상당한 장애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장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는 것이 왜 장애가 되겠는가? 아는 것이 장애가 아주 많이 됩니다. 아는 것이 장애가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아주 잘 아는 스님이 평소에 글씨를 나름대로 모필 글씨를 열심히 썼습니다. 아주 명필을 만나서 글씨를 좀 배우려고 마음을 먹고 가서 글씨를 배우는데, 상당히 공을 들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평소에 쓴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아무리해도 도대체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일 년을 고치려고 해도 자기 혼자 연습한 그 습관이 나와서 당신은 틀렸다. 금생에는 붓글씨 제대로 쓰기는 틀렸다는 지적을 받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것이 제대로 알면 모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쌓아 놓은 것이 바른 공부를 하는 데에 얼마나 장애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장에는 천하에 아주 명 선지식으로서 불교의 중요한 제반 사항들을 여기서 많이 지적 하면서 뛰어난 견해로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85쪽입니다. **8. 이참정 한노가 질문하는 편지.**

저~ 앞에서는 증시랑이 질문하는 편지가 한편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참정. 참정 벼슬이라면 국무총리정도 되는 벼슬입니다. 그분이 질문하는 편지입니다. 이분은 이 질문하는 편지가 事前(사전)에 대혜스님을 찾아가서 대혜스님에게 지시를 받고, 상당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분입니다. 앞에 증시랑은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질문하는 편지를 대표로 한편 실었고, 여기는 깨달은 사람의 편지로서 대표로 한분 실었습니다. 그 외에는 질문하는 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대혜스님의 법문만 실려 있습니다. 질문하는 편지로서는 마지막인데 깨달음의 전말에 대한 이참정의 이야기가 앞에 서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세속적 상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끝에 가서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頓悟頓修(돈오돈수)와 頓悟漸修(돈오점수)의 문제. 이 문제도 이참정 章(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籌室(주실)께 묻고서 어리석고 막힘을 激發(격발)해 주심에 힘입어 홀연히 깨달아 들어감이 있었습니다.** 주실이라는 것은 조실. 방장이라는 뜻입니다. 방장 스님한테 묻고 비로소 **홀연히 깨달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마음이 어둡고 둔하여 평생 배우고 안 것이 다 情見(정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지요. **평생 배우고 안 것이** 오히려 어떤 변색된 소견. **情見** 이라는 것은 변색된 소견이지요. **情**자가 뭡니까? 마음 심 변에 푸를 청 이지요. 이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푸른 안경이나 누런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듯이 변색된 마음으로 존재와 사물을, 인생관과 세계관을 보는 태도를 **情見** 이라고 합니다. 모든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情見에 떨어져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림이 마치 떨어진 솜옷을 입고 풀 가시밭 가운데를 가다가 마침내 스스로 엉킨 것과 같았습니다.** 표현을 아주 잘 했습니다. 당시 참정 벼슬 정도를 한다면 천하에 손꼽는 선비에 해당 되겠지요. 정말 세속적인 삶이라는 것. 이것 하나 놓으면 저것 하나 걸리고, 저것 하나 놓으면 이것 하나 걸리고... 세상사는 그렇지요.

또 세상사로서 공부에 연관시켜서 공부를 한다고 해봐도 역시 그와 같더라는 술회입니다. **지금 한번 웃음에** 깨닫고 나니 ←이런 뜻이지요. **문득 풀렸으니 기쁘고 다행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큰스님께서 자세하게 내려주신 자비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것을 이루었겠습니까? 성중에 이른 뒤부터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자식을 안고 손자를 데리고 노는 가지가지가 그전 그대로지만, 이미 구속되고 막히는 감정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바로 이것이 불교 공부의 효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밥 안 먹고 잠 안자고 사람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그전 그대로** 잘못 번역을 해서 “옛 본분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전 그대로** 본문에는 **仍舊(잉구)**라는 말입니다. **그전 그대로.** 옛 그대로. 깨닫기 이전하고 그대로... **그전 그대로** 이지만 그런데 묘하게도 가뿐해요. 자식과 어떤 문제를 논의 한다든지, 손자를 안고 어여삐 여기고, 손자하고 장난치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깨닫기 전과 깨달은 이후의 그 일상생활은 똑 같으나 내 마음에 남는 찌꺼기는 전혀 달라요.

가뿐하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불교를 공부한 효험입니다. 무슨 엉뚱하게 공부도 아니 했는데 기도해서 좋은 학교 척 붙고, 내놓은 아파트가 팔릴 때가 되어서 어쩌다가 팔린 것을 기도해서 팔렸다고 착각해서, 불교를 그렇게 巫俗化(무속화) 시킨다면 僧俗(승속)을 막론하고 참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불교의 효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밥 먹고 옷 입고 자기에게 처해 있는 인연을 수용하면서 해결할 것 해결하면서 살아가는데 뭐라고 했지요?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구속되거나 막히지 아니해요. 그 나머지 묵은 습관과 오래된 장애도 또한 조금씩 경미해졌습니다.** 가벼워 졌다는 겁니다. 뒤에 스님의 답장에 이런 문제를 짚어갈 것이니까 그 때 또 말씀 드리기로 하고...

**이별할 때 간절히 일러주신 말씀은 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혜스님을 친견한 후 산에 가서 대혜스님 절에 오래 머물면서 법문을 주고받으면서 말씀아래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대혜스님이 가라고 하지를 않고, 최후의 주의를 일러 주셨는데 그 말이 86쪽 밑에 주에 있습니다. 152번 주에 보면 이것이 능엄경의 말을 인용 했는데요. **理則頓悟(이즉돈오)라 乘悟倂銷(승오병소)니와 事非頓除(사비돈제)라 因次第盡(인차제진)이라** 이치는 문득 깨달아서 깨달음을 따라 아울러 녹여가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끌림은 홀연히 제거할 수 없어서 차례를 따라 없애야 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얼음이 물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물로 쓰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물은 틀림없이 물이지만 물로 사용 하려면 녹여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얼음 그대로 물이라고 보고 그리고 말아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꼭 물로 쓰고 싶으면, 얼음이 녹을 때 까지 기다려라. 아니면 불을 때서 얼음을 녹여서 써라.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오다. 점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頓悟漸修(돈오점수)사상이다. 그래 원래는 頓悟頓修(돈오돈수)가 우리 宗門(종문)에 맞는 사상인데 여기는 돈오점수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생각하니 비로소 문에 들어갔으나, 큰 법을 밝히지 못하여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함에 부딪치는 일 마다 막힘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겸손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 **아들을 안고 손자를 희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가벼워 졌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이 분이 아주 진중한 사람이라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바라옵건대 이끌어 가르쳐서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있게 해주신다면, 겨우 스님의 法席(법석)에 허물이 없을까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조금 이른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이 문제를 돈오점수다. 돈오돈수다. 그러는데 이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원이라는 스님한테 “시원” 하고 불렀어요. “예” 하고 대답 했어요. 이것이 돈오돈수입니까? 돈오점수입니까? 여기에 돈오돈수다. 돈오점수다를 붙이면 그것 참 어쭙잖은 짓입니다.

그럼 불교는 뭐냐? 내가 부르면 상대가 대답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이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만이 오직 진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돈오돈수다. 돈오점수다 하는 것은 전부 어쭙잖은 짓이고, 그냥 아는 사람들은 해보는 소리이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돈오돈수니 돈오점수니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요. 부르면 대답하는 일입니다. T V 보다가 아이구 졸린다 피곤하다하고 벌렁 누워 자는 그 일입니다. 피곤하면 그냥 자는 일이라고요.

이렇게 쉬운 불교입니다. 그래서 임제스님이 황벽스님한테 진짜 불교가 무엇입니까? 임제스님은 천하의 일대 장경을 다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뭔가 갑갑해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황벽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진짜 불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진짜 불법을 가르쳐 준다고 몽둥이로 후려 갈겼어요. 황벽스님 입장에서 보면 저놈 자기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진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나한테 와서 ‘진짜 불법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진짜 불법을 보여 준 것입니다. 미워서 때린 것도 아니고, 벌주려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불법을. 황벽스님의 진짜 불법을 보여 준 것입니다.

황벽스님이 보기에는 묻는 그 일이 진짜 불법입니다. 궁금하니까 묻는 그 일이 진짜 불법인데, 그것을 두고 물으니 답이 없을 수가 없지요. 답을 하는 것이 바로 방망이로 후려갈긴 것입니다. 임제스님은 나중에 그것이 진짜 불법인줄 알고, 황벽불법이 이렇게 간단하구나! 黃檗佛法無多子(황벽불법무다자)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황벽의 불법만 간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불법이 간단합니다. 본래 불법이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였잖아요. 들고 보고한 사실이 진짜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장황하게 별별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지요.

별별 이야기를 다 늘어놓는 것이라고요. 돈오니 점수니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부르면, “예”하고 대답하는 그 일입니다. 그것 밖에 달리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 생명입니다. 우리들의 참 생명은 곧 부처님의 無量功德生明(무량공덕생명)입니다. 이 사실에 눈 뜨는 것! 이것 외에 달리 다른 것 없습니다. 이외에 달리 다른 별별 이야기들은 전부 방편입니다. 전부 방편이고 거품이고요. 근기 따라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禪佛敎(선불교)에 와서는 지금 그렇게 너절한 방편 늘어놓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선불교는 그런 방편 다 걷어치우는 겁니다. 그야말로 참 몸통 하나만 놔두고 잎 다 쳐버리고, 가지까지 다 쳐버리고 딱 나무로 치면 큰 나무 중심 줄기 그것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 버리는 것 하고 똑 같은 格(격)이 선불교입니다. “선불교”하면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잡다한 불교는 무엇인가? 가지요, 잎이요, 東(동)으로 뻗은 가지, 西(서) 로 뻗은 가지, 굵은 가지, 작은 가지, 무슨 푸른 잎, 누른 잎, 큰 잎, 작은 잎, 떨어진 잎, 아직도 달려 있는 잎, 별별 잎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잎 같은 가르침을 많이 하셔 놓으니까 어느 날, 미안한지 큰 숲에 가서 손으로 잎을 한 움큼 훑었어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나뭇잎이 얼마나 되느냐?”  “글쎄요. 한 여남은 잎 되겠네요.”  “그럼 이 숲에 있는 나뭇잎은 얼마냐?” “그것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손에 있는 나뭇잎하고 저 숲에 있는 나뭇잎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수 억만 배나 더 많지요.” “너희들은 나 보고 말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은 내 손에 있는 나뭇잎이고, 내가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은 저 숲에 달려 있는 나뭇잎이니라.” 방편을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오늘날은 이 시대에 부처님도 깜짝 놀랄 별별 방편을 다 만들어 내어서 한국 불교에서 그렇게 그냥 쓰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시대에 왔더라면 아마 기겁을 하고 자빠질 겁니다. 돈오니 점수니 하는 것. 전부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얼음을 물로 쓰고 싶으면 녹여야 되겠지요. 꼭 물로 써야할 이유는 없어요. 얼음으로 쓸 경우는 또 물을 얼려야 돼요. 아시지요? 물을 다시 얼려야 얼음으로 쓴다니까요.

굳이 얼음을 물로 써야할 경우는 녹여야 되겠지요. 물을 얼음으로 써야할 경우는 다시 얼려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과정은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돈오니 점수니 하는 것은 전부 모르고 하는 소리이고, 전부 헛소리입니다. 내가 불렀는데 스님이 “예”하고 대답하는 것. 얼마나 간단명료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돈오점수다. 돈오돈수다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는 돈오니 점수니 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그것이 불법의 진실이니까요. 여기까지 질문하는 편지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다음은 그런 편지를 받고 대혜스님께서 이참정에게 답하는 편지지요.

**p. 88 9. 이참정에게 답함**

**보내온 편지를 보니, 성중에 이른 후로부터 옷 입고 밥 먹고 자손을 안고 희롱하는 가지가지가 그전 그대로지만, 이미 구속되고 걸리는 정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며, 묵은 습관과 오래된 장애도 또한 점차 경미해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젊을 때 남녀가 만나서 얼마나 깨가 쏟아집니까?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시들해지고 경미해져요. 서로가 거의 도인이 다 되어간다고요. 도 안 닦아도 도인이 다 되어간다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인간관계 보다도 그 중에서 부부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경미해지고 시들해져요. 도 안 닦아도 거의 도의 경지에 이른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모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본 안목이라면 어디 부부문제, 자식 손자문제, 사업문제, 명예문제, 돈 문제, 그것 뿐 이겠습니까? 일체 것이 가뿐해져요. 그것 때문에 지저분한 일들은 생기지가 않는다고요. 그런 일을 아예 저지르지를 않아요. 인생의 高手(고수)가 되었는데 그 하찮은 일. 저~기 下手(하수)들이나 하는 짓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요? 이 불교는, 특히 선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고수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까짓것 시시한 일들은 크게 관심 없어요. 저절로 가벼워져 버려요.

**경미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세 번 반복하여 읽음에 뛸 듯이 기쁩니다. 이는 불교를 배운 효험입니다. 만약 한 번 웃는 가운데 백 가지를 通達(통달)하고 천 가지를 堪當(감당)하는 局量(국량) 넓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능히 우리 집에 과연 전할 수 없는 미묘함이 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혜스님이 기뻐서 당신이 가르친 그 이참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도리에, 이 도의 문제에 눈을 뜨고 나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효험을 여기서 소개를 했는데, **세 번 반복해서 읽었다** 잖아요. 야~!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참정 벼슬을 하는 사람이 그쯤 된다면 그 나라 참잘 될 겁니다. 邪心(사심)이 없을 것 아닙니까? 명예에 연연 않을 것이고, 재산에 연연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신문에, 9시 뉴스를 온통 장식하고 있는 그런 지저분한 뉴스는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疑怒(의노) 두 자 법문을 未來際(미래제)가 다하도록 끝내 타파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의심과 분노. 이것은 대혜스님이 분노를 잘하는 분입니다. 도인이 왜 분노를 하느냐? 의문스럽겠지요? 대혜스님 같이 분노를 잘하는 분이 없어요. 열 잘 내고요. 삿된 법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분이 대혜스님 입니다. 특히 默照邪禪(묵조사선)에 대해서는 아주 열렬하게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는 분이 대혜스님 이라고요. 도인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천만에요. 도인일수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도인이고요. 입에 거품 아니라 피라도 물라면 물 수 있어야 그것이 도인이라고요. 목석 같이 된 도인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도통을 천번 만번 했다 하더라도 木石(목석)이 된 도인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저 스님이 정말 소견이 올바른가?’ 그리고 또 삿된 법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제가 다하도록 끝내 타파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당신이 깨달은 뒤에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환히 아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太虛空(태허공)으로 운문의 입을 삼고 草木瓦石(초목와석)으로 다 광명을 놓게 하여 도리를 도와서 말하게 하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문은 이 온 드넓은 허공이 전부 대혜스님의 입이 되고, 산천초목 모든 것이 다 放光(방광)을 해서 어떤 도리를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눈을 뜨지 못했다면 어찌하지 못했을 거라는 표현입니다. **바야흐로 이 本分因緣(본분인연)은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깨달으며,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 비로소 끝까지 사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번 웃음에 얻은 것도 문득 잊어버렸으니 다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一笑(일소). 한번 웃는다는 표현이 좋지요? 깨달았다느니, 증득했다느니, 견성을 했다느니, 그런 진부한 표현보다는 한 번 웃었다. 참 멋지잖아요. 깨달음이란 것이 웃음 한번 웃는 것이지요. 허허허 하고 한번 웃는 것이지 그 이상 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전법의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불교공부, 효험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었다면, 이것은 전법의 문제. 법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음을 전했느니, 법을 전했느니, 전법제자니, 법을 전해 받았느니 이런 말들이 불교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바야흐로 이 본분인연은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깨달으며,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 비로소 끝까지 사무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이 서장을 펴놓고 우리가 하는, 글공부도 그래요. 제가 아무리 입에 거품을 물고 고함을 쳐도, 여러분들이 관심 없으면,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집에서 벌써 복습 다 하고 왔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를 점검하고 앉아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전한다.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전했느니 하는 그런 말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전할 수 없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사실.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사실. 이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이 누구에게 전했겠어요? 저 같으면 라후라보다도 야수다라에게 먼저 전하겠네요. 하하하허허허 그 다음에 라후라에게 전하겠네요. 하하하 아이 라후라하고는 1촌이고 야수다라하고는 무촌입니다. 혼자 사는 모양이지요? 하하하 어느 경전 어느 어록을 뒤져봐도 야수다라에게 법을 전했다. 라후라에게 이뻐서 법을 전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 없다고요.

그런데 법화경에 授記(수기)를 주는 이야기에 보면, 법화경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최종 결론이거든요. 불교 전반의 최종 결론입니다. 거기는 전부 “너는 부처다.” “너는 부처다.” “너도 부처다.” “너도 부처다.” 하고 전부 부처라고 수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거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참 좋은 경전입니다. 불교는 법화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경전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야수다라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500명 몇 천 명 다 수기를 하는데 도대체 교담미. 소위 마하파사파제비구니 젖 먹여 키운, 부처님을 젖 먹여서 키운, 養母(양모)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야수다라 이름도 안 부르는 겁니다. 야수다라가 약간 삐져서 ‘저 양반이 내가 한번 바가지를 긁어야 하나? 왜 우리 이름도 안 부르고 우리한테는 수기를 안 주느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을 얼핏 한다고요.

법화경에 적혀 있어요. 제가 적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살을 붙입니다. 하하하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것이 經家(경가). 경을 편찬하는 사람의 솜씨입니다. 글 솜씨 라고요. 야수다라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 그것은 경을 편찬하는 사람이 그렇게 꾸민 것이지요. 그것을 아시고는 비로소 마하파사파제비구니 하고, 야수다라. 거기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이전 부인이라고 안 하고, ‘라후라의 어머니 야수다라’라고 묘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너도 부처다.” 결국 너희들도 부처라고 수기를 주는 대목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감기 하나 앓는 것도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자신이 혼자 앓는 것이지 누가 대신 못 앓아줘요. 아들이 어머니 감기 대신 못 앓아주고, 어머니가 아들감기 대신 못 앓아줘요. 그런데 하물며 이 도 닦는 일이야 두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법문이 **自燈明法燈明(자등명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自歸依法歸依(자귀의법귀의)**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진리의 가르침을 귀의처로 삼아라. **自洲法洲(자주법주)** 자기 자신을 안식처로 삼고, 진리의 가르침을 안식처로 삼아라. 말하자면 뗏목을 타고 가다가 어디 섬에 당도하면 거기서 며칠 쉬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섬洲(주)자를 씁니다. **自燈明法燈明 自歸依法歸依 自洲法洲**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법문” 이라고 합니다.

서장 대 강좌 5 - 2 강

우리들이 쓰는 말에 대해서 특히 경전의 말씀이나 조사스님들의 어떤 위대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중도적인 안목으로 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중도적인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니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모든 존재는 존재의 원리가 있다. 그 원리를 뭐라고 이름 지을까?” 하다가 “중도의 원리 라고 이름 짓자”그랬어요. 모든 존재는 존재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중도의 원리”라고 불교에서는 해요. 그러면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스님들의 위대한 가르침도 그 원리로 봐야 됩니다. 그 원리로 봐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서장의 훌륭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지해야 되고 때로는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p. 89**

**黃面老子(황면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말한 일체 有爲(유위)의 허망한 일을 구하지 말며,** 그렇지요. 중생들이 쓸데없이 지껄이는 소리를 **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비록 다시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나 또한 다시 말없는 데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중도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나 또한 다시 말이 없는 데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보내온 편지에 “이미 걸리고 막히는 情(정)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은밀히 契合(계합)합니다. 곧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의말씀이고, 이것을 떠나 말하면 마왕의 말입니다.** 마왕 파순의 말이다. **이렇게**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집착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배척도 하지 말라. 그것을 배척도 하지 말고 집착도 할 것이 아니다. 부모 말을 들어도 안 되고 안 들어도 안 됩니다. 그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흑백논리로 보면 지극히 모순인데 그러나 불교적인 깨어있는 눈으로 볼 때 이것이야말로 진짜 논리입니다. 진짜 진리에 맞는 논리라고요. 부모가 하는 말이라고 다 맞나요? 지혜 있는 자식은 그것을 분별해서 행동해야지요. 일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안이 그럴 바에는 우리 보통사람들의 말이야 더 말할 나위 없지요.

聖見(성견).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그저 거기에 푹 빠져있고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燃臂(연비)하면 좋다니까 본인은 아니하고 상좌들에게만 그냥 연비시켜서 멀쩡한 손가락 태우는 법화경에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것 잘못 들으면 그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지요. 의미를 잘 안다는 그 말을 잘 새겨듣고, 잘 새겨듣는 것은 듣기도 잘 듣지만 그 말에 집착도 아니 하는 것이 잘 새겨듣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말하기가 무섭다니까요. 말 한마디 하면 그만 거기에 빠져서... 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만 거기에 푹 빠지지요. 그렇게 **중도적으로 알아야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중도적인 원리를 떠난 말이라면 이것은 마왕의 말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든지 誓願(서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천수경을 보더라도 원 이라고 하는 것. 發願(발원)이니 서원이니 하는 것이 3분의1이상 됩니다. 불교에는 祝願文(축원문). 發願文(발원문). 誓願文(서원문). 별별원이 많지요. 대혜스님께서도 이 원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큰 원을 세우기를 ‘차라리 이 몸으로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끝내 이 입으로 불법을 가지고 인정 때문에 일체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 않겠다.’ 고 했습니다.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옛날에 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시주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왜곡되게라도 일단은 입에 달콤하니까요. 귀에 달콤하니까요. 내가 달콤한 소리로 해 주겠다. “나는 차라리 지옥 갔으면 갔지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대혜스님의 원 중의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미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스스로 이 일은 남을 따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나는 오로지 정법으로서 사람을 가르치지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삿된 법으로 사람을 오도 하지는 않겠다.” ←대혜스님의 원력. 이것도 좋지요. 참 좋은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원이 있어야 됩니다. 원이 그 사람의 생명력입니다. 願力(원력)이 있는 것이 생명력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꿈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뭔가 원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이고, 생기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생기에 넘치는 사람이라고요.

불교 안에 들어오면 좋은 원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내가 법화경을 사경 하겠다.’ ‘금강경을 한 100번쯤 사경 하겠다.’ 이런 원력 딱 세워놓고 살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그 한 가족이 한 가정에 그렇게 굳건한 원력을 세워놓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집안은 저절로 뭔가 보이지 않는 기둥이 형성 되어서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그 기둥을 붙들고 버티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꺼리들이 불교 안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불교를 만났을 때 꼭 그 나름의 좋은 원력을 세우고, 불교적인 꿈을 설계를 해서 하루하루 아주 신앙으로 다져진 삶을 산다면 이것은 깨달음의 안목 외에 아주 상당히 큰 소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전 그대로 살지언정** ←이것은 悟後(오후). 깨달은 뒤의 문제입니다. **다만 옛날 그대로** 깨닫기 이전 **그대로** 밥 먹는 것 역시 밥 먹고, 자식하고 무슨 문제 의논하고, 장사하는 일 있으면 장사하고, 할 것 그대로 다 하라는 말입니다. **그전 그대로 살지언정 大法(대법)이 밝고 밝지 못한 것과 어떤 문제에 봉착 했을 때 막히고 막히지 않는 것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하면 그전 그대로 사는 것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법 未明(미명). 그 말이 문제가 되었어요. 보다 더 큰 어떤 이치를 밝힐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대혜스님에게 질문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혜스님이 이렇게 짚습니다.

悟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큰 깨달음 말고, 그것은 다음 이야기고, “불교에 우리가 입문했다.”고 칩시다. 불교에 입문하니까 불교를 알고 절에 다니고 보니까 생활을 영 달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헤아려 보니까 온갖 자질구레한 걸리는 것이 많아요. 이것이 그 말입니다. **그전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불교에 입문했든 도통을 열 번을 했든 살아온 대로 그냥 그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절에 몇 번 다녀 보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지 불교 냄새를 가는 곳 마다 그냥 피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스님들은 “절순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절 냄새가 자르르 흘러요. 백발백중 그 사람들은 불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혜스님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살아라.** 뭘그렇게 외형을 달리해서 불교에 입문했다고, 법문 몇 마디 들었다고, 법문 들었으면 그렇게 아마 안 할 겁니다. 그저 절에 와서 그냥 뭣도 모르고 절만 하고, 그냥 목이 터져 라고 관세음보살만 불러대고, 남 하니까 그것이 좋은 줄 알고한 불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십중팔구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절 냄새는 더 풍기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옛날 그대로 살아라.**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하던 짓 다 하라는 겁니다. 불교가 무슨 사람 바보 만들고, 이상하게 사람의 삶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냐 이겁니다. 깨달은 것까지도 그런데 하물며 기껏 절에 며칠 다닌 것 가지고 어디 가서 참선 했다고... 참선 한다고 결과부좌 해서 딱 앉아서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속에는 망상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참선하는 척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불교가 수도 없습니다. 하기야 저도 처음에 절에 들어오면 밥도 안 먹고 공기도 안마시고 사는 줄 알고, 해인사 선방에 있을 때 百苦(백고)한다고 솔잎 먹는 훈련하고, 솔잎 먹으니까 그것은 자신 있어요. 제가 평생 솔잎만 먹어도... 그런데 깊은 산 중에 들어가면 솔잎만 먹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센 것을 훈련하느라고 잣 잎을 따 먹었어요. 해인사는 잣나무가 많아요. 잣 잎을 따 먹으니 아주 독 하더군요. 그것 한참 연습하다가 그만 지쳐서 못 했어요. 절에 들어오면 어릴 때 제 생각처럼 밥도 안 먹고 공기도 안마시고 사는 어떤 특별한 생활이 전개될 줄로 아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혼자 그렇게 상상하고 들어온 것이 큰 문제였어요.

대혜스님은 그것을 제일 주의한 것입니다. 여기는 **仍舊(잉구). 그전 그대로 살아라.** 하는 말이 여기 수없이 나옵니다. 그것이 잘못 번역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고쳤는데요. **仍舊 = 그전 그대로 살아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받아보니, 여름을 지난 뒤에 바야흐로 다시 나온다고 하니 심히 제 마음에 맞습니다.** 깨달은 사람끼리 척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만약 다시 심히 어지럽게 달려가 구하기를 쉬지 못한다면 본분과 서로 계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 당신이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고설파하지 않은 것은 말에 다칠까[傷]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쁨이 이미 안정됐기 때문에 바야흐로 감히 가리켜 보입니다. 이 일은 지극히 쉽지 않으니 모름지기 부끄럽다는 생각을 내어야 비로소 옳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에게 무슨 이런 구구한 이야기가 있겠나?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도 천 가지 만 가지입니다. 더 이상 덮을 것이 없는 깨달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개 대혜스님 자신도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기고만장해서 은사스님인 원오스님을 만나기 전 까지는 자기도 기고만장 했어요. 몇 번 깨달았거든요. 원오스님을 만나서 새로 점검 받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고는 비로소 안정이 됐지만, 이참정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무결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편지는 지금 일본 동경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대혜스님 친필 편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친필 편지가 그대로 있다고요. 일본에서 나온 서장 사서 보세요. “선의 어록”이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혜스님 편지가 영인으로 딱 견본이 나와 있습니다. **가끔 예리한 상근기의 사람은 이것을 얻는 데 힘을 들이지 않아서 드디어 쉽다는 생각을 내어서 곧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깨닫는데 있어서 쉽고 어려움의 문제인데요. 그야말로 불법은 일상생활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한 번 터져서 수천억 건지듯이 로또복권식이 아니거든요. 한 번 눈 밝아졌다고 띵까띵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참정 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크게 깨달았다손 치더라도 깨닫고 나서 인간이 개차반이라면 그것 무엇에 쓰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설사 깨닫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그 사람이 우리 불교계에 필요한 사람이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전 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지만, 근세에 우리 대표선사! 국민선사! 제가 자꾸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스님은 스스로 “나는 깨닫지 못했다.” 당신 책에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스님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습니까?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감동을 주느냐? 그 스님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허스님 있잖아요. 경허스님은 정말 500년 역사에 崇儒抑佛(숭유억불) 정책을 통해서 불교의 등불이 꺼질대로 거의 다 꺼져가는 최후의 순간에 경허라는 걸출한 스님이 나타나서 한국 불교를 다시 되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처님 다음으로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공로가 큰 분이 경허스님입니다. 오늘 날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경허스님의 수제자인 만공스님이 경허스님 열반 했다는 소리를 듣고, 善惡果於佛虎(선악과어불호)라고 했어요. 경허스님에 대해서 평을 세 가지 시로서 썼는데 다시 말해서 선과 어불이요 악과 어호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좋은 입장으로는 부처님보다 더 지나가고, 나쁜 입장으로는 우리 한국 불교에 폐악을 끼친 입장으로는 호랑이 보다 더 지나간다. 선과 어불이요 악과 어호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수제자 만공스님이 썼어요. 다른 사람이 썼으면 큰일 나지요. 이것이 무슨 소식이냐고요. 이것이... 경허스님은 그게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의 삶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국민선사는 오늘 날 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깨달았다는 그 스님은 그 스님의 삶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제자인 만공스님으로부터 선과 어불이요 악과 어호라. 좋은 입장으로는 부처님보다 더 위대해. 그렇지만 나쁜 입장으로는 호랑이 보다 더 지나간다. 韓國佛敎全書(한국불교전서) 보세요. 한국불교전서 경허스님어록에 보면 수제자 만공스님이 그렇게 딱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허스님 연구한 책 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여기서도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다고 함부로 눈 좀 밝아졌다고... 불교공부 하다가 소견이 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복권 큰 것 당첨된 사람치고 폐가망신 아니한 사람 없어요. 다 인생 조진 겁니다.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삶이 문제입니다 삶이... 그래서 선불교는 선의 정신에 입각한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요? 첫째 간소, 간결. 소박한 삶. 탈속한 삶. 자연스러운 삶. 깊이 있는 아주 유현한 삶. 고고한 삶. 아주 준엄하고 위엄 있는 일면도 갖고 있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눈앞 경계에 빼앗김을 당하여 主宰(주재)가 되지 못하고,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미혹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道力(도력)이 業力(업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한 번 눈 밝아졌다고 자기 멋대로 띵까띵까 하고 놀아 봐요 그것이 금방 도로묵이 되고 말지요. 삶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것도 시종일관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시종일관이 된 禪界(선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 **魔軍(마군)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면 반드시 그 마군에게 잡히며, 죽을 때에도 또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난날의 말에 “이치는 문득 깨닫는 것이라 깨달음을 따라 아울러 녹여지지만 일은 홀연히 제거할 수 없어서 차례를 따라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낸 편지에 나왔던 내용이지요? **行住坐臥(행주좌와)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일상생활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 스스로 못 깨달았다고 했지만 국민선사는 오늘 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고인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말도 다 실제를 삼아서는 안 되며, 또한 허망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또 경전이나 어록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중도적인 안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聖人(성인)의 말씀을... **실제를 삼아서도 안 되고, 또한 허망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면 온갖 것 다 성취된다.” “좋다.” “다 성취된다.” 그렇다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중생에게는 그 말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에게는 그것은 다 저 우는 애기를 달래느라고 하는 소리라고 버리고요. 우는 애기를 달래느라고 멀쩡한 죄 없는 호랑이가 밖에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보고 “아이고 저 부모는 아주 사기꾼 부모야. 애들한테 저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방편이라고요. 그렇게 방편을 적당히 써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방편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별별 무당 불교. 이교도적인 불교. 불교라는 간판 밑에서 별별 잡된 짓을 그렇게 하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그 좋은 진짜 불교를 놔두고...그러니까 좋은 바른 불교. 정법 불교를 서로 주고받아야 받는 사람도 이익이 있고, 주는 사람도 이익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혜스님이 아까 원력이 뭐랬지요?

나는 인정 때문에 시주 많이 했다거나 좋은 절 지어 줬다거나 사사롭게 속닥속닥 하는 삿된 불교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가차 없이 정법 불교.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고, 나는 바른 불교를 이야기 하겠다. 대혜스님 원력이 그랬잖아요. 이 서장이요.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해서 익숙해지면 저절로 묵묵히 자기 본심과 契合(계합)하게 되므로 반드시 따로 빼어나고 기특한 것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뭐 좀 특별한 뭐가 있는가? 한강 강물도 걸어서 척척척 건너가고, 하늘도 휘~ 한번 날아보는 그런 도리가 있는가? 혹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불교에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승속을 막론하고요. 있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전에 제가 어릴 때에 은해사에 살 때인데요.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좀 많이 들어서 출가한 사람인데요. 어디서 병 고치는 것 좀 배우다 온 것 같았어요. 그 사람하고 저 하고 좀 가까이 지낸 어느 시간에 “불교는 병 고치는 이야기도 없고 참 이상해”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가서 시라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아주 특별하고 기특한 것을 생각하고 불교에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불교에 와서 그런 쪽으로 사람을 유도해 갑니다. “아~ 어디 가서 무슨 기도 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거기로 가 보자.”하고요. 솔깃하게 해서 데리고 가고요.

서장 대 강좌 5 - 3 강

**p. 92**

여기는 소위 깨달음의 사례에 대해서 세 가지가 소개 되겠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주 차원이 높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차원이 높고 많은 세월이 걸려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육조 혜능스님은 불교라는 글자도 모르는 입장에서 나무 팔러 갔다가 마음을 어디에 꼭 매달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써라 應無所住 而生其心(응무소주 이생기심)하니까 그 한 마디에 그만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아~! 그래 충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별의별 세계와 길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시원해졌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어떤 인생과 자기 가치관에서 그만 둑이 툭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둑이 있을 때는 물이 고이지요. 둑이 무너지고 보니까 물이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겁니다. ‘그것이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여기에 한 사례.

**옛날 수료 화상이 등나무를 캐는 곳에서 마조 스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것은 흔히 하는 말인데, “달마 스님의 법이 뭡니까?” 달마 스님은 서쪽에서 이 동쪽 중국으로 와서 법을 전하려고 했는데 소위 “그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뜻입니다. **마조가 이르기를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말하겠다.”** 그랬어요. **수료 화상이 앞으로 나오거늘 마조가 가슴을 막고 한번 차서 넘어뜨리니 넘어졌다가 수료 화상이 곧바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허허허허”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달마 스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처님 법하고 뭐가 또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와 가까이와” 하니까 뭣도 모르고 가까이 갔더니 한쪽 발 걸고는 탁 미니까 팍 넘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꼭 가슴을 치고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동작일 뿐입니다. 좀 과격하고 또 충격적이고, 좀은 상식 밖의 동작일 뿐입니다.

그 점잖은 스님이 깡패들이나 하는 식으로 다리를 탁 걸고 가슴을 팍 치면서 그냥 넘어뜨리니 누군들 안 넘어지겠습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좀 충격적이고 과격하고 상식 밖의 그런 동작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확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頓悟頓修(돈오돈수)가 있고 頓悟漸修(돈오점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하하” 웃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나!’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충격을 주고, 나는 그 충격을 100% 받아들여서 느끼고 아는 이 사실이 구나!’ 이겁니다.

또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있고, 또 이 세상에 뭔가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라고요. **마조가 말하기를 “네가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웃는가” 하니, 수료가 말하기를 “백 천 가지 모든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뜻을, 오늘 한 털끝 위에서 그 근원을 다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털끝”** 이란 것이 뭡니까? 아주 작은 동작. 다리를 걸고 가슴을 쳐서 넘어뜨리는 그 아주 미미한 동작.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요. 왜냐? **“백 천 가지 모든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뜻”**이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순식간에 일어난, 단 몇 초 동안에 일어난 그 동작 하나에 그 모든 것이 다 그 위에 포함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보고 듣는 이것이 온 우주 전체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 전체라고요. 볼 줄 알고들을 줄 아는 見聞覺知(견문각지)하는 이 사실이 모든 삶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마조가 더 이상 그를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사례. **雪峰(설봉) 스님이 鼓山(고산)의 인연이 익었음을 알고 하루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냥 가만히 무단히 서 있는 사람의 가슴을 확 잡고 **“이것이 뭐야?”**이렇게 했다고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니 고산이 분명히 깨달아 통달하고 통달한 마음도 문득 잊고서 오직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흔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별의별 깨달음의 사례들이 많은데, 여기 고산 스님의 이 모습.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보이는 겁니다. 참 멋있고 전혀 과격하지도 않고 점잖고 그러면서도 멋이 있고요. 부처님이 꽃 든 것보다도 어쩌면 더 멋있어 보여요. 그것이 그것인데... 손가락만 하나 달랑 세우는 것. 그것도 참 재미는 있는데 뭔가 약간 점잖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것 참... 구지선사의 一指頭禪(일지두선)이라고 그래요. 한 손가락의 선. 천룡화상이 가르쳐 준 것인데, 평생 써 먹고도 남는 손가락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팔만사천법문이 다 있지요. 저는 이런 일들이 더욱 분명 해지고 자신 있어지고 더 명확해져요. 흔히 큰 스님들이 주장자 꽝 울리고, 여기에서 일체 법문이 다 끝났느니라. 어릴 때 그런 소리 듣고 ‘저거 뭐 하는 짓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정말 확실한 것이구나.’ ‘저분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것은 사실이다.’ ‘그 말은 사실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모르고 흉내를 냈다 하더라도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 예 많아요. 모르고 흉내 내도 그 말은 진실입니다. 알고 해도 엉터리가 많고요. 엉터리로 알고 하니까 엉터리가 많고요. 모르고 해도 진짜가 많고요. 이 불법은 참 묘해요. 그런 도리가 많으니까요.

**설봉이 말하기를 “너는 도리를 짓는가?”** 어떤 **“도리를 짓느냐?” 고산이 다시 손을 흔들며 말하기를 “화상이여,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손 한번 흔드는 도리지 더 이상 **무슨도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손 한번 흔들고 당신은 내가 손 흔드는 것을 보는 이것뿐이지 **무슨도리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설봉은 문득 그만 두고 가버렸다.** 아! 더 이상, 그거 다 서로 아는 입장인데요. 거기다 괜히 먹칠을 하고 군더더기를 하고, 온갖 칠을 해서 버려 놓을 일이 없지요. 삭 이렇게 가 버리면 깨끗하지요. 조사 스님들의 어록들을 읽어보면 거두절미. 그야말로 앞뒤도 없이 그런 어떤 행위만 딱 갖다놓는 것들이 많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몽산도명선사가 육조 스님을 쫓아가 대유령에 이르러 衣鉢(의발)을 빼앗으려 하니, 육조 스님이 돌 위에 던져 놓고 말하기를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힘으로 다룰 수 있겠는가? 그대가 가져가는 대로 맡겨 두겠다.”고 했습니다. 도명이 의발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니, 이에 말하기를 “저는 법을 구하지 의발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행자는 법을 열어 보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육조단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라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육조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 꼭 이러한 때에 무엇이 그대의 본래면목인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 한 마디 일러 준 겁니다. 의발 뺏으러 오는 오조 스님의 밑에 수백 명이 있었는데 이 도명은 장군 출신입니다. 힘도 세고 걸음도 빨라요. 그러니 제일 먼저 도망간 육조 스님. 옷 하고 발우떼 뺏으러, 가사하고 발우떼 뺏으러 왔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옷 하고 발우떼하고 그것이 바위에 딱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제가 알바 없고요. 도가 있는 행자니까. 비록 떠꺼머리총각 행자이지만 그 위력 앞에 장군 출신인 도명 화상도 어쩌지 못한 겁니다. 감히 그 발우떼를 들 자신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표현이 근사하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발우떼가 바위에 붙어서 움쩍달싹 않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감히 그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벌써 기운이 다른데요. 氣(기)가 그냥. 행자에게서 풍기는 기 가 하늘을 뻗는데 도명존자 지까짓게 장군 출신이 아니라 우 장군 출신이라도 기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겁니다. 기에 딱 질려서는... 그래서 질문한 것이 “내가 발우떼 가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고 법문을 청 했는데 바로 그 법문이 **不思善(불사선) 不思惡(불사악)하라. 어떤 것이 그대의 本來面目(본래면목). 참 모습이냐?**

**도명이 이때에 크게 깨달아 온몸에 땀을 흘리며, 울고 예를 표하여 말하기를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 이외에 도리어 다시 어떤 뜻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은 것. 이것 이외에 지금 얼른 우리가 헤어지고, 나는 쫓아오는 저 사람들 만나야 될 입장이니까 그 외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하고 다그쳐 물은 겁니다. **육조가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말하는 것은 곧 은밀한 뜻이 아니다. 네가 만약 자기면목을 돌이켜 비추어 보면, 은밀한 뜻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 말하면 곧 은밀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自燈明 法燈明(자등명 법등명)**이지요. **은밀한 뜻이**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너에게 있다.** 너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황벽스님과 임제스님의 관계도 이야기를 얼핏 했습니다만, 별별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이 꽃 든 이야기로부터 손가락 벤 이야기로부터 아주 유명한 백장스님 밑에 신찬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의 출가 계 받은 스님이 계현 스님입니다. 계현스님은 경전을 많이 봤는데 뭔가 다른 안목이 없어서 제자인 신찬이 백장스님한테 갔잖습니까? 백장스님한테 가서 잠깐 공부 하고는 눈이 밝아져서 되돌아와서 살았어요. 어느 날 은사 스님이 목욕하는데 등을 밀어 주면서 상좌가 은사 스님의 등을 툭툭 치면서 “법당은 참 좋다만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법 앞에는 이런 거예요.

스승이다 상좌다 어른이다 아이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개재 되면 법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상식 가지고는 불교 공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 좀 하다보면 어떤 때 보면 아주 오만불손해지고, 소위 개차반 같이, 조금 불교 맛보면 사람이 반미치광이 비슷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을 못해서 그런데... 거론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열반도 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약간 눈이 좀 뜨이기 시작하면 안하무인이 되는 겁니다. 천하가 다 내 것 같아서 지 멋대로 그냥... 그런데 그것은 한탕주의적 사고에 빠진 사람입니다. 약간 눈이 뜨였다고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종일관된 삶이 중요한 것이지, 눈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 스님의 등을 치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뒤로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마디가 “영험도 없는 부처가 어떻게 방광을 할 줄 아는구나.” 그렇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상좌가 은사 스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극약을 쓰는 겁니다. 극약을... 극약 중에는 아주 상 극약이지요. 은사의 등을 툭툭 치면서 “법당은 참 좋은데 어떻게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영험도 없는 부처가 어떻게 방광을 할 줄 아는구나.” 귀는 있다고 어떻게 말은 알아듣고 쳐다볼 줄은 안다. 그런 극약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상좌의 법문 듣고 척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상좌가 스승을 깨닫게 한 예들 더러 있습니다. 불교는 역사도 많고, 세상을 상식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인생을 그냥 통째로 갖다 바치면서 한 구멍만 파면서 살았기 때문에 별별 기가 막힌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앞의 세 선지식의 세 가지 인연을 그대의 한번 웃는 가운데 풀린 것과 비교하면 우열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도리어 다시 별도로 기특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별도로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풀지 못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만 부처 될 줄 알아야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부처 되면 됐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는** 그런 예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옛부터 도를 얻은 선비는 자기를 이미 충족하고 자기의 남은 것을 미루어 어떤 문제에 대응하고 對象(대상)을 만남에 거울이 받침대에 놓이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어서, 오랑캐[胡]가 오면 오랑캐를 나타내고 漢人(한인)이 오면 한인을 나타내는 것과 같아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를 충족하게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 처리. 또 사람관계.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온갖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는 명예라든지 부 라든지 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만약에 도를 제대로 얻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쓰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흉내라도 낸다면 어떤 마음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말이 그렇지요.

**만약 집착하면 실제의 법이 있어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큰 법을 밝혀서 어떤 문제에 대응하여 걸림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그전 그대로 살아야지 반드시 남에게 묻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오래하면 스스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이별할 때에 對面(대면)하여 준 말** 이것이 아까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치로는 몰록 깨달았지만, 생활에 있어서는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세월이 가다보면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을 **좌우에 기록해 두기 바랍니다. 이 외에 별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비록 말이 있더라도 그대에게 다 쓸데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쯤 해 두겠습니다.**

이것이 **그전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깨달음을얻은 선비.** 처음에 그랬지요? **도를 얻은 선비는 자기를 이미 충족하고 자기의 남은 것을 미루어서 어떤 문제에 대응하고 대상을 만남에 거울이 받침대에 놓이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어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비추고, 한인이 오면 한인입니다.** 누가 오든 김씨가 오면 김씨를 비추고, 박씨가 오면 박씨를 비춥니다. 거울은 그렇거든요. 거울은 도둑놈이 와도 도둑놈 비추고, 개가와도 개 비추고, 사람이 와도 사람 비추고, 누가와도 거울은 다 비춰줘요. 무심해요. 도인의 마음을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그와 같은 것이지요.

안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목석처럼 무심하면 그것은 도인이 아니라 목석이지요. 슬픈 일이니까 누구 못지않게 슬퍼하는 겁니다. ‘아니 도통한 사람이 뭘 저렇게 슬퍼하냐?’ 그렇게 보는 그 안목이 잘못입니다. 도통을 한 사람일수록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 낼 일이 있으면 화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대혜스님은 默照邪禪(묵조사선)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화를 많이 낸 사람입니다. 기를 쓰고 그냥 비판하고,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그냥 들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화 안 내고 될 일입니까? 화 낼 자리에 화 낼 줄 아는 겁니다. 슬퍼할 자리에 슬퍼할 줄 아는 겁니다. 기뻐할 일에 기뻐할 줄 아는 겁니다. 哀而不傷(애이불상) 樂而不淫(낙이불음) 이라는 말이 있지요. 슬픈 일이 있을 때 극도로 슬퍼해도 상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그만 상해 버려요. 상한다고요. 옛날에 탄허스님 밑에 주역 잘 보는, 천하에 주역 대가라고 하는 백운 선생이라는 이가 늘 찾아 왔어요. 소주 한 병만 사 주면 그 잘 보는 사주 다 봐 줘요. 그런 사람인데 목이 쉬어 있어요. “스님, 백운 선생은 목이 왜 쉬었습니까?” 스님 보고 물으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아들 잃고 하도 슬퍼해서 울다가 울다가 한 달을 울고 나니까 목이 가 버렸는데 지금까지 저렇다고... 그것이 상하는 겁니다. 哀而不傷(애이불상). 슬퍼하되 상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道人(도인)이라는 것. 그 불법공부 좀 했다는 사람. 도인은 그만 둡시다. 불교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슬픈 일이 있으면 알맞게 슬퍼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내 자식의 인연이다. 부모의 인연이다. 그 사람의 인연이다. ‘인연의 도리가 그렇게 됐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하고 다시 일어날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상하지 말아야지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간 것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 달을 울다가 그만 목이 가 버려서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아무 장사도 못해요. 목이 쉬어 놓으니까 그 잘 보는 역학이 그만 아무 쓸모없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한참 어릴 때, 좀 기백도 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사주 다 대고 제가 물었어요. 한 번 봐달라고 장난삼아 물었더니, “사무라이 사무라이” 자꾸 “사무라이 사무라이” 딱 그 한 마디입니다. 뒤에 또 물어도 또 “사무라이 사무라이”입니다. 제가 무슨 사무라이인가요? 사무라이하게... 그런데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뭔가 보는 것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 이상은 말을 아니 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 상하진 않아야 돼요.

哀而不傷(애이불상). 슬퍼하되 상하진 않는다. 樂而不淫(낙이불음). 즐거운 일이 있으면 아주 즐거워해요. 좋은 생겼는데 안 즐거워하면 그것은 목석이지 그것이 인간입니까? 그 따위 도인 뭐 쓸모 있겠습니까? 쓸모없는 도인이지요. 不淫이라. 즐거워하되 빠지지 않는다. 도취 하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 哀而不傷 樂而不淫. 참 좋은 말이지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여기는 거울과 같아서 오는 대로 다 비춘다. 그러나 떠나면 없다. 아주 미인이 와서, 그것도 미인이 나체로 와서 비췄다고 거울이 거울 속에 그놈 나체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거울은 누구도 가버리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거울의 속성은 그렇다고요. 불교를 아는 사람의 마음은 그와 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매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잣대로 헤아리는 소리지요. 우리 잣대로 헤아리는 소리이고. 간 것은 간 것이지 뭘 어떻게 해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르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참정에게 일차 답한 것이 끝났고, 그 다음 이참정이 또 질문하는 편지가 또 하나 있네요.

서장 대 강좌 5 - 4 강

깨닫고 난 뒤의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p. 97 10. 또 이참정이 질문하는 편지 제가 요즘 가르침의 답장을 받고 깊은 뜻을 두루 다 알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경험한 것이 셋입니다. 첫째는 일에 있어 좋고 나쁜 것 없이 [逆順] 없이 인연을 따라 곧 대응하되,**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슴속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그대로이지요? **둘째는 두터운 묵은 습관을 배척해 보내지 아니해도 저절로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좋지 아니한, 예를 들어서 몸에 해롭다는 습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불교를 알고 보니까 ‘아 그거 뭐 별로 재미없어.’ **억지로 배척해 보내지 아니해도 저절로 쉽게 가벼워져요.** 그냥 잊어버리고요. 친구들 하고 만나서 즐겁게 놀고 떠나면 그 뿐입니다. 그것이 다시 그리워서 어쩌고저쩌고 끈적끈적하게 다시 지속 되거나 그렇게 아니한다 이겁니다. 불교공부 좀 하면 그쯤 되어야지요. 이거는 크게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옛날에 까마득하던고인의 공안을 때로 다시 엿보아 여기에 스스로 미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사스님들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경전의 아주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술술술술 무슨 뜻인지 다 그냥 쉽게 재미있는 소설책 읽듯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간다 이겁니다. **앞에 대법이 밝지 않다는 말은 대개 작은 것을 만족하게 여길까 염려하여 마땅히 넓히고 채워 간다는 뜻이지, 어찌 별도로 좋은 견해를 구하겠습니까?** 이것은 겸손해서 擴而充之(확이충지) 유교에서 쓰는 말인데 확대시키고 더욱 더 그것을 충족시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공부도 자꾸 넓혀가고, 더 채우고 넓히고 채우고 넓히고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흐름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도 이치가 없지 않으니, 감히 명심하여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흐름**이라는 것도 깨달았다고 해서 어떤 현상을 보고, 마음이 안 끌리는 것은 아니지요. 좋은 자리 준다면 한번 生을 내 볼만 하지요. “당신 이번에 대통령 될 만하니까 그 모아뒀던 돈 좀 쓰고 한 번 나와 보십시오.” 하니까 나와 보려고 꿈적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하하 될 것 같으니까요.

어느 정도 초탈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명심하라는 겁니다. 좀 공부했다 하더니 그만 벌써 끌려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 버렸다 이겁니다. 앞에서 정말 부처님 같은 경허스님 말씀을 자꾸 해서 죄송스럽지만, 저~기 삼수갑산 가서 非僧非俗(비승비속)으로 그렇게 아이들. 그것도 큰 선비들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저 아이들. 학동들 몇 명 모아놓고 하늘 천 따지나 가르치다가 일생을 보냈다는 그런 삶의 태도가 그것이 만공 스님에게는 못 마땅한 겁니다. 만공 스님은 불교를 일으키려고 그 도풍 산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선을 선양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과 어불이요 악과 어호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스승에게 했던 것입니다.

**11. 또 이참정에게 답함.** 悟後(오후)보림의 문제입니다.깨닫고 나서 그것을 잘 보전해서 가지는 것을 보림 이라고 그래요. 보전해서 가지는 것이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주로 그런 이야기가 많네요. 왜냐하면 깨달은 분하고의 이야기니까요. 그야말로 “성공은 쉬운데 스승은 어렵다.” 이 깨달음에도 그것이 적용이 되네요. “깨닫기는 쉽지만 그 깨달음을 잘 보존해 가지는 것은 어렵다.” 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신을 받은 뒤에 더욱 우러러봅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날마다 인연을 따라 놓고 비워 뜻대로 자재합니까? 또 四威儀(사위의).** 行(행) 住(주) 坐(좌) 臥(와)지요? 앉고 눕고 서고하는 **가운데 塵勞(진로)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망상입니다. **또 깨고 잠자는 두 변에 一如(일여)합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지요. 잠자거나 깨거나, 잠 잘 때나 꿈을 꿨을 때나 깨달음의 경지. 불교적 삶이 한결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한결 같으냐 이겁니다.

**그전 그대로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일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전 그대로** 살았던 대로 사느냐는 말입니다. **또 생사의 마음이 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다만 凡情(범정)이 없을 뿐이지, 특별히 성스럽다는 알음알이가 없습니다.** 이 도리에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但盡凡情(단진범정) 別無聖解(별무성해). 유명한 말입니다. 다만 범부라는 생각이 없을 뿐입니다. 凡俗(범속)한 생각이 없을 뿐. **성스럽다는 알음알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범부의 정이 없어졌지, 나는 성인이다. 나는 깨달았다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아주 무서운 소리이기도 하고, 또 깨달음의 그 정도를 가름 하는 잣대이기도합니다.

**당신은 이미 한번 웃음에 正眼(정안)을 활짝 열어 생멸도 한꺼번에 없어졌습니다.** 生滅(생멸). 생하고 멸하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없어졌습니다. 힘을 얻고 얻지 못함은,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고 따뜻한 것을 저절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알 일이지, 내가 굳이 설명 아니 해도 알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날로 쓰는 사이에** 일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正性(정성)을 깎아내며, 정성을 깎아내며** ←이것은 음란과 성냄을 이런 식으로 경전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아주 근엄하게, 정말 도인답게 모범답게 모범인 답게 잘 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 도와주는 원인을 제거하며 현업을 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일 마친 사람의 방편 없는 가운데 참다운 방편이며, 닦아 증득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닦아 증득하는 것이며, 취하고 버림이 없는 가운데 진실로 취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통 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것이지요. 천만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알뜰히 도 못 통한 사람처럼 그렇게 어렵게 진지하게 그렇게 살 바에야 뭐하려고 도통하느냐? 도 한번 통하면 그냥 발 뻗고 누워 자듯 좀 잘 것이지 ←이런 생각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를 통했을수록 더욱 더, 불교를 알면 알수록 더욱 더 모범. 더욱 더 근엄한. 더욱 더 탈속하고 더욱 더 간결 소박한 삶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편 없는 가운데 참다운 방편**입니다. **닦아 증득함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닦아 증득하는** 것입니다. 無爲而爲(무위이위) 이위무위. 하되 함이 없고 함이 없이 하는 것. 처음 들으신 분은 알쏭달쏭한 말씀 같지만, 이것이 아주 진짜 말씀입니다. 하되 함이 없고 함이 없이 하는 것.

어디서 내가 좋은 일을 했으되 했다고 생색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했으되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으되 한 것입니다. 그것이 **취하고 버림이 없는 가운데 진실로 취하고 버리는 것이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서 인연 따라서 당연히 그런 것을 지키고 가야지, 무슨 일확천금해서 지 멋대로 띵까띵까 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또 사실은 그런 폐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혜스님께서 특별히 이 문제에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고덕이 이르기를 “피부가 다 떨어지더라도 오직 하나의 진실이 있으며,** 이것이 제가 아까 말한 “원줄기 하나만 남고 가지가 다 떨어지고 잎이 다 떨어진 정신.” **전단향의 번성한 가지가 다 떨어지더라도 오직 참다운 전단향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업을 끊고, 돕는 원인을 제거하며 正性(정성)을 깎아 내는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더욱 더 근엄하고 모범스럽게 예의와 도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험 삼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말도 일 마친 사람의 입장에서 한 자루의 겨울 부채와 같습니다.**

**겨울 부채.** 그것이 지금은 필요 없지만, 놔두면 나중에 여름 돌아오면 쓸데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간곡한 말. 이것이 지금 당신 현재는 필요 없을 꺼야, 그렇지만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겨울에 지금 부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놔두면 곧 필요한 여름철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마 남쪽 땅은 춥고 더운 것이 일정하지 [恒常] 않아서, 없앨 수 없으므로 한번 웃으리라.** ‘한번 웃습니다.’ 보다도 **한번 웃으리라. ‘**당신이 이런 이야기 잘 알아듣고 한 바탕 웃을 것이오.’ 이렇게 편지의 종지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강급사라는 분에게 답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질문 있으면...

대답만 정리 했습니다. (황벽불법무다자에 대해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강의 중에서 답은 나왔으리라고 생각 되는 것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이고, 결국은 대혜스님 말씀처럼 自證自悟(자증자오).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맛보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한들 들으시는 불자 여러분들이 ‘아! 이거구나!’하는 것은 당사자의 일이 아닐까? 그래야 또 옳지 않을까? 무엇이 “無多子(무다자)”라고 이해하는 實體(실체)인가? ←이것은 제가 손을 들어서 보였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내[我]일이지, 질문하는 분의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은 스스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이 아마 만족하지 못한 설명 같습니다만, 저로서는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길이 없습니다.

 - 5강 終 -

서장 대 강좌 6 - 1 강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상당이 기다려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 법회가 그냥 법회가 아니라 모두 도에 관심 있고, 또 부처님 법에 관심 있는 우리 한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감정과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기다려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로 모인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학연이나 지연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니고, 무슨 정당의 모임은 더욱 아니고, 정말 오로지 뜻을 같이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어디 쉽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僧家를 衆中尊(중중존)이라고 그래요. 좀 더 광위적으로 해석하면 승가라면 出家僧(출가승)만이 아니라, 在家(재가) 신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승가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해서 따르는 무리. 단체라는 뜻이니까 우리 모두가 승가입니다. 승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청정하고 훌륭하고 순수한 모임이라고 해서 모임 가운데 가장 우수한 모임! 衆中尊!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렵고 각박한 세상일수록 이런 모임이 정말 저~ 깊은 산중에서 길 찾아 헤매다가 만난 아주 시원하고 맑고 푸른 못[淵(연)]을 만난 듯한 느낌입니다. 솔직하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험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법화경에서 불난 집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들이 사는 정말 추한 모습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배경이 화택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저 고함지르는 모습들을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聖人(성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표현이지요.

이 시대는 사실 더욱 더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이만한 모임은 숨 쉴 구멍이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그래도 한 번씩 숨을 쉬고 산다는 느낌도 듭니다. 부디 이런 시간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자주 크나 작으나 인연 따라서 모두 소규모라도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교환도 하는, 가정 법회 같은 그런 형식이 많이 확산 돼서, 불교가, 특히 선불교가 많이 보급이 돼서 우리가 사는데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살 만한 그런 場(장)을 우리 불자들이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함께 해 봅니다. 절대 이것은 스님들이나 하고, 큰 단체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그저 둘도 좋고, 셋도 좋고, 한 가족만 모여서 해도 좋고, 친구들 몇이 모여서 해도 좋고, 그렇게 함으로서 불교가 확산이 되고 파급이 되는 것이지요. 부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의외로 뜻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p. 102.  12. 강급사 소명에게 답함

여기에 우리가 아주 생각해야할 내용들이 있는데, 인생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삶의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살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언급한 대목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살기도 힘들고, 또 공무에 바쁜데 그래도 그것이 다 가 아니다. 아무리 장관을 지내고, 대통령을 지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 전부가 아니다. 또 다른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한 분이 강급사 ←이 분입니다. 그래서 대혜스님이 그런데에 대해서 아주 크게 칭찬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인생 한 평생, 백년 세월이 그 얼마입니까? 시작이 아주 근사하네요. 당신은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가업을 일으켜 淸要職(청요직)을 두루 다 거쳤으니 淸要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직 중에서도 要職. 그런 직책이었던 분입니다. 이는 세간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능히 부끄러움을 알아서 마음을 돌려 도를 향하여 출세간의 생사 벗어나는 법을 배우니 또 이 세간에 바른 가장 바른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 하고 너무 궁합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사는 것은 아무나 다 합니다. 동물도 합니다. 동물도 보면 사람이 키우는 동물 말고, 지 멋대로 사는 동물들도 자기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합니다. 사실 큰 벼슬하려고 저렇게 시끄럽게 설치지만, 의식주 문제를 좀 더 근사하게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 없더라고요.

그 높은 자리에서도 그저 검은돈 후려치고, 나중에 들통 나고 문제되고, 전부 그것 아닙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요. 여기서도 보면 능히 부끄러움을 알아서 마음을 돌려 도를 향해 출세간의 생사 벗어나는 법을 배우니 이 또한 세간에서 가장 바른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문제는 이러나저러나 그 나름대로 해결이 되고, 여기서 좀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야 그래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주 문제 끝나면... 의식주 문제는 동물도 다 하는 것이라니까요. 나무에 새 집을 지었는데, 제가 새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새가 뭐할 줄 알겠습니까? 기껏 날아다니고 모이 쪼고 그러는데... 집을 지어 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겉에는 아주 거친 나무로 싸고, 들어갈수록 차츰차츰차츰 부드러운 소재로서, 자기가 알을 낳는 데는 아주 부드러운, 솜 이상의 부드러운 것들을 어디서 물어왔는지 그렇게 해서 알을 낳아서 품고, 그렇게 자신의 의식주 문제와 종족 번식에는 아무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줄 알더라고요. 날아다니는 새도 그러는데...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天地之間(천지지간) 萬物之中(만물지중)에 唯人(유인)이 最貴(최귀)라.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 가운데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장 높다고 하면서, 의식주 문제해결에 그친다면 이것은 사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모름지기 손발을 급하게 움직이고 얼굴을 차게 하여 아주 맹렬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그릇 안배함을 받지 않고 “그릇 안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숱한 정보가 많이 끼어 들어오니까, 잘못 지시하는 스승을 만날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本分道理(본분도리)를 이해하여 가는 곳을 분명하게 하면, 문득 이 사람은 세간과 출세간에 하나의 일 마친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일 마친 대장부” 바로 정말 세상에 진정 가치 있는 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성불이라고 하던지, 견성이라고 하던지, 도통하는 일이라고 하던지, 불교공부라고 하던지 간에 결국 궁극적으로 인생문제거든요. 인생문제를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갖추는 것. 그 사람이 “일 마친 대장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받아 보니, 연일 가서 李參政(이참정)과 더불어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 분은 달려가서 추구하는 마음을 쉬어 “달려가서 추구하는 마음을 쉬어”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단은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헤매면서 알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단계가 끝나면 자신의 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자기 자신이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거기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여기 이참정을 찬탄하기를 그 분은 달려가 추구하는 마음을 쉬었다그랬습니다. 그리고 말[言語]길이 끊어지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이것은 벌써 “차원을 넘어섰다.” 그 다음에 마음 자취가 사라졌으며 그러니까 사량 분별로 이리저리 꿰어 맞추는 이런 단계도 넘어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그 다음에 네 번째, 차별되는 다른 길에 고인의 수단을 엿보아 고인의 방편 문자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참정을 네 가지로 이렇게 찬탄을 하는데 그 마지막 그야말로 “옛날 佛祖(불조)가 어떤 수단을 썼던지 간에 그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들의 高峻(고준)한 가르침에 구속되지 않는다. 여기에도 끄달리지 않는다. 저는 사실 이것은 자신 없습니다. 대혜스님이나 임제스님이나 기타 아주 훌륭한 스님들의 대단한 가르침. 고준한 가르침을 접할 때, 정말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감동을 하거든요. 그것을 “구속되었다.”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를 이와 같이 보고 다시 일찍이 그와 더불어 한 글자도 말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않는다.”이 겁니다. 그것은 그를 잘못되게 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말을 해서 오히려 더 잘못될 우려가 있다.”이겁니다. 식물을 키워도 잘 자라고 있는데 물을 더 많이 줘서 난초를 썩게 한다든지, 거름을 많이 줘서 오히려 썩게 한다든지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거늘 공부하는데 그럴 경우가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바로 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스스로 저와 더불어 말하기를 요구하면 그때 바야흐로 비로소 그와 함께 눈썹을 겨루어서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眉毛厮結(미모시결)이라고 척 보고, “눈썹을 겨룬다.”는 소리는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거기에서 불꽃이 튀는 法擧揚(법거량)이 있어야 그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지요.

“글로 게송을 지어서 오고가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사람을 도리어 버려 놓는다.”는 차원입니다. 선불교의 입장은 우리가 지금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대혜스님의 편지를 되 뇌이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접근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선불교의 진정한 맛을 보려면 제대로 안목을 갖춘 禪人(선인)이 사람을 대해서 바로 얼굴을 마주 했을 때, 거기서 그야말로 오고가는 어떤 법거량이 되어야 정말 선불교의 맛을 제대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바로 나한테 쫓아와서 서로 눈썹을 겨뤄가면서 뭔가 거량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받아줄 수 있지만 그 외에 글이 오고가고 편지가 오고가고, 이제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는 문득 그만 둘 것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달려가 구하는 마음을 쉬지 아니하면 비록 눈썹으로 겨루어 이해를 한다고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야~! 이것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차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원이 있는데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달려가서 구하는 마음을 쉬지 아니하면 아무리 도인 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법거량을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특히 선불교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기존의 것. 내면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일입니다. 춥고 더움을 느끼는 그 활발발한 살아있는 우리의 진실한 생명체!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파악이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불교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선불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선불교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데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런 생명체의 이해와 또 그것의 발로. 들어내는 것. 선문답이 오고가고 주먹이 오고 가고 몽둥이가 오고가고 칼과 방이 오고가고 하는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생명의 한 표현입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가 불교 교양대학에서 6根 6塵 6識이 어떻고, 3法印이 어떻고, 37助道品(조도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요. 불교가 발전하고 발전하다가 이제 최첨단, 마지막에 온 것입니다. 선불교라는 것은요. 그럼 결국은 뭐냐? 다른 잡다한 교리. 다 가지와 잎입니다. 다 잘라 버리고 정말 그 근본에 나아가서 이야기가 되어야 도인을 만나서 한 두 마디 듣고 이익이 있는 것이지, 계속 다른 고준한 경전이나 어록에 쫓아다니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야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어록을 쫓아서 공부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 방편일 뿐이지요. 여기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向外馳求(향외치구). 밖을 향해서 계속 쫓아다닌다. ‘밖을 향해서 계속 쫓아다닌다.’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서장 공부를 하지마는, 이것이 궁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궁극이 아니고, 정말 궁극은 내 자신에게 이미 있는 것. 기존의 것. 나 내면의 것. ←이것을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우세요. 얼른 납득은 안 되더라도 ‘아, 내 내면이 뭔가?’ ‘나에게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얼른 가슴에 와 닿지 않으면 말이라도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자꾸 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겁니다. ‘나에게 이미 있는 것.’ ‘내 내면의 것.’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 불교란다.’ ‘이것이 진짜 참선이란다.’ ←이렇게 일단 해 놓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서장이나 기타 선 어록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정히 이것은 어리석고 미쳐서 밖으로 달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하지마는, 이것은 어리석고 미쳐서 밖으로 달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반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세상 사는데도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p. 103

고인이 말하기를 “善人(선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안개와 이슬 속을 다녀서 비록 옷이 축축하게 푹 젖지는 않지만, 점차 눅눅하게 젖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안개 속을 거닐면 단박에 푹 젖지는 않지요. 그러나 한참 다니다 보면 옷이 눅눅해집니다. 그것이 습기가 많이 스며들었다는 뜻입니다. 近墨者黑(근묵자흑)이라.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은 물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도반과 늘 가까이 하세요. 전화도 그 사람과 하고, 차를 한잔 마셔도 그 사람과 마시고, 식사를 한 끼 해도 그 사람과 하고, 그러면 계속 이야기 소재가 늘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젖어드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누가 썼더라? 옛날에 아름다운 여인인가요? 소설... 어떤 여인이 진정 아름다운 여인인가? 그 사람은 결혼을 몇 번 하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남편마다 그 남편의 전공분야에 이 사람이 푹푹 빠져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전공분야에... 그 전공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인데도 아주 푹 빠져들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편 관계의 일을 한다면 우편 관계에 대해서 거의 박사가 되어요. 그리고는 또 미술 관계의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미술 관계의 박사가 되어버려요. 우편 관계의 일은 언제 있었더냐 하는 정도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다 읽어본 소설이라 아시겠지만, 그와 같이 젖어들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도반이 중요하다. 이참정을 자주 만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는 모두 그야말로 좋은 도반들로 이렇게 만났습니다만,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고, 실지로 우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生我者(생아자)는 父母(부모)요. 成我者(성아자)는 朋友(붕우)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나 되게 하는 사람은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반 잘 만나야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친구 잘못 만나서 신세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을 헤매다가 또 좋은 도반 만나서 사람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대혜스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강급사,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그래도 그 당시 상당한 사람인데 왜 이런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나 일러 줄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늙어 죽는 순간까지도 필요한 생활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주 참정과 대화하기를 지극히 바랍니다. 고인이 내려준 말씀을 가지고 어지럽게 穿鑿(천착)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라는 겁니다.

馬大師(마대사)는 讓和尙(양화상)을 만나 “비유하자면 소가 수레를 끄는데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옳은가? 소를 때려야 옳은가?” 누구 책 제목 같네요. 제가 이것을 읽고, 여기에 맞춘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책을 드렸는데 어떻게 강의 진도가 조금 늦어져서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졌어요. 그 설법을 듣고 바로 돌아갈 곳을 알았습니다. 참 만고에 우리 명언이지요.“소를 때려야 옳은가? 수레를 때려야 옳은가?” 이것은요. 도 닦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참선하는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다 적용이 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 유래는 잘 아시지요? 책 읽어보셨지요? 그 앉아만 있는 사람보고 가서는 교훈을 준다고 기왓장을 쓱쓱 갈아가지고서는... 옛날 사람들이 교육방법이 얼마나 근사 합니까? 좌선만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것만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아직도 앉아서 버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릎에 관절이 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앉아만 있으니까 저것이 ‘말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좌선하는 앞에 가서는 기왓장을 벅벅 가는 겁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스님 뭐하는 겁니까?” “이걸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그러지.” “기왓장 갈아서 거울 만드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앉아서 부처되는 사람은 또 어디 있느냐?” 거기서 척 알아차렸지요. 야! 근사하잖아요? 교육은 그렇게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한 마디로 여러 사람들이 설법하기를 우레와 같고 천둥과 같이 하며 구름과 비 같이 하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 말하고 말을 따라 분별심을 내는 일이 그 얼마입니까? 그 당시 禪院(선원)의 풍조가 좌선을 위주로 했거든요 좌선을...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혜스님은 앉아서 참선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생활 속에서 하도록, 운전하면서 하고, 사무 보면서 하고, 장사하면서 去來(거래)하면서 하고, 누구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한편으로 싸워가면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간화선을 택했습니다. 간화선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앉아야만 공부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여기는 전부 일반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공무원들입니다. 거의가 공무원들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공무를 보면서 공부되는 방법. 우리 결론부터 이야기합시다. 청소하는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청소하는 것 하고, 이 참선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럼 바로 그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대혜스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놈. 청소하는 놈. ←이것이 두 놈이냐? 그것이 한 사람 아니냐? 이겁니다. 그 이치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이치 깨닫는 것.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결국은 참선이라면, 청소하면서 왜 공부가 안 됩니까? 운전하면서 왜 공부가 안 되냐고요. 요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스님, 화두 들고 운전하면 차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벌써 참선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벌써 참선을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서야 될 텐데 여기에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이 너무나도 확실한 일을...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고,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리 시시비비가 많았느냐? 너무 좌선 일변도로 나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생활 속에 생활하는 그 놈이 바로 도통하는 놈이고, 그 놈이 바로 성불하는 놈이고,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궁극적으로 청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선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청소하는 사람과 참선하는 사람을 따로 분리하고 본 것입니다. ‘앉아 있어야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대혜스님은 禪의 혁명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선의 혁명을 일으킨 분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을 전부 사정없이 비판하고, 뒤에도 나오지만 “口業을 지어서 나는 아비지옥에 가도 좋다. 그러나 소견 잘못 된 것은 내가 뜯어 고치고야 말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아주 삿된 것이고 마구니고 외도라고 욕하고 비판해서 지옥에 가도 좋다. 그러나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서 대 만족이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 소견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앉아 있는 사람을 전부 일으켜 세우고... 좌선 전문가들, 프로들만 좌선할 수 있던 것을 일반인이 다 할 수 있도록... 불교가 그렇게 출가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출가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3000년이란 세월까지 내려올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는 그만 출가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다 제쳐놓고, 다 제쳐놓고 좌선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도 좌선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도 챙겨줄줄 모르는 그렇게 잘못배운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대혜스님은 막 그냥 바락바락 악을 써가면서 비판한 것입니다. 坐禪하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일어나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가방 받아 챙기고, 외투 받아 챙기고, 목욕탕에 물 따뜻하게 데워 드리고 ←이것이 바로 禪이라는 것을 대혜스님은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禪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대혜스님입니다. 그래 여기 전부 일반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서장 대강좌 6 - 2 강

p. 104

舟峯(주봉)에게 준 편지에 끝에 杜撰(두찬)하여 註解(주해)한 것을 보고 저는 문득 기가 막혔습니다. 如來禪(여래선)과 祖師禪(조사선)을 여기 주봉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줬는데, 별별 소리를 다 했더라 이것이지요. 여래선과 조사선을 말한 사람들까지도 한 장의 종이에 죄를 적어 함께 귀양을 보내야 합니다.

공부에 재미를 좀 붙이고 하다보면 도반들끼리 여래선이 어쩌느니 조사선이 어쩌느니 불교의 취미를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별별 그런 자기가 아는 것을 서로 나누고 자랑삼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한 7~8년 전에 유명한 소설가가 경허스님의 일대기를 써서 대 히트를 쳤는데요. 그 분이 사실은 불교인도 아니거든요. 경허스님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때부터 불교공부를 한 겁니다. 자기의 친구, 불교인친구를 데리고 조계사 앞에 와서 다니면서 볼만한 불교서적을 빼서 달라 하고는 차에다 막 싣는 겁니다. 200권쯤 책을 빼서 “자, 이것을 네가 다 읽고 경허스님에 대해서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이렇게 했어요. 그 때부터 불교서적을 보기 시작 했는데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신 나거든요. 그 소설을 보면, 전부 자기 불교 아는 것을 자랑해 놨어요. 전부 불교 아는 것을 자랑했는데 우리 같은 프로가 보면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처음 불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자랑꺼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권이나 되는 그것을 열심히 다 읽었습니다. 무슨 책인지 아시겠지요? 허허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일단은 그렇게 빠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p. 105

보내온 게송을 자세히 보니 이제 자기 견해를 드러내는 이야기지요. 전번 두 송보다는 낫지만 대혜스님한테 자기 소견을 시로 적어서 자꾸 보내나 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만 두십시오. 하하하하하하하. 그런 글 장난 그만하라 이것이지요. 게송을 지어 가고 지어 옴에 무슨 통달할 기약이 있겠습니까? 참정같이 하십시오. 이참정 처럼 해라. 그 분이 어찌 게송 지을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무슨 이유로 도대체 한 글자도 짓지 않았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려울 뿐입니다. 함부로 못 짓는다 이 겁니다. 우리 같이 겁 없는 사람이나 와서 이렇게 떠들지,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입을 못 댄다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간혹 조금만 드러내면 저절로 저의 가려운 곳을 긁으니 ‘산을 나서는 게송’에 이르기를 이것은 이참정이 지은 게송인데 [出山相] 산에서 내려가는 모습을 게송으로 지은 겁니다. 이것은 누가 산에서 내려가는 모습인가 하니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시고 도를 통하고 산에서 내려가는 모습. 중생 교화를 위해서 산에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안목이 있는 분들은 “부처님이 산에 들어갔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안목으로 피력하고, 또 “부처님이 산에서 내려갔다.” “고행을 한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 얼마나 쪼아대기 좋은 꺼리입니까? 요즘 나타나는 뉴스가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에 대해서 정말 입 댈만한 꺼리거든요. ‘출가?’ ‘그 출가 꼭 해야 되나?’ 석가모니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서 도통을 했다 하니 ←이 사건에 대해서 출가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글세, 그거 뭐 꼭 해야 되나?’ ‘그것 어쭙잖은 짓 아니야?’ ←이 정도라도 말 붙일 수 있잖아요. ‘나는 집에서도 공부 잘 하는데...’ 이렇게 붙일 수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삼행시 정도는 다 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대개 入山頌(입산송). 出山頌(출산송). 傳法頌(전법송)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에 들어갔다는 것하고, 산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스님들이 많이 입을 댑니다. 입을 댄다는 것이 근사한 게송을 하나를 써서 붙이는 것인데요.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 문득 대면하여 속인다.” 밑에 원문이 있습니다. 는 말을 총림에서 눈을 열어주는 약으로 삼습니다. 한 거사의 게송인데 이것이 총림에그냥쫙 퍼졌습니다. 쫙 퍼져서 총림에서 참선깨나 한다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눈을 열어주는 약으로 삼을 정도다. 이겁니다. 이참정이 거사인데도 그 정도입니다. 거사다. 승려다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어쭙잖은 짓입니다만, 이왕 말이 났으니까 全文(전문)이 밑에 소개 되었으니까 주해를 봅시다. 근사합니다. 眼皮盖盡三千界(안피개진삼천계) 鼻孔盛藏百億身(비공성장백억신) 箇箇丈夫誰是屈(개개장부수시굴) 靑天白日莫謾人(청천백일막만인) 그렇게 하고 咄(돌). 꾸짖는 겁니다.

“틀렸어” 到處逢人驀面欺(도처봉인맥면기) =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 문득 대면하여 속인다. 부처님이 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파 했는데, 이참정은 “사기 치지 말라”이랬습니다. 아니 부처님보고...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태자의 지위를 다 버렸지요. 그 이쁜 마누라 자식 다 버렸지요. 그리고 피나는 6년 고행을 하고 도를 통해서 중생 제도 하려고 나가서 법문을 하는데, 이참정이 떠~ㄱ 나타나서“야, 사람 속이지 마. 사기 그만치고 다시 들어가.” 이런 식이라고요 이것이. 부처님보고 “사기 그만 쳐~” 그래가지고 법회고 뭐고 찬물 끼얹어서 완전히 버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이것을 짜 맞추면 그런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런 연극을 한번 해야 되는데... 한참 열나게 법문 하고 있는데 정말 희생을 치러가면서 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사가 한분 처~ㄱ 나타나서 “야, 그 사기 치지 말고 그만해, 그만해.”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어쩔 바를 모르는 모습. 근사하잖아요.

이것이 禪佛敎(선불교)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어디 다른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제발 이것 좀 알아주십시오. 어느 종교에서, 그 종교의 교주에게, 아무리 시대가 많이 지났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眼皮盖盡三千界(안피개진삼천계). 너나 나나 내[我]눈은 삼천대천세계를 다 뒤덮고 있다. 鼻孔盛藏百億身(비공성장백억신). 콧구멍으로는, 눈구멍으로는 삼천대천세계를 다 덮고, 콧구멍으로는 부처님의 천 백억 화신을 다 콧구멍 안에 다 담고 있어요. 盛藏. 다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箇箇丈夫誰是屈(개개장부수시굴) 개개가 丈夫인데 누가 네 앞에 굴복하겠느냐 이겁니다. 네가 장부라면 나도 또한 장부인데 누가 네한테 굴복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靑天白日莫謾人(청천백일막만인)이러라. 이 밝은 대낮에 사람 속이지 말라. 당신이 도통했고 당신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난들 당신이 통한 도가 없겠으며, 당신이 아는 진리가 나한테는 왜 없겠느냐? 箇箇丈夫라. 개개가 다 장부인데 누가 굴복할 것이냐? 당신이 그렇게 설법한다고 산에서 나와서 “아~ 내가 큰 보물 얻어 왔다”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느라고 이렇게 설법하는데, 되도 않은 짓 하지 마라. 그 말에 굴복할 사람 아무도 없다.

靑天白日莫謾人(청천백일막만인)이러라. 참 근사하잖아요. 이런 게송이 총림. 눈 푸른 납자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약이 됐다 이겁니다. 눈을 열어주는 약! 캄캄하게 눈을 감고 있던 사람에게 ‘눈을 환히 열어주는 약이 됐다’이것은 집에다가 써 붙이세요. 크게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정말 이것은 우리의 안목입니다. 咄(돌). 이 “돌”하는 것은 자기의 앞의 이야기를 전부 부정하는 소리입니다. 부정하고, 到處逢人驀面欺(도처봉인맥면기)로다. 석가모니도 그렇지만, 나도 가는 곳마다 대면해서 사람에게 사람을 속인다. 사람을 속인다. ←이것은 한 번 더 확인 사살하는 식입니다. 靑天白日에 莫謾人하라 했는데 到處逢人驀面欺라. 만나는 곳마다 사람에게 얼굴을 대면해서까지 속이고 있다. 사기치고 있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이것은 확인 사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여야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죽여야 중생이 삽니다. 중생이 전부 부처가 돼버려요. 이것은 석가모니를 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모든 중생이 다 긍정됩니다. 다 긍정이 돼요. 다 살아나 버려요. 선불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깊이 이해해들어가면 이것이 완전히 마취가 되어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세세생생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다른 날에 스스로 볼 것이니, 제가 반드시 說破(설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파 다 해버렸는데요 뭘. 저는 근래에 당신이 문득 바뀌어 이 일을 위하여 매우 힘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씀에 나도 모르게 장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다 이겁니다.

p. 107 13. 부추밀 계신에게 답함 (1)

이것은 알음알이의 문제라고 하는데, 알음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량 분별하고, 그 동안 지식이라든지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 나름의 어떤 조그마한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적이 되어서 뭔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특히 현대인들은 더 그래요. 현대인들은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절 문에 들어서면 神光不昧(신광불매) 萬古徽猷(만고휘유) 入此門來(입차문래) 莫存知解(막존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神光不昧(신광불매): 신령스러운 광명이 어둡지 아니해요. 신령스러운 광명이 항상 그 광명을 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을 밀다가 “참, 법당은 좋은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하니까 고개 척 돌아보면서 放光(방광)을 하지요. 그것이 신광입니다. 신령스러운 광명이 어둡지 아니하니까 돌아볼 줄 아는 겁니다. 방광을 할 줄 아는 겁니다.

萬古徽猷(만고휘유)라: 만고에 환히 빛나고 있다. 우리의 안이비설신의는 다 쉬는데, 이놈의 물건은 잠들어도 안 쉬어요. 잠들어도 안 쉬고 꼼짝꼼짝 거리고 있어요. 어디 천리만리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깊은 이해와 확신을 가져라. 그 밖의 것은 안이비설신의 가지고는 아무리 노닥거려 봤자 그야말로 그것은 알음알이다. 사량 분별이다. 사변으로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入此門來(입차문래) 莫存知解(막존지해)하라: 이 문에, 진정한 이 불문에 들어오려면 그런 알음알이. 지식 다 버려 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꼭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버리고남으로 해서, 자기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는 길이 있지요.

편지를 보니 젊은 나이에 이 도를 믿고 향할 줄을 알았으나, 만년에 알음알이의 장에 때문에 깨달아 들어감을 구할 곳이 없어 밤낮으로 도를 체득할 방편을 알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써 놓았더라 이겁니다. 젊은 나이부터 불교에 관심은 많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 지식이 축적이 되어서, 이놈의 지식 때문에 이리저리 그냥 지식이 앞을 가로막는다 이 말입니다. 알음알이가 앞을 가로막는다. 이것은 이미 지극한 정성을 가진 것입니다. 감히 외면하지 못하고 잘못된 견해를 낱낱이 들어 판단하여 갈등의 글을 조금 쓰겠습니다. 보니까 공부인은공부인 입니다. 그런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깨달아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이 문득 도를 막는 알음알이입니다. 깨달아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깨달음이 오면 오는 것이지, 그 깨달아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 언제 깨달을까? 깨달아야 되는데...

불교 안에는 깨달음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병통이 있습니다. 이 분도 보면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 마지막 어려운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떼어버리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특히 선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출발은 했는데, 출발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 참 미묘한 문제지요. 정말 미묘한 문제입니다. 깨달음 때문에 출발은 했는데, 깨달음이라는 그 의식이 결국은 깨달음을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 공부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별도로 무슨 알음알이가 그대에게 장애가 되며, 필경 무엇을 일러 알음알이라고 하며 알음알이는 어디로부터 오며, 장애를 입는 사람은 다시 누구입니까? 이것은 앞에서(6-1) 말씀드린 청소하는 사람은 누구고, 또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냐?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고,화두 드는사람은 누구냐? 알음알이 일으키는 사람과 알음알이가 장애 된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도대체 누가, 그렇게 당신에게 여러 사람이 있어서 이리저리 나눠지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당신 한 사람 이잖느냐? 도를 천번만번 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당신 한 사람인데. 그런데 알음알이가 장애가 된다. 그래서 도를 체득할 방편을 따로 알고 싶어 한다. 대혜스님이 보니까 여기에 얽히고설킨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별도로 무슨 알음알이가 그대에게 장애가 되며, 또 필경엔 무엇을 일러 알음알이라고 하며 알음알이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알음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알음알이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서 생겼느냐? 이겁니다. 장애를 입는 사람은 다시 누구입니까? 그럼 얼마나 또 장애를 입느냐? 잘 파헤치는 겁니다. 분석을 아주, 아주 잘 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전부 한 사람입니다. 전부 한 사람이라고요.

다만 이 구절에 전도된 것이 세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첫째, 알음알이의 장애를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알음알이의 장애를 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여 달게 미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또 그 하나라, 못 깨달았다. 나는 미혹한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큰 병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여 달게 미혹한 사람이 되는 것. “나는 아주 미혹한 사람이야” “중생이야” “범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영명연수 선사가 보살계 받기를 권하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살계는 아주 근사한 거야”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의문 갖기를 “그렇게 근사하고 차원 높은 것인데, 그것은 문수나 보현보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당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명연수 선사가 있다가 “당신같이 범부가 문수도 아니고, 보현보살도 아니고,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아니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있는 진실한 부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요.” 이랬다고요. 참 무서운 말이고, 이것이 아주 불교의 결론을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문수 보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부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중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부처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부처님, 시방세계의 부처님을 전부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명문을 갖다 증거를 대기를 화엄경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고 했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치가 그렇다면 그런 말 아니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미혹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중생이라고 여기고, 범부라고 여기는 것. 이거는 병중에 가장 큰 병입니다.

다시 미혹한 가운데 있어서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분류를 했습니다.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 이미 깨달음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데 뭘 기다려요? 집에 있는 사람을 스스로 밖에 나갔다고, 문 앞에 나가서 계속 기다리는 것 하고 똑 같지요. 집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식구들 다 있는데, 식구들 밖에 나갔다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빨리 안 오나?’하고 이 추운 겨울에 저~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꼴 하고 똑 같다 이겁니다. 구구 절절이 전부 이것이 다 드러낸 것입니다.

和盤托出(화반탁출)입니다. 떡을 쪄서 잘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소반 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소반 채 다 먹으라고 줘 버리는 식입니다.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아주 명쾌하지요. 언제 기다렸다가 주고 말고 할 그럴 기회가 올는지요? 누가 보장합니까? 다 줘 버리지, 만난 김에 다 줘 버리지요. 다음에 줄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아끼고 말고 할 것이 없다고요. 불교는요. 기초가 어떻고 고급이 어떻고 이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쭙잖은 우리들 시대에서 기초반이 어떻고 중급반이 어떻고 고급반이 어떻고 이렇게 해놓지, 그거 없어요. 기초반 나오다가 중급반 못나온 사람 수두룩하지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본래 그런 차원이 없습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깜량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지요. 다만 이 세 가지의 전도됨이 곧 생사의 근본입니다. 바로 모름지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서 전도된 마음이 끊어져야 바야흐로 미혹함을 타파할 것이며, 깨달음도 기다릴 것이 없으며, 알음알이가 가히 장애될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고 따뜻한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아서 오래 오래하면 저절로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如人(여인)이 飮水(음수)에 冷暖(냉난)을 自知(자지)라.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찬지 더운지 마시는 사람은 다 알지요. 스스로 다 알아요. 그와 똑 같은 격이라고 했습니다.

p. 108

다만 알음알이를 아는 마음 위에 나아가서 보십시오.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알음알이는 본래 없는 것이다. 알음알이가 곧 지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별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이것이 몇 푼어치나 되겠나? 사과보고 사과라고 하고 먹어보니까 맛있다고 하는. 이 禪文(선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기껏 그 정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것이 알음알이. 아주 쓰레기 같은, 아주 천박한 지식 내지 알음알이라고 하지마는, 그것이 그대로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가 깨달음의 지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과 맛볼 줄 아는 것과 道 맛볼 줄 아는 것과 진리를 맛볼 줄 아는 것과 그것이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사과 맛볼 줄 아는 것과 도를 먹을 줄 아는 것과 똑 같은 겁니다. 도를 먹는다니까 좀 이상합니까? 道도 먹습니다. 도를 먹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뭐 하게요? 허허허 道도 먹는 겁니다. 다만 알음알이를 아는 마음 위에 나아가서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시원찮은 불교이해의 정도인데 이것, 이것 거기서 한 번 보자.” 이겁니다. 도리어 장애가 됩니까? 능히 알음알이를 아는 마음 위에 도리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옛날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알음알이로 짝을 삼고 알음알이로 방편을 삼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춥고 더운 것을 아는 그 마음 가지고 전부 다 했다 이것이지요.그 마음 가지고요. 알음알이 버리라고 했지만, 거기에 끄달리는 것을 우리가 경계했지 사실은 그 자체. 그 자체의 근본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음알이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며, 알음알이 위에서 모든 불사를 짓되,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과 같아서 마침내 이것으로 번뇌를 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생각 돌이키니까 시시비비하고 옳다 그르다 하고,동전 몇 닢 가지고 그저 네 꺼니 내꺼니 싸우던 바로 그 마음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고, 지혜의마음이고, 큰 道를 이해하고 굴려서 쓸 줄 아는 그 마음이지요. 동전 몇 닢 가지고 시시비비하던 그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 빼놓고 또 달리 내[我]가 있습니까? 그 내가 온 우주를 집어삼키는, 아까 뭐라고 했지요?

眼皮盖盡三千界(안피개진삼천계). 눈은 삼천대천세계를 다 감싸고, 鼻孔盛藏百億身(비공성장백억신). 콧구멍은 천 백억 화신을 다 담는다. 호흡 한 번씩 할 때 천 백억 화신이 다 들어있다. 눈 한번 뜨고 보십시오. 온 세계가 다 내 눈 안에 들어오지요. 호흡 한번 하면, 내가 호흡하는 거기에 천 백억 화신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 산소만 호흡하는 줄 알지요? 부처님의 천 백억 화신이 다 내 콧구멍으로 들락날락합니다. 이참정 거사가 그런 게송을 지었다니까요. 그것은 사기 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지거든요.

그는 알음알이가 일어나는 곳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음알이가 일어나는 그 자리. 空寂靈知(공적영지)한 자리. 고요하면서도 항상 비추고, 비추면서도 항상 고요한 우리의 근본자리. 바로 그 근본자리에서 작용하는 것이지요. 靈知. 신령스럽게 아는 그 자리. 이미 일어나는 곳을 알았다면, 곧 이 알음알이는 문득 해탈의 장소며 곧 생사를 벗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온갖 권모술수 부리는 그 일은 잘못이지만 그 능력은, 사기 칠 줄 아는 그 능력. 사기 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뿌리. 그 근본자리는 텅 비어서 신령스럽게 아는 그 능력이라니까요. 그것을 혹자는 사기도 치고 혹자는 거짓말도 하지만, 혹자는 그것으로 대자비의 보살행을 실천하잖아요.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나 사기 치는 사람이나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같아요. 그 뿌리가 신기한 것입니다. 그뿌리가 그 當體(당체)입니다. 그當體자리가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고, 그것은 곧 우리들의 무량공덕 생명으로 하나로 통일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해탈의 장소이며 생사를 벗어난 곳이라면 알음알이의 當處(당처)가 바로 적멸입니다.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별별 마음을 다 쓰지요. 하루에 쓰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찾아 들어가면... ‘이것이 어디서 났나?’하고 가만히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났나?’ 한 번 생각해 보면 적멸입니다. 當處가 바로 적멸이다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텅 비었다 이겁니다. 알음알이가 이미 적멸이라면, 알음알이를 아는 사람도 적멸이 아닐 수 없으며, 보리열반과 진여불성도 적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리니 열반이니 진여니 불성이니,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를 갖다 들이대어 봤자 그것이 전부 적멸한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는 것도 전부 적멸한 자리가 자기 본래의 집입니다. 전부 거기서 나왔어요. 한 놈은 나와서 사기 치러 가고 한 놈은 나와서 보살행 하러가고 그런 것이지요. 때로는 사기 치던 사람이 ‘아, 아니 구나’ 하고는 보살행 하고, 보살행 하던 사람도 재미없어서 혹 딴 짓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 뿌리가 중요하다.” 여기는 그 얘기입니다. 적멸한 자리. 진여불성도 적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물건이 있어 장애하며, 다시 어디를 향하여 깨달음을 구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지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가 다 가지고 있는데 뭘 어딜 또 따로 깨달음을 구해 들어가는 일을 어쭙잖게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서장 대강좌 6 - 3 강

p.109~110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업은 마음을 따라 일어나므로 마음은 허깨비와 같다. 만약 이 分別心(분별심)을 떠나면 곧 모든 有趣(유취)를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有趣라고 하는 것은온갖 삶의 갈래. 존재의 갈래를 有趣라고 합니다. 존재의 갈래는 六道(육도). 또는 六識(육식). 지옥 · 아귀 · 축생 · 인도 · 천도 · 아수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여섯 갈래를 하는 소리입니다. 有趣(유취)를 소멸한다. = 그런 것들을 다 소멸한다. 또 어떤 스님이 대주화상에게 묻기를 여기 세 가지 대화를, 큰 스님들의 세 가지 법문을 소개 했는데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어떤 스님이 대주 화상에게 묻기를“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열반” “열반” “열반” 우리가 열반을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대주화상이 대답하기를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생사하고 열반은 반대니까 그렇지요.

그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생사의 업입니까?” 라고 하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주화상이 대답하기를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生死業(생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견성 하려고 하고, 도통하려고 하고, 부처님 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없으면 불자도 안 되고, 부처도 안 믿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이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 문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는 생사 업 이라고 했으니 정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 목적지가 바로 여기인데, 이쪽으로 간다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고덕이 이르기를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에 생사를 計較(계교)하면 생사 문제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생각하면, 곧 魔軍(마군)의 길에 떨어지며, 한 생각에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곧 외도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군이나 외도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되려고 하는 마음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착한 일을 한다. 무슨 보살행을 한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도 그것은 곧 외도나 마군에게 떨어진다. 이랬습니다. 한 생각 일으키는 것. 그 일으킨 마음을 쫓아가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자선사업이고, 봉사활동이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枝葉(지엽)적인 것이고,根本(근본)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禪佛敎(선불교)는요. 항상 그 宗旨(종지)가 근본취지가 근본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본을 떠나지 말라. 이해하시겠지요? 선한일 하고, 봉사활동 하고, 보살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일입니다. 불교에서도 권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선불교에서는 그것도 이미 근본에서 한 걸음 벗어난 일이다. 근본에서 한 걸음 벗어난 일이라면, 선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벗어난 것은 똑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지요? 不思善不思惡(불사선불사악)하라. 그랬지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한 걸음 벗어난 입장에서는 선이나 악이나 똑 같습니다. 그 까짓 것 뭐 보살행이나 자선사업이나, 무슨 어떤 수녀가 하~~ 평생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나, 선불교에서 보면 그것 다 지엽적인 일이다. 몇 푼어치 안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저 앞의 이야기나 똑 같습니다. 열반을 구하려고 하고, 성불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해도 이미 그것은 벌써 근본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이미 生死業(생사업)이다. 답이 나왔지요?

淨名(정명) 유마거사지요. 이 이르기를 “여러 마군은 생사를 즐기지만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아니하고,생사와 더불어 파도치면 파도치는 대로 같이 물을 탄다 이겁니다. 배를 잘 모는 사람은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외도는 여러 견해를 즐기지만 보살은 모든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마거사의 아주 참 뛰어난 안목이지요. 그래놓고 세 가지 예를 들고, 이것은 알음알이로 벗을 삼고 알음알이를 방편으로 삼아서, 알음알이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실천하고 알음알이 위에서 모든 불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다만 그가 삼아승지겁의 긴 세월이 空(공)함을 통달하여 생사와 열반이 모두 고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근본자리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생각하고, 별 기가 막힌 대혜스님의 법문을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근본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쑤~ㄱ 물러나와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생각이 일어나는 것.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이 일어난 그 當體(당체)자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요. ‘나는 누구인가?’ 그 화두나 똑 같은 겁니다. 생각이 일어난 그 근본자리. 당체자리를 한번 살펴봐라. 거기에는 삼아승지겁 이라는 긴 세월이 없습니다.

삼아승지겁 이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텅 빈 자리입니다. 그런 묘한 자리가 우리 개개인에게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숨 쉬고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부처나 달마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箇箇丈夫誰是屈(개개장부수시굴)이라 개개가 다 丈夫인데 누가 굴복할 까닭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다 똑 같은 세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석가가 가졌다면 나도 가졌고, 달마가 가졌다면 나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잘 활용할 줄 알고, 우리는 그만 물에 떠내려가서 저기 어디 시궁창에나 그런 곳에 그냥 떠내려가서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왜 지금 간화선인가? 그것은 바로 이 근본자리. 우리의 本來面目(본래면목). 참 생명의 그 자리를 좀 찾아보고, 최소한도 그 자리 주변에서 맴돌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손에 딱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자리 주변에서라도 좀 맴돌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선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근본자리에서 가깝게 우리가 맴돌자. 그러다 보면 어느 문이 나타나고 확 문 열고 들어가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강당 주변에 와서 맴돌다 보면 수위가 문을 썩 여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쑥 들어가 버리세요. 그런 맴도는 훈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불교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토요 정진 회라든지, 일요 정진 회라든지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 맴돌아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그 근본자리에 탁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萬事休(만사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쉬어요. 그 때쯤 되면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알음알이로 벗을 삼고 알음알이로 방편을 삼아서, 알음알이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실천하고 알음알이 위에서 모든 불사를 짓는 것이다. 이 우리 알음알이. 이것 대단한 것입니다. 근본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온갖 공능이 있습니다. 알음알이의 공능이 대단합니다. 달나라도 가지요. 우리나라도 며 칠 안 있으면 달나라 간다 네요. 컴퓨터니 인터넷이니 온갖 과학기술. 의료기술. 전기. 전화 등등 온갖 기술들이, 이것이 뭡니까? 전부 망상에서 이룩한 공덕입니다. 알음알이가 만들어낸 큰 공능입니다. 그것이 아주 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묘입니다. 망상할 줄 아는 그것이 묘라고요. 선에서 보면 그것이 망상이라고 하겠지만, 또 망상 빼놓고 따로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도외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알음알이를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p.111

아직 이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간절히 삿된 무리[邪師輩]가 어지럽게 한 말을 따라 귀신 굴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눈을 감고 망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삿된 선비들의 폐해. 다만 앉아서 공부해야만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좌선 제일주의 폐해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를 보면서, 가정살림을 살면서,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온갖 할일 다 하면서, 바로 할일 하는 그놈. 그놈을 우리가 내 손으로 콱 잡는 일입니다. 오히려 일상생활하면서 더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쩌면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生活禪(생활선). 活動禪(활동선). 그래서 모든 거사들이 대혜스님에게 극구 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도를 통해가고 하는 것이지요. 진짜 프로는 이렇게 생활선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선방에만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대혜스님의 소견에서 보면 그것이 오히려 아마추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이 그렇잖아요. 아마추어와 프로가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들이 앉아 있다고요.

근래에 조사의 도가 衰微(쇠미)하고 이런 무리가 삼대와 좁쌀 같이 많습니다. 참으로 한 소경이 여러 소경들을 끌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 심히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것이 좋다고, 좌선하는 것이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꾸 그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유행입니다. 그냥 하던 일 하면서 거기서 챙길 줄 아는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공부인데, 꾸역꾸역 먼 길 가서 몇 시간이라도 앉아 있어야 그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조계사 앞에 불교서점에서 서적을 산다고 하는데, 어떤 거사 분들이 두 분 앉아서... 이것을 아주 여러 번 이야기해서 그 거사 분한테 참 미안한 일인데요. 아~ 자기는 지금까지 좌선한 것이 계산 해보니까 2000 몇 시간이더라고... 또 한 사람은 아~ 그러냐고 하면서 자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고 1000시간이 좀 넘었는가?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는 야, 어쩌다가 저 열정. 선불교에 대한 저 열정을 가지고 바로만 들어갔다면, 저런 사람들이 상당한 경지에 올랐을 텐데, 앉아 있는 시간 계산하고 공부가 얼마 됐다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직접 봤습니다.

그 때도 그런 아마추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에 둘도 없는 간화선의 최고가는 지침서. 이 서장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선에 대한 바른 안목을요. 원컨대 당신은 척추를 굳게 하여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말이지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비록 잠시 냄새나는 가죽부대에 구속되어 있는 것을 문득 구경의 진리로 여기더라도, 냄새나는 가죽부대. 이 몸뚱이를 딱 고정시켜 놓은 것을 최고의 진리라고 여기더라도 마음이 어지러운 것은 오히려 아지랑이와 같을 것입니다. 몸은 떡 앉아 있는데 이놈의 마음은 천리만리로 가서 온갖 세상 시비 다 하고, 온갖 좋은 일, 주지 다 하고, 몸은 앉아 있는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이야기 해 놨네요. 몸은 딱 앉아 있는데 마음이 어지러운 것은 오히려 아지랑이와 같을 것입니다.비록 마음이 잠시 멈추기는 하나 돌로 풀을 눌러둔 것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돌로 풀을 눌러 놔 보세요. 그것이 그렇다고 뿌리가 죽나요? 나중에 보면 노오랗게 새싹이 옆으로 비집고 나와요. 우리의 마음 됨됨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누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활발발 하는 것. 바로 위없는 보리를 구하고 구경의 안락한 곳에 이르고자 한다면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공부 하는 것이...應無所住而生其心(응무소주이생기심) 금강경. 소의경전이라서 다 아시잖아요. 본래 이 마음은 활발발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마음의 속성입니다. 본래의 모습이 그런 것이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구속해서 한 곳에 가두면, 억지로, 억지로 가두면 가둬지긴 해요. 잠깐은 가둬져요. 그렇지만 마치 돌로 풀을 누른 것 같아서 옆으로 비집고 나와요. 어느새 망상이 와서 천리만리 내 닿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을 사랑하는 일도 좋아할 때는 영원히, 영원히 그냥 억 만년이라도 오로지 당신만을 이렇게 하지마는, 그것은 그 순간에 하고 싶은 소리일 뿐이지 세상에 그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왜 사랑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사랑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변한 것 아닙니까? 자기도 금방 변해 온 것입니다. 변해서 거기 와서 영원히, 영원히 라고 읊조리고 있지만, 금방 변해 왔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는... 그렇게 변해서 왔듯이 또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겁니다. 잠깐 붙들어 매 놨다 합시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붙들어 매면 상당히 오래갈 것 같지요? 돌로 풀을 누른 것과 같아서 어느새 다른 방향을 향해서 노오란 싹이 비집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믿지 말라고요. 스님들은 세속 생활에 찬물 끼얹는 사람이지요. ㅎㅎㅎ 부처님이 그랬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안 닮을 수 있나요? 찬물 끼얹어야지요. 그 찬물 끼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좀 차리면서 현실을 현실대로 파악하면서 살면 훨씬 가뿐합니다. 훨씬 가뿐하고 이득이 많을 겁니다.

p. 112

저도 또한 자기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무리의 가르침[所誤]을 받았었습니다. 뒤에 만약 참다운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면 거의 일생을 헛되이 보낼 뻔했습니다. 항상 생각함에 곧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 과거 오랜 세월동안 내가 엉뚱한 데로 헤맨 것을 생각하면 지금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스님이 화가 나서 입에다 거품을 물고 비방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식이지요. 무슨 목석처럼 점잖게 가만히 있는 것이 선지식이 아닙니다.

과거 내가 불교공부를 잘못 한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를 갈고 싶고, 그냥 갈아서 마시고 싶을 정도로 분이 끓어오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불자들도 불교가 좋고 부처님이 좋아서 인연을 맺었는데 엉뚱하게, 우리 스님들 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데 가서는 허송세월하는 스님들도 많고, 또 엉뚱한 사찰에 인연을 맺어서는 그만 불교의 바른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헤매서는 몇 십 년을 그냥 엉터리 불교를 공부하는, 그것은 공부도 아니지요. 공부라는 말을 붙이기가 해당이 안 되는 허송세월하고, 또 엉뚱한 데로, 그야말로 同墮地獄(동타지옥)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바로 안내해 주고요. 이 대혜스님 같이 욕을 먹더라도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내가 네한테 이익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正道(정도)로 가라. 正法(정법)으로 가라. 제발 좀 정법으로 가라. 나를 미워해도 좋다. 욕을 해도 좋고 그 미움과 욕을 다 들어가면서 나는 당신을 정법으로 인도하고 싶다.” ←이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방력 있게 나가야지요.

서장 대강좌 6 - 4 강

p. 112

이 때문에 口業(구업)을 아끼지 않고 힘써 이런 폐단을 구제해 왔더니, 구업을 아끼지 않고. 대혜스님이 엄청 욕을 많이 했거든요. 욕이란 욕은 다 쏟아 부어 가면서 그 사람들의 폐단을 구제해 왔더니, 지금은 그릇됨을 아는 사람이 조금 생겼습니다. 만약 바로 알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홀연히 단번에 타파해야 바야흐로 생사를 통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라 이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음을 가지고 타파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타파한다.”고 부득이 해서 이런 표현을 했지, 그렇다고 해도 마음을 가지고 ‘언제 타파할까?’ ‘언제 타파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돌로 풀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 한 곳에다 잡아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만약 마음을 가지고 타파하려고 하면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벌써 망상이니까요.다만 妄想顚倒(망상전도)의 마음과 思量分別(사량분별)의 마음과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지견으로 아는 마음과 고요한 것을 기뻐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시에 내리 누르십시오. 다만 내리 누른 곳에 나아가 화두를 드십시오. 여기에 내리 누른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앞에 부정적으로 말했던 돌로 풀을 누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별별 망상 다 있잖아요.

가정사라든지 세상일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쳐놓고, “제쳐놓고”라는 이것이 참 좋은 표현인데요. 제쳐놓고, 그것 따라가지 말고, 바로 화두만 챙겨버리면 그것이 일시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을 다 쓸고 비우고 담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상부터 제거해야 화두가 되지, 망상도 제거하지 못하고 어떻게 화두가 되느냐? ←이것 정말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망상위에 화두 갖다 놔 보세요.

망상위에다가 화두 갖다 놔 보시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미워한다.” “사랑 한다.”는 이 감정이 제일 아주 무서운 감정 아닙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는 감정위에다가 화두를 하나 갖다 놔 보세요.‘내가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뭘까?’ ‘뭐가 들어서 내가 저렇게 미워할까?’ ‘뭐가 들어서 저 사람을 저렇게 내가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 사랑하는 마음의 當體(당체). 사랑하는 마음의 그 實體(실체)가 무엇일까?’ 이렇게 들어가면 사랑이고 미움이고 그것은 어느새 없어져 버립니다.

‘무엇일까? 사랑하는 마음의 실체가 무엇일까?’라는 그것만 남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다 쓸어 내놓고 ‘무엇일까?’가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하는 그 외의 다른 것은 저절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 망상 쓸어내고 화두 챙긴다고 하지 말고, 망상 아랑곳 할 것 없이 망상위에서 화두를 챙기세요. 그러면 저절로 그것은 쓰러져 버립니다. 왜냐? 망상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없는 것이라고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환영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안 되지요. 절대 그렇게 안 되지요. 환영입니다. 어떤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전부가 환영이라고요. 幻影(환영). 환영은 환영이기 때문에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 마음의 원리가 이렇게 신기한 것입니다. 다만 내리 누르는 곳에 나아가 화두를 드십시오. 내리 누른다고 해서 정말 힘으로 내리 누르는 것이 아니겠지요. 바로 그 위에다가 화두를 한 번 끌어와 봐. 그러면 그런 것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환영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p. 113. 無자 화두를 드는 법입니다. 이제 제대로 들어갑니다. 저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잘 들으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하니, 조주가 대답하기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불교적인 상식이 바탕이 된 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불교적인 상식이란 有情無情(유정무정)이 皆有佛性(개유불성)이다. “다 불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개가 불성이 없다.” 이것은 개는 거의 사람에 가까운 동물인데 유정무정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가 불성이 없다니 이것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에 관심을 아주 많이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부터 숨이 꽉 막혀버립니다. ‘없다?’ 이제 이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없다”는 그 말에 그만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버려야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버려야 됩니다. 이 한 글자는 허다한 나쁜 지식과 생각을 꺾는 무기입니다. 그렇지요. ‘없다?’걸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만치 그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가에 달렸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이거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조주스님이 개가 불성이 없다고 했는데?’ ‘개가 불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는 딴 생각 실컷 하다가 ‘개가 불성이 없다고 했는데?’ 놀이 삼아 ‘개가 불성이 없다고 했는데?’ ‘아, 그 개? 어떤 종교에서는 개고기 좋아하는 성직자도 있다는데’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그냥 흘러간다고요. 하하하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다 저의 경험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 전에 키우던 개가 참 괜찮았는데’ 참으로 얼토당토않은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으로 치면 재탕 3탕 4탕 5탕 6탕, 완전히 초 탕도 효과가 있을까 말까한데 5탕 6탕, 이것이 10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도대체 몇 탕입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死句(사구)입니다. 죽은 화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정말 불교적인, 불성에 대한 상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처음 들었다면, 趙州古佛(조주고불)이라. 옛날 부처라고까지 추앙 받는 훌륭한 인물이다. 이것은 부처의 길로 가야 되느냐? 조주의 길로 가야 되느냐?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조주스님은 없다고 했다.’ 여기에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어느 놈이 되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여기는 아무것도 붙을 겨를이 없는 자리입니다. 제대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야 된다고요. 화두는 제대로 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초 탕입니다.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숨이 꽉 막혀버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전 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요? 1억짜리 수표를 금방 여기다 딱 뒀는데, 웃을 착 걸쳐 입고 돌아보고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는데 없어졌다 이겁니다.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지요. 거기에 출근이고 뭐고, 식구고 뭐고 떠오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중대한 사항이 앞에 놓여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배탈이 났더라도 지금 설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1억짜리가 금방 없어졌는데 언제 다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올 스톱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3일이면 끝나고, 길어야 7일. 정 시간이 많이 걸리면 9순해서, 90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만 들어간다면 안 그렇겠습니까? 3일까지도 갈 것 없지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깨닫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에게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부탁하고, 그런 식으로 이 간화선법을 몰고 가는 것은 절대 무리입니다. 전부 앉아서 염불하듯이, 염불은 그래도 북이나 치고, 소리라도 고성염불, 밤새도록 계속 “나무아마타불” 부르지요. 철야정진 하면서 계속 졸다가 ‘개가 불성이 없다는데?’ 하고, 잠꼬대처럼 몇 번하고는 또 앉아서 졸고, 그러다가 그냥 몇 시간 다 마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치면서 염불하는 것보다도 못하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1억짜리 수표를 잃어버린 절대의 그런 기분으로, 또 불교적인 상식이 가득 있는데 불성이 없다고 했으니 정말 살아 있는 부처가, 살아 있는 부처인 조주스님이 없다고 했으니, 이것이 청천벽력이 아니냐 이겁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공부가 잘 됩니다. 세상이 복잡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자기 지식이 동원이 되어서 어려워요. 요즘 사람들은 지식이 옛날 공자 맹자 시대보다도, 백배 천배 더 많습니다. 정보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주 어지러워요. 그러니 쉽지 않다고요. 그런 식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런 식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꼭 “그런 식 공부”라야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러나 간화선은 “그런 식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를 無字十種病(무자십종병)이라고 8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크게 귀담아 들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자 화두를 제대로 해서 공부가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병이 있지, 공부도 아니한 사람이 무슨 병이 있습니까? 허허허허허허허허 아니, 테니스 안치는 사람에게 테니스 치면 손목에 무슨 병이 온다하고 주의하라고 하고 별별 병을 나열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는 잘못 하더라도 공부를 일단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도 한 번 살펴봅시다.

‘있다, 없다’는 분별을 하지 말며, 道理(도리)에 대한 분별을 하지 말며, 무자에 대한 어떤 이치입니다. 의식[意根]을 향하여 분별하지 말며, 눈썹을 치켜들고 눈을 깜짝이는 곳을 향하여 뿌리내리지 말며, 말길을 따라 살 계획을 짓지 말며, 일없는 소리에 머물러 있지 말며, 話頭(화두) 드는 곳을 향하여 깨달으려 하지 말며, 문자 속을 향하여 인용하여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無字화두의 십종병 이라고 합니다. 8가지가 소개되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것을 참고 하시고, 공부 안하는 분은, 특히 無字화두 안하는 분은 필요 없습니다. ㅎㅎㅎ 다른 화두 하는 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하루 생활 속에서 항상 參究(참구)해 가기를, “개도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한 것을 日用(일용)에서 여의지 아니하고 공부해 나가면 일용이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이지요. 공무원은 공무하고, 사업하는 사람이면 장사하고, 주부들은 살림살이 살고,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용입니다.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공부해 나가면언젠가는 문득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빨래 치대면서 “無 라” “無 라” “無 라” 이렇게 하면서 한 본 해보세요. 그것 할 만 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한 군내 천리의 일이 모두 서로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이니까요. 아마 이 사람이 군수쯤 되는 모양이지요? 군수라고 치면 그 군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것 하고, 이 도 닦는 것 하고 전혀 방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이 그 일이니까요. 그 일이 그 일이니까요.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이속은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라 무슨 물건이 있어 능히 그를 얽어매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일용을 떠나서 따로 구하는 것이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일상생활을 떠나서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사무보고 운전하고 하는 이것을 떠나서 따로 구하는 것이 있으면,이는 波濤(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은 파도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파도치는 그것이 물입니다. 물결치는 그것이 물이라고요. 한 번 떠보세요. “출렁” 하고 올라오는 것을 탁 떠보세요. 그것이 뭔가... 물이지 뭡니까?

우리가 막 그냥 감정이 표출해서 옳으니 그르니 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 그것 한 번 탁 잘라서 보세요.청소하는 마음이라고 합시다. 자, 청소 열심히 한다. 청소하는 그 마음 탁 잘라서 보세요. 뭔가... 역시 나입니다. 역시 나라고요. 역시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나니까요. 물결을 딱 잘라서 봐도 물입니다. 조용한 물이나 물결치는 물이나 같은 물입니다. 우리의 고요한 마음이나 출렁거리는 빨래하고 밥 짓고 하는 그 마음이나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나라고요.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는 것이며, 金器(금기)를 떠나 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금 그릇을 떠나서, “아, 이것은 금으로 만든 컵이야.” “아니, 나는 컵이 아니고 금. 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금으로 만든 그대로 금이지요. 불상을 만들었으면 불상 그대로가 금이고요. 반지를만들었으면 반지 그대로가 금이지요. 그래 금반지. 금 컵. 금불상 그러잖아요. 외형을 보지 말고 금을 봐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어디 가서 선행을 하든지, 사기 치는 그 놈도 부처요. 선행 하는 그 놈도 부처입니다. 그 능력. 그 자체가 부처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불상을 조성해놓고 점안할 때 늘 하는 것. 전단나무로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보살상을 만들기도 하고 나한상을 만들기도 한다. 그 조각 하다보면 버리는 나무 조각들이 얼마든지 많지요. 버리는 나무 조각이나 불상이나 맡아보면 똑 같이 전단향기가 납니다. 이야기 다 한 것 아닙니까? 이야기 다 한 것. 버려버린 전단나무 조각도 전단향기가 나고, 불상도 똑 같이 전단향기가 납니다. 보살상을 만들어도 전단향기가 나고, 거기에 생선을 조각해놔도 생선냄새가 안 나고 전단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무 집행하고, 자기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 당체가 바로 진리이고 도이고 부처라고 하는 사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 같으면 여러분들이 안 믿겠지요. 간화선의 대 종장. 대혜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것은 컵이지 금이 아니야”하고 제가 거부하고 “금 가져오너라.”하고 따로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금반지를 가져 오니까 “반지 말고 금말이야.” 금불상을 가져 와도 “불상 말고 금 가져오라.”고 했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것 참 불교설명 다 했습니다. 이것 선불교설명 다 된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과 공부가 결국 둘이 되어서도 안 되고, 본래부터 둘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달리 다른 것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의 답변만 정리 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하면, 다 할 수가 없고, 이런 자리에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소재도 못 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불교에 관심을 갖고 왜 지금 간화선인가? 라는 이런 주제 하에서 우리가 모였다면, 이제 그런 세상사는 일단 접어놓고, 또 세상사에 끄달리던 마음이 너무 끓어오르고 분노 스럽지만, 또 거기에 도대체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여럿이 추종을 하고 동조를 하고 같이 그렇게 한다는 이런 사실들. 참, 보살님(질문자)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마당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덮어버리고, 그야말로 인생의 高手(고수)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 다 하찮은 일들. 정말 ‘下手(하수)들이나 하는 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본다면 상당히 그것이 우리 인생에 소득이 있지 않을까?

다 뭐 그러니까 승복 입었다고 다 저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허허허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 6강 終 -

서장 대 강좌 7 - 1 강

**p. 116  14. 부추밀 계신에게 답함 (2)**

이 분은 내각의 자문 담당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직책입니다.대혜스님에게서 부러운 점이 첫 째는 대혜스님의 깨달음에 대한 지혜와 학덕. 이런 것이 가장 부럽고 본받고 싶은 부분이지요. 깨달음의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쉽게 와 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수행자라면, 또 불교에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혜스님 같은 이런 아주 명쾌한 지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일런지는 모르지만, 강의 첫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중국천하 당대의 최고 지성인들이 모두 대혜스님 에게 와서 법을 묻고,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대혜스님의 신도였었다는 사실. 그래서 깨달으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재가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대혜스님의 신도중에는 큰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이것은 아마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재가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깨달았을까? 사실 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존경을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은 오조 스님의 제자인 北宗(북종)의 신수대사. 신수대사가 육조단경에서 보면 육조 스님에게 밀리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육조스님 쪽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북종선 에서 볼 것 같으면 세상에 그 분같이 존경을 많이 받으신 분이 또 없습니다.

천자가 3대로 내려오면서 왕사· 국사로 모셨고, 二京法主(이경법주)라고 해서 南京(남경)· 西京(서경). 東京(동경)인가요? 그 스님 생애에 서울을 두 곳으로 옮겼는데요. 두 곳 서울에서 항상 法主 노릇을 했어요. 요즘 우리 불교에서 會主(회주)라는 말 잘 쓰는데, 회주라고 하는 것도 영 비불교적이라는 냄새는 안 풍기지만 그래도 법주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못해요. 회주라는 말은 사회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주라는 말은 사회에서 못 써요. 우리 흔히 거사. 처사라는 말을 쓰는데 처사는 사회에서도 쓰는 말이지만, 거사라는 말은 사회에서 못 써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써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반드시 거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처사라고 하면, 물론 재가불자들에게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당히 고귀한 단어이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유교 선비들에게도 처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사는 좀 공통성이 있는 반면에 좀 불교적이지는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주. 회주라고 하는 말도 옛날 전통적인 관념에서 보면 법주라는 말이 옳습니다. 훨씬 좋잖아요. 법 주! 그런데 옛날부터 회주라는 말을 많이 써서 어느 절에서도 저보고 회주라고 이름을 걸어 놓기도 했습디다만, ‘불교가 좀 俗化(속화)되어서 그런가?’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신수대사가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크게 부러운 것은 아니고, 대혜스님의 그 지견과 그 박식과 그러면서 학덕이 아주 뛰어나고, 또 신도님들 모두가 당대의 최고 지성이었다는 점들이 부러운 점이라면 참 부러운 점이라고 평소에도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부추밀 계신에게 답한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든가 봅니다. **매일 이 一大事因緣(일대사인연)을 염두에 두고 勇猛精進(용맹정진) 해서 순수하고 한결 같아서 잡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정말 불교에 깊이 몸담고, 대혜스님보고 불교에 깊이 몸담고 불교에 애착을 가졌다는 표현이 오히려 이상하지만, 정말 불교에 진정한 애착을 갖고 그 중에서도 정말 正法(정법). 정법에 어떤 열의가 있는 분으로서는 정말 진정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참 이렇게 **뛸 듯이 기쁜 마음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 동안 치열하게 작용할 때에 반드시 상응합니까?** 이것은 이 분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추밀 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할 일이 많고, 처리해야할 공무가 많겠지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치열하게 작용할 때에** 이 “**일대사인연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 관심이 늘 한결같으냐?”이런 말입니다. 또 **깨어 있고 잠자는 양변에서 한결 같습니까?**

“이것은 화두가 늘 들리느냐?”여기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한결같이 空(공)에 빠지고 고요한 데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고요한 데 빠져선 안 됩니다 하면서 여기서 고요에 빠진 사람들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쭉 내려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세속 생활이 참 번다하고 복잡한데 공부에 맛을 좀 들여서 마음이 조용해지고 환경이 조용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만 그것이 불교인양 공부의 극치인양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파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도 불교에 인연을 맺고,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해서 좀 안심을, 마음을 놓게 되면 그것으로서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불교의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은 불가사의해서 그렇게 쉽게 손에 와 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검은 산 아래 귀신 집에서 살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黑山下鬼窟裏(흑산하귀굴리)라 해서 캄캄한데 말하자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은 조용해서 편안할지 모르지만 공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서야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未來際(미래제)가 다해도 뚫고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낸 편지를 어제 받고, 당신이 반드시 이미 고요함에 치우친 삼매에 耽着(탐착) 했을 것으로 염려했었는데, 直閣公(직각공)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고서야 과연 생각했던 바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이 분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참선하다 보니까 그만 고요한데에 빠져 버렸다 이겁니다. 특히 간화선은요. “왜 간화선인가?”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활발발한 어떤 작용 속에서 거기서 뭔가 진실을 규명해 내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 진실을 같이 운용해 가는 그런 공부지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앉아있는 폐단에서 일으켜 세운 것이 간화선이다.”그랬습니다. 결코 조용히 앉아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간화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묵조선이지요. 대혜스님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하는 그 대상이 바로 그런 고요한데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혜스님 말씀이 **대개 세상을 사는 여유 있는 선비가 오랫동안 세상살이에 빠져 있다가 홀연히 사람으로부터 고요한 곳을 향한 공부의 가르침을 받아 잠깐 가슴속에 일이 없으면, 문득 집착하여 구경 안락을 삼는다. 비유하자면 돌로 풀을 눌러 놓은 것과 같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로 풀을 눌러 놓으면 그것이 잠깐은 그 풀이 밖으로 안 나오지만, 언젠가 그 풀이 노란 싹을 옆으로 비집고 나오는 예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잖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잡념 이라할까? 어떤 번뇌 망상. 잡된 것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언젠가 비집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풀 그 자체. 그것을 뽑아버린다든지 잘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풀 그 자체를 누를 것도 없고, 풀 그 자체. 그 자체가 진실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활발발 하게 정신 작용을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봐 버리는 것. 실체를 진리로 또는 진실로 우리가 봐 버리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뒤에도 또 나옵니다.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좋아하시는 일반신도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를 한참 한다든지 아니면 절을 하고나면 뭔가 느끼지 못했던 후련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후련하고 또 흐뭇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고 법당에서 나올 때, 아주 후련하고 가뿐한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그 느낌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 순간은 좋아요. 그 순간은 좋은데 그것이 불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절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아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지적한 것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 절 하고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 “기도 하고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 이런 소리 하지요? 바로 여기서 지적한 그것입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아무 망상 없이 고요한데 한참 몇날 며칠 그렇게 있다가 나오면 뭔가 시원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는 그것뿐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불교에서 아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순간 마음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불교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혜스님이 얼마나 열을 올리면서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대혜스님같이 욕 잘하고, 대혜스님같이 열 잘 올리고 화 잘 내는 분도 사실은 드물어요. 왜냐? 정법이 아니니까요. 정법이 아니니까 열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판 아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잖은 스님이. 점잖은 도인스님이 그렇게 열을 내고 비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소식이 끊어진 것을 알았으나 뿌리가 오히려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찌 적멸을 투철히 증득할 기약이 있겠습니까?** 적멸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조용해서 느끼는 그런 적멸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절 많이 해서 느끼는 그런 후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약간의 소득은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이 간화선은 우리가 논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나오는데 한 번 더 읽고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 117**

**眞正(진정)한 적멸이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치열하게 생멸하는 가운데서 곧 단번에 뛰어나야** 단번에 뛰어난다는 것은 “거기서 눈이 열려야” ←이런 말이지요. **단번에 뛰어나야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문득 곧 큰 강을 휘저어서 우유를 만들며,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을 만들며, 時機(시기)에 임하여 주고 빼앗으며 죽이고 살리기를 자유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옳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가 적멸하다든지 우리 마음의 본래의 자리는 “적멸한 것이다.” 또 “공적한 것이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목석처럼 되어야 적멸한 자리이고 공적한 자리이냐?

여기에 대혜스님의 말씀처럼 **치열하게 생멸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한 생각의 눈을 떠야만 그것이 진짜 “적멸의 의미다.”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어떤 적멸을 알아야 되고, 부단히 작용하는 그 자리에서 적멸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600키로, 어떤 경우에는 800키로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어디 달리는가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요. 800키로 900키로로 달리는 그 속도는 **치열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치열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

여기에 보면 **치열하게 생멸하는 가운데 ←**이 생멸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1찰라에 900 생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통 1찰라는 불교에서 흔히 계산하기를 1초의 120분의1 이라고 그래요. 요즘 마이크로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1초의 120분의1 = 1찰라입니다. 그 1찰라 사이에 900 생멸하는 것이 우리의 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부단히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생각입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약간 변한다든지, 가면서 이것저것 간판을 또는 사람을 훑어보면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을 분별하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초의 120분의1 이 1찰라이고 1찰라 속에 생각이 900번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생멸을 반복하는 이 세계에서의 생멸이라고 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주고받고 사람 만나고 일어나는 사건들 다 감지하는 그런 모든 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생활을 했습니까? 엄청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정말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900키로 1000키로를 달리는데 동요하지 않는 사실.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사실. 그렇게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면서도 900키로를 달리고, 잠깐 사이에 서울 부산을 오고가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1찰라에 생각이 900번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정말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 하는 그 實體(실체)!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저 바다에 물결이 수 없이 출렁거립니다. 쉼 없이 출렁거리지만 물을 떠 보십시오. 어제 물이나 오늘물이나 오늘도 수천 번 수만 번 출렁거렸지만 항상 그 물입니다. 변함이 없다고요.

이렇게 비유를 들면 뭔가 ‘아!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실체도 그렇구나!’ 비유를 들면 조금 짐작은 가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서 알아차린다.**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지 이것을 그냥 내리누르고 기도를 한다든지 화두를 든다든지 해서 하~~ 일어나는 망상을 어떻게 하든지 내리눌러서 머리에 상기아만 오르고, 상기병심하면 평생 못 고칩니다. 우리 도반들 보면 상기가 나면, 간화선 교과서에 보면 얼른 좌복 위에서 내려와서 도량을 돌라고 그랬습니다. 돌면 위로 올라갔던 기가 발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기를 다 흩어버리고 다시 좌복 위에 앉으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도, 오래앉아 버티는 것을 제일로 치는 겁니다. 오래앉아 버티는 것을요. 우리 체질에 맞지 않는 결가부좌도 막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법문을 들었는데요. 어떤 큰 스님이 결가부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에는 안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는 반가부좌 라야지요. 인도 사람들 호리호리하고 그냥 막 요가 잘하는, 인도 사람들 체질에는 결가부좌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는 절대 안 맞습니다. 절대 하지마세요. 그것 하다가 관절염 걸린 도반들 여럿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공부인줄 아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지도 않는 마음을 내리누르려고 대혜스님이 여기 표현했듯이 **돌로 풀을 짓누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한들 1찰라에 900번 생멸하는 마음이 가만히 있어 지겠습니까?

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실체가 어떻게 되어먹었는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900키로 1000키로를 달리지만 움직이지 아니하는 비행기. 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어디를 봐도 비행기는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비행기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아무리 봐도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옵니까? 아무리 봐도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45분 만에 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치열하게 생멸하는 가운데 정말 생멸하지 않는 이치가 그냥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짓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혜스님이 이야기했잖아요.**돌로 풀을 짓누르는 것과 같아서** 잠깐 생각이 멈추는 듯하지만, 그것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표현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파도치는 데서의 비유라든지 비행기의 비유라든지 ←이것을 우리의 일상 치열하게 생멸하는 가운데서 寂滅(적멸)하는 道理(도리)! 움직이지 아니하는 도리! 그것의 작용과 비 작용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 부산과 서울을 45분 만에 오고가면서도 실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비행기는 안 움직인다고요. 묘한 도리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그 양면을 치우치지 말고 이해해야 됩니다.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도적인 안목! 中道正見(중도정견)입니다. 그 양면을 어디에도 조금도 치우치지 말고 바로 이해해서 수용해서 사는 것. “이것이 왜 움직이느냐?” “왜 안 움직이느냐?”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움직이기도 하고 안 움직이기도 하는 그 양면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 여기에 보면 **큰 강을 휘저어서 우유를 만든다.** 했는데 세상이 확 뒤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보는 안목이 달라져버립니다.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을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경전 성립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한 5~600년경에 성립된 것이 화엄경입니다. 대승경전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최초에 화엄경을 설했다.”그러거든요. 5~600년 뒤에 편찬한 그 사람이, 부처님이 처음에 성도한 그 부처님의 정신세계에다 초점을 맞춰서 결집한 것입니다. 열반경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그 순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결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부처님이 다 설하고 어쩌고, 그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다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어디 석가모니만 부처라고 하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화엄경에 보면 **始成正覺(시성정각)**. 부처님이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其地(기지)가 堅固(견고)하여 金剛所成(금강소성)이라.** 그 땅은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화엄경의 이런 대목을 접하면 그냥 환의심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앉아 있던 자리. 사자좌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로 만들어졌고, 또 보리수 밑에 앉았었잖아요? 보리수도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로 만들어졌고, 화엄경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다가야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자리에 뛰어가 봤지요. 정말 금은보화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나라 땅 보다도 훨씬 척박합니다. 돌 자갈 모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앉았던 사자좌는 돌덩이 하나였어요. 깔고 앉았던 길상초라고 하는 풀도 그 주변에 많이 나는 풀을 그냥 손으로 뜯어서 깔고 앉았는데 화엄경에서 표현하기를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은보화로 되어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깨달음의 내용을 순수하게 추호의 방편도 없이 순수하게 다 털어 내놨다고 하는 화엄경이 거짓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과장이 심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과장도 아닙니다. 뭘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과장이라도 하지요.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한**강을 다 휘저어서 우유를 만들고,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을 만든다.** 이것이 다 화엄경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그 시각에서 볼 때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고 더 값지고, 사실 “다이아몬드다.” “금은보화다.” 이런 표현을 그 당시로서는 최고, 지금도 그렇지요. 최고의 보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깨달음의 안목으로서 세상을 볼 때 사실은 그 보다도 더 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진실이다.” 표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가보니까 금은보화 없더라고요. 또 보리수도 그냥 보통 보리수나무지 금은보화로 되어있지 않았어요. 나무는 나무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나무 아니겠습니까? 금은보화로 되었다면 그것은 금은보화지 나무입니까? 그래서 그 표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실입니다.

그 분의 깨달음의 안목으로 볼 때 세상은 온통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온통 그렇게 보여... 보통 인간의 정으로, 한 인간을 사랑만 해도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부처님같이 정말 왕자의 자리도 벗어 버리고, 온갖 것 인생 다 포기하고 깨달음을 성취한, 그 큰 깨달음으로 세상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화엄경은 아주 정말 멋지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대혜스님도 깨닫고 나서 화엄경을 봤다는 내용이 저기 있었습니다만, 화엄경에 근거를 해서가 아니라 깨달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장 대 강좌 7 - 2 강

**p. 117**

**옛 성인이 이를 일러 다함없는 無盡藏陀羅尼門(무진장다라니문)이다. 또 다함없는 無盡藏神通遊戱門(무진장신통유희문)이다. 또 다함없는 無盡藏如意解脫門(무진장여의해탈문)이다.** 그 깨달음의 경지를 뭐라고,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진장다라니문.무진장신통유희문.무진장여의해탈문.** 이런 식으로 표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어찌 참다운 대장부의 능히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진짜 대장부가 할 일이다 이겁니다. 이것이야 말로 이런데 관심을 갖고, 여기에 눈이 좀 열려야 이것이 참 장부이고, 부처님 법을 만난 인연입니다. **그러나 또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내 마음의 항상 하는 본분일 뿐입니다.** 제가 늘 말씀 드리고 저의 어떤 불교적 사상에서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미 있는 것. 우리 사람 사람들이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기존의 것. 절대 밖에서 찾지 말라. 밖에서 찾아봐야 그것 몇 푼어치 안 된다. 진짜 소중한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본분사라고 합니다.

선의 용어로 “本分事(본분사)”자기 본분의 일입니다. 이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내 마음의 항상 하는 본분일 뿐이다. 원컨대 당신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결단코 이 일을 기약 하십시오. 廓徹大悟(확철대오)하면 가슴속 밝음이 백천 개 日月(일월)과 같아서 시방세계를 한 생각으로 밝게 통달하되 한 털끝도 분별심이 없을 것이니 비로소 구경과 상응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능히 이와 같으면 어찌 단지생사의 길 위에서만 힘을 얻겠습니까? 다른 날에 다시 권력을 잡아서 임금을 요순 지위에 올리기를 손바닥 가리키는 것과 같이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불교는 물론 생사해탈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런 깨달음의 안목을 갖게 되면 정치. 그것도 그냥 간단하다 이겁니다. 정치도 정말 멋지게 잘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 분은 추밀 정도면 상당한 벼슬인 모양입니다. **다시 권력을 잡아서 임금을 요순 지위에 올리기를** 그러니까 충성을 잘하고 재상노릇을 잘해서 임금을, 요임금. 순임금같이 만든다 이겁니다. 깨달음의 안목을 갖고 있으면 그런 능력도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 둘이 아니니까요. 理(이)에만 밝고 事(사)에 어두우면 그것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지요.

대통령이 뭐든 만능인인 것처럼 전부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은 적당이 둔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모든 것을 바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참모를, 정말 사심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참모를 쓰느냐에 관건이 달렸습니다. 오늘 날 세상이 얼마나 다종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혼자서 다 아는 것처럼, 전부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 사심 없이 정직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혼자 다 합니까?

그렇게 할 줄 아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을 아주 聖君(성군)처럼 만들고, 대통령을 아주 정말 멋지고 건사한 대통령으로, 그런 보좌만 할 줄 안다면 정말 건사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보좌가 시원치 않아서... 보좌가 왜 시원치 않으냐? 대통령이 정직하게, 정말 바른 안목을 가지고 사심 없이 사람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맨 날 이것저것 가리고 그저 사심이 개재 되어서 사람을 제대로 못 써서 그런 겁니다.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혼자서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대혜스님도 여기서, 이런 이들은 정치에 상당한 지위에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안목만 갖추면 정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는데도 아주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분사라는 것. 기존의 것이라고 하는 것. 내 자신 속에 이미 갖춰져 있는 것. 그것 외에 달리 다른 것은 아무리 빌고 달고 해봐야 그것이 그렇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얻어진들 몇 푼어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마침 염화실 도서출판에서 작은 임제록이 나왔는데요. 여기 서문에 보면 어떤 신도님이 기도도 남 못지않게 무던히도 많이 하다가‘야~ 이게 아닐 텐데? 이게 아닐 텐데?’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 어느 날, 임제록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제록을 보고는‘아~! 이것이구나!’‘이것이구나!’그것을 서문에다 써 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 겁니다. 그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임제록을 들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보살님이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면, 그 마음에 와 닿는 내용들을 메모해 오세요. ”그랬더니 노트 한 권을 메모해 왔어요. 그래 그것을 그대로 뽑아서 “작은 임제록” 이라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써 놨지만, ‘내가 부처님한테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많이 맡겨 놨기에 내가 그토록 달라고 조르는가? 이것도 조르고 저것도 조르고 자식이 학교 갈 때는 자식이 공부 잘 해달라고 조르고, 남편이 사업할 때는 사업 잘 되라고 조르고, 집안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건강을 달라고 조르고,’수 십년을 조르며 쫓아 다녔는데 어느 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언제 맡겨 놔뒀지? 부처님한테 맡겨 놓지도 않고 이렇게 조르는 이것이 옳은 일인가?’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 탄생한 것이 “작은 임제록” 입니다. 임제록을 보고는 깨달은 겁니다‘아~!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불교구나!’그래서는 환희심에 들떠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다 적어오라니까 그 서툰 글씨로 하나하나 노트를 정성스럽게 써 왔더라고요.“작은 임제록”이 임제록에서 감동받은 대목입니다.

**p. 120  15. 부추밀 계신에게 답함 (3)**

**편지를 보니, ‘처음 조금 고요하게 앉으니 공부가 또한 스스로 아름답다.’고 하며, 또 이르기를 ‘감히 망령되게 고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고요한 것이 참 좋다.”이렇게 하면서도 **‘감히 망령되게 고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 말은 참 모순이 많아요. 대혜스님 같이 날카로운 분에게 걸렸으니...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어떤 사람이 자기 귀를 막고 높은 소리로 크게 부르짖으면서 남이 듣지 못하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령을 훔쳐 가면서 자기 귀를 막고 훔쳐가는 겁니다. 요령은 덜렁덜렁 소리 나니까‘아, 귀를 막으면 안 들리겠다.’싶어서 자기 귀를 막으니 다른 사람은 다 듣는데 자기만 못 듣는 식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봐도 모순이 많은데 대혜스님 눈에 오죽하겠습니까? 비유를 아주 지독하게 해버렸지요? **자기 귀를 막고 높은 소리로 크게 부르짖으면서 남이 듣지 못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너 안 들리지?”“안 들리지?”이러는 겁니다. 하하하

**참으로 이것은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만드는 일일뿐입니다. 만약 생사의 마음을 타파하지 못하면, 일용하는 하루 가운데 어둡고 어리석어서 혼이 흩어지지 않는 죽은 사람과 같게 됩니다.** 여기도 불교가 생사해탈 아닙니까? 그런데 **생사의 마음을 타파한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무슨 물건이 있어야 깨든지 말든지 하지, 깨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파한다. 타파한다** 했으니까 깰 破(파)자를 써 놨으니까요. 생사심이 본래심입니다. 1찰라에 900생멸하는 것이 본래 우리 마음의 속성이라고요. 만약에 마음이 생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마음입니다. 완전히 죽은 마음이라고요. 아무 쓸모없는 마음입니다. 생멸해야 뭘 분별하든지 말도 알아듣고, 사람도 분별하고, 추운지 더운지도 알지요. 만약에 생멸하지 않는다면 그런 분별 못합니다. 목석도 기후를 분별해요. 기후를 분별한다고요. 춥고 더운 것을 분별합니다. 또 공기가 오염 됐는지 청정한지 목석도 분별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럼 뭐냐? **생사심을 타파한다.** 생멸심을 **타파한다**는 그 말이... 생멸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마음이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멸심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아, 죽는 것이 인생이구나!’‘죽는 것이 인생이구나!’←이렇게 알면 끝입니다. 세상에 누구 어느 놈 안 죽은 놈 있나요?‘아, 죽는 것이 인생이구나!’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참 아름답게 단풍 들어서 잘 떨어진다.’안 떨어지면 나무를 차가면서 떨어뜨리면거 거기서 뒤집어쓰면서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현상은 그렇게 잘도 이해를 하고 수용을 잘해요. 낙엽이 안지면 왜 안지나? 하면서요. 낙엽 지는 것은 잘 수용하면서 내 개인의 낙엽 지는 것은 도대체 수용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낙엽 지는 것도 도대체 수용 못하고요. 도대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죽는 것이 인생이다.’생멸하는 것이, 생멸한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다. 생멸하는 이것이 진짜 마음이다. 생멸하지 아니하면, 생멸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마음도 아니다. 목석도 아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생멸심을 타파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아는 것이 생사해탈입니다. 그것이 생사해탈이라고요. 생사해탈 했다는 사람들. 조사스님들. 도통 많이 하신 분들. 다 생사해탈 했습니다. 그렇다고 안 죽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사해탈 했다고 하면서, 결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생사해탈 했다고 하면서 안 죽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사해탈 했다고 하면서 죽습니다.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요. 거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즐기듯이, 즐기듯이 내 인생의 낙엽도 그렇게 즐기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해탈입니다. 그 이상 무슨 해탈이 더 있겠습니까? 안 죽는다. 안 죽는다하니까 이 육신이 천년만년 산 사람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천년만년 산다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부처님도 열반하셨고 달마도 열반하셨고 도인들이 먼저 가신 겁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불교공부 잘못하면 뭔가 잘못 인식이 되어서 이상하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당연히 아셔야 될 일이지만, 정말 이런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생사의 마음을 타파하지 못하면, 다시 무슨 한 가지 공부를 앉아서 고요함을 이해하고 시끄러움을 이해하겠습니까? 열반회상에 廣額(광액)이라는 백정이 칼을 놓고 문득 성불했으니 어찌 이것이 고요한 공부를 하는 데서 나왔겠습니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소를 몇 마리씩 잡고, 이마가 반질반질 하고 아마 대단히 능글맞게 생긴 사람인가 봐요. **廣額(광액)이라는 백정**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칼을 도마 위에다 착 꽂으면서, 제가 아주 본 듯이 얘기하지요?  칼을 착 도마 위에다 꽂으면서 “나도 천불의 일수다.”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천 부처님 가운데 나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석가도 부처라면 나도 부처다.” 여기에 그 분을 불러 놨잖아요? **성불했으니 이 어찌 고요한 공부를 하는 데서 나왔겠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 참선했습니까?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제 고요하게 화두 들고 무슨 끙끙대고 그런 시실이 언제 있었느냐 이겁니다.

치열하게 일상생활 하는 그것이. 열심히 달리는 거기에 보라고요. 움직이지 아니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면서도 목적지에 다 도달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바로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사실이 그대로 도요 불법이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 도니 불법이니 진리니 선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벗어나서는 도대체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증거를 갖다 대놨잖아요. **열반회상에 廣額(광액)이라는 백정이 칼을 놓고 문득 성불했다. 그가 어찌 초심자가 아니겠습니까마는, 당신은 이를 보고 정히 그렇지 않다고 하여** 대개 불교가 조금 머릿속에 끼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모름지기 그릇 생각하기를 ‘그는 옛 부처가 나타난 것이지 지금 사람은 이런 힘이 없다.’ 고 할 것입니다.** 보나마나 아마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소개 받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머리 굴릴 꺼라는 말입니다. 대다수 우리 한국의 불자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생각 뜯어 고치는 것이 가 순위입니다. 앉아있는 참선을 전부 일으켜 세워서 일상생활 속에 뛰어 들게 하는 생활 선으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불교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자꾸 선방에 가서, 선방에 가서 한 번씩 생활하는 것도 이런 이치 알자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 알자고 가는 것이지 앉는 시간 채워서 뭐가 나오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큰 오산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이는 스스로의 훌륭함을 믿지 않고 열등한 사람 되기를 달게 여기는 것입니다.** 초학자니 만학이니 이것이 없습니다. 구참이다. 초학이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교에 입문한지 여러 해 되었으면 구참 이라고 하고, 오늘 왔으면 초학자라고 하는 말이야 있겠지만,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된 구참 이라고 해서 불교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승복을 입고 프로의 입장에 들어가서 프로라고 불교를 공부해도 불교 아는 사람 솔직하게 잘 없습니다. 이것은 외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외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참이나 초학이나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양대학에서 보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하는데 그것도 너무 세속적인 어떤 기술을 배우는 문제라든지 또는 세속학문을 공부하는데다 맞추어서 그런 것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부터 깨야 됩니다. 그것 깨면서 진정한 불교를 이해시키는 길이 됩니다. 그것 깨면 하나의 길이 됩니다. 첫째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니까요. “이것은 초급이니까 초급반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초급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라는 것이 정말 진실한 불교에, 순수 불교에, 정법 불교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세속의 기준에다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문중에서는 初學(초학)과 晩學(만학)을 논하지 않고, 또한 오래 참구한 것과 먼저 들어온 것도 묻지 않습니다. 만약 참으로 고요하기를 구한다면 모름지기 생사의 마음을 타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사의 마음을 타파한다.** 표현을 타파로 해 놨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설명 했듯이 1찰라에 900생멸하는 그런 생사심이 그대로 마음이다. 우리가 찾고자하는 그 마음이다. 마음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파도가 겁나게 친다 해도 그대로 물입니다. 겁나게 치는 파도가 물이라고요. 900키로로 달리면서도 비행기는 가만히 있다니까요. 말로는 모순이 되지요. 말로는 모순이 되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결은 그렇게 심하게 치지만 물은 그대로입니다. 어제 물이나 오늘 물이나 수만 번 어제 물결친 그 물도 똑 같습니다. 다시 수만 번을 쳐도 그 물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곧 물이다”우리 일상생활에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대로 도다. 그대로 불법이다. 그래서 **一切法(일체법)이 皆是佛法(개시불법)!** 우리 불교의 제1 교과서. 소위 所依經典(소의경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금강경은 만인의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 믿으라는 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금강경은 어떤 특정 종교의 신앙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 인류의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옛날부터 합니다.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큰 법이 탐 진 치.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 ←이것이 일체법 중에 제일 큰 법입니다. 그리고 108번뇌. 8만4천 번뇌 모두가 일체법입니다.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라고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달달 외우고 수십 번 사경하고, 어디가도 강의 듣고, 불자가 된지 10년 20년 된 분들은 금강경 강의를 아마 10번은 더 들었을 겁니다. 어디 49재에 참석해서 읽은 것만 해도 수십 번. 100번을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 속에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다.** 일체 법 중에 제일 큰 법이 탐 진 치인데, 그것이 그대로 불법이라니까요. 탐 진 치 빼버리고 인간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탐 진 치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 아무데나 가서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ㅎㅎㅎ

대개 일반불교에서는 탐 진 치를 제발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하고, 그것을 떨쳐 내야 된다. 번뇌를 떨쳐 내야 된다고 하지요. 우리 선불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대승불교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금강경만 하더라도 금강경은 大乘始敎(대승시교)입니다. 대승시교위에 頓敎(돈교). 圓敎(원교)가 있습니다. 一乘圓敎(일승원교)는 저 위에 있습니다. 경전을 좌판 할 때 금강경은 중간에 있잖아요. 아함12. 방등8. 21째 담반야.→ 아함부경 12년 설 하고, 방등부8년 설 하고, 그리고 21년간 반야부 경전을 설 하고, 그 다음에 법화열반을 다시 8년간 설 하고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간 정도 수준인데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중간 정도 수준인데도요.

그러면 법화경. 화엄경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잖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그야말로 탁 다 들어내서 깨우쳐주는 운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참 좋은 불교를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생사의 마음이 타파한다**는 이 말은, 치열하게 파도치는 그 물결이 = 生死性(생사성) = ‘이것이 그대로 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 타파는 무슨 뭘 깨뜨리나요? 컵이라면 던져 버리면 깨지지요. 마음은 그렇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깨지지요. 이런 사실을 확연히 아는 것이 간화선의 제1 지침서인 『서장』아닙니까?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생사의 마음이 타파되면 저절로 고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내 마음이구나!’←이래 버리면 더 이상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고, 잠재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져버립니다. 필요가 없어져버린다고요. 물결은 출렁거리면 출렁거릴수록 보기 좋은 겁니다. 출렁거릴수록 보기 좋다니까요.

아주 치열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수용이 되는 것이지요. 야~ 이것 참 대단한 것입니다. “탐 진 치 삼독이 그대로 불법이다.”꼭 기억하세요. 그것 빼고 우리 인생은 없습니다. **옛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적정의 방편이 정히 이런 것인데** 이것이 좌선해라. 뭐 해라. 고요해라. 고요해라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인데’이 말입니다. **스스로 이 말세의 그릇된 무리들[邪師輩]은 옛 성인의 方便說(방편설)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마음을 어디 화두에다 집중 시켜라. 뭘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는 것은 하나의 방편설입니다.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들은,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6조스님 같이 재수 ㅎㅎㅎ 좋은 사람들은 불교 佛자도 모르고, 나무 팔러 갔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 척 그냥 끝내 버리고요.

3조 승찬대사도 40중반까지 문둥병을 앓다가 어디서 도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도사한테 가면 혹시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까 싶어서 2조 혜가스님을 찾아가서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몹쓸 병을 앓게 됩니까? 저로 하여금 참회하고, 제가 죄라고 생각해서 이런 병을 앓으니까 병보다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몹쓸 병을 앓는가 하는 이 사실이 저는 더 짐이 됩니다. 스님께 참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혜가스님이 “그대가 그렇게 죄업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이 천근만근 무게로 죄업이라는 것을 의식 속에 가지고 끙끙대고 사니까 그 죄업을 나에게 보여 다오. 그러면 내가 참회시켜 주든지 씻어주든지 쪼개주든지 깨주든지 알아서 하겠다.”

그 고마운 말씀에 그 토록 자기 자신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죄업의 무게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한 시간이 흐르고 두 시간이 흐르고, 몸에서는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그래도 도저히 찾아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항복하고 “저를 그 토록 짓누르는 죄업인데도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네가 찾을 길이 없는 것이라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확실하게 있다면 왜 못 찾겠나? 없으니까 못 찾는 것이 아니냐?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어디 두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말 한 마디에 그만 시원해져 버렸습니다. 安心法門(안심법문). 마음이 편안해져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 다 끝나 버렸습니다. 부처 佛자 알고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천수경 외우고 반야심경 외워서 깨달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것 전혀 모르고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초심자니 구참이니 이런 불교에 오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최소한도 선불교에 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것이 최고급 불교지요. 저~기 딴 불교에 가면 탐 진 치를 어떻게 하더라도 씻어내고, 참회해서 덜어내라고 하지요. 여기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탐 진 치.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것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 없는 곳에 무슨 도니 불법이니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교에서도, 道不可須臾離也(도불가수유리야)라. 道라는 것은 한 순간도 내 자신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떠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런 모든 것들의 일체가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장 대 강좌 7-3 강

**적정의 방편.** “좌선 방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나왔고 “간화선”하는 데는 아주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狗子無佛性(구자무불성)화두를 대혜스님이 부추밀 계신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p. 121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시험 삼아 시끄러운 곳을 향하여 ‘개가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參究(참구)할 일이지 깨닫고 깨닫지 못함을 말하지 마십시오. 정히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 넌지시 참구해 보십시오. 도리어 고요함을 압니까? 도리어 힘 얻음을 압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구자무불성화두를 이 분이 일찍이 소개를 받았는데, 그 화두를 한번 들어보라. 이것이 제1 방편이지요. 간화선에서는 화두 드는 것이 방편입니다. 온갖 방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화두 들고 공부하는 것을 제1 방편으로 삼습니다. **만약 힘 얻음을 알았거든 문득 모름지기 놓아 버리지 말고, 고요히 앉을 때는 다만 한 개의 향을 피우고 고요히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혜스님도 앉고 싶으면 앉아서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앉을 때에 요컨대 昏沈(혼침) 하지 말며, 또한 掉擧(도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침은 그대로 졸음이 오는 것이고, 도거라는 것은 자꾸 들고 일어나는 것이니까 망상입니다.망상이라는 것은 자꾸 생각이 무조건 들어와서 들고 일어나거든요. “생각이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흔들 掉자. 들 擧자를 씁니다. 이것이 망상입니다. 대개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실컷 졸다가 깨면 망상하고, 망상 어지간히 했다 싶으면 그때부터 또 졸고요. 그러다 보면 방선죽비 치고요. 하하하 참 하하하 웃으시는 것 보니까 많이 해보신 것 같네요. 공부 많이 해보신 모양입니다.

**혼침과 도거는 옛 성인이 꾸짖은 것입니다. 조용히 앉았을 때 이 두 가지 병이 앞에 나타난 것을 알았거든 단지 ‘개가 불성이 없다’는 화두만 드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병은 힘써 물리치지 않아도 당장에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지면 조금 힘 덜림을 아는 것이 문득 힘을 얻는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요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다만 이것이 곧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두를 들어서 결국 그 길로 어떤 경지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대개 動中一如(동중일여). 열심히 치열하게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일여 되고, 夢中一如(몽중일여). 꿈 가운데서도 한결 같아야 되고, 寤寐一如(오매일여)라는 최고의 경지에서 화두를 들면 가능하긴 합니다. 전번에 제가 그랬지요? 10억짜리 수표를 금방 옷 갈아입는다고 책상위에 얹어놓고 잠깐 옷을 갈아입고 돌아봤는데 없다 이겁니다. 아무도 문 열고 들어온 사람도 없어요. 바람도 안 불었어요. 그 방에는 쥐도 고양이도 없어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지요. 그것이 출근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무너진들 아랑곳 하겠습니까? 10억짜리 수표가 금방 사라졌는데 대통령이 어느 놈이 되든지 그것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앞뒤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前後際斷(전후제단)입니다. 이쯤 화두가 딱 집중이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조사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모기가 무쇠로 만든 소. 그러니까 무쇠를 녹여서 소를 만들었는데 그 소를 모기가 뚫고 무쇠소 속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치도 않은 일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화두를 드는데 **‘개가 불성이 없다’** 왜 없을까? 있는 것도 모르는데 없다는데 의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깨놓고 이야기하자고요. 있는 것도 모르는데 없다는 말이... 이것이 있을 때 없다고 해야 의심이 되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10억짜리 금방 잃어버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숨도 멎어버리고 시간도 멎어버리고, 온갖 것이 다 올 스톱되어 버린 의식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말입니다. 불성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없다는 말이 어떻게 의심이 그렇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모기가 쇠 철판을 뚫는 것과 똑 같다니까요. 예인선이나 가서 들이박으면 깨져서 뚫려질까 모기부리 지가 아무리 세다한들 손으로 밀어버리면 그냥 가루가 되어 버려요. 그냥 가루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연약한 모기부리가 어떻게 쇠 철판을 뚫겠습니까? 고봉스님 선요에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80먹은 늙은이가 아주 급하게 흐르는 물길을 배를 몰고 올라가는데, 노가 아니고 삿대질로 올라가는 겁니다. 삿대는 바닥에 버티면서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중국에 가면 아주 작은 여울을 배로 건널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건넙니다. ‘1미터를 올라가니까 10 미터를 내려오고, 1미터를 올라가니까 10 미터를 내려오는 격이다.’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화두를 들고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말입니다. 선요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선요는 간화선 제2 지침서입니다. 제1 지침서는 이 서장이고요. 80먹은 늙은이가 거센 물길을 삿대질로 배를 끌어 올리는데, 1미터 올라가면 10 미터 내려오고, 1미터 올라가면 10 미터 내려오는 이것은 공부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아니하면 차라리 제자리에 있는데요. ㅎㅎㅎ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전부 밟은 뒤에 설정한 그 목표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공연히 공부를 설정해놓고 계속 그렇게만 밀어붙인다면 한 사람도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일을 마쳤다는 소문이 한 번도 안 들려요. 일을 그렇게 하기로 하면 안 된다고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돼요. 선요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놨습니다. 모기가 우리 손으로 비벼도 없어져버리는 부리로 쇠 철판을 뚫는 격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래도 이 방식이 송나라, 지금부터 8 ~ 900년 전에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정신 집중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신심이 지극하니까요. 수표 10억짜리 잃어버린 것은 별로 궁금해 하진 않아도, **‘개가 불성이 없다’**는 것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궁금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가 불성이 없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 대로 다 드러내놓고,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려서라도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공부에 대한 재정립을...

정말 사심 없이, 자기의 주관 다 빼버리고, 어떤 자존심이니 我相(아상)이니 그런 것 다 빼버리고, 정말 진지하게 다 깨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지해봤자 그까짓 것 별거 아닙니다. 그것은 엇잡히 속인 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제쳐놓고, 정말 공부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 불법이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불법이 아니니까요. 진짜 불법 문제만 가지고 진지하게 몇 년이 걸리든지 밤새워서 이야기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메아리가 어디까지 울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p. 126**의 밑에 단락은 이참정하고의 이야기이고, 결국은 이 분들이 이참정하고도 아니까 공부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 써 놨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p. 125. 16. 이참정 한노에게 답하는 별도의 편지.** 이것도 이참정에게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당신에게 부추밀이 연락이 오거든 이렇게 저렇게 지도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볼 필요가 없고,

**p. 126. 그 분과 더불어 만나거든 시험 삼아 그에게 답한 갈등을 한번 보고 그것으로서 방편을 써서 이 사람을 구하십시오.** 이 보십시오.이참정 하고는 지금 일이 끝났는데 부추밀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참정에게 간접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四攝法(사섭법) 가운데 同事攝(동사섭)을 최고로 여깁니다.** 사섭법이 불교의 기본입니다. 布施攝(보시섭). 愛語攝(애어섭). 利行攝(이행섭). 同事攝(동사섭). 사람을 제도하고 끌어들이는 데는 4가지 섭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시: 자꾸 주면, 이 세상에 주어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하하 주어서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뭐든지 줘요. 어디 절에 데려가려거든 차비 다 내주고, 회비도 대신 다 내주고, 인등회비 까지 다 내주고, 법당에 불전도 대신 내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 감동해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당 현종하고 아주 유명한 재상하고 왕비하고 세 사람이, 국가에도 아무 일이 없고 정치가 아주 잘 돌아갈 때 편안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놨는데, 우리 인간으로 돌아가서 정말 솔직한 이야기 한 마디씩 합시다.”그랬습니다. 왕은 그야말로 普天之下(보천지하)가 莫非王土(막비왕토). 온 천하가 왕의 국토 아닌 것이 없고, 전부 왕의 물건 아닌 것이 없고, 왕의 백성 아닌 것이 없고, 왕의 신하 아닌 것이 없어요. 옛날에 군주 국가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든지 필요하다면 말 한 마디만 하면, 좀 웃기는 이야기로는 TV에 손가락으로 리모콘만 척 하면 나오는 식으로 왕이 말만 한 마디하면, 척 하면 뭐든지 다 듣는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는 소리가 전부 내 것이고 내가 뭐든지 필요하다면 다 금방 갖다 주지만, 저~ 시골 노인이 고구마를 캐서 다 떨어진 보자기에 싸서 들고 와서는 왕에게 “우리나라에서 난 토산품 인데 참 좋은 것입니다.”하고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예쁘더라는 겁니다. 왕이 무슨 고구마를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정성을 들여서 들고 와서 주는 그 사람이 예쁘더라는 겁니다. 천하가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갖다 주는 그 사람이 예쁘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참 정말 진실한 이야기를 했지요. 왕으로서 무슨 체면 세우는 이야기입니까? 체면 다 떼놓고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요. 마저이야기할까요

재상이라면 위로 왕 하나뿐이잖아요? “이 세상에 왕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내가 다 알아서하지만, 가끔 한 번씩 왕의 자리가 넘겨다봐집니다.” 옛날에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나갔다면 완전히 그냥 반정음모입니다.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왕의 자리가 한 번씩 넘겨다봐진다.” 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진실 합니까? 왕비는 “내가 얼마나 허망하게 사느냐?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과거 급제한 젊은 선비가 과거 급제해서 멋지게 차려입고 국가에서 주는 어사화를 쓰고 왕과 왕비한테 와서 장원급제 했다고 인사를 척 드릴 때는 왕이고 뭐고 눈에 하나도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역사에 그런 기록이 다 있어요.

요컨대 보시섭 이야기 하다가... 절에 데리고 다니며 회비도 내주고, 차비 내주고, 책도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한가하게 이야기 할 때가 아닌데... 어쨌든 애어: 사랑스러운 말. 이행: 그 사람에게 이롭게만 하는 겁니다. 뭐든지 이롭게만 하는 겁니다. 보시와 이행은 다릅니다. 비슷하면서 달라요. 동사: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같이 놀아주다가 ‘완전히 나 하고 같은 수준이다.’ 믿어질 때, 그때 슬슬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그랬어요.

‘**동사섭이 최고다.**’ **당신이 마땅히 이 법문을 크게 열어서 그로 하여금 믿어 들어가게 하면 저의 힘을 반을 덜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굳게 믿고 즐거이 옛 소굴을 떠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추밀을 말하자면 제도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동사섭을 해주면 **내 힘을 반을 덜어준다.** 그랬습니다. 한 개 반개 이런 말이 아니고, **내 힘을 반을 덜어준다.** 안 그렇겠어요. 대혜스님이 계속 편지를 해서 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면 반은 덜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생각하는 일은, 정법 선양운동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알 만치 알고 정말 깨어있을 만치 깨어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런데 정법은 어디가 버리고 잘 없습니다. 정법을 좀 선양해야 되는데 정법을 선양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책이라도 나오면, 복사해 가라고 제가 붙여 놨습니다. 이것은 아주 한국 출판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책을 복제 복사하기를 환영합니다. 널리 법공양 하시면 공덕이 무량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세계 출판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부 큰 스님 이름 걸고 뭐 하는, 구체적으로 이름은 못 대겠지만 “판권소유” 그러면 판권은 뭐가 판권이냐? 그리고 “무단 복제엄금” 책 보세요. 전부 그렇게 해놨습니다. 복제해서 좀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속 좁게 한다니까요. 아니, 속인들이 하는 것은 제가 말 아니합니다.그것은 이해가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절 집안에서 큰 스님 법문. 부처님 법문을 널리 편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단 복제엄금”이 뭐냐고요. 이렇게 통탄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 것입니다. 야~ 이거 한 번 더 읽어 봐야 돼요. ←작은 임제록. 저의 힘을 반을 덜었습니다.박수 치신 분들은 일 좀 하셔야 됩니다. 무단 복제해서 널리 펴십시오. 제가 쓴 책인데도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일 뒷장 넘겨볼래요? 작은 임제록. 132쪽.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부처란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삼승과 오승과 원능교의 자취마저도 모두다 그 때 그때의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지 고정된 실다운 법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로 표현하는 길거리의 광고 게시판이다. 문자를 알맞게 배열해 놓은 것이다.

임시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본 것일 뿐이다. 그 밑에 강설이 건사해요. 굴림체로 쓴 것은 임제록 원문이고요. 불교에는 입만 열면 부처님 보살님 성문 연각 아라한 도인 선지식 큰스님 10신 10주 10행 10회향 10지 등각 묘각 등등 별의별 명칭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경전만 펼치면 그러한 명칭들이 있다. 그러나 부처니 보살이니 하는 말도 모두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표현하는 말에 불과하다. 병에 따라 시설하는 약 방문일 뿐이다. 혹은 길거리에 내걸린 광고문에 불과하다. 만일 실제로 있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오직 사람이 있을 뿐이다. 사람 하나를 두고 별의별 이름을 다 붙인 것이다. 진정 부처를 좋아하는가? 부처란 다만 부처를 좋아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

캬~~ 기가 막히네요.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가 여기의 대혜스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태고 보우스님으로부터 일체 도인들이 전부 임제스님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전부 “임제 몇 대손이다.” 하지, “석가모니 몇 대손이다.”아니합니다. 그래봐야 명함 별로 빛이 안 납니다.  “임제 몇 대손이다.” 해야 빛이 납니다. 임제스님은 이런 분이라고요. 정말 파격적이고 기가 막힌 그야말로 부처님의 심장을 그대로 和盤托出(화반탁출). 다 꺼내서 세상에 펼쳐 보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임제라고요. 부처님의 심장과 간을 그냥 끌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뜨끈뜨끈한 심장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그런 임제입니다. 그래서 전부 임제 몇 대손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몇 대손이라고 안 한다고요.

사찰에 가시거든 비석들 한 번 보세요. “임제 몇 대손”이렇게 해놨습니다. 부처님 몇 대손이라고 안했습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임제에 대해서 전부 그렇다니까요.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速還娑婆(속환사바). 빨리 사바세계로 다시 오셔서 臨濟門中(임제문중) 永作人天之眼目(영작인천지안목). 임제문중에서 길이 인천의 인목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신도들 축원하고 달라요. 스님들도 좀 꼬롬한데가 있어요. ㅎㅎㅎ 신도들은 극락 잘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스님들은 사바세계로 다시 오시라고 그러고...

서장 대 강좌 7 - 4 강.

**p. 128. 17. 진소경 계임에게 답함 (1)**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이지요? 대통령도 결정 났겠다 천천히 합시다. **소경**이라고 해서 대기시. 구시. 구사라고도 하는데 경이라는 벼슬이 상당히 높은 벼슬입니다. 지금 국장쯤. 국장이면 장관 바로 밑이지요. 국장쯤 될까? 어쨌든 그런 정도의 벼슬입니다. **편지를 받아 보니 이 일대사인연에 뜻을 두고자 했으나 근성이 지극히 둔하다고 하니 만약 이와 같다면 마땅히 당신을 위하여 축하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둔하다 영리하다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대부가 많이 이 일에 있어서 백 가지를 통달하고 천 가지를 알아서, 바로 뚫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만 근성이 너무 영리하며, 견해가 너무 많아서, 종사가 겨우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보면 단번에 짐작해 알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영리한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도리어 둔한 사람이 잘못된 지식과 생각이 없어서 문득 一機一境(일기일경)위에 一言一句(일언일구)아래서 바로 깨닫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정말 둔한 사람은 한 마디 척 하면 아무 딴 생각이 없으니까 그대로 팍 계합해 버립니다. 꽃을 척 주면 빙긋이 웃을 줄 압니다. 그것이 **一機一境上**입니다. **一言一句下**에 **범소유상개시허망**하면 척 그냥 알아듣는 겁니다. **응무소주이생기심**하면 척 알아듣고요. 그런데 너무 영리한 사람. 그것이 불교에서 “聞法八難(문법팔난)”이라. 법문을 제대로 듣고 깨닫기 어려운 8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8가지 어려움 중에 세지변총(世智辯聰) 이라 해서 총명한 것을 둡니다. 머리 잘 굴리는 사람.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전부 계산이 다 나와 버립니다. 전부 계산이 다 나와 버리기 때문에 진지하게 불법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一言一句(일언일구)아래서 바로 깨닫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문득 달마대사가 나타나서 백 가지 신통을 다 보이더라도 그를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달마대사가 아니라 달마대사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머리 총명한 사람. 머리 너무 영리한 사람.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겁니다. **다만 그런 도리에 장애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성이 예리한 사람은 도리어 예리한 근성의 장애를 입어, 능히 문득 꺾지 못하며, 파파하지 못합니다. 가령 총명함과 알음알이 위에서 배워 얻더라도 자기 本分事(본분사) 위에서는 더욱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 좋은 법문이 소개 됩니다.

**p. 129**

**그런 까닭에 남전 화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선사는 매우 많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찾아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선사는 많은데 어리석은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이겁니다. 다 영리하고요. **장경 화상이 말하기를** 이것 참 중요한 법문입니다. 장경스님의 법문이 아주 좋아서 길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염두에 둘 것은 본래의 부처를 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 본래 부처의 공능.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할 줄 아는, 임제스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임제록에서는 無位眞人(무위진인)이라고 했습니다. 차별 없는 참 사람의 空能(공능). ←여기에 대해서 **장경화상** 이라는 분이 쭉 말씀하시는 것을 대혜스님이 인용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법문입니다.

**“지극한 이치는 말을 떠나 있는데, 요즈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저 일을 억지로 익혀 공덕과 능력으로 삼아서 자성이 원래 티끌 경계가 아니고 미묘하고 위대한 해탈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가지고 있는 보고 느끼는 작용은 오염되지도 않고 장애되지도 아니하며, 이와 같이 밝은 빛은 일찍이 쉬어 없어진 적이 없었다.** 우리 본래심. 본래 부처의 공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옛적부터 지금까지 진실로 변하여 바뀌지 아니함은 태양이 멀고 가까운 곳을 비추어 비록 여러 물건에 미치지만 일체 대상과 화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신령한 빛과 묘한 밝음은 단련함을 빌리지 않는다. 통달하지 못하여 物象(물상)에 집착하는 것은 다만 눈을 눌러 비벼서 망령되게 허공 꽃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이것도 공연히 망상을 일으켜서 본래 없는 하늘에 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허공 꽃이라고 그럽니다. 空華(공화). 空華難墜(공화난추)라. 한 생각 잘못 돼버리니까 없는 부처니 중생이니 다 헛말이거든요. 헛말. 허환이 아닙니다. 부처다. 중생이다. 성인이다. 범부다하는 것은 虛相(허상)은 아닙니다. 허상은 그래도 상당히 봐주는 소리입니다. 헛말입니다. 말이 벌써 잘못된 말이다 이 말입니다. 허상은 아예 없습니다. 허상은 상이라도 있어야 허상이라고 하지요. 그것마저 없고, 말이 처음부터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그 임제록에서 소개해 드린 그 내용하고 똑 같은 것이지요. 이것이 헛말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부처나 중생이 있다면, 굳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눈을 눌러 비벼서** 허공에 꽃이 없는데 괜히 꽃이 쑥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다. **다만 스스로 피로해서 그릇 여러 겁의 긴 세월을 보내지만 만약 능히 돌이켜 비추어 보면 둘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 사람. 그러니까 “본래 그 사람이다.”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상을 이지러뜨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상을 이지러뜨리지 않는다.” 앞에서 물과 물결 이야기 했듯이 ←(7-2강)물결은 일상생활이고 물은 실상입니다. 전단향나무로 불상을 조각 해놓으면 불상은 물결이고, 또 우리 일상생활이고, 그 전단향기는 실상입니다. 진리의 세계라고요. 그런데 불상 말고 따로 전단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코끼리나 돼지나 동물을 조각 해놔도 똑 같이 전단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貪嗔(탐진). 邪見(사견). 다 탐욕도 부리고, 분노도 하고, 어리석음도 있고 탐진치 삼독 아니라 8만4천 번뇌를 우리가 부린다 하더라도 그 부리는 하나하나의 편편이 전단향나무 조각이니 전단향기가 납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실상 그대로라고요. 實相(실상)의 한 片(편)입니다. 동물 조각 해놓으면 우리는 “에~이, 동물”이라고 그러지 전단향으로 보질 못한다니까요. 전단향으로 봐야지 동물로 보는 겁니다. 똥을 말려서 불상을 해놓으면 불상이라고 껌뻑 넘어가는 겁니다. 똥을 말려서 불상을 조각 해놨다면 이것이 될 소리입니까? 전단향으로 동물을 조각 해놔도 그것이 전단향인 줄 알아야 옳다 이겁니다. 우리가 탐욕. 진심. 어리석음. 8만4천 번뇌를 부려도 그 外相(외상)을 보지 말고, 實體(실체)를 보라 이겁니다. 물결을 보지 말고, 물을 보라이겁니다. 전단향나무의 비유. 물결의 비유. 금의 비유. 금도 마찬 가지입니다. 금으로 무엇을 조각 해놔도 그냥 금입니다. 불상을 조각 해놨다고 해서 좋은 금이 아니고, 칼을 만들어 놨다 해도 금은 금입니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상생활에서 실상을 이지러뜨리지 않는다.”** 이 말이 그 말. 아주 좋은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사람밖에 달리 다른 사람 없다. 지금 見聞覺知(견문각지) 하는 이 사람 외에 달리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아셔야 됩니다.

**그대는 스스로 둔한 사람이라고 이르니 시험 삼아 이와 같이 돌이켜 비추어 보십시오. 능히 둔함을 아는 사람은 도리어 둔합니까?** ‘내가 둔하다.’라고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이고 내가 둔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도리어 둔 한가? 영리한가? 이 말입니다. 둔한 것도 아니고 영리한 것도 아닙니다. 괜히 둔하다. 영리하다 갖다 붙이지 말라 이것이지요. **만약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보지 않고 다만 둔함을 지켜서 다시 번뇌를 낸다면 이는 허깨비와 망상 위에 거듭 허깨비와 망상을 더하는 것이며, 허공 꽃 위에 다시 허공 꽃을 더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 덧붙이면 머리위에다 다시 머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괴상망측한 사람이지요. 머리가 두 개가 있다면, 머리가 이 층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괴상망측한 사람이지요. 이야기할 것 다 해놨지 않습니까? 자세히 뜯어보십시오. 정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놓은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묵조선을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둔하고 영리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묵조선을 비판한 내용이 있고, 132쪽에 밑에서 세 째 줄. 앞에서 잔뜩 비판을 해 놓고는 **제가 구업을 아끼지 않고 힘써 이런 폐단을 구제하니,** 대혜스님은 있는 것 다 끌어 붓는 겁니다. 불교가 잘못되는데 대해서 그냥 참고 볼 수가 없는 이것이 보살의 자비입니다. 있는 것 다 끌어 붓는 겁니다.입에 거품을 몰고 욕을 하고, 이것이 보살의 자비라니까요. 그것 알아야 돼요. “도인이 아무리 묵조선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열을 내고 비판할 것 뭐 있느냐? 점잖지 못하게,” 그것은 저기 선비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뒷집에 점잖은 어른이나 하는 짓입니다.

禪師(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사는 점잖다 어떻다하는 그런 기준에서 벌써 벗어났기 때문에 正法(정법)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구업을 아끼지 않고** 무슨 口業(구업) 짓는다. 어쩐다. 이것이 일반 불교에서는 구업 지으면 안 되지요. 정 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해야지요. 지금 이것은 선불교라고요. 최고급 불교입니다. 그래서 대혜스님도 그래요. **제가 구업을 아끼지 않고 힘써 이런 폐단을 구제하니, 이제 그릇됨을 아는 사람이 차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법으로 얼른, “정법구현” “정법구현” 간혹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정법 필요합니다. **범소유상개시허망**이라고 하면서 뭐 그냥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불상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놓고, 아침저녁으로 예불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얼토당토 않는 바위에 관세음보살이 파도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누워계신다는 식으로 사기 치는 것이 비일비재하니까요. 이것 좀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말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TV에서도 그런 광고 다 해주고, 방영 다 해줍니다. 야~ 참 문제입니다. 문제요. 그것은 무당보다도 더 못하지요. 자꾸 그런 것을 여러 사람한테 선전을 하니까 ‘아 저것이 불교인가 보다.’ 아무리 봐도 관세음보살 100분의1도 안 닮았는데 그것을 억지로 그림을 갖다 붙입니다. **범소유상개시허망**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법당에다 불상을 해서 모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거기서 마음을 가다듬고 또 초심자들에게 또는 초보자들에게, 방편을 쓰는 데는 그 보다 더 좋은 방편이 없습니다. 見物生心(견물생심)이니까요. 相見衆生(상견중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양을 봐야 마음이 나는 중생입니다.

그러나 지금쯤은,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뭔가 좀 이제 알만치 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제대로 좀 깨우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좀 정말 제대로 된 불교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정법선양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법선양 운동을 참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도, 그 당시 불교에 관심 있는 것 까지는 좋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는데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엉뚱한데 빠져 있어서 문제입니다. 대혜스님도 그것입니다. 엉뚱한데 빠져 있으니까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구업을 아끼지 않고 힘써 이런 폐단을 힘써 구제했다** 고 그럽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구제해야 된다.’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컨대 당신은 다만 의정이 타파되지 못한 곳을 향하여 참구하되 行住坐臥(행주좌와) 시에 항상 놓아 버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狗子無佛性(구자무불성)화두를 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p. 134**

여기도 아주 좋은 법문이 있어서 도저히 이것을 생략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주세영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편지로 雲庵眞淨(운암진정) 화상에게 말하기를 “佛法(불법)이 지극히 오묘하니, 일상에 어떻게 마음을 쓰며 어떻게 몸소 참구[體究]해야 합니까? 바라건대 자비로 지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진정 화상이 말하기를** 여기서부터입니다. **불법은 지극히 오묘하여 둘이 없다.** 不二法門(불이법문) 아시지요? **다만 오묘한 데에 이르면 둘이 없다.** 오늘 저녁 계속 말씀드린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니다. 금과 금불상이 둘이 아니다. 전단향기와 전단나무로 조각한 조각상이 둘이 아니다. 무슨 조각을 해놨던지 상관없다. 우리의 치열하게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도가 둘이 아니다. 오늘 저녁 계속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불법은 지극히 오묘하여 둘이 없다. 다만 오묘한 데에 이르지 않으면 서로 長短(장단)이 있겠지만,** 그 **오묘한 데**라는 것이 바로 그 둘이 아닌 도리. 둘이 아닌 것을 이해하는 그 도리입니다. 본래 둘이 아니지요. 그런데 둘로 보는 것이지요. **진실로 오묘한 데에 이르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마음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마음이 착한 것만 마음입니까? 악한 것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不思善不思惡(불사선불사악)하라. 선악에 떨어지지 말라 이겁니다. **如實(여실)히 스스로의 마음이 구경으로서** 마음이 최고다 이겁니다. 제일 으뜸이다. **본래 부처다. 여실히 자재다. 여실히 안락하며, 여실히 해탈이다.** 그대로 이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구경이고, 마음이 자재이고, 마음이 안락이고, 마음이 해탈이다. 그대로 청정이다. **여실히 청정함을 알아서 일상에 오직 자기 마음을 쓰며, 자기 마음의 변화를 잡아서 쓸지언정, 옳고 그름을 묻지 말라.** 옳고 그름을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이다. 악이다도 묻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일반불교는요? 그 선과 악을 나누고, 어떤 진실과 방편을 나누고, 진심과 망심을 나누고, ←이런 차원입니다.

**마음을 분별하여 생각하면 일찍이 옳지 않다. 마음을 분별하지 않으면 낱낱이 천진이며,**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도 물이요. 물결치는 물도 물이요. 고요한 물도 물이요.금으로 무엇을 조각해 놨던지 전부 금입니다. **낱낱이 밝고 오묘하다. 낱낱이 연꽃에 물이 묻지 않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청정하여 저것[是非]을 초월한다. 자기 마음을 미혹한 까닭에 중생이 되고, 자기 마음을 깨달은 까닭에 부처가 되니,** 사실은 “부처라고 부른다”하는 것이 좋겠지요. 되기는 무엇이 됩니까? 그냥 그 사람을 부르는 식이지요.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는 겁니다.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많이 들어온 소리지요? 물이 곧 물결이요, 물결이 곧 물이다. **미혹함과 깨달음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있다.** 부처와 중생이 있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많이 자기 마음을 믿지 아니한다. 자기 마음을 깨닫지 않고, 자기 마음의 밝고 오묘한 수용을 터득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의 안락한 해탈을 터득하지 못하고, 마음 밖에 망령되게 禪道(선도)가 있다고 하여** 참선이 있다고 해서 **망령되이 기특함을 세운다. 망령되게 가지고 버리는** 부처를 가지고 중생을 버리는 **마음을 내니, 비록 수행하더라도 外道二乘(외도이승)의 고요한 斷見(단견)에 떨어지게 된다.**

**이른바 수행을 함에 단견과 상견에 떨어질까 염려스럽다.** 이것이 영가 증도가에 있는 얘기지요? **단견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의 본래 오묘하고 밝은 성품을 없애고 한결같이 마음 밖의 공에 집착하여 고요한데 걸린다.** 공만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空만. 그것이 단견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아예 딱 ‘없다’ 고 생각하는 것을 斷(단)이라고 합니다. 斷見(단견) =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 마음의 본래 오묘하고 밝은 성품을 없애버리면 안 되지요? 그~ 향기. 전단나무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향기를 우리가 인정해야지요. 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요한데 걸린다. 常見(상견)을 가진 사람은** 반대지요. **일체의 법이 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유위법에 집착하여 구경을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위법에” 그러니까 지금 일상생활을 살아오면서 어떤 가치관을 설정해 놓고 살아온 그것을 그대로 바꾸지도 못하고, 거기서 한 걸음 전진도 없이 그냥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겁니다.영원하리라고 머릿속에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미 이것은 나를 지탱해주고 붙잡아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뿐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목을 매고 사는 겁니다. 절대 계산하고 그러지는 아니합니다. 이것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저 유위법. 금방 허망해서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불자들이 하는 소리지요. 본래 그런 의식도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매달려서 목을 매고 사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목을 맨다고 영원히 있어지면 좋지요. 목을 안 맬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 객관적으로 보면 뻔히 보입니다. 수가 뻔히 보입니다. 딱 한 사람만 보면 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 될 줄 압니다. 참 희한한 도리지요. 제가 불교는 알아도 그것은 모르겠대요. 소위 꿍꿍이속이야 있겠지만 예컨대 그렇게 우리가 **유위법에 집착하여 구경을 삼는다.** 최후로 삼는다. 이것뿐이라고 삼는 것이 우리가 전부 보고 듣고 하는 현상에 목을 매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공하다고 없다고 하는 것도. 지극한 空能(공능)을 무시하는 이것도 안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의지하고 살아오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중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 입장을 다 이해하고 다 수용 하는 것. 다 수용할 줄 아는 그 안목을 中道正見(중도정견)이라고 합니다. 중도가 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볼 줄 아는 것을 “중도적으로 본다.” 양쪽을 다 수용 하는 것. 단견에 떨어지면 아주 허무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 상견에 떨어지면 아주 추한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자도 아니고, 현실주의자도 아닌 양면을 자유자재로 수용 하면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걸리지 않고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을 불교는 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눈이 조금 열려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요.

 - 7강 終 -

善(선)도 아니고 惡(악)도 아닌 상태를 無記(무기)라고 교리적으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무기라는 낱말 보다는 斷見(단견)이라는 아무 것도 없는 공적한 데. 무기라고 표현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공적한 데 떨어져 있는 경우에 전문 수행자는 어떻게 벗어나느냐? 한 사람도 공적에 떨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떨어진 사람도 없는데 벗어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발 좀 공적한 데, 공부 열심히 하고 정진 열심히 해서 공적한 데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일단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져내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을 염려 할 것이 없습니다. 배가 넘어지기도 전에 먼저 물로 뛰어들 생각은 아니해야지요. 배가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손을 뻗어야 건지는 맛도 나고 건져주면 고맙다는 소리도 듣지요.

서장 대 강좌 8 - 1 강

비가 오는데 아무리 적게 내리는 가랑비라도 그릇이 반듯하게 놓여 있으면, 그 그릇에 결국 물이 고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져도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기우러져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고이지 않습니다. 지금 8회째인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그릇들은 아주 변함없이 반듯하게 잘 놓여져 있어서, 저의 강의가 비록 큰 소득은 없고 가랑비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지금쯤은 아마 가득히 차지 않았겠나?’ 스스로 이런 기쁨을 가져봅니다. 변함없이 이렇게 공부에 열의를 보여주신데 대해서,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17. 진소경 계임에게 답함(1)** 이야기가 조금 남았지요? 대혜스님도 看話禪(간화선)을 주창 하시면서, 불교 일반에 대해서 다 짚고, 또 파헤칠 것은 다 파헤치고, 해석할 것은 다 해석하고, 그것도 당신이 깨달으신 최고의 지견으로 불교 여러 면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상식적인 불교가 아니고, 정말 禪의 경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마음의 움직임과 고요함의 문제』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 봤습니다. 대혜스님께서 서장에서 극구 배척하고, 또 비방하고 어떤 경우는 좀 쌍스러운 표현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까지 부정하고 비방하고 배척하는 공부의 길. 다시 말해서 默照禪(묵조선). 묵묵히 앉아있는 것만으로서 공부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류들을 사정없이 비판합니다.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가? 마음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공부를 지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으신 분은 결국은 바른 이치를 알았다는 것이지, 무슨 기상천외한 어떤 초 상식적인 세계를 봤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p. 136**

**그릇된 무리는 사대부로 하여금**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마음을 거두어 고요히 앉아서 日常事(일상사)를 관여하지 말고 쉬어가고 쉬어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마음을 거두어서 고요히 앉아서 일상사를 관여하지 말고 쉬어가고 쉬어가라.** 이것이 8~900년 전에 가르치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전통 선불교에서는 간화선 지침서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강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마음을 거두어 고요히 앉아서 일상사를 관여하지 말고 쉬어가고 쉬어간다.** 그냥 푹 쉬는 겁니다. 쉰다고 그것이 쉬어지면, 그 길도 살 길이 될 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쉬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됨됨이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어찌 이것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쉬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마음이 두 조각이 난 것이 아닙니까? 마음은 하나인데 거기서 주관과 객관을 일부러 나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철학에서 우리가 직자 와 대자. 나를 “나”라고 하는 것과 “나” 와, 그렇게 나누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도 불교에서 보면 틀린 이론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쉰다.**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놈 따로 있고, **마음을 쉬게** 하는 놈 따로 있다는 겁니다. 대혜스님 지적은 이것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운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비운다.” 그러지요?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 그 마음을 제대로 쓰면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쓰는 마음 하나뿐이라고요.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할 것 같으면 어찌 外道二乘(외도이승)의 고요한 단견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러니까 **외도이승들.** 공부 잘못하고 있는, 여기 이승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外道**라는 말은 이해합니다. **二乘**이라는 것은 성문 연각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것은 附佛法外道(부불법외도). 불법 안에 붙어 있는 외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활발발하게 마음의 속성을 알아서, 마음의 속성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삶을 선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억지로 가두고서 꼼짝 못하게 고요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공부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앞에서도 있었지만 아주 복잡한 세상사에 얽혀 살던 사람들은 잠깐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지요. 편안합니다. 세상사 다 잊어버린 것 같고, 다 해결 된 것 같고 그래서 편안합니다. 그것이 맛은 좋지요. 그 순간 맛은 좋지만 그것이 공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돌로 풀을 짓누르는 것과 같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발동해서 요동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공부라고 하면 앞도 뒤도 맞지 않는 공부가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크게 불교에 깊은 이해가 없더라도, 또 참선에 대한 경험이 설사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다 마음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자기마음 가지고 지금 수십 년 살았는데 마음의 속성을 어느 정도는 안다고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四德(4덕)! 여기서 마음의 네 가지 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자기 마음의 밝고 오묘한 수용→ 明妙受用(명묘수용).**

2. **究竟安樂(구경안락).** 마음 그 자체로서 이것이 아주 완전한 안락입니다. **구경안락** 이라는     말은 완전한 안락입니  다. 마음을 어떻게 하고서 안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 그대로 안락입니다. 완전한 안락입니다.

3. **如實淸淨(여실청정). 여실청정** 이라는 말은 그대로 확실한 사실과 같은 청정.

4. **解脫變化(해탈변화). 해탈변화**가 뭡니까? 아주 활발발한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도 걸리지 않는 것이 해탈입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마음껏 작용 하는 것이 **해  탈변화**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6조 혜능스님이, 우리나라도 옛날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사했지만, 忠孝(충효)가 절대적인가치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충과 효입니다. 그것만이 전부인양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思考(사고)에 의해서 조상의 전통과 그 마을과 그 묘와 그 제사. 이런 것을 고집하면서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이 종교도 이만저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은요.

옛날 육조스님 당시 때야 오죽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은 한 순간도 그냥 있지 아니 합니다. 그러니 그냥 있지 아니한 것이 우리마음의 속성이고, 그냥 있지 아니한 이 마음 이대로 모든 것의 근본이고 주인이다. 그러니 **應無所住(응무소주).** 반드시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써라. 머물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요. 충효에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어떤 가치에 마음을 쓰는 것도 얼마든지 기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 자기의 가치관이 깨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송두리째 깨져버린 겁니다. 깨짐과 동시에 진정한 자기가 거기서 살아난 것입니다. 눈을 환하게 뜨게 됐고 해탈 자유입니다. 여기에 **해탈변화**라고 그랬지요? 자유를 **변화**라고 표현 했는데 그 어떤 기준과 어떤 틀과 어떤 규제에도 매이지 아니 하고, 다 풀어져 버린 겁니다. 충효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규정. 그런 규제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것이 해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음껏 변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천년만년 같이 살자고 약속했지만 그것이 어디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달리 변화를 해봤자 별수도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더불어 일생을 해로하는 것이지요. 변화를 해봤자 별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최선입니다.

현재로서는 최선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꼭 거기에 시종일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 어떤 관념에 의해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4덕! **자기 마음의 밝고 오묘한 수용. 구경안락. 여실청정. 해탈변화.** 참 근사하잖아요? 이러한 **묘함을 어찌 드러내겠습니까?**

마음을 짓누르고, 짓누르고 한곳에다 붙들어 매고, 붙들어 매고. 그것이 화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수식관이 되었든 비파사나가 되었든, 그렇게 마음을 붙들어 매고서야 마음의 훌륭한 이 네 가지 덕을 어떻게 **드러낼 수겠습니까? 모름지기 본인이 스스로 보며 스스로 깨달으면, 저절로 옛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능히 옛 사람의 말을 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사람이 뭐라고 했든 간에 그것은 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方便語(방편어)입니다. 약 처방과 같은 겁니다. 세 살 먹은 아이가 감기에 걸렸으면, 아이에게 맞는 감기약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고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거든요. 경전이나 부처님말씀이나 조사스님말씀이나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유를 듭니다. 이것은 마음에 잘 새겨놔야 됩니다. **만약 청정한 구슬을 진창 가운데 두어서 백 천 년을 지나더라도 또한 능히 오염시킬 수 없으니, 본체가 스스로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진창 가운데**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저 높은 상전의 머리 위에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청정한 구슬.** 아주 갚진 다이아몬드. 아주 귀한 사람의 목에도 걸릴 수가 있고 손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창 가운데도**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도 또한 그러해서 능히 혼미할 때에는 티끌세상의 번거로움에 미혹되지만,** 혼미할 때에는 세상 더불어서 온갖 탐. 진. 치. 희로애락에 뒤범벅이 되지만, **이 마음의 당체는 본래 미혹된 적이 없으니**

여기도 좋은 비유를 들었네요. **이른바 연꽃이 물에 젖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물일수록 연꽃이 더 아름답게 핍니다. 그렇지만, 그 더러운 물에 연꽃이 절대 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꽃. 그것이 불교의 사상을 제대로 다 표현하고 있잖습니까? 제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였다. 拈華(염화). 당신의 깨달음의 진면목을 연꽃 한 송이를 들어보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스님이 염화시중을 갖다가 연꽃을 들어 보여 가지고, 연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불교의 진수가 거기에 달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엉터리라고 비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제가 관심 둘 바는 아니니까요. 그렇게만 이해해도 괜찮은 겁니다.

**만약 이 마음이 本來成佛(본래성불)이며 究竟自在(구경자재)하여 여실히 안락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으면, 갖가지 묘용이 또한 밖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본래 스스로 구족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것. 이미 있는 것. 본래 우리자신들이, 조건이 어떻든, 남녀노소 유식 무식 동서남북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도 共(공)히,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부처로서의 덕. 부처로서의 생명. 무한한 생명. 무한한 덕. ←이것을 本來佛(본래불)이라고 합니다. 본래불이라 해도 좋고 본래 인이라 해도 좋고요. 그것이야 불이라고 하면 자꾸 또 한 걸음. 거리감이 생기니 본래 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입니다. 이것 하나 이해하자고 불교공부 하는 겁이다. 절대 어디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해지려면 장사를 잘 하세요. 절에 와서 기도한다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대장경에는 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불교는 중간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불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간화선인가? 正法(정법)으로 나가자 이겁니다. “불교를 正法으로 나가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간화선인가? 불교에는 워낙 엉터리가 많고 거품이 많고 비불교적인 요소.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만든 불교니까 그것은 부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만든 불교거든요. 만들면서 부처님한테 허가 받아서 만들었으면 몰라요. 전혀 허가도 받지 않고 만든 불교가 너무 많으니까 이 간화선 운동이 근래에 많이 일어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을 찾자하는, 그리고 고요함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어쩌면 불교의 정법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더 있지 않은가? 시대가 혼란하니까 불교마저 너무 혼란해 졌으니까 이것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불교로 돌아가자는 마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의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본래 자기에게 있는 것. **갖가지 묘용이 또한 밖에서 오지 않는다.** 어떤 뛰어난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신통묘용도 **밖에서 오지 않는다.**

이미 우리들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것입니다. 기존의 부처로서의 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한 순간 부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한 순간 부자가 되자는 것! 육조스님도 깨닫고 나서 첫 마디가 그랬잖아요. **何期自性(하기자성)이 本自具足(본자구족).** 내 마음속에 이미 본래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자신 속에 이미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알았으랴. 당신도 저 밖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가서 빌면 한 보따리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자신 속에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何期**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나는 평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다 구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대로 깨달으신 분은요. 한결 같습니다. 말씀이 똑 같아요. 틀리면 그것은 아니지요.

부처님께서 성도 하시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위대하고 존귀한 겁니다. 나 혼자만 이런가? 나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그 이쁜 자식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그 왕자의 지위. 얼마나 고귀한 자리입니까? 그것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왕자로서의 고귀한 금지옥엽 귀하게 자란 몸이 누구도 할 수 없는 6년의 피 나는 고행을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는 부처가 되었다 이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어떨까?’ 하고 지혜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니, 이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성취한 지혜와 덕상과 온갖 자비와 신통묘용이 모든 사람이 똑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추호의 차이도 없어요. 억만 분의 1의 차이도 없이 똑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 억울할 겁니다. 자기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것인데, 알고 보니까 전혀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자빠져 있는 무지렁이 같은 인간도 똑 같이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최초로 **奇哉奇哉(기재기재)라** 야~!신기하고 신기하다. ←이렇게 찬탄을 했지 않습니까?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화엄경 여래 출현 품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부처님도 화엄경에서 그렇게 표현했고 법화경에서도 그렇고, 대승경전 모두가 다 똑 같습니다. 선사들의 깨달음 속에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려고 하면 그냥 장사하세요. 괜히 부처님한테 와서 달라고 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화선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리 거침없이 해야 됩니다. 간화선 이야기하는 마당에서 한 소리를 가지고 다른데 저~기가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또 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허허허 그렇습니다. 여기 대혜스님의 말씀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마음의 4덕을 이야기하고, 그 앞에는 마음의 動靜(동정)의 문제. 우리마음이 본래 갖추고 있는 완전무결한 부처로서의 덕. 능력. 생명.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無量光(무량광) 無量壽(무량수)**라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들 자신의 지극히 위대함을 아미타불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냈지 않습니까? 정말 근사하지요? 경계에 쫓아가 버리면 **무량광 무량수**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것이고, 저기 무량수전에나 가서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 아미타불이라는 그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찾으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무량광이지, 참으로 무량수야.”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p. 137**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금강경이 나오네요. 금강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無有定法(무유정법).** 무엇이든지 고정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깨달음을 성취했다. 그 다음에 그 위대한 부처님께서설법을 하신다. 이것도 어떤 고정된 것이 딱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요? 분필이 글씨 쓰는 것이지요? 잠 많이 자는 학생에게는 잠 깨우는 도구지 그것이 글씨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몽당분필만 잔뜩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잘 맞추기도 합니다. 자는 사람만 꼭 잘 맞춥니다. 그 사람한테는 잠 깨우는 도구지 글씨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유정법**입니다.

시골에서 꿈을 안고 대학교에 진학해서 정말 꿈에 그리던 상아탑. 그 대학에서 공부하겠다고 얼마나 꿈에 부풀어서 공부합니까? 그런 꿈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책상이고 걸상이지만, 학교에 불을 지르는데 불쏘시개로도 좋아요. 데모할 때 바리케이드로도 아주 좋아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유정법**이라고요. **“정한 법이 있지 않는 것을 이름 하여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고, 정한 법이 없이 여래는 가히 설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설법한다고 해서 그 설법의 내용이라고 할까? 온갖 것이 다 어떤 고정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때 그때. 그 상황, 그 상황. 그 중생들의 그 병, 그 병에 맞추어서 설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처음에 **世界悉檀(세계실단)**그래요. 세계실단이란 세계법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뭐냐? 세속이야기 하는 겁니다. 스님들도 법문하는데 세속이야기 잘 하는 스님들이 있지요. 세속 사람들보다 세상이야기 더 잘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아주 솔깃합니다.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를요. 법문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에 일단 솔깃한 겁니다. **爲人悉檀(위인실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인설법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설법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가?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설법이 상당이 많습니다. 부처님 법문 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법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탐욕이 많은지 분노가 많은지 어리석음이 많은지 거기에 따라서 설법해 주는 것을 위인설법이라고 그럽니다. **對治悉檀(대치실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對治**는 그야말로 번뇌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아까 위인을 대치처럼 비슷하게 설명을 했는데, **爲人**은 그야말로 사람을 위하는 것. 대치는 병을 고치는 입장입니다. 대치설법이라고 그럽니다. **세계실단. 위인실단. 대치실단.** ←이것은 다 방편입니다. **第一義悉檀(제일의실단).** 제일의 법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기 선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 고정된 것은 사실은 없지요.

**만약 본체를 확정하여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또한 도리어 옳지 않습니다.** 무엇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존재의 바른 이해. 모든 존재의 바른 이해는 “중도로 봐야 그것을 바로 본다.”그랬습니다. 그것을 中道正見(중도정견)이라고 그럽니다. 중도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있다고 봐서도 안 되고, 책상을 꼭 공부하는 것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때로는 바리케이드로도 쓸 수 있다고 보니까 데모할 때 바리케이드로도 쓰는 겁니다. 불 지르는 데도 쓰고요. 분필을 꼭 글씨 쓰는 데만 쓴다고 보질 않고, 잠 깨우는 도구로도 쓴다고 보니까 잠 깨우는 도구로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양면으로 이해하고 양면으로 수용할 줄 아는 견해를 중도정견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이 다,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또한 도리어 옳지 않습니다. 일이 부득이 미혹함과 깨달음, 가짐과 버림 때문에 도리를 약간 說破(설파)했으나, 이는 오묘한 데 이르지 못한 사람을 위한 방편의 말일 뿐입니다.** 우리 자심의 네 가지 덕이 있었는데, 그 덕의 진정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도 역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꼭 고정불변하게 있다고만 보는 것은 바른 소견이 아니지요. **사실 본체는 또한 약간도 없습니다. 청컨대 당신은 다만 이렇듯 마음을 써서 일상생활 가운데 生死(생사)와 佛道(불도)에 집착해 있다고도 하지 말며, 생사와 불도를 버려 없는 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생사. 생사도 마찬가지. 불도도 마찬가지. ←이것을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말을 이제는 알아들으시지요? 그런데 세속적인 논리로서는 말도 아닌 겁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동양에는 그런 논리가 아닌데, 서양의 학문이 들어오면서 흑백 논리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도 거의 그런 식으로 젖어 들어서 그렇지, 우리 동양 사고에는 사실은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다 이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가 그만 서양의 思潮(사조)에 물이 들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흑백 논리에 그만 사고가 전부 그렇게 젖어 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쳐야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남자로서 남자 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여자 일도 할 수 있어야지요. 요즘 많이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이제야 좀 철이 들었는가? 남자도 여자노릇 많이 하고, 여자도 전부 나와서 남자들이 하던 일 다 합니다. 그전같이 여자들이 직장에, 사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남자들이 일거리가 너무 많을 겁니다. 여자들이 일거리 다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지요. 지금은 이런 소리가 우습게 들리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한 3~4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사회활동 아니 했으니까 전부 남자들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꼭 남자들만 하게 돼 있나요? 여자가 해도 괜찮은 겁니다. 집일을 여자만 해야 되나요? 남자가 해도 괜찮은 겁니다. 본래 그렇게 알고 살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잘못된 사조 때문에, 그렇게 편협하고 치우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교는 치우치고 편협 된 사고를 깨뜨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도다. 생사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고도 하지 말고, 없다고도 하지 말라 이것이지요. 그러면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하니, 조주가 답하기를 “없다.”고 한 이것을 볼지언정 절대로** 여기에 하는 방법 네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화두의 네 가지 주의 점.

 1.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며,** 진짜 없어서 없다고 하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없다고 하는      가?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 이것이지요.

 2. **언어 위에서 살 계획을 세우지 말며,** 이것은 그 말을 그만 살림살이로 삼는 것. 그런 예      도 많으니까요. 거기에, 화두에 파묻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3. **입을 여는 곳을 향하여 承當(승당)하려 하지 말며,**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없다.”고** 하는 거기에 뭔가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 **承當**이라고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4. **부싯돌 치는 불과 번쩍이는 번갯불을 향하여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장자를 내리친다든지 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알려고, ‘그것이 뭔가?’ 하고 그 순간에 눈을 뜨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생각. 자연스럽게 한 방망이 얻어맞고 눈을 뜨면 좋은데,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거기서 뭔가 눈을 뜨려고 하고, 마음을 열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것은 벌써 10만 8천리로 미끄러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개입시켜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화두 10종병이라는 것도 있고,

또 화두의 8가지 병을 열거한 데도 있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주의 점만 소개를 했습니다. 대혜스님은 아주, **극축법문** 그래요. 더 이상 나아 갈데없는 최고수준의 법문을 하시면서, 또 사이사이에 그것이 제대로 납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두를 들라.” 그것도 “無자 화두를 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소견은 최고의 소견을 유지 하면서 “화두를 들라.” 간단하게 표현하면 최고의 안목을 갖고 있으면서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들면서도 모든 존재의 문제. 일체 것에 대해서 최고의 안목. 최고의 안목을 갖고 늘 보라는 것이 대혜스님의 지도 방법이지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한 것을 다만 이와 같이 참구할 것이지, 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기다리거나 또 쉬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약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고 쉬기를 기다린다면, 점점 교섭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깨달으려고 화두 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깨닫기 위해서 참선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 서장강의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장강의 들을 때는 제 말만 잘 새겨듣지 ‘깨달아야 할 텐데’ ‘깨달아야 할 텐데’ ←이러면 깨달음도 어디로 가 버리고, 서장강의도 어디로 가 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오로지 강의에 빠져 버려야 됩니다. 그럼 깨달음은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야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화두 드는 것도 깨닫기 위해서 화두 들지만, 화두들 동안은 깨달음이고 뭐고 중생이고 부처고 다 없어져야 됩니다. 없고 오로지 話頭一念(화두일념)만 딱 되어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또 쉬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런 주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서장 대 강좌 8-2 강

인용한 내용들을 여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용문하고 자기의 소견의 문제. 우리 일상사와 공부.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출근하는 그런 일상사와 공부의 문제를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p. 141. 18. 진소경 계임에게 답함 (2)**

**편지를 받아 보니, 지난 번 저의 편지를 본 뒤부터 매번 시끄러운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나서 항상 점검하고 있으나,** 이것은 출근해서 사무를 보거나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계속 ‘내가 이거 화두를 들고 있는가? 어떤가?’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힘을 붙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일은 일이고 공부는 공부고, 공부가 제대로 따로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 피할 수 없는 곳이 곧 공부를 해서 마친 자리입니다.** 이것이 아주 뜻이 깊고 궁극의 말씀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곳. 지금 사무를 본다. 운전을 한다. 아니면 호미를 들고 밭을 맨다. 철저히 그 일을 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자리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 것이 일상사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무 다른 생각 없이 집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 지간에, 다른 생각 없이 철저히 강의 잘 듣고 메모 잘 하고 글 잘 따라서 읽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의 생각이 없으면 끝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100% 현현해요. 100% 내가 작용하고 있어요. 나의 100%삶이 거기에 있습니다.그런데 ‘아이고 오늘은 기대했던 것 보다 재미가 별로구만.’ 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공연히 시간만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는 100% 자기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全機生(전기생) 全機死(전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생 전기사. 철저히 죽고 철저히 살라. 더 이상 틈을 주지 말라. 어떤 일에든지 더 이상 틈을 주지 말고 철저히 거기에 몰입할 때, 거기에 나의 100% 삶이 표현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되었지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뭐가 있는가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틈이 생긴 것이고, 틈이 생기면 100% 삶이 아닙니다. 전기생 전기사가 아니라고요.죽을 때 재대로 못 죽어요. 죽을 때 팍 죽고, 살 때 아주 확실하게 살고요.

**피할 수 없는 곳이 곧 공부를 해마친 자리입니다. 만약 다시 힘을 써서 점검하면,** 거기 괜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나? 어떤가?’ 그냥 공부하면 될 텐데 왜 ‘내가 지금 공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점검하면 또한 도리어 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공부에 틈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냥 몰입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점검하지 마세요. **점검하면** 벌써 틈이 생겨서 놓친다고요. 저의 말을 놓쳐요. 점검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 같지요? 천만입니다. 점검할 겨를도 없어야 됩니다. 점검할 생각이 전혀 안 떠오르고 그냥 몰입해버리면, 그 사람은 아주 철저히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옛날 魏府(위부)의 老華嚴(노화엄)이.** 회동선사인데위부 사람이고, 화엄경을 가르치다가 늦게 흥화존장 스님을 참배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화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노화엄**이라고 합니다. **노화엄이 말하시기를 “불법이 일상 생활하는 곳과 行住坐臥(행주좌와)하는 곳과 차 마시고 법 먹는 곳과 말로 서로 묻는 곳과 작용하는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밑줄 그으는 소리가 왜 안 납니까? 밑줄 그을만하고 마는... 하하하 **불법이 일상 생활하는 곳과 행주좌와하는 곳과 차 마시고 법 먹는 곳과 말로 서로 묻는 곳과 작용하는 곳에 있다.** ←여기에 **하는 곳에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이것이 조금 표현이 덜 됐습니다. “묻고 작용하는 그 것이다.” **묻고 작용하는 그 곳에 있다** 가 아니고, 일상생활 하는 그것이다. **행주좌와 하는** 그것이다. **법 먹는** 그것이다. **말로 서로 묻고 작용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더 직접적입니다.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면,** ‘이것이 불법인가?’

‘이것이 내가 마음을 100% 다 쓰는 일인가?’ ←이렇게 **마음을** 틈을 주면 **도리어 옳지 않게 됩니다. 정히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나서,** 우리가 화장실가고 식사하고 누워 자고, 손님 오면 접대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피할 수 없는 것** 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승속을 막론하고, 선방에 있으나 시중에서 장사를 하나 이 일은 똑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 일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한다고 한 것이 도가 뭐냐?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일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그 일 아니하는 사람 있으면 한 번 나와 보라고요. 없습니다. 부처고 조사고간에 없습니다. 어느 부처 어느 조사도 그 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나서, 절대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점검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공부 이 정도면 오늘 도 끝났습니다.

**조사가 이르기를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그냥 하면 하지, ‘서장, 이것이 불법을 제대로 표현한 것인가? 어떤가?’ 이런 사이에 뭔가 분별심이 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비어지고 밝아 저절로 비친다.”고 했습니다.** 虛明自照(허명자조)한다. 신심명에 있는 말인데 참 좋지요? 허명자조 한다. 환하게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보는 겁니다. 안경에 색칠한 선글라스가 아니라 투명한 안경으로모든 사물과 사건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붉은색은 붉게 보고, 푸른색은 푸르게 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허명자조입니다.

모든 이치를 달리 보지 않고 이치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지요. 내 욕심이 개재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비꼬아 가지고, 틀어가지고, 분재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잘 자라게 놔두면 좋을 텐데 나무를 공연히 캐다가 막 그냥 철사로 얽어서 한 5~6년쯤 지나면 그 얽어놓은 대로, 비꼬아진 대로 굳어지거든요. 불교를 접하면서 가장 정상적으로 살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뭐 이상하게 뭘 한 번 해볼까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교에 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지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비꼬아지는 것입니다.

방거사가 나왔네요. **또 방거사가 말하기를 “일상사가 특별한 것이 없어서 오직 내 스스로 짝하여 어울리도다!** 일상사가 그대로 도라는 말이지요. **일체에 가지고 버림이 없고, 곳곳에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는 왜 그렇게 가질 것이 많고 버릴 것이 많은지, 일일이 만나는 족족 ‘저 놈은 미운 놈.’ 고개 돌리고, ‘저 사람은 반가운 사람.’ ‘이것은 나한테 이로운 것.’ ‘이것은 나한테 해로운 것.’ 끊임없이 저울로 달고 취사선택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저울로 달고 취사선택 하는 것이 중생놀음입니다. 중생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냥 그대로 좀 봐 주면 좋은데...**일체에 가지고 버림이 없고, 곳곳에 어긋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누가 이름 하였는가?** 옳다 그르다하는 것을 **누가 이름 했는가? 언덕과 산이 한 점 티끌에 끊어졌도다!** 이것은 번역을 **옳고 그름을 누가 이름 했는가?** ←이것 보다는 밑에 원문 볼까요? 원문 봅시다. 중간 단락.

**祖師云分別不生(조사운분별불생)하면 虛明自照(허명자조)라하며 又龐居士(우방거사)가 말하기를 日用事無別(일용사무별)이라** 일용사가 별것이 없다. **唯吾自偶諧(유오자우해)로다** 오직 내 스스로 짝해서 그대로 살아간다. **頭頭非取捨(두두비취사)요** 낱낱이 취하고 버릴 것이 없고, **處處勿張乖(처처물장괴)니라** 곳곳에서 맞거나 어긋나는 것이 없다. **朱紫(주자)를 誰爲號(수위호)오** ←이 말이거든요. **朱**는 좀 낮은 벼슬. **紫**는 좀 높은 벼슬입니다. 허리띠 색깔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장관. 차관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장관이니 차관이니 그것을 누가 이름 했는가?** 그냥 임명장을, 장관임명장 줬으니까 장관이고, 차관임명장 줬으니까 차관입니다. 그 사람이 장관의 씨가 따로 있나요?차관의 씨가 따로 있나요?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丘山(구산)이 絶點埃(절점애)**입니다. 큰 산 작은 산. 작은 산 큰 산이 **絶點埃라.** 전부 먼지 하나하나가 쌓여서 크게 쌓이면 큰 산 되고, 작게 쌓이면 작은 언덕이 되는 것이지요. 다 먼지입니다. 근본은 먼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가다가 비석을 잘못보고 도둑놈인줄 알고, 지나가는 사람 강탈하는 도둑놈인줄 알고는 냅다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어두운 길이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피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집니다. 만약에 환하게 밝은 길이면 지나가다가 비석이 있으면 누구 비석인가 가서 보자하고, 가서 잠깐 쉬기도 하고 읽어도 보고 누군가 알아도 보고 ‘아, 이 사람 우리하고 종씨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얼마나 그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어두우니까 그 좋은 비석. 거기서 쉬어 가야할 그 비석의 자리가 도둑놈이 서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되는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물과 사건을 제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잘못 보는 관계로, 잘못 보는 관계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리 상으로 遍計所執性(변계소집성)이다. 依他起性(의타기성)이다. 이런 어려운 말을 씁니다만, 뱀도 그렇잖아요? 짚으로 밧줄을 꼬았는데 한 동가리가 긴 것이 길에 있거든요. 어두운 데서 보니까 큰 뱀인 줄 알고, 알고 냅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은 뱀도 아니고 밧줄도 아니고 그냥 짚입니다. 근본은 짚이라고요. **丘山(구산)이 絶點埃(절점애)**입니다. 큰 산 작은 산이 전부 한 점의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짚 하나하나가 쌓여서 밧줄이 되고요. 그 밧줄을 우리가 잘못 보면 뱀으로 보고요. 그래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로 됐다 이 말입니다.

**神通並妙用(신통병묘용)이여 運水及搬柴(운수급반시)라** 아~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말, 이거 10자만 외우세요. **神通並妙用이여,** 신통묘용이 무엇인가? 수도꼭지 틀고 가스 불 켜는 것이다. 번역 아주 근사하게 했네요. 수도꼭지 틀고 가스 불 켜는 그것이 신통묘용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합니다. 수도꼭지 틀고 가스 불 켜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한다고요. 그것이 신통입니다. 그것이 신통묘용이라고요. 리모콘 착 누르면 영화가 착 펼쳐지지요? 탁 눌러버리면 또 탁 꺼지지요? 얼마나 신통묘용입니까? 수도꼭지 틀고 가스 불 켤 줄 아는 그 사실이 신통묘용입니다. 기상천외한 옛날에 유리겔라 같이 그렇게 사기 치는 그런 이상한 것을 생각하고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一切法(일체법)이 皆是佛法(개시불법)**이라고 금강경에서 그랬잖아요? **일체법**은 뭡니까? 일체법의 제일 큰 항목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제일 큰 항목입니다. 우리 살림살이 그것밖에 더 있나요? 남 모함 하는 것. 자기 허물은 은폐하는 것. ←이런 것이일체법입니다. 제일 큰 항목입니다. 우리 살림살이 그것이라고요.그런데 뭐라고요? **皆是佛法**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도다 그랬어요. 諸法無行經(제법무행경)이라고 영명연수선사가 인용한 受菩薩戒法序(수보살계법서)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야~ **탐 진 치 삼독이 즉시 도니라** 이런 차원 높은 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선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금강경을 좀 더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一切法이 皆是佛法**이라고하는 것을 좀 더 부연하면, **탐 진 치 삼독이 다 불법이니라.** 그렇게 주해를 달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원문을 갖다놓고 제법무행경을 갖다 주해를 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좀 되는 겁니다. 일체법이라는 제일 큰 항목들이 그것입니다.물론 자질구레한 항목들도 많지만, 탐 진 치 삼독과 8만4천 번뇌가 일체법입니다. 그런 탐 진 치 삼독의 번뇌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실. 우리가 번뇌를 없앤다. 없앤다하고 그것을 잠재워야 된다. 떠나야 된다. 떠난 사람 누구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그것이 우리 살림살이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차원 낮은 아주 저급한 불교에서는 그것을 떠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안 불교공부 하면서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고. 어떻게 하더라도 탐 진 치 삼독을 버려야 된다고, 8만4천 번뇌를 제거해야 된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요? 아주 저급한 유치원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간화선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금강경만 해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 **一切法이 皆是佛法**이라고 했잖아요? 일체법이 뭡니까? 탐 진 치 삼독이 제일 큰 불법입니다. 그리고 **諸法無行經**에서도 **탐 진 치 삼독이 즉시 도다.** 그것이 그대로 불도라고 그랬습니다. 아~ 참 대단 하지요? 이제 마음 놓고 사세요. 정말입니다. 마음 놓고 사세요. 정말 이런 이치가 마음에 계합이 되어서 마음 놓고 사는 사람은 크게 탐 진 치 삼독 부리지도 않습니다. 혹 한 번씩 조금씩 부리지요.그러다가 보면 어느 사이엔가 탐 진 치 삼독이 다 사라집니다. 그것을 노리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더 왕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줄어들어도 상관없고요. 줄어들고 왕성하고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다보면 줄어든다 이겁니다. 가벼워집니다. 아주 가뿐해집니다. 뭘 그렇게 욕심 부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쯤 된. 소견이 그쯤 된 사람은 그렇게 욕심 부릴 일이 없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심이 뭡니까? 좋은 것 있으면 갖고 싶은 것이 우리 평상심 아닙니까? 평상에 늘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그릇이 된 사람이 딱 오면 아주 애착을 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저 놈을 잘 가르쳐서 도를 깨닫도록 해야지.’ 이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우리가 백화점 진열장 앞을 지나 가다가 마음에 든 옷이 착 걸려있다면 몇 번 보는 듯 했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건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도 언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것이 인간사입니다. 그것이 절대 잘못 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부처는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홀딱 반해서 정신 다 잃고, 그것이 더 심하면 돈도 없이 들고 뛰는 겁니다. 허허허허허허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그냥 막 긁는 겁니다.

그것 인간사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좋아하고 취미가 달라서 그래요. 도인들은 법기가 오면 그걸 그냥 자기 사람 만들고, 어떻게 하더라도 저놈을 도를 깨우쳐서 법을 오래오래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밤잠 못잡니다. 그것 사람 만들려고... 백화점 진열대 보고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돈도 없는데 그 물건을 덥석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지 뭡니까? 그것이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전에 蘭(난)을 좋아해서 그때 서울에 잠깐 있을 때입니다. 종로 서점엔가 거기 가서 난 책을 봤어요. 한난만 쭉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진 기술이 별로일 때인데도 그래도 일본에서 들어온 책이어서 상당히 표현이 잘 되었더라고요.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그 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야~,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어떻게 구해서 가서 당장 샀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각자 좋아하는 데로의 일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놓고 다 이야기 합시다. 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러니까 **탐 진 치 삼독이 즉시 도다.**

**又先聖(우선성)이 云(운) 但有心分別計較(단유심분별계교)하면** 다만 마음을 두어서 분별하고 계교할 것 같으면, **自心顯量者實皆是夢(자심현량자실개시몽)이라** 내 마음에 나타난 것. **顯量**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나타난 것이 다 꿈이다 이겁니다. 분별 계교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개입 시켜서 이래저래 마음 쓰면, 이것을 이럴까? 저럴까? **切記取(절기취)어다** 간절히 기억해서 취할지어다. 기억하고 기억할지어다.

**p.143**

**피할 수 없을 때에 마음을 헤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이것이우리 일상생활에서이지요. **헤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하라는 말입니다. 식사 하면 바로 식사하고, 잠자면 딱 잠들고,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먹고 자고 하는 일이...**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에 일체가 나타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철저히 죽고 철저히 살고 철저히 자고 철저히 먹고, 그냥 먹으면 먹는 일에 그냥 몰두하고, 자면 자는 일에 그냥 몰두하고, 직장에서 자기 맡은 일 하면 맡은 일에 몰두하고...**또한 영리함을 아는 것도 쓰지 말며, 둔함을 아는 것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아, 이거 공부에 둔한가? 영리한가?’ ‘왜 이렇게 나는 둔한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 그 생각하는 사이에 공부 좀 더 하세요. 자기 점검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 생긴 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 아이큐가 얼마나 되는가? 가서 한 번 알아볼까?’ ‘내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는가? 어떤가?’그런 시간에 공부 더 하시라고요. **모두 그 영리하고 둔한 일에 관계가 없으며, 그 고요하고 어지러운 일에 관계가 없습니다. 정히 피할 수 없을 때를 만나서 갑자기 識心(식심)을 잃으면** 몰두하면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뼉을 치고 크게 웃게 될 것입니다.** 박장대소를 하게 되는데 그 박장대소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몰두할 때, 몰두할 때 그것이 깨달음과 가까워지는 것이지, 대혜스님이 보기에 그래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빠져 들어가면 될 텐데, 좀 들어가다가 그만 괜히 거기서 사량 분별을 하는 겁니다. 사량 분별을 하고 이것저것을 자꾸 저울질 하고,헤아리고, 거기에서 공부가 늦어지고 공부가 딴 길로 가더라는 말입니다.

**이 일에 한 털끝만치라도 공부하여 증득함을 추구하면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움키고 만지는 것과 같아서** 허공을 아무리 만져보세요.허공을 만져지는가요?이럴 때 한번 손들어서 만져보세요. **공부하여 증득하는 것을 추구하면 허공을 손으로 만지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요? **다만 더욱 수고로울 뿐이다.** 피로하기만 하지요. 안 만져지면 자꾸 만지려고 하니까 피로만 할 뿐이지요.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지 **공부하여 증득함을 추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최 상승 법문입니다. 왜 간화선인가? 간화선을 어떻게 잘 하라고, 물론 그런 말도 여기 보면 있습니다. 화두 잘 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화두 들고 말고 하는 그런 차원 넘어서 이것은 최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깨달으려고 하면 괜히 피로할 뿐이다 이겁니다.

**응접할 때에는 다만 응접하고, 靜坐(정좌)가 필요하면 다만 정좌하되 앉을 때에는 앉는 것에 집착하여 구경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앉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십 번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결과부좌 하면 더 근사한가 싶어서 되지도 않는 결과부좌 하다가 관절염만 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는 반가부좌가 맞으니까 꼭 반가부좌만 하지 결과부좌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도사람 체질에 결과부좌가 맞는 겁니다. 참선 좀 배웠다고 결과부좌 틀고 앉으면 공부 잘 되느냐? 그러면 선요에 고봉스님 같은 이는 3년 동안 선방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앉은 적이 없습니다. 화장실 가고 식사 하는 동안 잠깐 앉았습니다. 그 외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다고요.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 하나도 못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공부 제일 잘한 사람입니다. 앉는 것 하고 관계없는데 앉는 것만 그렇게 고집한다니까요. 그것에 그렇게 어떤 가치부여를 할 것이 아니라, ‘아, 앉는 것도 때로는 행 주 좌 와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방편이다.’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를 어떻게든 둬야하니까요. 세워 놓든지 눕혀 놓든지 걸어 다니게 하든지 앉혀 놓든지 뭔가 해야 하니까요. 그 중에 앉는 것이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앉는다는 얘기가 나왔지, 여기서 지적 했듯이 앉는 것을 究竟(구경)을 삼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릇된 스승 무리들이 많이 黙照禪(묵조선)을 究竟法(구경법)으로 삼아서 후진들을 의심하고 그릇되게 하므로,** 후진들을 크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수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써 꾸짖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말법의 폐단을 구제하고자 합니다.** 대혜스님께서 이런 묵조선과 간화선의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이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로서 불법이 정말 얼마나 많이 펼쳐져야 하고, 또 얼마나 정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가 전해져야 하는가 하는 이런 우리들의 문제를 이끌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원수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출가한 사람이, 그리고 도 닦는다는 사람이, 남하고 원수 맺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혜스님 같은 도인도 **원수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고 욕하고,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말법의 폐단을 구제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교화의 정신입니다. 정법구현을 위해서, 정법선양을 위해서 이런 강력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표현입니다.

불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하는가? 바다에서 배가 난파가 되었다면 같이 타고 가던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기도 지금 겨우겨우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송장이 하나 떴어요. 송장을 보니까 자기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그 송장이라도 올라타고 저 육지를 향해서 헤엄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평소에 송장을 보면 저만치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송장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송장을 올라타고 헤엄쳐서 육지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중생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법활동을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형을 언도 받은 죄수가 이제 감옥을 벗어나야 살지, 안 그러면 내일 모레면 곧 죽을 겁니다. 옛날에 감옥에는 화장실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똥통 속으로 들어가서 한참동안 똥통 속으로 잠수해서 헤엄쳐서 저쪽 공기통으로 나가고 도망을 가서라도 살아야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중생제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전법하고 포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혜스님은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얘기가 그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원수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고** 정법선양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正法宣揚(정법선양).

이 시대에 불교가 어떻게 보면 자꾸 위축되어가고, 또 그것은 우리 불자들이 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삿된 법. 유사불교. 가짜불교. 거품불교. 이런 데에 너무 많이 정신을 빼앗기고, 모르니까요. 그것이 불교인양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사는데, 이것을 좀 제대로 아는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또 서장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똥통 속으로 저만치 헤엄쳐서 빠져나가서라도 이 생명하나 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전법활동하고 포교활동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법으로 해야 됩니다. 사법 가지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송장을 타고서라도 헤엄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정법을 전해야 됩니다. 경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보살의 정법선양에 대한 마음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서장 대 강좌 8 - 3 강

서장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사람의 근기와 불교적 수준에 맞추어서 대혜스님이 답장을 썼기 때문에, 앞에 진소경에게 보낸 편지. 앞에서 공부한 그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차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조대제 도부에게** 답한 편지는 보면 우리가 발심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信心(신심). 가장 기본이 되는 신심이 아주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신심이야기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신심이니 뭐니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 가운데 신심이 좀 부족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보충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p. 145. 19. 조대제 도부에게 답함**

**보인 편지를 일일이 다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 부처가 된다.”고 하셨으니,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니 **세상 번뇌 망상의 마음이 아니고 위없는 큰 菩提(보리)를 발한 마음이다.** 보리심을 발한 마음입니다. 보리심을 발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마음입니다. **만약 이 마음이 있으면 성불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 번 마음 냈으니까 그것은 씨앗을 심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낸 사람은 다 성불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이니, 길이 일체 善法(선법)을 기르며,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의 흐름에서 벗어나 위없는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화엄경에 있는 말인데, 신심 하면 의례히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信爲道元功德母(신위도원공덕모) 長養一切諸善法(장양일체제선법).** 그렇지요. 우리가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이런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새록새록 어떤 先知(선지)가 되었든,지혜가 되었든, 아니면 신심이 되었든, 불교에 단순한 관심사가 되었든 간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야~, 불교 괜찮다.’ ‘아~, 선불교가 특히 아주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그런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잘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믿음은 大地(대지)와 같다.” 곧 봄이 오지요? 대지에서 온갖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지 않습니까? “믿음은 대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저 아뢰야식 속에서 아주 신선한 정법의 새싹이 자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참, 믿음의 힘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아함경 같은 것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처님이 갠지스 강 동쪽에서 설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갠지스 강 건너 저 서쪽 마을에 어떤 신심 있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하던 일을 마치고 얼른 뛰어와서 부처님설법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막 그냥 뛰어온 겁니다. 뛰어와서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강이 상당히 깊어 보이거든요. 강가에 있는 사람은 별로 신심이 없는지 그냥 고기만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어디로 건너면 얕은 곳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가 제일 얕은 곳”이라고 “아마 무릎 정도 밖에 물이 안 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저 부처님한테 가서 설법 듣고자 하는 그 욕심하나로, 그 신심하나로 그냥 다리 걷고 물위로 텀벙텀벙 건너가는 겁니다. 물위로 건너가니까 저 강 건너 갠지스 강가에서 부처님이 자주 설법하셨잖아요. 경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한창 열을 올려서 설법하시는데, 젊은 청년하나가 갠지스 강 그 깊은 물. 그 깊은 물을 척척척 걸어 올라오는 겁니다. 부처님 설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 설법에 아무 관심 없어요. 그 청년의 신통에 관심이 다 가서 부처님 설법이고 뭐고 전부 거기를 보고 저것 보라고. 저것 보라고 저런 사람이 있다고. 저 갠지스 강 깊은 물을 그냥 사정 없이 건너오는 사람이 있다고. 이래서 부처님도 할 수없이 설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부처님도 설법을 중단하고,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금방 건너와서는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부처님 설법 들으려고 앉는 겁니다. 모두 궁금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신통력으로 그 깊은 갠지스 강을 그렇게 건너왔느냐? 부처님이 대중들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부처님이야 다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대중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물었지요.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설법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얼른 와서 설법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강가에 고기 잡는 사람에게 물으니 얕은 곳을 가리켜 줍디다. 그래서 얕은 곳이라고 하기에 그냥 다리만 걷고 이렇게 건너왔을 뿐이지, 저는 아무런 신통도 없고 그저 농촌에서 농사짓는 청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처님도 설법이 바닥이 났는데 ㅎㅎㅎ 잘 됐다 싶어 가지고 하하하 “보라 믿음의 힘은 그와 같은 것이다.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심. 그리고 법문을 듣고자 하는 환희심. 그것 하나로 단순하게 얕은 강이라고 하니까 그냥 얕다고 생각하고 건너왔을 뿐이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도 생긴다.”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심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차원 높은 공부하다가 다시 유치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하하하허허허 유치원생에게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다지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질 기회도 되는 것이지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잘 짚고 다니는데 상당히 의지가 됩니다. 지팡이 없으면 길을 못 나설 정도로 상당히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신심이라고 하지요? 소박한 신심도 좋습니다. 선불교적인 그런 차원 높은 것을 두고도 아주 소박한 신심이라 하더라도 신심. 그것 하나 없으면요? 인생 허전합니다. 정말 허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소박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믿음하나 가지고, 법당에 있는 부처님. 나무로 깎았든지 돌로 했던지 그것은 나는 알바 없고, 내가 다니는 원찰. 그 원찰. 그 원불. 나는 그 부처님께 가서 예배하고, 친견하고 거기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신심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런 신심이라도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지탱시켜주고 붙들어주고, 몸 아픈 사람들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얼마든지 한다는 것을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도 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길이 일체 善法(선법)을 기르며,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의 흐름에서 벗어나 위없는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기를 “믿음은 능히 智慧功德(지혜공덕)을 더하고 자라게 하며, 믿음은 능히 반드시 여래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원찰. 원불에게 가서 소박한 신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라도 끝내는 **여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우리가 아주 차원 높은 그야말로 불교 중에서도 아주 극 명품 불교를 공부 하더라도 그래도 또 한편 이런 소박한 신심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불교는 無佛無衆生(무불무중생).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그 소리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듣는데, 그런 면이 있는가하면 그러나 법당에 나무로 깎아놓은 저 부처님이 나에게는 진짜부처님이야. ←이런 소박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고 절하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兩邊(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데 치우치지도 않고, 또 소박한, 단순한 시골 할머니들이나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불무중생.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고차원적인 안목도 또한 가지고 있고, 두 가지를 다 수용하면서 두 가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中道正見(중도정견)이라고 하지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다 수용할 줄 아는 마음. 선불교 공부 좀 했다고, 서장 강의 몇 번 다녔다고 괜히 목에 힘주고, 단순한 불교 신앙인들을 무시하거나 낮추어 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언젠가 뭐라고요? **여래의 경지에 오른다. 보인 편지에 둔한 사람이 능히 철저히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마음 밭에 부처 종자나 심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비록 淺近(천근)하나 또한 深遠(심원)하니 다만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서로 속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방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나는 참선할 근기가 못돼, 후원에 가서 하소임이나 살고, 공양주나 살고 채공이나 살고 공부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나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이나 짓고, 그래서 어느 날 근기가 성숙하면 그때 나도 참선도 하고 경전도 보지, 내 둔한 머리에 복 짓는 것만으로도 오감하다.” 이런 마음 가진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벽에 부딪치거든요. 누구나 벽에 부딪칩니다. 벽에 부딪치면 이런 생각을 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이 사람이 아마 그런 편지를 대혜스님에게 보냈나 봐요. **선근의 종자나 심어서** 그런 말을 했지요? **차라리 마음 밭에 부처 종자나 심겠다고, 佛種(불종)을심겠다고** 그랬습니다. **부처 종자.** 그냥 평범한 불자 노릇이나 해서 인연이나 맺어놓자.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淺近(천근)하다**는 말은 아주 얕은 소리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주 **深遠(심원)하다.** 상당히 높은 차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은 저기 유치원생들에게나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미뤄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대혜스님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뭐라고요? **마음 낸 사람은 다 부처가 된다.** 알고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이미 다 부처다.”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일. ←이것만이 남아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이미 수 억만금이 나가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손으로 가서 만지느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인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확인 아니 해도 내 주머니에 있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얕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건방져야 됩니다. 좀 건방지고 좀 넘쳐야 됩니다. 불법에는 좀 건방지고 좀 넘치고 소견이 좀 대단한 것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든지, “나는 근기가 없다.” “소견이 좁다.”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제일 금물로 칩니다. 왜냐? 箇箇(개개)가 다 丈夫(장부)인데요. 不向如來行處行(불향여래행처행)입니다. 부처가 가는 곳을 나는 안 간다 이겁니다. 부처가 가는 곳을 가는 것만도 사실은 장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부처가 가는 곳을 나는 안 간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 부처가 가는 길이지, 내 부처는 내 갈 길이 따로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무리 천시 받고 제대로 취급을 못 받아도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최후에 설한 경전이 법화경이라고 하는데, 법화경에는 500제자 수기 품이 있고 그냥 수기 품이 있고, 유학 무학 인지 품이 있고, 수기만을 전문으로 다룬 3개의 품이 있고 그 외의 품에서도 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열반을 앞두고 유언삼아 물려줘야할 일. 최후로 가르쳐줘야할 일이 수기입니다. 그 수기의 내용은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이름으로 어느 나라에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너희들은 이미 부처다.” 부처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하니 거기에 방편 품에 보면 부처님 앞에 와서 절 한번 하는 사람도 **皆已成佛道(개이성불도).**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 불”** ←이렇게 한 마디 하는 사람도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절하기 싫어서 부처님 앞에 와서 손 한번 번쩍 들어요. 친구 만나서 하듯이 손 한번 번쩍 든 사람도 **개이성불도**입니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어린아이가 저 모래사장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오줌을 싸서 모래를 뭉쳐서 불상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불상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고 절을 하는 그런 장난을 하는 아이도 **개이성불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부처되는 인연이 될 것이며, 무슨 부처되는 공덕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부처 천만 번 되고도 남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그 속뜻은 뭐냐? 이겁니다. 이미 다 부처입니다. 그렇게 아니해도 부처입니다. 부처를 비방해도 부처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빙산의 일각. 조금 억만 분의 1을 알고 있을까 말까입니다. 불교 공부를 함으로 해서 자꾸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폭이 넓어져가고, 깊이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이 일입니다. 불교 공부는 그것입니다. 이미 완전무결한 존재인데 이 완전무결한 사실을 폭을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해가는 일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p. 146**

**지금 도를 배우는 선비가 가끔 느리게 할 곳은 급하게 하고**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급하게 할 곳은 도리어 놓아 느리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知所先後(지소선후)면 則近道矣(즉근도의)니라. 유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뒤에 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은 도에 가깝다그랬습니다. 앞뒤를 잘못 계산해서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둑에도 보면 똑 같은 수인데, 수순 틀려버리면 그만 져버린다고요. 결국 그 자리에 놓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어디에 먼저 놔야 되느냐? 수순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평범한 삶을 사는데도 정말 먼저 해야 할 것.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늘 우리가, 취사선택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취사선택의 삶을 하루 종일 살고, 1년 내내 살고, 평생 내내 취사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정말 한 시간의 삶도, 하루의 삶도 무엇이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저울질해서 취사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어디에 가면 나에게 진정 이로울 일인가?

나에게 진정 이로울 일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법화경 서두에 보면 부처님이 덕이 높은 많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덕이 뭐가 그렇게 덕이 높으냐? 그 표현 중에 **逮得己利(체득기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로울 것을 제대로 챙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 자기에게 이로울 것을 제대로 챙길 줄 아는 제자들이다. 제자들의 덕을 표현하는데 **체득기리.** 진정 자기에게 이로울 것이 무엇인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아라한들의 덕을 찬탄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느리게 해야 할 곳을 급하게 하고 급하게 해야 할 곳을 도리어 놓아 느리게 합니다.방거사가 이르기를 “하루아침에 뱀이 잠방이에 들어가면 시험 삼아 종사에게 어떤 시절인가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無常殺鬼(무상살귀)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오는데 이 시절이 무슨 시절이냐? 죽음이 코앞에 당도 했는데 지금 무슨 시절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빈둥빈둥 놀고, 그대로 탐욕 부리고, 탐 진 치 삼독이 도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평소에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옳으냐? 한번 정신 차리고 정말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나에게 진정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가? 이런 것을 좀 깨우쳐주는 말씀이지요.

**어제 일도 오늘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전생 일을 어찌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내생에 공부하지...’ 천만에요. 어제 일도 모르는데 내생에 사람이 될지 불교를 만날지 못 만날지 그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려서 조금이라도 듣고 보고 할 때, 이럴 때 바짝 좀 공부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보장 안 됩니다. 내일 공부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장 안 됩니다. ‘아이, 내일 왜 보장이 안 되어있어?’ 사실은 거의 오늘과 별 다를 바는 없지요. 그렇지만 아무도 보장은 못합니다.

**결코 금생에 공부하여 투철하고자 한다면, 부처[佛陀]도 의심하지 말고 祖師(조사)도 의심하지 말고, 삶[生]도 의심하지 말고 죽음[死]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더 이상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 이겁니다. 생사 문제다. 부처다. 중생이다. 조사다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부처니 조사에 삶과 죽음에도 휘둘리지 말고 뭐라고요? **모름지기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며, 결정적인 뜻을 갖추어서 생각 생각에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如救頭燃(여구두연)**이라고 처음에 절에 오면 외우는 글이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머리에 불이 붙었다면 제일 급한 일 아닙니까? 제일 급한 일입니다. 제일 급한 일이기 때문에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어린아이를 눕혀놓고 부엌에서 밥을 짓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불을 한 곳에만 떼는 것이 아닙니다. 국 끓이는 불 따로 떼고 밥하는 불 따로 떼고 찌개 하는 불 따로 떼고, 옆에는 삼나무가 잔뜩 쌓여있고, 갑자기 어린아이가 “아~앙”하고 방에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불을 떼다가, 불이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조금만 놓치면 금방 불이 탑니다. 삼나무에 불이 옮겨 붙는다고요. 그래도 어린아이가 울면 거기로 쫓아갑니다. 불이 나든 말든, 밥이야 넘든 말든, 밥이야 타든 말든 우는 어린아이한테 쫓아갑니다. 우리가 그 만치 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울면 진리는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는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진리의 어머니를 향해서 진리의 어머니를 찾느라고 한 번도 울어보지 못 했습니다. 울면 금방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하고 무슨 관광하듯이 슬슬 설렁설렁 그렇게 우리가 불교에 임하니까 이것이 알듯 말듯 하면서도 그쯤알고 마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울음을 터트릴 줄 알면... 사람 때문에 울기는 많이 울지요. 돈 때문에도 울고요. 도 때문에 한 번 울어보세요. 도가 금방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어머니가 금방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는데 불이 나든 말든 어린아이에게로 쫓아가지, 그것 언제 쳐다볼 겨를이 있습니까?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장 대 강좌 8-4 강

**이와 같이 공부를 해 가도 철저하지 못할 때에야 바야흐로 근성이 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둔하다 영리하다. 불법공부는요. 사회의 학문과 달라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공부 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심성이 밝은 사람. 타고난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데 자꾸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종교성이 상당히 발전이 됩니다. 종교적인 성향이 아주 발전되어서 이런 것을 얼른 알아듣고 여기에 상당한 가치 부여를 하고, 다른 세속적인 가치에 별로 관심 없고, 여기에만 아주 심취해서 여기서 어떤 법희선열을 평생 맛보며 사시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당장에 곧 말하기를 ‘나는 자질이 둔해 능히 금생에 철저하지 못하고, 부처 종자를 심어서 인연을 맺겠다.’고 한다면, 이는 가지 않으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 옳지 않습니다.** 바른 말 했네요. **부처 종자를 심어서 인연이나 맺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지요.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특히 세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무슨 공부 되겠나? 그저 적당히 어떤가? 그저 구경이나 하지 인연이나 좀 맺어놓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지 않으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 옳지 않습니다.** 집에 가야할 판인데 가지도 않고, ‘왜 집에 도달 안 되나?’ ‘왜 집에 도달 안 되나?’ 교실에 앉아서 ‘왜 집에 안 가지나?’ ‘안 가지나?’ ←이렇게 엉터리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p. 147**

**제가 매번 道 믿는 사람을 위하여 점점 하루 가운데 힘 덜림을 아는 곳이 문득 부처를 배워 힘을 얻는 곳이라 말하였습니다.** 공부하다보면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자꾸자꾸 하다보면 쉬워져요. 듣는 것도 얼른얼른 알아듣고 참 쉬워진다고요. 그것이 힘이 덜리는 것입니다. 운전 처음에 배울 때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옆에 아무 것도 볼 겨를이 없지요. 한 두 시간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힘을 줬는지 팔이 뻐근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볼 것 다 보고 이야기할 것 다 하고, 산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다 보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콧노래 부르고 라디오 소리 다 들어가면서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힘을 얻는 곳이 힘이 덜리는 곳이고, 힘을 덜 드는 곳이 힘을 얻는 곳.** 그것이 得力입니다. 여기 得力處가 生力處고 생력처가 득력처라는 말씀을 서장에서 상당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 얻는 곳은 남이 모르며, 또한 잡아내서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여기 운전 잘하는 사람. 운전 못하는 사람 전혀 표시 없잖아요. 아무 표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체득하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혹 비행기를 운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道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盧行者(노행자)가 道明上座(도명상좌)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육조스님. 노행자가 밤에 오조스님한테 법을 전수 받고, 가사와 발우떼를 가지고 도망을 갔지요? 도망을 가는데 도명상좌라고 하는 장군 출신이 제일 먼저 뛰어와서 붙잡았어요. 노행자는 겁이 나서 그 가사와 발우를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바위에다 얹어놓고 숨어있었다고요. 그랬는데도명상좌가 그것을 잡으려고 딱 생각하니까 아니거든요. 그 때부터 벌벌 떨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저히 그것을 가져갈 일이 아닌 겁니다.

그 발우떼하고 가사 가져가서 뭐하게요. 그냥 가서 맞추면 되는데요. 승복집에 가서 사면되는데요. 그것을 가져갈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뭔가 전기가 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을 뺏으려왔는데 도저히 손이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하는 말이, “내가 이 발우떼를 뺏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한테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眞心반 假心반으로, 허허 진심도 섞여있고 약간 거짓도 섞여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외치니까 노행자가 나왔어요. 나와서 노행자가 도명상좌에게 법을 일러주지 않습니까? **不思善 不思惡하라.** 선에도 치우치지 말고 악에도 치우치지 말라.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뺏으러 온 것은 악이고, 이것은 세속적인 마음이다. 그런데 이 순간에 와서 뭔가 느끼고는 그것을 도저히 가져가지 못하는 마음은 선이다. 그래 선에도 치우치지 말고 악에도 치우치지 말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대의 **본래면목. 그대의 참 모습**이 무엇일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있는 당신의 實體. 당신의 眞面目. ←이것이 무엇일까? 이런 근사한 법문을 듣고는 거기서 환히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얼른 다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도명상좌도 거기서 ‘아 이분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묻고 얼른 돌아가서 그 쫓아오는 사람들을 전부 막고, 이분이 도망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지금 일러준 이것 외에 또 다른 은밀하고 비밀한 법의 요체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니 “다른 또 일러줄 것이 없습니까? 아주 은밀한 법이 있으면 일러 주십시오.”하니까 그 다음의 대답입니다.

**“네가 만약 자기 본래면목을 돌이켜 비추어 보면 은밀한 뜻이 다 너에게 있다.”** 자기의 본래면목에 눈을 돌이키면 은밀하던지 비밀하던지 秘要(비요)의 창고든지 그것은 전부 **“너 자신에게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말이다.** 그런 법문입니다. 그런 전후 사정이 다 있는 것이지요. **은밀한 뜻이라는 것은 문득 일상에서 힘을 얻는 곳이며, 힘을 얻는 곳은 곧 문득 힘을 더는 곳입니다.** 이것이 자기만이 아는. 이것은 오로지 자기 살림살이 이고, 자기 것입니다. 남이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대접해주는 것 하고는 하등의 관계없는 겁니다. 공부 잘 했다고. 도통 했다고 누가 존경하고, 도통 했다고 누가 알아주고 도통 했다고 누가 돈을 갖다 주는 것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옛날에 소산스님이라고 하는 이는 도는 아주 하늘만치 통했는데, 얼마나 박복 했던지 이름이 호가 소산입니다. 성길疏(소)자 뫼山자입니다. 부엌에 불 땔 나무도 없어서, 나무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듬성듬성 있다고 해서, 듬성듬성 있을 疏자거든요. 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박복하고 가난하게 산 아주 훌륭한 도인도 있었어요. 그 분은 어떤 법맥이라든지 道談(도담)을 논하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데도, 물질적인 것은 인연을 짓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불교 인연해서 돈 벌려고 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러기로 하면 소산스님 같은 이는 그렇게 불 땔 나무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도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秘策(비책)도 불교 안에 있기는 있는데, 지금 간화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하하하 나중에 또 그 비책 가르쳐 달라고 뒤로 와서 만날까봐 겁납니다. 허허허

**세상 티끌의 번거로운 일은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아서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지요. 세상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궁무진** 하지요. 이것 하나 처리하고 나니 저 일이 또 터지고, 저 일을 막아 놓으니까 이쪽이 또 터지고, 인생사는 끝도 없습니다.‘그것을 다 끝내고 공부 하겠다.’ 다 끝내고 나서 중 되겠다.’ 그런 사람치고 중 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많이 있었어요. ‘아, 이 일만 끝내고’ ‘이 일만 끝내고 간다.’ 그 전에 무슨 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번에 내가 고시가 되던 안 되던 무조건 출가합니다.” 저한테 와서 그랬다고요. 됐는지 떨어졌는지 도대체 소식이 없어요. 하하하 뭔가 또 다른 일이 생겼겠지요. 그 일은 덮어놓고 또 다른 일이 생겼을 겁니다. 몇 번 왔다고요. 몇 번 와서는 사람도 괜찮아요.

고시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심성도 좋고요. 괜찮은 상좌하나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고 싶을 때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돼버려야지, “이것 처리하고 저것 처리하고 하고나서 내가 시작한 것이니까, 한 10년 준비한 것이니까 이번에는 되던 안 되던 한 번 쳐보고나 들어오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돼서 안 오는지 안 돼서 안 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威儀(위의) 안에 일찍이 서로 버리지 않은 것은** 行 · 住 · 坐 · 臥지요. ←四威. **시작 없는 때로부터 그와 더불어 맺은 인연이 깊었던 것이고,**

세상사는 우리가 오랜 세월. 수 억만 겁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인연을 너무 깊이 맺었고, **반야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반야의 지혜는 시작 없는 때부터** 아주 오랜 세월 이전부터. 수수 억 겁 전부터 **그와 더불어 맺은 인연이 얕았던 연고입니다.**그러므로 공부가 잘 안 되지요. 허허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공부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인연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불교공부가 되었든, 아니면 꼭 자기가 다음 생에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불교 공부하러 오지 말고, 바로 그 일부터 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을 자꾸 익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익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익히면 그것이 薰習(훈습)이 되어서 다음 생에 아주 잘 됩니다. 여기에 이야기 해놨잖아요. 세상사는 왜 익숙하냐? 수수 억 겁 전부터 해왔던 것이 익숙한 겁니다. 불교공부는 왜 잘 안 되냐? 수수 억 겁 전부터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서툴다고요.

그런 말이 있지요. “내 생에 잘 하려면 금생에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欲知前生事.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면, 今生受者是라. 금생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전생에 했던 일입니다. 어느 정도 했던 일이라고요. 전생에 우리가 모두 만났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이렇게 만나는 것이지요. 欲知來生事인댄 今生作者是라. 내생에 그럼 내 인생이 어떨까? 내일의 내 인생이 어떨까? 내생은 모르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내일의 내 인생이, 아니면 내년에 내 인생이 어떨까?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내일의 내 인생입니다. 오늘 소득이 많았었으면 자고나서 ‘야, 오늘은 서장 강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래서 교재도 한 번 펼쳐 보기도 하고, 또 요즘 불교 TV에 나오니까 한 번 틀어서 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또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내일의 내 인생은 바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달려있다. 오늘 하고 있는 이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알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야와 세상사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선지식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한결같이 헤아리기 어려움을 알 것입니다. 만약 시작 없는 때로부터 티끌의 번거로운 인연이 얕고 반야의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면 무슨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척척척 다 되는 것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아주 그 자기의 재능을 십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전생에 익숙하게 한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뭐 든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중 된 것을 보면 전생에도 아마 중노릇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 믿는데 세금 드는 일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딱 그려지면, 거기에 매진하세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다른 어떤 남이 비까번쩍하게 잘 하는 것에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가치관이 있는데, 자기 소신이 확실하면 뭘 그렇게 남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타고 벼슬 높아 지는데에 기웃거릴 것 뭐 있습니까?

처음에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불교공부를 하고 특히 선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高手들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下手들이나 하는 겁니다. 下手들. 인생의 하수들이나 하는 것이지, 인생의 고수들은 그런 데에 기웃거리지 않는다고요. 남이 뭐라고 했든, 평가 기준이 어디 정해져 있나요?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출세간의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나는 서장 공부하는 사람이야.’ ‘간화선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대통령 10번 하는 것 보다 낫다고요. 꼭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장에 임할 때 의외의 소득. 기대하지 않았던 큰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별로 크게 긴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략을 하고 **조대제 도부에게 답함** 이라고 하는 공부를 다 한 것으로 오늘 서장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정리 않고 답변만 정리 했습니다.

탄허스님 화엄경 합론을 다 탈고를 하셔서 교열을 몇 달에 걸쳐서 함께 했는데, 제가 눈물을 흘린 대목이 바로 **四弘誓願**을 설명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화엄경에 있는 것은 아닌데 화엄경을 해설한 청량국사의 글입니다. 천하의 그 美文. 아름다운 글을 쓰기로 유명한 분이 청량국사인데요. 그 분이 화엄경 어느 대목에서인가 **四弘誓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3가지 차원으로 사홍서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을 맹세코 다 건지리다. 중생이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맹세코 그를 다 건지겠다는 안목이 있는가 하면, 중생이 본래 공한 줄 알고, 나도 공하고 중생도 공한 줄 알고 중생을 열심히 건지겠다는 차원이 있고 또, 한 차원 올라가면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부처인 중생인줄 알면서 내가 맹세코 다 건지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홍서원을 그런 차원으로 쭉 끝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참 정말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四弘誓願**이라 하더라도 번뇌가 곧 보리. **煩惱無盡誓願斷.**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하더라도 번뇌가 곧 보리입니다. 번뇌가 곧 보리. 生死가 곧 涅槃입니다. 그렇게 알고 번뇌를 열심히 끊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말로는 그런 모순의 말이 없습니다. 그런 모순적인 말이 없다고요. 특히 흑백논리로 비추어보면 그런 모순이 없는데,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그런 말이라야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런 말로 설명을 하고, 또 그런 말이 납득이 되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흑백논리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도 본래 보리인 번뇌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알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 본래 부처인 중생을 제도한다. 부처인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 참 모순이지요. 모순이지만, 그렇게 알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서장의 정신과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8강 終 -

서장 대 강좌 9 - 1

앞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있지 않고 實參(실참) 實究(실구)를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거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좌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선을 통해서 그 동안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 설사 불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어떤 문제. 자신의 가정사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좌선을 해보면, 내 가슴에 닥아 오는 느낌이 다르고, 또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강의 초기에 우스갯소리로 평생 事判(사판)노릇을 하다가 선방에 대중공양을 좀 내고, 방부를 들여서 한참 한 달쯤 참선을 하다가“알았다.”“무엇을 알았나?” 대중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수년전에 돈을 5전인가 누구한테 꿔 줬는데 누구에게 꿔 줬는지 몰라서 궁금했었는데, 아 이제 누구에게 꿔 줬는지 알았다.”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그래서 이 실참 실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이것은 해 봐야 돼요. 요즘은 시민선방도 많고, 또 주말에 산사를 찾아가서 1박2일 정도 용맹정진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가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상식이 없다면 『서장』에서 권하고 있는 狗子無佛性(구자무불성). ←이 화두를 우선적으로 참구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보다 더 쉬운 화두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풀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참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정말 화두를 들 때는 세상이 어떻게 되던,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든, 해가 서쪽에서 뜨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말고 心中無一事(심중무일사)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의 일도 남겨두지 않는 그런 기분이 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한 시간만 그런 기분이 되어 봐도 그것은 대단한 경험입니다. 한 시간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잡다한 세상사. 잡다한 모든 인연사를 늘 감지하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함께 굴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 아니 해도 늘 함께 하면서 사는데, 화두를 든다는 이 공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지구가 돌든 안 돌든, 그 문제까지도 내 마음으로부터 놓아버리는 그런 기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고, 선불교에서만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두를 드는 동안만은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일마저도 다 한 번 놓아보는 것. 한두 시간. 또는 1박2일 정도. 아니면 한 1주일 용맹정진을 한다면, 한 1주일 동안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도 아무 탈 없습니다.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지구는 여전히 탈 없이 돌아가고, 올 봄은 여전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탁 놓아버리는 것. 우리 방하착 배웠지요?

동양화에서 餘白(여백)의 중요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삶의 한 기간 중에서 정말 철저히 텅 빈 여백을 만들어 보는 것. 크게 깨달으면, 재수 좋아서 크게 깨달으면 더 말할 나위 없지만,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정말 철저히 비우는 시간을 오직 화두 하나에 내 삶을 다 걸고 몇 시간이라도 보내보는 것이 아주 신비한 경험이 되고, 아주 특수한 경험이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가 서양에서도 크게 빛을 보는 것입니다.

**p. 151. 20. 허사리 수원에게 답함(1)**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앞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땅과 같아서, 땅은 토양이 좋아야 되고, 또 그 흙이 두터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믿음이 있겠지만 그 믿음이 더욱 더 기름진 토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로서, 길이 일체 선한 법을 기른다”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믿음은 나이든 사람들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 또 “믿음은 손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손이 들어서 무엇이나 붙잡을 수가 있고, 책을 잡았다면 책장도 넘길 수 있고, 연필을 잡고 쓸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손이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크게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활용하기 시작하면 못 만들어 내는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음악도, 위대한 조각도, 위대한 그림도, 수 억 만 원짜리의 고려청자도 손이 만듭니다. 야~ 손은 대단하지요. 평소에 손에 뭐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음악도 나오지 않고, 그림도 나오지 않고, 어떤 조각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이 강의실 건물도 전부 손이 만든 것 아닙니까? 아주 맹목적인 신심을 가진 불자들의 그 신앙의 강도를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대단합니다. 저쪽 다른 종교의 광신도 못지않습니다. 다른 종교광신도 뺨칠 정도로 우리도 그런 아주 광적인 믿음을 가진 불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고, 또 너무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믿음은 아주 반듯하고 정말 본보기가 될 만한데, 믿음의 강도가 좀 약합니다. 토양이 좀 기름지지가 못합니다.

여기도 이야기 했지만, **信爲道源功德母(신위도원공덕모)라.** 도의 근원이다. 공덕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일체도와 일체공덕을 다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한다. 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손이 그 뛰어난 예술품을 다 손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모든 불보살이 무엇에서부터 불보살이 되었겠습니까? 믿음으로부터 되었거든요.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서도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둘 일이지요.

**천 리를 가고자 하면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그렇지요.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법을 證得(증득)하는 것도 처음에는 十信(십신)으로부터 들어간 뒤에 法雲地(법운지)에 올라 正覺(정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 歡喜地(환희지)도 믿음을 인하여 歡喜心(환희심)을 낸 緣故(연고)입니다.** 대혜스님의 불교적인 지식의 强點(강점)이 화엄경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깨달으시기 전에 一切示敎(일체시교)를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서 화엄경을 봤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모를 때 본 것과 알 때 본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 서장에도 화엄경을 지주 인용하는 이유가 그런데서 볼 수 있습니다.

**十信**이라고 하는 것도, 맨 처음 **十信(십신)· 十住(십주)· 十行(십행)· 十廻向(십회향)· 十地(십지)· 等覺(등각)· 妙覺(묘각)** ←이렇게 五十二位(오십이위)의 地位漸次(지위점차)를 나열해 놓은 것이 화엄경인데, 여기 **法雲地**라고 하는 것이 **十地.** 50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50번째 지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되었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코 척추 뼈를 돋게 세워 세간과 출세간의 한량없는 度量(도량)을 가진 놈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생철로 鑄造(주조)된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참 제가 선방에 있으면서 잊지 못하는 구절 중에 바로 이겁니다. **生鐵鑄就底(생철주취저).** 생철로 주조해서 만든 사람. 線(선)이 아주 굵고, 근기가 아주 뛰어나고, 용맹심이 있고, 삼국지의 장군으로 치면 관우 장비를 넘어서서 조자룡 같은 그런 백만 군중 안에서 조자룡 혼자 썩은 칼로 무 베듯이 하는듯한 기백. 선사들이 그런 예를 잘 들거든요. 여기 **生鐵鑄就底. 생철로 지어 만든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불교공부. 특히 간화선을 하다보면, 정신에도 뼈가 생긴다고 제가 했지요? 근육이 생기고 뼈가 생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화두를 들면 사실 그래요. 기도만 열심히 해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데 그 중에서도 화두를 들고 마음을 집중하는 이 정신운동은, 깨달음을 위한 공부가 정신운동이니 무슨 정신집중이니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수준으로 이야기 해본다면 대단한 정신운동이거든요. 정말 근육이 생기고 뼈가 생깁니다. 흐물흐물한, 그늘에서 자란 풀 같은 근기라 하더라도 정말 생철로 만든 듯한 근기가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하는 듯 마는 듯, 시들시들한... 그렇게 한다면 **결코 통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人情(인정)이 없어서 전해 줄 수 없으니, 모름지기 스스로가 살펴 發心(발심)해야 비로소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판단한다면 영겁이 지나도록 쉴 때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할 것이 흔히 우리가 “염화시중”하면 이심전심. 또 다자탑전반분좌. 부처님의 三處傳心(삼처전심) 이야기를 하면 의례히 이심전심이라는 것이 따라 다니고, 거기에는 전한다는 말이 또 의례히 따라 다니고, 禪家(선가)에서는 법을 전했느니 전해 줬느니 전해 받았느니 하는 “전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지요? **인정이 없어서 전해 줄 수 없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자기가 살펴서 發心해야 된다.** 고 했잖아요. 그냥 認證(인증)해 주는 것이지. 전해주는 것은 추호만큼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전해주고 전해 받고 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 줬겠습니까? 야수다라에게 전해 줬을까요? 라후라에게 전해 줬을까요?

저는 그것이 판단이 잘 안 섭니다. 허허허하하하 가섭이나 아란은 뒷전입니다. 가섭. 아란은 순번에 들지도 않을 겁니다. 또 마하파사파제비구니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해준다.”는 말이 왜 그렇게 많으냐? 전해 받느니 주느니 하는 말이 그렇게 흔하냐? 이겁니다.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말에 떨어지고, 말을 따라가고, 말에 속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함정 파서 함정이 생긴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말은 본래 사실을 표현하는데 불합리한 도구이기 때문에 저절로 함정이 생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獅子(사자)는 咬人(교인)하고 韓盧(한로)는 逐塊(축괴)한다.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을 가서 물어요. 그런데 똥개는 자기를 해치려는 그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돌이 먹을 것인가 하고 거기 가서 코를 킁킁 댄다는 겁니다. 말을 쫓아가면 바로 똥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을 쫓아가면 사자가 돼야할 판인데 똥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로서 표현될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사 전달을 하는데 제일 좋은 조건이 그래도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말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고하게 자기의 소신을 세워두면, 불교이해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사를 이해하는 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여론들을 그대로 잘 안 믿습니다.‘무슨 뜻으로 이렇게 표현 했을까?’‘무슨 뜻으로 이렇게 발표 했을까?’ 전부 속에 딴 뜻이 있는 겁니다. 겨우 이제 말 쫓아가지 않을 정도는 됐습니다. 똥개는 면했나 봅니다. 하하하 그래도 가끔가끔 까딱까딱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을 이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는 데도 사람이 깊이가 있어지고, 무게가 있어지고, 가벼워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또 소개 되는데요. 믿음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날로 일어나 응용하는 자리가 완전무결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응용해서 쓰는, 맞추어서 사용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완전무결해서석가나 달마와 조금도 다르지 않지만, 스스로 본인이 보기를 철저하지 못하면 뚫어 통과하지 못합니다. 온몸이 聲色(성색)안에서 활동하고 있어 도리어 그 속을 향하면서 나오기를 구하니, 더욱 교섭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불교는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고, 또 이 세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스승이 없다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믿음이 가게 되는 것이 "내가 길이다." "내가 빛이다." ←이런 말을 도대체가 어디에도 하지 않았고, 궁극에 가서는 **人人이 本具하고, 箇箇(개개)가 圓成(원성)이다.**

사람 사람들이 본래로 다 갖추었고, 개개인이, 현재 이대로,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남녀노소 동서고금 불문하고 현재 아무리 도덕적으로, 또 어떤 세속적인 가치로서 허물이 많다 손치더라도, 또 설사 그 반대로 세상에서 상당히 추앙을 받는 훌륭하고 선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 사람들에게 기존의 것. 이미 있는 것. ←이것을 보시고서 이것을 들어내시고, 이것을 開示悟入(개시오입).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도록, 그 경계에 들어가서 살도록, 그러니까 이미 본인에게 본래로 갖춰져 있는 것. 현재 우리가 육바라밀을 닦았기 때문에, 불교에 입문했기 때문에, 불교의 초심자 과정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전혀 붙지 않고,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불교를 믿는 사람도, 거기에는 전혀 차별 없이 이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성. 인간의 지고한 근본가치. ←이것을 부처님은 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절대 자신이 길이다 빛이다 이런 말 아니합니다.“天上天下唯我獨尊(천상천하유아독존)” 이라는 소리는 뭐냐? 그것도 만인이 공유하라는 뜻으로, 萬人共有(만인공유)의 입장에서 하는 소리지, 자기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여기 대해스님도 분명히 그것을 밝혔잖아요? **날로 일어나서 응용하는 자리가 완전무결해서 석가와 달마로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제록에서 임제스님은 일보일배를 하면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가는 無着文喜(무착문희)선사라고 아주 대단한 선사입니다. 본래는 선사소리를 못 들었는데, 나중에 깨달아서 선사소리를 들었지만,

그 분이 그렇게 신심이 장해서 一步一拜(일보일배). 요즘 우리가 티벳 불자들 일보일배를 하는 것 많이 보시지요? 그와 같이 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그렇게 가는데, 임제스님은 단호하게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내가 보니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일보일배를 하면서 가는 너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문수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 확신에 차지 않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아무도 임제스님의 그 말이 틀렸다는 사람 없습니다.

오대산에 문수 신앙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또 관음도량에 관음신앙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관음도량에 관세음이나, 문수도량에 문수나 똑 같습니다. 오대산에 문수가 없다면, 포탈라궁에 관세음보살도 없습니다. “친견하러 가는 그 당사자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문수다.” 제가 임제록에서 정말 숨 막히도록 감동한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 이미 있는 것입니다. 닦아서 된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불교 안에는 닦아야 된다.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次第(차제)도 많이 나열하고, 닦는다는 이야기도 많고, 웬 그런 수행이 많은지요. 그것은 그런 근기들에게는 바로 본래적인 것을 들어 보이면 너무 허황하니까요.

꽃을 들었는데 거기에 미소할 줄 아는 사람은 가섭 하나였으니까 별별 방편을 나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별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간화선을 이야기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는 정말 본래의 불교. 순수한 불교. 거품 없고 정말 알맹이. 알맹이 불교를 우리가 이야기 하는 이것이 선불교의 특징이잖습니까? 왜 간화선인가? 지금 너무 불교 안에도 주의 주장과 학설들이 많아서 순수한 불교가 잘못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불교. 정법불교를 배워서 정법 속에서 우리가 불교를 누리자고 하는 뜻에서 간화선이 빛을 보는 것이 어닌가?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도 **석가와 달마로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날로 일어나서 응용하는 그 자리가 완전무결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나면 화내는 그놈입니다. 그 능력이라고요. 석굴암 부처님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부처님이지만 화낼 줄 압디까? 그 부처님은 화낼 줄 몰라요. 웃을 줄도 몰라요. 조각해 놓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야말로 목석이라고요. 좋은 것 보고 탐심 낼 줄 알고 마음에 안 맞으면 화낼 줄 아는 이것이 살아있는 부처라고요. 그러니까 **탐욕이 즉시 도다.** 라고 그럽니다. “탐욕이 즉시 도” 라고요. 선불교에서는 최소한도 그런 것이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요. ‘탐욕이 도라?’‘아이탐욕, 그거 버려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탐 진 치 삼독과 8만4천 번뇌를 다 제거하고 없애고 갈고 닦아야만 비로소 “도”라고 일반 불교에서는 대개 가르치고 있는데, 전혀 엉터리 아니냐? 그래요. 선불교는 그런 일반 저급한 불교에다 대면 엉터리 불교지요. 최소한도 그 수준을, 그 안목을 가지고 그 잣대로 재면 엉터리지요. 그러나 진짜 엉터리가 누군지는 그것은 아는 사람만이 알지요. “탐욕이 즉시 도”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데에 전기 스파크 일어나듯이 눈이 번쩍해야 되는데요. 어록을 읽다가, 경전을 읽다가 이런 대목에서 ‘아! 이거로구나!’하고 정말 눈을 한 번 번쩍 떠야 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이야기라든지, 관세음보살이야기라든지, 여기에 대혜스님의 **일용에 응용하는 것.** 보고 듣는 그 사실. 그 놈. 그 당체. 그것이 **완전무결해서 석가와 달마로 조금도 다르지 않은데,** 조건을 한 가지 달기를, **다르지 않지만 스스로 본인이 보기를 철저하지 못하여** 그 사실에 대해서확신이 부족하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뚫어 통과하지 못합니다. 온몸이 聲色(성색)안에서 활동하고** 이것은 어떤 사물과 들리는 소리에 그만 끄달려서 모는 그 놈을 망각하는 겁니다. 오대산에 문수가 있다는 거기에 끄달렸지,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가는 그 주인공. 그 당체는 그만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온몸이 성색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지요. **도리어 그 속을 향하며 나오기를 구하니, 더욱 교섭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 인간이 본래로 가지고 있는 것. 아무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다듬을 것도 없고, 화장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첨가할 것도 없는 그런 지고한 가치. 완전무결한 인간본성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눈을 뜨면 불교공부는 끝입니다. 결국 그것 하나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서장 대 강좌 9 - 2

**p.152~153. 이 일은 또한 오래 參究(참구)한 사람이 叢林(총림)을 두루 거친 뒤에 통달하여 얻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선방에 50년. 60년 있었다고 해서 꼭 이런 이치를 알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예로 들지만, 6조 혜능대사 같은 이들은 부처 佛자도 모르고,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한 나무꾼이었는데 금강경 소리 한 구절 떡 듣고는 그만 그 순간에 끝났습니다.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 겁니다. 그래 久參衲子(구참납자)라고 뻐길 것이 뭐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만 할 줄 알아도 사람이 어지간히 철들 텐데, 그런 생각마저 못하고, 뭐든지 연륜이 쌓이고 오래 됐다고 거기에 相이 붙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의 지고한 가치는 결코 초심자나 구참이나 여기에 분별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총림에서 머리가 희고 이가 누렇게 되었으나 통달하여 깨닫지 못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잠깐 총림에 들어와 한번 돌이켜 문득 살아나, 천 가지를 통달하고 백 가지를 승당했습니까?** 그렇지요. 6조 스님이 그렇듯이 또 어떤 사람들은 중 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그냥 눈이 환히 밝아져서 일 마쳐버린 사람도 있고, 그저 한 철 공부하고는 일 마쳐버린 사람들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 참선 회에 참석하셔서 하룻저녁 잘하면 재수 있으면 건진다니까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쌓아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사람일수록 못 깨닫는다는 이 말도 어폐는 있지만, 어쩌면 그 말이 더 가까울지 몰라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아니해 보셨지요? 아니해 보셨으면 더 영험이 있습니다. 영험이 더 있어요. **발심은 선후가 있어도 마음 깨닫는 것은 선후가 없습니다.** 불교에 입문한 것이야 인연 따라서 들어오다 보니까 선후가 있지요. 10년 된 사람. 20년 30년 된 사람도 있지만, 마음 깨닫는 것에는 어디 선후가 있겠습니까?오늘 들어온 사람도 깨닫고, 들어오지 아니하고도 깨닫고요. 심청전 하이라이트 심봉사 눈뜨는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심봉사는 그래도 잔치에 참석이나 해서 눈을 떴지요. 앉아서 뜨는 사람. 서서 뜨는 사람. 누워서 뜨는 사람. 오다가 뜨는 사람. 잔치에 거나하게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뜨는 사람. 잔치가 있다는 소문도 못 듣고 집에 그냥 있는 사람. 저~ 지방에서 그런 소문도 못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동시에 눈을 뜨는 겁니다. 잔치에 참석하면 참석했다고 해서 눈뜨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참석 못한 사람도 눈을 뜨는 겁니다. 그날 맹인들 눈뜨는 소리가 그냥 따닥따닥, 따닥따닥. 여기서도 따닥. 저기서도 따닥. 눈뜨는 소리 다 들어보셨지요? 그것 아주 참 기가 막힌 소설이지요. 그것이 화엄경 도리입니다. **一中一切多中一, 一卽一切多卽一(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 우리 늘 외우는 그 도리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기가 막히게 표현했잖아요? 구참선달 이라고 해서 잔치에 참석해서 이런 저런 소리 꼭 들어야만 눈뜨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에 아니 와도 눈떠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 안 들었고, 괜히 길가다가, 장사하고 싸우다가도 문득 눈 뜨는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있었지요? **廣額屠兒(광액도아).** 소 잡는 백정이 어느 날 소를 잡다가 칼을 척 집어 던지면서 “나도 일천 부처님 수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불교 참 재미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대단하지요. 어디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까? 불교. 특히 선불교만이 이런 이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승불교에도 廣額屠兒이야기는 禪적인 맛이 상당히 가미된 열반경 이야기지만, 대승불교에서부터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지요?

**옛날 李文和(이문화) 都尉(도위)가 石門慈照(석문자조)를 參禮(참례)했을 때 말 한 마디에 承當(승당)해서** 승당이라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말 한 마디에 깨달아서 문득 천 가지를 통달하고 백 가지를 감당하였습니다. ←千了百當(천요백당).** 옛날부터 깨달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 마디에 천 가지를 통달하고 백 가지를 감당하였다.** 했으니까 **이에 게송을 지어 자조에게 이르기를 “도를 배움에는 모름지기 쇠로 된 사람이어야 공부하여 마음을 판단할 것이니,** 저 앞에 있었지요? **쇠로 된 사람.** 무쇠로 된 사람이라야, 근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바로 위없는 보리를 얻고자 하면 일체의 시비를 상관하지 말라” ←**공부인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 **고 하였습니다.** 공부인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석문자조** 스님이 **이문화** 라는 **도위**벼슬 하는 사람에게 내린 게송이 바로 이겁니다. 공부인의 자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스님들도 보면 현실문제에 등한시 하면 살아있는 불교가 아니고, 생명력을 잃은 불교다.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사건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스님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아마 다들 짐작 하실 겁니다. 특히 출가인은 그런 데에 시시비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좀 뜻있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것은 時節因緣(시절인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절인연에 따라서 불가항력입니다. 지금 제 방 앞에 매화가 있는데요. 그 놈이 피려고 하다가 추워서 오므라들고, 피려고 하다가 오므라들고, 피려고 하다가 오므라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우리 손으로 이 지구를 설사 파멸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때가되면 불가항력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던지, 아니면 외계인이 와서 하던지 이 시절인연을 무시 못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문제 삼고 산 것이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은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시간 좀 더 흘러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말 **위없는 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일체의 시비를 상관하지 말라 ←**이것이 **석문자조**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만약 ‘내가 한 시간을 좌선하고자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깡그리 놓아버리고,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든지, 해가 서쪽에서 뜨든지, 뭐 안 뜨든지 까짓 것. ←이것마저도 상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다 가스 불 위에다 솥을 올려놓고 왔든지, 내려놓고 왔든지, 비는 오는데 빨래를 밖에다 널어 놨든지, 안에다 널어 놨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를 다 놓아버리세요. 한 시간을 하더라도 만사를 놓아버리고 해야 그것이 소득이 있습니다.

**一切是非(일체시비)를 莫管(막관)하라.** ←이것은 공부인의 철칙입니다.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소득이 있지요. 하다못해 세속의 어떤 공부나, 세속의 어떤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온 정신을 다 동원해서 매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가 좀 남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출세간의 공부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다만 바로 그 자리에서 공부해 가서 죽으면 문득 쉴지언정 뒤도 생각하지 말고 앞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 따라가지는 못해도 정말 속 시원하지요? 얼마나 아주 속 시원합니다. **죽으면 쉴지언정.**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못 쉰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 버렸는데 그 사람 공부 안 한다고 누가 시비 하겠습니까? **죽으면 문득 쉴지언정 앞뒤 생각하지 말고** 밀어붙이라 이겁니다.

그전에 오대산에 방한암 스님 있잖아요. 우두산에서 공부하실 때 어떤 객스님이, 한암 스님이 거기서 공부하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우두암이라는 토굴에 가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스님 한분이 미동도 안 하고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아, 저 스님이 한암 스님이구나.’ 싶어서 걸망을 내려놓고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옆에 그냥 앉았어요. “오네가네” 인사 없습니다. 愼人事往還(신인사왕환). 인사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삼가 하라고, 하지 말라고 초발심자경문에 딱 박아놨거든요. 자기가 사는 절에 아니, 자기 방에까지 들어 왔는데도 미동도 아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쯤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객스님은 먼 길 와서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한 시간 쯤 앉아있으니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선정에 들어있는 사람 깨울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나와서 부엌을 더듬어 솥을 열어보니까 싸늘한 겁니다. ‘이 스님이 밥도 안 해먹나?’ 싶어서 (불을 뗐던 아궁이에다 손을 넣어보면 최소한도 한 이틀은 따뜻한 기운이 있거든요.) 아궁이에다 손을 넣어보니 아무 온기가 없는 겁니다. 며칠을 밥을 아니 해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앉아 있는 겁니다.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효봉스님 잘 아시지요? 효봉스님 절구통 수좌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해도 그런 제대로 공부한 스님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만으로도 뭔가 힘과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 스님도 하도 오래 앉아 있어서, 앉아서 버티어서 절구통 수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닙니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냥 앉아 배기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짓물러서 곪아 터져서 고름이 나와서 며칠 후에 일어나니까 방석이 자기 옷하고 눌러 붙어서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짓물러서 고름이 내려앉고 또 내려앉고 마르고, 마르고 내려앉고 마르고 내려앉고 해서 이것이 시멘트 해놓은 것 같이 방석이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지로 본 사람들이 한 소리입니다. 본인들은 그런 소리 아니 하지요. 한암스님 이야기도 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독하려면 그쯤까지 독 해지는가 봐요. 정말 지독하지요. 그것은 근년의 스님들의 이야기니까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만두고 근년의 스님들의 이야기니까요. 한암스님은 제가 뵙지 못했어도 효봉스님은 뵙거든요. 불과 한철 정도지만 효봉스님은 동화사에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無 라?” “無 라?” 하고 고함을 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같이 앉아있든 딴 방에 있든 간에, 그러면 자기 자신도 경책하고 다른 사람도 경책하고 노장이 “무 라?” “무 라?” 하고 고함을 치는데 그 소리 듣고, 젊은 수좌들이 어떻게 누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화두가 되 든 안 되든 앉아서 정진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서서히 서장을 끝낼 시기가 되어가서 이런 이야기도 이런 기회에 들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는 구참 이라든지 초심자라든지, 또 오래 했다든지 얼마 아니 했다든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어느 순간 마음의 눈을 문득 뜨기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생철로 지어 만든 사람.** 또 **일체의 시비를 상관하지 말라.** 고 하는 이런 경책에 좀 부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만 바로 그 자리에서 공부해 가서 죽으면 문득 쉰다.**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p. 155~156. 21. 허사리 수원에게 답함(2)**

우리 불가에는 불교에 입문하면 부처님에게 아니, 불교에 적을 두게 되었다는 뜻에서 불명내지 법명을 짓게 됩니다. 여성 불자님은 여성 불자에게 맞게 짓고, 남자들은 남자에게 맞게 지어서 법명. 또는 불명. 법호. 도호. 도 닦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이야기지요. 여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불자에게 아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바른 믿음과 바른 뜻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바른 믿음 바른 뜻을 세우는** 것은 佛祖가 되는 기본이지요. **제가 그 때문에 湛然(담연)이라고 당신의 道號(도호)를 지어드립니다.** 이것이 아마 청을 했을 겁니다. 청을 했으니까 지었겠지요. 청도 아니 했는데 지었으면 대혜스님 답지가 않지요. **湛然**이라고지었어요. 옥편에 보면 맑을 잠이라고 표현 했는데, 불가에서는 “담”이라고 읽습니다. “맑다.”이 말입니다. 마음의 본성은 깨끗하다. 겉으로는 온갖 탐 진 치 삼독과 8만4천 번뇌로 오염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본성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설사 오염이 되어 있어도 그 본성은 아주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사람, 사람이 본래 갖추었고, 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이 **석가와 달마로 더불어 다르지 않다** 하는 그 구절에 인간의 지고한 기존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담연**이라는 뜻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호를 지어 준 것이지요. **물이 맑아 움직이지 않으면 비고 밝아서 스스로 비추는 것과 같아서 마음 쓰는 수고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湛然이라는 자기 법호 하나만 잘 챙겨도 공부 끝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법이 湛然을 떠나지 않아서 털끝만큼도 새지 않습니다.** 세상사 모든 것이 뭐라고요? 一切唯心造(일체유심조). 결국은 우리 한마음자리 가리키는 소리가 **湛然**이니까 모든 세간사나 출 세간사나 전부 우리 한마음이 만든 것이고, 우리 한마음이 운영해 가는 것이니까 **湛然을 떠나지 않다**고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 도장[印]으로 一切處(일체처)에 찍어 정하면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낱낱이 해탈이며, 낱낱이 밝고 묘한 것이며, 낱낱이 실제가 되어, 작용할 때에도 또한 맑으며, 작용하지 않을 때에도 또한 맑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 사실은 이 사실 하나 밝혀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승불교나 다른 어떤 잡다한 가르침에는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돌고, 또 수많은 근기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별별 가르침이 많게 된 것입니다. 잎을 다 떨쳐버리고, 온갖 가지 다 쳐버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선불교입니다. 선불교는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지요. 부처님도 때로는 꽃 한 송이 들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리를 반 나누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이 다 그야말로 이 한 물건. 여기서 **湛然(담연)**이라고 표현한 이 사실을 드러내 보인 것이고, **湛然**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인 것이 꽃을 들어 보인 것이고 손가락을 들어 보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얼른 가슴에 와 닿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밖을 헤매면서 맴돌고 있을 뿐이지요. **조사가 이르기를 “다만 마음으로 分別(분별)하고 計較(계교)하면 자기 마음으로 보고 헤아리는 것이 다 꿈이다. 만약 마음이 寂滅(적멸)하여 하나도 생각을 움직임이 없으면 이것을 正覺(정각)이라 이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心中無有事. 우리 마음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 것. 그러면 그것이 고요한 자리입니다. 고요하면 세상에 어떤 경계도 어떤 일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려해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되지 아니해도 나[我]는 아무 손해 없습니다. 전부 손해 볼까봐 두려워서 뉴스보고 신문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저렇게 생각해 보고, 연구 많이 했다고 언제 무슨 연구원으로 불러간 적도 없는데, 세상연구 했다고 연구원으로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데려가지도 아니해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연구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날 뉴스 안 보면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까봐 염려하고 두려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럴 일이 없으니까 **寂滅**한 자리. ←이것이 불교가 터득한 경지이고,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 제시한 아주 좋은 공양입니다.

적멸한 자리를 우리가 한 번씩 맛보는 것. 만사 다 놓아버리고, 정말 放下着해버리고 한 순간이라도 철저히 어떤 여백을 가져보는 그것이 선불교를 만난 다행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교학상의 불교는 외울 것도 많고, 이리저리 짜 맞춰야 할 것도 많고 그래요.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그런데, 이 선불교는 그런 모든 것을 철저히 비울 수 있으면 잘 비우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동양화의 餘白(여백)이 있음으로 해서 그 그림이 살아나지 여백이 없으면 그림이 안 살거든요. 여백을 어떻게 적절하게 안배하느냐? 여기에 동양화의 승패가 걸렸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인생사에 있어서도 이 선불교라는 것. 간화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백은 연하게도 칠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붓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의 여백도 어떤 티끌도 거기에 남겨두지 말고 철저히 비워버리는 것. 그래야 다른 어떤 활동상의 내 시간이, 활동하는 내 시간이 아주 돋보일 것입니다. 아주 빛날 겁니다. 참 꿀맛 같고 소중할 것입니다. 마음에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이 이미 바르게 되면, 날로 쓰는 하루 가운데 색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냄새를 맡고 맛을 분간하며, 촉감을 느끼고 법을 알아 行住坐臥(행주좌와)와 語黙動靜(어묵동정)이 고요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있고 없음에 다 맑고 깨끗할 것입니다.** 여백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그림이 살아나듯이 우리 삶에도 여백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작용하고 활동하는 그것이 아주 빛을 발한다. 그것도 역시 아주 깨끗한 삶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우리의 어떤 여백이 있음으로 해서... 잠 하고는 달라요. 잠자는 것도 여백이 아니냐? 그것도 여백은 여백이지만, 그런 것 하고는 다르지요. 잠이라는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아마 깜깜한 여백일 것입니다. 깜깜한 여백. “惺惺寂寂(성성적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성성적적한 그런 餘白. 우리 정신에서 그런 空間. 그런 사간을 가지면 이것이 무슨, 여기도 그런 것을 많이 지적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空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합니다. 설사 공이라 하더라도 空에 한 번 떨어져 보세요. 괜찮으니까요.

**이미 맑으면 움직일 때에는 맑음의 작용이 드러나고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맑음의 本體(본체)로 돌아갈 것입니다. 체용이 비록 다르나 맑은 것은 하나입니다. 栴檀香(전단향)을 쪼갬에 조각 조각이 다 전단향인 것과 같습니다.** 불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놓고 점안할 때 의례히 하는 법문. 아주 최상의 법문이지요. **栴檀木做衆生像(전단목주중생상) 及與比丘菩薩形(급여비구보살형) 萬面千頭雖各異(만면천두수각이) 若聞薰氣一般香(약문훈기일반향)** 전단 나무로 중생의 모습. 중생이라는 것이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구모습. 보통사람의 모습. 보살의 모습. 나한의 모습. 불상의 모습. 생선의 모습. 코끼리의 모습. 말. 소. 돼지. 닭. ←이런 모든 모습을 다 조각을 했다. **萬面千頭雖各異.** 만 가지 머리와 천 가지 얼굴이 각각 다 다르지만, 그 향기를 맡아보면 전부 전단향기가 납니다. 생선을 조각해 놔도 생선 냄새가 안 나고 전단향기가납니다. 여기의 이야기가 그대로 아닙니까? **전단향을 쪼갬에 조각 조각이 다 전단향인 것과 같습니다.** 이런 법문으로 불상을 점안해놓고 딱 점안 서두에 이 법문을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염불이 그것입니다. 엉터리 화가가 그림을 형편없이 그렸든, 무당집에 있는 아주 희한하게 생긴 불상도, 저기 시장에 가서 돈 만원주고 산 불상도 불상입니다. 부처님이라고요. 그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안을 딱 했을 때, 거기에 생명을 갖는 부처님이고 우리가 존경해야할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서두에 이런 염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서장 대 강좌 9 - 3

서장의 대의를 논할 때, 斥邪解現正見(척사해현정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삿된 견해를 물리치고 바른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서장이다 그랬습니다. 서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전이 인생에 대해서, 또는 세상사에 대해서, 어리석은 우리들이 잘못보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을, 부처님의 깨달음의 밝은 눈으로 우리에게 그 실상을 보여주는 일이지요. 실상을 설명해 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세상사의 실상이지만, 세상사는 제쳐두고라도, 우리들 각자의 인생사의 실상을 깨우쳐 주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장에서의 삿된 견해라고 하는 것은, 默照邪禪(묵조사선)이라고 해서 그냥 묵묵히 앉아만 있는 것이 최상의 공부다. 라고 하는 그런 한 때의 공부의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척하고, 불교라고 하는 것이, 또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목석과 같이 앉아만 있는 것이 어디 꼭 불교의 바른 길이냐? 아니다 이것이지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간화선은 앉아 있는 불교에서 일으켜 세운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불교. 그것이 만약 진리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를 활용하고 수용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른 견해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제일이라는 생각은 삿된 것. 또 그것을 다른 입장으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교가 경전이나 어록 안에만 있느냐? 아니다 이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일상생활 속에 더 살아있는 불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서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생명이 넘치는 불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p. 156. 지금 일종의 杜撰(두찬)하는 놈이** 하는 이 내용은 생략하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요약해드린 그 내용입니다. **杜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은 옳고, 남의 것은 그르다고 하는데 정말 옳은 것을 옳다고 하면 좋겠으나, 옳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옳다고 하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묵조사선을 비판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p. 159. 22. 유보학 언수 에게 답함.**

아마 이 편지는 아주 무더운 여름 날 보낸 편지 같습니다. **날씨가 찌는 듯이 덥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한가하여 활달하고 태연하며 스스로 如如(여여)하여 모든 魔軍(마군)의 撓亂(요란)함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활달하고 태연하고 스스로 여여해서 魔軍의 요란함이 없습니까?** 이 **魔軍**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있는 마군은 사실 마군으로 치지 않습니다. 대개 차원이 낮은 사람들은 밖에 있는 마군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군이지요. “그런 것이 어떻게 당신을 흔들거나 어지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까?” 한 가지 물었고, 두 번째, **날로 하는 일상생활에 ‘개가 불성이 없다’는 말과 하나가 됩니까?** 그랬습니다. 狗子無佛性(구자무불성)화두. 대혜스님께서 이 서장에서 권하는 1700공안 가운데, 제일 힘주어 권하는 것이 구자무불성화두지요. 이 분에게도 아마 평소에 이 화두 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과 하나 되느냐?” 세 번째, **시끄럽고 고요함의 두 변에서 능히 분별하지 않습니까?** 시끄러울 때 는 공부가 안 된다거나, 고요할 때 공부가 잘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분별이 없어야 되는데, “그 쯤 되었지요?” 이런 것을 꼭 알고 싶어서 묻는다기보다는 편지의 글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꿈꿀 때와 깨어 있을 때가 合致(합치)됩니까?** 이것이 夢中 一如(몽중일여)라는 말을 잘 쓰지요. 대개 그 일여라고 하는 말을 쓰면 처음에 靜中一如(정중일여). 좌선한다고 앉아 있을 때 한결같이 잘 되느냐? 그 다음에 動靜一如(동정일여). 그러면 고요하게 앉아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한결같이 잘 되느냐? 그것 상당히 어려운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몽중일여입니다. **꿈꿀 때와 깨어 있을 때가 합치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꿈속에서도 疑團(의단)이 獨露(독로)하느냐?” 이 말입니다. 화두 드는 꿈을 꾼다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화두 드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꿈속에서도 의단이 독로. 오롯이 그 의심이 홀로 드러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꿈꾸는 것. 화두 드는 것을 꿈꾸는 것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특히 잠 잘 때 화두를 들려고 씨름을 한참 하다가 그냥 그 길로 잠이 들면 꿈속에서 화두 드는 꿈을 꿉니다. 그것은 화두 드는 꿈을 꾼 것이지, 화두하고 일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합치합니까?** 하는 것은 “일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몽중에 일여가 되면 病中一如(병중일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심하더라도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쯤 되어야 꿈속에서도 한결같은 것이지요. 또 **理(이)와 事(사)가 會通(회통)됩니까?** 우리가 이판사판이라는 말도 하고, 이치는 되는데 사적으로는 안 된다. 표면상으로는 그것이 도대체가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그 말이거든요. **이와 사가 회통이 됩니까?** “하나로 통하느냐?”이 말이지요. **마음이 경계와 더불어 여여 합니까?** “내 마음하고 경계하고 같으냐?”이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점검삼아 공부 인을 점검하는데 점검삼아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보학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지만, 사실은 유보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동생. 뒤에도 나오지만 언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혜스님과 유보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노력하자 하는 입장으로 편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방거사가 이르기를 “마음이 여여하면 경계도 또한 여여하여, 실제도 아니고 또한 빈 것도 아니다.”**꽉 찬 것**도 아니고 또한 빈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있어도 간섭받지 않고 없어도 또한 구속되지 않으면, 이것은 성현이 아니라 일 마친 범부입니다.** 了事凡夫(요사범부)라고 해서굳이 성인이라고 할 것이 뭐 있느냐? 요사범부입니다. 일 다 끝낸 범부다. 그냥 편안하고 좋지요. 聖人(성인). 賢人(현인). 그래놓으면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일 마친 범부입니다. 일 없는 범부입니다. 일 없는 중생입니다. 부담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아주 편안하지요.

**만약 참으로 일 마친 범부가 되었다면, 석가와 달마는 이 무엇입니까?** 일 마친 사람에게, **진흙덩어리이고 흙덩어리입니다. 泥團土塊(니단토괴).** 그렇게 되어있는데, **진흙덩어리**입니다.**석가와 달마가 진흙덩어리**로 조각해 놨으니까 별 수 있나요? 그 쯤 된다 이겁니다. 실지로 살아있는 석가 달마가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일 마쳤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 볼일 없다 이겁니다. 다른 집에 가 봐라 이겁니다. “나 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다른 집에 가 봐라.” 그 쯤 된다고요. **彼旣丈夫我亦爾(피기장부아역이)라.** 그대도 장부고 나도 또한 장부다. **不向如來行處行(불향여래행처행)이라.** 부처, 당신 간곳으로 나는 안 간다 이겁니다. 나는 내 길을 갈 뿐이지 부처, 당신 간곳으로 나는 안 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부처님” 하니까 표본은 됩니다만, 箇箇(개개)가 丈夫(장부)인데, 석가모니 간 길을 우리가 꼭 가야만 잘한 겁니까? 그것은 我流(아류)지요. 석가모니의 아류에 불과한 것이지, 나의 진정한 가치를 십분 구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三乘(삼승)의 十二分敎(십이분교)는 이 무엇입니까?** 석가모니가 평생 동안 설하신 경전이 **三乘 十二分敎**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8만대장경은 뭐냐? **뜨거운 주발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괜히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름 닦은 종이. 휴지라는 표현도 있고요. 경전을 통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 또는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전을 그렇게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쯤 되어야 불교 공부한 보람이 있고, 선불교 공부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왜 도인스님은 자꾸 경을 봅니까? 자네는 경을 볼 때 경이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나는 눈가리개다. 눈가리개.

다른 것으로 눈 가리는 것 보다, 꽃을 보거나 청산을 보거나 구름을 보고 눈을 가리는 것도 좋지만, 경을 가지고 눈을 가리면 더 좋지 않으냐? 이것이지요. 참 이런 것들도 깨달은 선사 입에서나 나올 법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어디 일부로 머리를 짜낸다고 그것이 나올 소리 입니까? 그런 소리 안 나오지요. 짜낸다고 나올 소리가 아닙니다. **뜨거운 주발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이미 이 문중에 스스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니, 적은 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생소한 곳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은 생소하게 해야 비로소 이 일로 더불어 조금 상응함이 있을 뿐입니다.** 서장에 자주 나오는 소리. **生處(생처)란 放敎熟(방교숙)하고, 熟處(숙처)란 放敎生(방교생).** 우리가 서툰 것. 반야. 도 공부. ←여기에는 서툴지요. 그것은 익숙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익숙한 세상사. 그것은 서툴게 하라. 이것이 공부지, 공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대혜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멋진 말씀이지요. 한문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公(공)이 旣於此箇門中(기어차개문중)에 自信不疑(자신불의)하니 不是少事(불시소사)라.** 이 작은 일이 아니다. **要須生處(요수생처)란 放敎熟(방교숙)하고,** 선 곳은 놓아서 익숙하게 하고,

**熟處(숙처)란 放敎生(방교생)하야사** 익숙한 곳은 놓아서 설게 하야사 **始與此事(시여차사)로 少分相應耳(소분상응이)이니라** 비로소 이일. 이 공부하는 일로 더불어 조금 서로 맞아 들어갈 것이다. 뭐 한 가지 좀 하려면 다른데 잡다한데 고개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한 우물만파세요 한 우물만. 그렇게 해야 좀 진보가 있지, **少分相應耳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조금 맞아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세상사도 그렇지만 도 닦는 일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p. 160 ~ 161. 가끔 대장부가 많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 엿보는 곳을 얻다가, 도리어 뜻대로 되는 가운데서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대개 **뜻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 엿보는 곳을 얻다가**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제대로 안 되는 역 경계 속에서, 대개 시끄럽고 어려움이 닥치고, 난관이 닥치고 그럴 때는 잘 헤쳐 나갑니다. 그런 것은 잘 헤쳐 나간다고요. I M F도 아주 바짝 긴장을 하니까 잘 견뎌내요. 그런데 세월이 잘 돌아가고 풀리고 그러면 마음이 헤이 해져가지고, 좋은 경계. 순 경계. 고급스러운 것 먹고 마시고 하는 데는 그만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당장에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애기입니다.

飢寒(기한)에 발도심(發道心)이라고 배고프고 춥고 할 때 공부가 잘 되었고, 그때 수행자가 많았고 도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풍요로워지니까 도인이 도대체 하도 안 나오는 겁니다. **도리어 뜻대로 되는 가운데서 잃어버립니다.** 그랬잖아요. **뜻대로 되는 가운데서** 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시간 없어서 공부 못 한다는 것도 말하자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핑계고요.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지요. 이 정도야 알만한 분이지만, 한 번 더 주의를 주는 것이지요. **뜻대로 되는 데서 모름지기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생각하여 간절히 잠깐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세속에 사시는 여러 불자님들이 서로 잘 맞추어 보면 얼마든지 좋은 해석이 나올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좀 각성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맞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석하는 것 보다 몇 배 더 좋은 해석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다만 根本(근본)을 얻어야지 枝末(지말)을 근심하지 말며** 중요하지요. **다만 부처가 될 줄 알아야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부처가 될 줄 아는 것. 부처 될 것을 생각해야지 부처가 되고 나서 말할 줄 모를까봐, 옛날에 일본에 어떤 스님이 자기는 나중에 법사가 될 거라고, 한 500년 전 책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자기는 법사가 될 거라고, 그 때 일본의 법사들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법사가 되면 말을 타고, 교통수단이 그 때는 말 뿐이니까 말도 타야 되고, 또 법회를 마치고 나면, (아주 인기 있는 법사가 되면) 법회를 마치고 나면 잔치를 잘 벌이는데 거기서 노래도 한 곡 잘 불러야 되겠기에, 이런 예능도 반드시 필요하다. 큰 스님들이 보니까 그러거든요. 자기도 법사가 되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법사 되는 것은 연구하지 않고, 말 타는 것 배우고, 노래하는 것 배우고, 춤추는 것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다 가버렸어요. 법문은 한 마디도 못하고요. 하하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때 제일 좋아하던 “徒然草(도연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책 사주기를 좋아하는데, 그 책을 50권정도 사서 돌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스님이 쓴 책입니다. 일본 교과서에도 나오는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지요. 여기 있는 말을 그렇게 해석할 줄 아는 겁니다. **부처되는 것을 근심할지언정 부처되어서 설법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지 말라. 根本이 중요하지 枝末적인 것을 염하지 말라.** 이 겁니다. 공부만 제대로 해놓으면 포교는 저절로 됩니다. 뭘 포교부터 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공부는 아니 하고, 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이렇게 좋은 말이 그냥, 그야말로 주옥같은 가르침들이 서장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아까 사회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읽으라 아니해도 다 철드신 분들이니까 10번 20번씩 다 읽고, 곱씹고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그런 인생의 눈을 한 번, 불교적인 차원으로 눈을 떠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는 늘 비유를 하기를 “출가해서 도 닦는 것은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고, 세속에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자갈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도는 자갈밭에서 훨씬 더 잘 닦인다.” 그 잘 닦인 아스팔트 길 걸어가 봐야 무슨 크게 운동이 되나요? 그냥 움푹 질퍽 하는 그런 자갈밭을 뛰어야 그것이 운동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실 겁니다. 보나마나 분명히...

‘뭘 출가한 사람이 도 더 닦지 어찌 우리 세속에 있는 사람이 도 더 닦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집에 가면 자식들이 도 닦게 만들어 주지, 하하하 아내가 도 닦게 만들어 주지, 남편이 도 닦게 만들어 주지, 회사에 가면 상사가 도 닦게 만들어 주지, 하하하 하사가 도 닦게 만들지, 차 몰고 나가면 옆의 차 끼어들어서 도 닦게 만들지, 전부 도 닦을 것 투성입니다. 그것이 자갈밭에서 도 닦는 것이 아닙니까? 도 잘 닦아진다고요. 한 생각만 탁 관점을 달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물건은 얻기는 쉽고 지키기는 어려우니,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도 그냥 갖다가 세속에서 뭐라고 바꾸지요? “성공은 쉽지만 수성은 어렵다.”하하하 그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사실 뭐든지 그렇습니다.**얻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다.** 수성이 훨씬 어렵지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보면 이런 말씀들이 아주 실감이 나지요? 올라오기는 어찌어찌해서 재수 있어서 올라왔는데 아직 올라가기도 전에 마구 흔들어 대는데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름지기 머리를 바르게 하고 꼬리를 바르게 하여 넓히고 채운 뒤에 자기의 남은 것을 미루어 남에게 영향을 미치십시오.** 바로 이 것입니다. **머리를 바르게 하고 꼬리를 바르게 하여** 시종일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잘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넓히고 채운다.** 擴而充之(확이충지)라고 다 유교의 용어입니다. 이 분이 워낙 유교에 박통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확이충지라고 이것이 일상용어입니다. **채운 뒤에 자기의 남은 것을 미루어 남에게 영향을 미치십시오.** 그렇지요. 자기가 충분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기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그냥 포교는 저절로 된다 이것이지요.

**자기의 남은 것을 미루어 남에게 영향을 미치십시오. 당신은 얻은 것이 이미 한 모퉁이에 막혀 있지 않아서,** 한 모퉁이에 막혀 있지 않다 이겁니다. 상당한 분이다 이것이지요. **아마 일용하는 가운데 마음을 일으켜 지속하며 마음을 없애고 생각을 끊는 데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십시오.** 하는 말은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의 동생. 언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아주 뛰어난 선비입니다. 그리고 벼슬도 다 높고요. 그런데 그 언충이라는 사람이 불교적인 소견이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가르치면 큰 재목이 될 사람이다. ←이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근년 이래에 禪道(선도)와 佛法(불법)이 심히 衰頹(쇠퇴)하고 疲弊(피폐)해졌습니다. 일반 杜撰(두찬)하는 장로는 근본에 스스로 깨달은 바가 없고 業識(업식)이 아득하여 가히 근거할 근본이 없습니다. 杜撰**이라고 하는 말은 **杜 =** 막는다. 남의 것은 틀렸다 하고, 자기 것은 덮어놓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선지식들이 그렇게 하니 참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 기량이 없으면서 배우는 사람을 거두어 포섭하여 일체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과 비슷하게 칠흑같이 어둡게 눈을 굳게 감게 하면서 묵묵히 항상 비춤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묵조선을 그대로 표현해 놨지요. 그러니까 어쩌다보니 선이 유행을 해서 선 배우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선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잘못 가르친다 이겁니다. 지기가 아는 만치만 가르치니까 이것이 엉터리라 이것이지요. 이것을 참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입장으로 이끌어다가 살펴보면, 그냥 보통 불교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불교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엉터리불교. 사이비불교. 거품불교. 비불교적인 불교. 얼마나 많습니까? 참선이니 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아니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불교사상 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불교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순수한 불교. 정상적인 불교. 정법불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또 제대로 그것을 전파를 해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인데, 참 이 시대의 어떤 불교 상황을 굽어보면 너무 잡다한 일들도 많은데, 특히 총무원 같은데서 정말 정법불교를 선양하려면 1에서 100까지 온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일에 힘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무슨 정치적으로. 세속적인 것. 밑도 끝도 없이 밀려오지요. 백날 그 일 처리해봤자 처리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남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느니 딱 접어버리고, 일체 영향력을 다 정법 선양하는 데에 기울여가지고, 첫째 정법을 공부하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같이 정법 공부하는 데에 매진하고, 그걸 로서 널리 펴는데 주력한다면, 불교가 좀 달라지고 그것이 불교가 세상에 끼치는 이익이 제일 클 것입니다. 다른 무엇 가지고도 왜 우리는 떡 하나 더 안 주느냐? 하고 안달, 안달 해봐야 그것은 추태만 부리는 것이지, 졸라 가지고 떡 한 개 더 먹어 봤자입니다. 다음 사람들이 또 떡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부 하는 일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가 종회. 회의실입니다. 宗會(종회)입니다.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해야지요.

사람들 안 키워놓고, 어린이포교. 학생포교. 군 포교 아니 해놓고는 무슨 정부의 요직들 조각하는데 불자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는 창피한 것인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조르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 키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어린이포교 학생포교 군 포교 열심히 해야지요.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뭘 항의하고 조르고 건의하고, 사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요.

서장 대 강좌 9 - 4

근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默照邪禪(묵조사선)으로 소견이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애석해서 대혜스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언충이라는 사람이 유보학 언수의 동생입니다. **彦冲(언충)이 이 무리에게 무너졌으니 괴롭고 괴롭습니다. 이 말은 만약 당신이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깨닫지 못했다면, 徑山(경산)도 또한 말할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말을 알아들을 만치, 도가 그만치 돼 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한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곡해만 하고 나를 비방만 할 것이지, 먹혀들지 않을 텐데 당신은 그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한다는 것이지요. **천만 번 얼굴을 내려 누르고 통렬히 수단을 써서 저 사람을 구제하십시오.** 이것은 **천만 번 얼굴을 내려 누르고** 형제지간이지만 냉정하게, 냉정하게 형제는 형제고요. 법은 법이다 이겁니다. 소견 잘못 된 것은 형제고 뭐고 가차 없이 지적하고 바로잡아 줘야 이것이 어쩌면 그것이 형제로서의 도리가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빕니다.** 대혜스님이 뭐가 답답해서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빌**겠습니까?정말 뛰어난 근기가 소견이 잘못된 것이 그렇게 선지식의 눈에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어떤 그런 특별한 근기 보다는 지금 불교가 너무 거품불교. 비불교적인, 정말 정법불교. 정말다이아몬드 같은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덩이 같은 무쇠나 구리 같은 값싼 그런 불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그런 불교 몇 푼어치가 되겠습니까? 몇 푼어치가 못 되는 그런 저급한 불교는, 제가 불교 아니라고 하기는 미안합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불교가 아니지만, 그래도 방편으로 불교 안에서 쓰니까 그런 저급한 불교는, 다른 종교에 가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도 있는 것. 우리까지...

**天上天下에 無如佛.**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는 그런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사는 우리 불자가, 다른 종교에 가도 있는 그런 것 가르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은 없잖아요. 인류사에 최고의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우리는 좀 더 그 가르침도 남달라야 된다고요. 길거리에서,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까지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불자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긍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자로서의 자존심과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과 긍지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면 긍지와 자존심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정법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알고 널리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참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에 자꾸 그렇게 힘을 낭비할 일이 아닙니다. 힘은 한계가 있는데요. 힘을 그렇게 낭비해 버리면 정말 정작 써야할 곳에 힘을 못 쓰게 됩니다.

**p. 162~163. 그러나 한 가지 일이 있으니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분은 맑게 스스로 살아서 세상맛에 물들지 않고 담박함을 여러 해 쌓아서 결단코 이것에 집착하여 기특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담박하고 도인다운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만약 구제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와 더불어 일을 함께 도모하여 그를 기쁘게 하여 마음에 의심을 내지 않게 해야, 거의 믿음이 미쳐서 즐거이 머리를 돌려올 것입니다.** 이 사람 생활이 그쯤 됐으니까 아무나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이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당신도 그와 같은 유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그것이 同事攝(동사섭)이라는 것 아닙니까?

**淨名(정명)이 이르되,** 유마거사가 말하기를 **먼저 좋아하는 것을 끌어오고 뒤에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이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달래는 겁니다. “가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전. 법화경 같은데 보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등 온갖 불교적인 방편을 다 권합니다.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해놓고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것으로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고** 이 말이 꼭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시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지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정도 목적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말 제대로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지, 보시해서 복 짓고 천도하고 기도해서 성취하고 이것은 전부 낚싯밥이라고요. 솔직하게 낚싯밥입니다. 고기 낚기 위한 낚싯밥입니다. 낚싯밥치고는 근사하지요. 탁 던지면 딱 물게 되어 있으니까요. 무조건 무니까요. 왜냐?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데, 그것을 안부를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물지요. 저도 답답하면 한 번씩 부르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답답하면 관세음보살 부르며 매달린다고요. 그런 달콤한 낚싯밥 안 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낚싯밥이지,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경전에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했고, 유마거사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개 거사가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불교의 과제를 앞에다 놓고 할 소리 다 해야지, 여기서 뭘 주저주저하고 남겨놓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저승에 가서 부처님 볼 면목이 없잖아요. 여기서 할 소리 다 해야 돼요. 선불교. 최고급불교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차라리 다른데 가서 사기를 치는 것이 낫지, 불교 1번지인 여기에 앉아서...

**黃面老子(황면노자)가 이르기를** 부처님이지요. 얼굴이 누렇지 않습니까? 하하하 **법의 선후를 보아서 지혜로서 분별하며, 시비를 살펴 정하여, 法印(법인)에 어긋나지 않고 차례로 한없는 실천의 법문을 건립하여,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의심을 끊게 한다. 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생을 위하여 법칙을 만든 것이며, 만세의 본보기입니다.** 유보학. 이 분은 별 문제가 아닌데, 동생. 언충이라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더욱 이 분의 근성이 그대와 더불어 멀어서 같지 않다.** 형제라 하더라도 그 근성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 형은 상당히 점잖은 분이고, 동생인 언충은 아주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분입니다. 여기에 예문을 들었습니다. 대혜스님은 그 분을 꿰뚫어 보니까요. 예컨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靈運(영운)의 앞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은 결단코 영운의 뒤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넣어야 맞습니다. 이 밑에 주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옛날에 맹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부처님을 순수한 신앙으로 참 잘 섬겼어요. 선행도 잘 하고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라이벌인 사영운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先知에 밝아 가지고, 저 사람. 부처님에게 정말 신심도 있고, 착한 일도 잘하고, 복도 많이 짓는 맹의에게 말하기를 “네는 나보다 천당에는 먼저 갈 거야, 하지만 소견이 그렇게 돼먹어가지고는 성불은 나보다 먼저 할 수가 없다.” 세상에 불교에 신심 있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욕 아닙니까? “천당에야 네가 먼저 가지만, 성불은 너는 나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이래 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라이벌인데 그런 말을 써 버렸어요. 이 사영운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다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유보학의 동생. 언충이라는 사람이 역시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잘 달래고 잘 구슬려서 사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당신보다 열 배, 백 배 수승한 그릇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뒤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우리 주변에 불교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세속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사례를 곳곳에 적용해서 생각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분은 지혜로써 포섭하는 것은 불가하고 마땅히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날로 달로 연마하면, 아마 스스로 그릇 된 것을 알아서 홀연히 즐겨 버릴 것입니다.**지혜가지고 따지고, 지식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옳고 그른 것으로 이 사람하고 따졌다가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情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주 잘 해주고, “그래 네가 하는 것이 옳다.”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 번씩 귀담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네가 제대로 아는가? 내가 제대로 아는가? 어디 한 번 아는 것을 내놓고 옳고 그른 것을 판가름해보자.” 이렇게 나갔다가는 이건 고기 낚으려고 하다가, 괜히 고기에 물려가는 꼴이 되고 마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녀들 교육 시키는데도 적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근기를 잘 살펴서요.

**또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머리를 돌려 즐겨 오면 도리어 이 力量(역량)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대도 또한 모름지기 물러나 그에게 두각 나타냄을 양보해야 비로소 옳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고, 불교 믿는다고 하는 도반들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교를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공부하는가? 이것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참으로 불교를 삿되게 믿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도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 하는 데는 “네 그것 틀렸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감만 사지요. 누구든지 반감만 삽니다. 그렇게 하면 그 쪽으로 더 빠져들어요. 삿된 길로 더 빠져들게 하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로 이끌어 오는 것도 지혜를 써야 됩니다. 지혜를 써야지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아이 그것 틀렸어. 내가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고 하더라. 무당짓거리 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듣기 싫은 소리 해보세요. 더 그 쪽으로 빠져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방법을 잘 강구해서, 정 무슨 수가 안 돌아가거든 저한테라도 오세요. 와가지고 의논을 같이 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요. 어디 좋은 법회. 정말 정법을 선양하는 법회에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갈 때는 반드시 차도 태워다주고, 차비도 내주고 회비도 내주고, 가서 일 년치 회비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 하는 것이다. 제가 자세히 설명할 길은 없고, 바로 그 뜻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을 써야 그래도 한 사람을 제대로 바르게 인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참선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 하는 말이고요. 또 이것이 참선하는 입장뿐 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 얼마든지 적용 될 수 있는 가르침이고,

특히 불교가 너무 잡다하게, 단순하지가 않고 잡다하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바른 불교. 좋은 불교. 옳은 불교를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이 인연이 안 되고,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고의적으로 삿된데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정말 연민의 정으로서 감싸주고, 어떻게 하더라도 바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도 바르게 인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합니다. 저는 학인들을 가르칠 때 그런 생각을 잘 합니다. “先情後敎”라. 먼저 정. 정말 진정. 참다운 정을 나 혼자 잔뜩... 그거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학인들을 보면 정나미 떨어지지만, 그래도 억지로 속에서 정을 잔뜩 자아내요. 자꾸 만들어내요. ‘아이고 이쁜 놈’ ‘아이고 이쁜 놈’ 하고 자꾸 ‘이쁜 놈’ 이라고 속에서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 정이 생깁니다. “선정후교”입니다. 정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나서 가르쳐요. 그럼 그 가르침이 먹혀든다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좋은 사상이고 어쩌고, 저쩌고.” 속으로는 ‘혼자 잘해봐.’ 이런다고요. ‘혼자 잘해보라.’고...

여기 선생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선정후교” 좋지요? 먼저 정을 준비하고, 뒤에 가르침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불교를, 특히 정법을 전하는데 있어서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고, 대혜스님 말씀도 결국 그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혜스님이 참 명석한 도인이지요. 이와같이 훌륭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만 정리 했습니다.

불교의 궁극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결국은 한 방편입니다. 간화선이 최후의 발달된 불교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선불교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기불교에서 그 다음에 부파불교로, 부파불교에서 초기대승불교. 중기대승불교. 후기대승불교. 이렇게 해서 또 밀교로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선불교로 발전을 해서 선불교를 최후의 불교. 최첨단불교. ←이런 표현을 제가 합니다만, 그래도 선불교의 수행방편은 어디까지나 방편입니다. 궁극의 뜻은 아닙니다. “탐욕이 즉시 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자면 거기는 어떤 방편도 다 거기에 붙을 수가 없고, 또 인간 본연의 모습을 긍정하는 그런 입장이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르러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즉시 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경지이고, 또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수 없이 번뇌를 제거하고, 또 화두를 들고 그래서 화두를 깨치고 하는 방편을 가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간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9강 終 -

서장 대 강좌 10 - 1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집멸도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심무가애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고 득아뇩다라삼먁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모지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모지사바하**

회향 법회 인만큼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교인재개발원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대중강좌. 이번 강좌를 무비 큰스님을 모시고, 서장 강의를 듣는 순서였습니다. 불기 2551년, 6월부터 시작해서 불기 2552년, 3월이 마지막 10번째 강의가 됩니다.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저희는 3월 10일부터 중국 선적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무비 큰스님께서 불편하신 몸을 이끄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이 가르침이 ‘책 속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대혜스님께서 15년간 주석 하셨고, 고봉스님께서 목침 떨어지는 소리에 안심입명 법 화두를 깨뜨린 경산사 선방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선방에서 무비 큰스님과 함께 2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참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선을 마치고 무비 큰스님께서 단 한 마디를 하셨습니다. 이번 순례 길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한 마디가 지금도 저희 가슴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문자로서 책 속에서 잠들어 있던 서장 내용이 큰스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자후를 던져 주셨는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후를 ♪하소서 ♪감로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 ♪하옵소서♪**

잠시 入定(입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교를 말씀드린다면, 불교가 발생하고 오늘 날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나마 첫 시간에 밟아봤습니다. 그리고 선불교 중에서도 오늘 날 우리나라에서 간화선 불교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간화선인가?] 하는 타이틀로 간화선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또 간화선의 지침서의 제일교재라고 할 수 있는 서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하면서 비록 서장을 量적으로 3분의 1정도 공부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화두는 어떻게 드는 것이고, 선은 어떤 것인가? 선불교는 불교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간화선” 할 때 “선은 화두를 살펴본다.”는 뜻이니만치 화두는 어떻게 살펴보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화두를 지어간다.”는 표현을 우리는 합니다.

화두를 지어가는 길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서장을 읽으면서 강의를 들으셨다면 얼마든지 화두를 지어가는, 다시 말해서 화두를 들고 선에 임하는 길은 충분히 터득 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서장강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 동안 말씀드렸던 것. 대강 짚어볼 것은 짚어 보고, 그 다음 오늘도 참으로 귀한 분에게 대혜스님이 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미진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하는 입장으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불자들의 숫자가 남 녀 비율로 따지면, 여성 불자들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 다행히 이 서장강의에는 남성 불자들이 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서울은 좀 다르구나.’하는 생각도 느꼈고, 미래에 한국불교에 대해 아주 고무적인 현상을 보는 것 같아서,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여러 불자님들과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저도 참 보람도 있고 흐뭇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장에서 거사님들에게 대혜스님께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기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여성 불자를 표현하는 보살입니다. 보살님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진은 왜 진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성은 허 씨인데 국태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재상이거나 아니면 부마거나 그런 상당한 위치에 있고, 또 아들의 위치도 위치려니와 당사자가 그만치 나라에서 존경을 받을만한 인격을 갖춘 분에게 천자가 내리는 아주 영예스러운 호칭입니다. 국부인 이라고도 하고 국태부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뒤편에, 이 분에게 보내는 편지 다음에, 재상을 지낸 아들이 나옵니다. 재상을 지낸 이가 둘째아들이고, 그 다음 편지가 첫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글쎄요.

鄕堂莫如齒(향당막여치). 朝廷莫如爵(조정막여작)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어머니가 있고, 둘째아들이지만, 작위로 봐서 재상이니까 편지순서는 먼저 놓고, 맏아들이지만 재상을 지낸 둘째아들 다음으로 편지순서를 배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괜히 저의 속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편집자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가? 그것은 알 길이 없으나 어쨌든 저의 속된 마음으로는 어머니 다음에 그래도 조정엔 막여작이라. 벼슬이 최고니까요. 재상을 지낸 둘째아들을 놓고 그 다음에 맏아들이지만 맏아들의 지위가 동생보다 낮으니까 맏아들 편지를 뒤에 놨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매일 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속된 생각. 또 사사로운 생각도 간혹 끼어드는 것이 도를 공부하는데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허 보살님은 그 밑에 주해에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만, 아주 일찍이 30대에 과부가 돼서 불교에 신심이 아주 장해서 염불을 하고 예불을 하고, 경을 독송하고 일반적인 불교신행을 열심히 하시는데, 마침 대혜스님과 인연이 되어서 편지와, 대혜스님의 도겸이라는 상좌가 심부름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문제들을 다 철폐를 하고, 화두만 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경 읽는 것도 철폐 하고, 예불하는 것도 철폐 하고, 염불하는 것. 절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철폐해 버리고, 화두만 든지 얼마 아니 되어, 一念相應(일념상응)이 돼서 본명원심을 깨닫고, 대혜스님으로 부터 점검을 받은 그야말로 깨달은 사람의 반열에 오른 그런 서장에서는 유일한 보살님이십니다.

일반 여성보살님 뿐만이 아니고, 또 비구니스님들도 훌륭한 도인이 역사상으로는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 숫자가 아무래도 남자 쪽이 더 많고, 또 스님들 쪽이 좀 더 많아서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스님들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 보살님들이나 비구니스님들 쪽에서도 도를 크게 이루신 분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들도 이 기회에 생각할 수 있는 여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선불교는 불교의 완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불교가 또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까지의 불교역사로서 볼 때, ‘선불교는 불교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최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 최고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지고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러서 “부처다.” 또는 “조사다.”이렇게 아주 높이 명칭을 높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니 보살이니 조사니 ←이런 표현이 있게 된 것입니다.

“禪”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 삶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축제의 연속이다.’ ‘매일매일 축제의 연속이다.’ 정말 우리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보면, 우리 삶이 보통 소중하고 값지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본래의 지고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축제의 연속이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수백억짜리 로또 복권이 매일 한 번씩 터지는 것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감히 표현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는 표현이 아닐까?’ ‘지나치지 않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p. 185. 25. 진국태부인 에게 답함**

**道謙禪師(도겸선사)가 돌아와서 준 편지와 아울러 친히 쓴 몇 수의 게송을 받고 처음에는 심히 의심했는데, 도겸에게 자세히 물어 보고서야 바야흐로 스스로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도겸이라고 하는 이는 대혜스님의 제자이고, 대혜스님의 편지를 신도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편지를 받아오고,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대혜스님을 대신해서 지시를 하고, 공부의 상태를 알아서 대혜스님에게 아주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도 심부름꾼이 도겸 이라고 하는 상좌입니다. 그래서 **편지하고 시 몇 수**를 보고는 약간 **의심했는데,** 제자 **도겸에게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것이 결코 남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신의 살림살이가 그 쯤 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曠劫(광겁)에 밝히지 못한 일이 시원하게 앞에 나타났으나 남을 따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여기에 **남을 따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본래의 것. 우리가 이미 있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무한 가치. 무한한 보물.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고, 인간의 아주 지극히 고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결국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수행이니 무슨 기도니 참선이니 하는 그런 어떤 수행 방편은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연히 내가 알고, 확연히 내가 깨닫자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역사적인 부처님. 이미 2600여 년 전에 살다 가셨고, 그 분의 가르침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불상을 아무리 조성을 잘 해 놨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석굴암 불상. 더 이상 웃을 줄도 모르고, 더 이상 울 줄도 모릅니다. 화도 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든지, 사람이라고 하든지, 부처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바로 웃을 줄 알고, 바로 화낼 줄 알고, 좋은 것 보면 욕심낼 줄 알고, 슬픈 일 보면 슬퍼할 줄 아는 이 기가 막힌 부처가 우리들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불교지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것은 정말 100% 자기 것이 되기까지는 이것은 모두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저 이 선불교가 됐든 화엄불교. 법화불교가 됐든, 무슨 불교가 됐든 그것은 일종의 안내서에 불과한 것이지요. 안내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대혜스님의 말씀 속에서도 **남을 따라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法喜(법희)와 禪悅(선열)의 즐거움이 세간의 즐거움에 견줄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았다고 하니, 제가 당신을 위하여 여러 날 기뻐하여 침식을 다 잊었습니다.** 진국태부인이 불교의 진정한 의미를 맛보고, 그것을 소위 “법희 선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서장을 보든지 기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경전을 좀 읽든지 이런 데에 맛을 들이고 그 이치에 눈을 좀 뜨게 되면요? 세속적인 즐거움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이 보살님은 정말 마음을 밝혔습니다. **광겁에 밝히지 못한 일이 시원하게 앞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불교에 취미를 가지고 맛을 들여도 이것이 보통 맛이 아닌데, 이 보살님 같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아들은 재상이 되고 본인은 국부인이 된 것이 족히 귀한 것은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대단한 일이지요. **아들이 재상이 되고** 자기는 나라로 부터 **국태부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그것이 **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거름 무더기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를 거두어 백겁 천생에 받아쓰되 다함이 없어야 바야흐로 참으로 귀한 것이 될 뿐입니다. 거름 무더기**가 뭡니까? 우리 씨앗 되어있는 육신이지요. 정말 별 가치 없는 육신을 흔히 **거름 무더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름 무더기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속에서 무한한 생명의 가치. 그야말로 내 생명이 부처님의 진실 생명이라는 가치를 거기서 발견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다.** 다음은 대혜스님께서 깨달은 사람. 또는 불교를 많이 공부하신 분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이 귀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만약 귀함에 집착하면 존귀하다고 하는 데에 떨어져서 다시는 자비를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켜서 有情(유정)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부디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잘 써야겠지요. 잘 써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사업을 더 번창 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선사업에 쓰든지 무엇에 쓰든지 간에 잘 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혜스님이 깨달은 사람들에게 늘 부탁하기는 “당신이 그 만치 공부가 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교화하는 데에 진력하라.”이런 당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 혼자 돈을 벌어서 혼자 쓴다거나, 깨달음을 이뤄서 자기 혼자 누리다가 그만 둔다거나 하면 이것은 附 佛法外道(부불법외도)라. 불법에 붙어사는 외도. 마구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교는 예를 들어서 1을 알면 1을 전하는데 있습니다. 100을 알면 100을 남에게 가르쳐주는데 있습니다. 세속 돈이야 그것 좀 인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알아서, 부처님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정말 자기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했을 때는 그 고귀한 재산은 세속적인 재산 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슴에 안고 있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비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서장 대 강좌 10 - 2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불교를 믿고, 불교공부를 하면서 불교공부를 제대로 해서 부처님 재산을 제대로 나의 재산으로 만들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불법의 이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길이 불자의 길입니다. 근래에 자선사업도 불자들이 많이 하고, 스님들도 많이 하고, 복지회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노인 요양소라든지 복지시설을 많이 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든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부처님제자가 그 일까지 아니해도 됩니다. 부처님제자는 그 보다 더 바쁜 일. 급한 일. 더 고귀한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제자에게 한 번도 그런 일 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르친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해서 진리를 세상에 전하라고 했지, 그 외에 다를 것을 세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쉬우니까 그런 쉬운 일을 하나봅니다. 불교는 어렵고요. 복지문제라든지 배고픈 사람들에게 의식주 제공하는 일은 쉬우니까 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불교를 아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알고 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허 보살님. 국태부인에게 최후로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자기 깨달은 것에 도취해서 그냥 지내면 안 된다. 꼭 자비와 지혜를 일으켜 가지고서 유정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유정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중생제도를 해야 되고, 교화를 해야 된다. 부처님 법으로서 교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아들 **장승상 덕원에게 답한다**고 그랬어요. 이 분도 역시 깨달으신 분입니다. 승상에게 답하는 편지라서 그런가? 처음부터 대혜스님도 자세가 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p. 187. 26. 장승상 덕원에게 답함 공경하여 생각하니 편안하게 고요한 곳에서 생활하여 저 국태부인과 더불어 한 곳에 함께 모여서 비로자나불의 세계를 즐겨서, 마땅함을 따라 불사를 하되 병도 없고 고뇌도 없어서 당신의 생활이 萬福(만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깨달았고 형님은 깨달음에 거의 가까워 있는 사람이라고 또 이 승상은 승상벼슬을 하는 사람으로서 깨달음을 이뤘으니까 그 집안은 세속적으로나 불교적으로나 참 부러운 집안이네요. 위로부터 모든 성인께서 다 그렇지 않은 분이 없으셨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끼리 정말 제대로 복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이른바 모든 생각 가운데 일체법이 滅盡(멸진)한 삼매에 들어서** 이것은 일체 중생으로서의 어떤 사량 분별은 다 소멸된 상태에서라는 말입니다. 다음에도 그 얘기입니다. **菩薩道(보살도)에서 물러나지 않았으며, 菩薩事(보살사)를 버리지 않았으며, 대자비심을 버리지 않았으며, 바라밀을 닦아 익히되 일찍이 쉬지 않았으며, 일체의 불국토를 관찰하되 싫어하고 게으름이 없었으며,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을 버리지 않았으며, 법륜을 굴리는 일을 단절하지 않았으며,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으며, 가진 바 훌륭한 소원에 이르기까지 다 원만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달라서 그렇지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살도**가 무엇이며 **보살사**는 무엇이며 **대비심**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해당 됩니까? **일체의 불국토를 관찰한다**고 하는 일. **중생을 제도한다**는 일 **법륜을 굴린다**는 일. **중생을 교화한다**는 일. ←이것이 전부 중생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화로서 회향하라. 재상쯤 돼서 도를 통하면 그 자리에서 중생교화 하기 참 좋을 겁니다. 권력 있지, 돈 있지, 그 다음에 중생 교화할 원력만 있으면 아주 마음껏 할 수 있을 겁니다.요즘하고는 다르잖아요. 요즘 국무총리가 그런 것 한다고 하면 당장에 비판 받지만, 옛날에 재상이 한다면 감히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임제스님도 보면 거기 부주. 도지사쯤 되는 사람이 관원들에게 “공무들 하지 말라. 오늘은 휴업이다.”하고 임제스님을 초청해서 전부 법당에 불러놓고 일체 관료들, 오늘 공무집행 아니해도 된다고 하고 전부 불러서 “임제스님의 법문을 들어라.” 임제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공무집행 하는 것 보다 더 급한 일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 천 명을 모아놓고 법문을 듣게 했습니다. 도지사쯤만 되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얻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그 자리를 얻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참 함축성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있나 봐요. 그것을 이렇게 중생을 깨우치고 교화하는 데에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비록 옛날 군주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민주사회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하지만, 이런 권력을 잘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화로 회향하라.” “중생교화로 회향하라.”

**보살도. 보살사. 중생을 제도하는 일. 법륜 굴리는 일. 중생을 교화하는 일.** 불교 중에서는 완전한 불교 선불교. 그리고 불교 최고의 공부를 하는 여러 불자님들은, 상당히 불교에 대한 안목과 소견이 갖춰졌을 줄 믿습니다.그렇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부처님 법을 펴는 일.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법을 한 그릇 준다고 생각해 볼 때, 밥 한 그릇 하고 어찌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복이 되지요? 철 한 근 주는 것 하고, 다이아몬드 한 근 주는 것 하고, 도대체 비교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우리 불자들은요. 최소한도 그 정도 불법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불교공부는 그런 겁니다. 그 만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을 때 시시하게 살지도 않고, 남 보기엔 모르지요. 겉으로 보기엔 몰라도 정신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결국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 국토의 차별을 통달해서 알며, 부처 종자의 성품에 들어가 피안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대장부가 네 가지 위의 가운데 수용한 가풍일 뿐입니다.**네 가지 위의는 행 주 좌 와.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누우나 할 것 없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거사께서** 大자를 하나 더 붙여 줬네요. **大居士(대거사)께서 여기에 힘써 실천하고 게으름이 없으므로 저도 여기에 또한 동참합니다. 또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리어 외부인이 간섭하는 것을 허락합니까?**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중생제도 하는데, “나도 **동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내가 거기에 거사와 더불어 중생교화 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간섭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지요. **외부인이 간섭하는 것을 허락합니까?** 그러니까 대혜스님의 법력이 아무리 높다한들 일개 재상이 재상의 자리를 빌어서 중생교화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 뜻입니다.

傳法偈(전법게)에 **假使頂戴經塵劫(가사정대경진겁) 身爲床座遍三千(신위상좌변삼천). 若不傳法度衆生(약불전법도중생) 畢竟無能報恩者(필경무능보은자).** ←이런 말이 있지요. 가령 부처님을 위한답시고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 억만 년의 세월을 지내고, 또 부처님을 위한답시고 부처님을 모시는데, 내가 큰 넓고 넓은 평상이 되어서 내 몸의 평상위에서 부처님이 앉고 눕고 자고 걸어 다니고,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그렇게 까지 희생을 하고 봉사 한다 하더라도, **若不傳法度衆生.** 만약에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부처님의 법을 전해서 사람들을 교화하지 못하면 결코 불교를 안다고 할 수가 없고, 부처님께 공덕을 짓는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명확한 말입니까?

우리 몸을 희생해서 부처님이 앉고 눕고 걸어 다니고 하는 평상이 되고 길이 되고 우마가 되고, 설사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희생 하고 봉사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이 아니다 이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한테 복 짓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배워서 그 법을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알아야 그것이 부처님이 알아주는 일이고, 부처님이 고마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 순간에 우리는 다이아몬드의 큰 광맥을 발견한 겁니다. 어디 가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지만 그것은 한 근의 철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일깨워 준다면, 이것은 다이아몬드를 그 사람에게 한 근을 주는 것 하고 맛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얼마만치 가슴에 와 닿게 이해하고 새기고, 내 살림살이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들으니 장사에 이르러 곧 비야에서 입을 막고 깊이 둘 아닌 데에 들어갔다고 하니,** 이것은 장사라는 지명이지요. **장사라는 곳에 들어가서비야에서 입을 막고 깊이 둘 아닌 데에 들어갔다.** 이것은 거사분의 대표로서 유마거사는 유마경에서 잘 나타났는데, 그 분이 바이샬리 라고 비야리 성에서 사셨고, 거기가 유마경의 무대가 되었는데 그 유마경의 내용은 말하자면 不二法門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이 아닌 이치를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둘이 아닌 이치를 아주 현묘한 논리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유마거사보고, “둘이 아닌 도리를 한 번 표현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입을 막고** 하는 말이 아무 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둘이 아니라면 하나인데 이것은 숫자로서의 하나가 아니고, 통일된 하나. 전체로서의 하나. 그런 뜻입니다. 전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벌써 때가 묻은 것이고, 흔적이 남는 것이고, 군더더기가 되어버리지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비야리성에서 입을 막고 깊이 둘 아닌 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분. 장승상도 그렇게 묵묵히 지내시나 봅니다. 그 소식을 들었으니 **이 역시 분수 밖이 아닙니다.** 물론 **분수 밖의 일은 아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낸다는 것. 그것도 이해는 해줄 수 있다 이말입니다.

**법이 이와 같은 연고로 원컨대 거사는 이와 같이 수용한다면, 모든 마군과 외도가 정히 와서 법을 지키는 선신이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갖가지 차별되는 다른 뜻도 다 스스로 마음에 나타난 경계이고, 또한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거사는 어떻습니까?** 앞의 내용을 보면 **보살도. 보살사. 중생제도. 법륜 굴림.중생교화.** 이런 말을 잔뜩 늘어놓고, 나중에 “아,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거사하고 길이 다른 이야기지요. 길이 다른 이야기를 앞에 잔뜩 많이 해놓고, 마지막에는 거사가 **입을 막고** 조용히 지낸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혜스님이 이 장승상에게 경책 내지 꾸중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이것은 꾸중입니다. 보통 꾸중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도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에 도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종의 집착입니다. 깨달았으면 중생교화 해야지요.** ←이렇게 표현했고 또 이 장승상이라는 사람에게도 앞에 그렇게 여러 낱말을 중복 써 가면서 **중생교화.** 불교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에뜻이 있는 것이지, 교화가 없는 것이라면, 당신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도통 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에서 그래 놓고는 사실 이 거사는 **입을 막고** 조용히 사니까 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편지로 읽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맞장구치는 식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닙니다. 전반부의 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와 같이 해서 **장승상 덕원에게 답하는** 내용은 이렇게 됐습니다.

**p. 190. 27. 장제형 양숙에게 답함.** 이분은 형입니다. 형인데 **제형**이라고 하는 벼슬은 재상보다는 훨씬 낮은 벼슬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도 가당치 않은 분입니다. 비록 어머니하고 동생처럼 그렇게 확연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주 대단한 경지에 이른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거사의 행동하는 바가 그윽하게 도에 합치되지만, 다만 한번 “와!” 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뿐입니다.** 일상생활은 그야말로 **도에 합치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서장 강의 서두에 禪의 일곱 가지 정신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깨달아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선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늘 선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簡素(간소). 簡潔(간결), 소박한 삶. 선이 좋다면, 선을 좋아하는 특히 선불교는 불교의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불교의 궁극은 결국은 그 삶이 어떠하냐? 일곱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간결 소박한 모습. 脫俗(탈속)한 모습. 俗氣(속기)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 속된 모습. 그것은 불교도 아니고 선불교는 더욱 아니다 이겁니다. 탈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自然(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저절로 그러해야지, 조작 되어 있으면 이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선불교는 더욱 아닙니다. 자연을 제가 강조를 했지요. 그리고 悠然(유연)해야 됩니다.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孤高(고고)함이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수선하고 부산함이 있어선 아니 됩니다. 靜寂(정적). 정적한 모습. 할 일 다 하면서도 어딘가 고요한, 흔들림이 없는, 動搖(동요) 없는, 요지부동의 그런 자세. ←이것이 선을 하는 선불교를 하는 사람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變化(변화). 자기 삶이 절대적이라고 옹고집이 되어서 도대체 융통성이 없는 그런 인간은 그것은 불교를 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선불교를 하는 인간은 더욱 아니지요. 변화무쌍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런 상황에 그 상황보다도 아주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정신이 선불교를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삶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상생활이 **도에** 계합한다는 것이 禪의 일곱 가지 정신이 충분히 잘 갖춰진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와!”** 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달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와!”** 일상생활은 **행동하는 바가 그윽하게 도와 합치되지만, 다만 한번 “와!” 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간소 · 탈속 · 자연 · 유연 · 고고 · 정적 · 변화. ←이런 일곱 가지 정신을 충분히 나의 삶으로 엮어가더라도, 지고한 인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지고한 인간의 가치를 알면 우리의 삶이란 축제의 연속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처지가 어떻든 병이 들었든 늙었든 아니면 젊었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인간의 지고한 가치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우리의 삶은, 매일 매일 어마어마한 축제의 연속이다 하는 것.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는 낱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매일 매일 수백억짜리 로또 복권이 터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 하겠습니까? 감당 못 할 정도의 축제. 축제의 분위기. 우리의 삶은 축제의 연속이다 이겁니다. 이 가치를 정말 확신하는 것이지요. 눈으로 바로 보는 것이고요.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와!”**하는 그 도리입니다. **“와!”**하는 그 도리가 뭐겠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인간의 그같이 지고한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제스님 같은 이는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는 것이 아니다.” 一步一拜(일보일배) 하면서 수년을 거쳐서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가고 있는 아주 유명한 무착문희 선사를 보고 꾸짖는 소리입니다.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친견하러 가는 당신이야말로 내가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문수구나.” 오대산에 문수는 일보일배 할 줄 몰라요. 피곤하면 잠 잘 줄 몰라요. 석굴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화 낼 줄도 몰라요. 속에는 화나도 참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같이 다 잊어버리고 화내고, 통곡할 일이 있으면 통곡하고, 웃을 일이 있으면 그냥 허벌나게 웃고, 그것이 살아있는 부처지요. 그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 어떤 부처가 그럴 줄 압니까? 여러분들 말고 어디에도 그런 부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을 스스로 확연히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와!”**하는 그 소리입니다.

금강경만 하더라도 **一切法(일체법)이 皆是佛法(개시불법)**이라는 말을 하지요. 일체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일체법이란 것이 뭡니까? 탐욕부리고 좋은 것 있으면 탐심 나고, 화 날 일이 있으면 화내고, 이치를 몰라서 그냥 캄캄하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행동 막하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일체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체법은 그것이라고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일체법입니다. 그것 말고 다시 일체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과정에서, 울고 웃고 온갖 희로애락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이것이 일체법입니다.

**一切法이** 뭐라고요? **皆是佛法**이라고 했잖아요. **平常心(평상심)이 是道(시도)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요? 여러분, 평상심이 뭡니까? 좋은 것 보면 탐심 나지요? 이것이 우리 평상심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화나지요? 이것이 평상심이라고요. 탐 진 치 삼독 말고 우리 평상심이 있으면 뭐가 있는가 또 내놔 보세요. 자기 허물 덮으려고 하고, 쥐꼬리만 한 잘한 것 있으면 그냥 자랑하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살림살이고 우리의 평상심입니다. 그것 말고 무슨 평상심이 있냐고요. **평상심이 도다.**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못해서 “텅 빈 마음이다.” 텅 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텅 빈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탐 진 치 삼독과 8만4천 온갖 번뇌. 희로애락이 그대로 우리 평상심이 아닙니까? 그 마음이 도입니다.

서장 대 강좌 10 - 3

오늘 종강 기념으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영명연수선사의 “보살계를 받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뒷면에 보면, **탐욕이 곧 道다. 진심내고 어리석음도 또한 도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법 안에 일체의 불법을 모두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소리라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마구니가 와서 저런 소리한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미타불의 後身이라고 하는 영명연수선사의 말씀입니다. 또 그것도 이 안에 본문에 보면, **諸法無行經(제법무행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말씀을 빌어서 영명연수선사가 하신 겁니다. 부처님경전에 있는 말씀을 영명연수선사 같은 뛰어난 안목을 갖춘 이가 그것을 인용해서 “보살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법무행경** 내용을 여기 상당히 장황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어느 절에 어떤 비구와 법사가 살았습니다. 법사라고 해서 비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고집불통 비구가 있었고, 아주 대승적인 삶을 사는 법사가 있었습니다. 법사는 자기가 늘 중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친다고 시중에 나가서 설법도 하고, 포교도 하고, 신도들도 만났습니다. 자신만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구가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절대 산문 출입도 하지 말고,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것도 보면 안 되고 들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수행인 줄로 아는 비구입니다. 그래서 비구가 공사를 붙였어요. 목탁을 쳐서 대중들을 다 모았습니다. 어떤 법사가 교화한다고 하면서 계속 시중에 들락날락 하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시중에 들락날락 하면서 온갖 볼 것 안볼 것 다 보고 다니고, 이것이 수행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엄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가 있다가 “내가 스님을 위해서 아주 뛰어난 게송을 하나, 법문 한 마디를 일러 줄 텐데 이 법문을 들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고, 당신이 아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비방할 겁니다. 비방을 많이 해서 비방을 하는 인연으로 지옥에 갈 겁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일러주는 그 고차원적인 아주 차원 높은 훌륭한 대승법문을 들은 인연으로 지옥에 갔다가 얼른 나와서...” 그러니까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는 것이지요. 세상 이치와 똑 같은 겁니다. “당신은 나보다도 어쩌면 더 빨리 성불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입니다. 좀 과장된 표현을 하면. 과장된 표현도 아니지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게송을 하나 일러주는데, 바로 이겁니다. **탐욕이 곧 道다. 진심내고 어리석음도 또한 도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법 안에 일체의 불법을 모두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구는 그냥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탐욕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 진심과 어리석음도 제거해야 하고, 오매불망 버려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적 인데, 그것이 도라니 도대체 이것이 마구니도 보통 마구니가 아니고 이것은 외도다. ←이래 가지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비방을 막 하고, 그냥 비방을 해도 보통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기존의 불교공부는 그렇게 알았지요? 탐 · 진 · 치. 삼독 내지 108번뇌. 8만4천 번뇌는 다 버려야 하는 것이다. 지금 수천수만 곳에서 불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영명연수선사가 **제법무행경**에서 인용하기를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쳤고, 또 영명연수선사의 마음에 아주 맞아서 그것을 여기에 소개를 했고, 저도 그것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결국은 이 책을 번역하고 해석을 하게까지 이르러서 오늘 여러분들께 법공양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불교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기존의 불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여기에 **“와!”**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一切法(일체법)이 皆是佛法(개시불법)이다. 平常心(평상심)이 是道(시도)다.** 일체법도 탐 진 치 삼독 8만4천 번뇌요. 평상심이 탐 진 치. 삼독과 우리가 늘 화내고 울고불고 하는 이것이 평상심이다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결 되는 것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알기 전에는 저는 평상심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상심이 공한 마음인가? 참 마음인가? 뭔가? 그것은 공한 마음이다. 참 마음이다. 진실한 마음이다. 텅 빈 마음이다. 진여다. 불성이다. ←이렇게 해 봐야 그것은 名字일 뿐입니다.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법무행경**에 이 말씀을 보고는 야~ 영명연수선사는 정말 훌륭한 선지식이고 그 말이 진짜 맞다. 평상심이 바로 탐 진 치 삼독 부리는 것이 우리의 평상심이라고요. 그것 외에 평상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그것 외에 우리들에게 **일체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 외에 우리들에게 **일체법**이 없습니다. 평상심도 그것입니다. 우리 평상심도 그것 아닙니까? 좋은 것 보면 갖고 싶은 것이 평상심이지요. 마음에 안 들면 화나는 것이 평상심이지요. 내 잘못한 것을 덮어 버리고 싶은 것이 평상심이지요. 남 잘못한 들추어내어 꼬집고 싶은 것이 평상심이지요. 우리 일상이 계속 그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평상심이라고요. 그것이 도입니다. 그런 것을 더 이상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없앤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탐 진 치 삼독 없앤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불교공부 4~50년 한분들도 있지요?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한 반쯤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는 안 없어졌다 하더라도 한 반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 한 10분의 1은 없어졌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저만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보니까 선배. 선배. 대선배. 훌륭한 분의 구체적인 이름을 들지 못해서 그렇지 면밀히 보아 왔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소개할 때 禪房(선방)을 다니면서 會衆(회중)을 가지고 있는 선지식은 제가 다 가서 한 철씩 두 철씩 살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똑 같습니다. 왜 똑 같으냐? 그것이 평상심이기 때문에 똑 같은 겁니다.

그것이 도이기 때문에 똑 같은 겁니다. 단 특수한 분들이 몇 분 있다면, 그것은 그 분들이 탐욕 부리는 방향이 달라요. 중생을 많이 제도하고 싶은 그 탐욕이. 돈 많이 벌고 싶은 그 탐욕.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고 해도 좋고요. 그럼 돈 버는 것은 탐욕이고, 중생제도는 탐욕이 아니라고 해서 설득이 되겠습니까? 다 원력이면 똑 같이 원력입니다. 돈 벌어서 세상에 많이 기여 하고 싶은 것도 원력이지요. 중생제도만 원력인가요? 그것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 버리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마십시오.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림살이입니다. 평생 가져갑니다. 평생 가져가더라고요. 저만 가져가는가? 했더니 우리 선배. 선배. 대선배들도 다 평생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완성이다. 불교는 최소한도 이 시대에 있어서는 더 나아갈 데가 없습니다. 최극단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소한도 불교 최 극에 달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밖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전에 있는 말이고 알고 보면 눈 뜬 사람은 다 똑 같이 이야기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 거사가 일상생활에는 선의 일곱 가지 정신에 계합한 삶을 살고, 단 **“와!”** 하는 이것 하나만 **못했을 뿐**이라는 것은 인간이 탐욕을 부리면 부리는 데로, 진심을 내면 내는 데로, 그 나름대로 지고한 가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하기를 “보살계 같은 것은 상당히 수준 높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이들에게 해당 되는 것인데,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무 과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영명연수선사가 “만약에 자신이 문수보살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보현보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당신 속에 있는 불성종자를 말살하는 것이다. 죽여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부처가 아니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三世의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살계를 받는 길”이라고 하는 이 책에요.

자신이 부처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탐 진 치 삼독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리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탐 진 치 삼독이 없는 저~기 석굴암부처님 같은, 나무로 깎은 부처님. 돌로 깎은 부처님. 철로 만든 부처님 같은 그런 부처님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탐 진 치 삼독과 8만4천 번뇌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리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三世의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대교에서 화엄경에서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화엄경에서 분명히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고 똑 같은 것이고, 하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화엄경에서 그 말 아니 했을 것 아니냐? 그 말 왜 했느냐? 이겁니다. 어디 알지도 못하고, 문수 보현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따위 소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부처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문수 보현이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갖지 말라. ←이런 말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 법사가 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비구는 그렇게 비방 했어요. 사정없이 비방을 해서 결국 지옥에 갔고, 지옥에 갔다가 얼른 나와서 그 법사보다도 더 먼저 성불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여부는 놔두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正信이 우리가 취할 바인데, 그런 이야기가 “보살계를 받는 길”이 책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영명연수선사가 인용을 했습니다. 영명연수선사는 아미타불 後身이라고 할 정도로 송나라 때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p. 190. 비록 한 번 “와!” 하는 것을 얻지 못했더라도 죽는 날에 염라대왕이 또한 모름지기 손을 모아 공경하고 돌아와 항복할 것이거늘,** 설사 그런 인간의 지고한 가치를 확철히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삶이 간소하고 탈속하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고 고요하고 정적하고 변화한 그런 삶이 충족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염라대왕도** 당신에게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한 생각이 상응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한 생각이 상응하다.** 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와!”** 하는 그 소리지요. 그야말로 인간의 지고한 가치에 대한 눈뜬 그것입니다.

**제가 비록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그 일하는 것을 보건대 크고 작은 일에 맞게 하여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문득 도가 합치되는 곳입니다.** 뭐든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또 分대로 척척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이론적으로라도 좀 알아서 그것이 자기의 삶에 녹아든 사람들은 큰 도는 그만 두고라도 그 사는 태도가 이 사람처럼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또 分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인연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분에 지나치거나, 인연을 거스르거나, 이치에 역행하거나, 이렇게는 안 산다고요. 순리대로 살 줄 알아요. 자기 분대로 살 줄 알아요. 무리수를 안 둬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자기 처지가 어떻든 자기 위치가 어떻든 거기에 큰 불만 없고, ‘아, 이것이 내 인연이다.’ 좀 더 큰 삶을 살려면 거름을 좀 더 하고, 노력을 좀 더하고, 그래서 좀 더 큰 삶을 사는 길이 거기에 얼마든지 열려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자기의 현재에 있는 이 처지에서 ‘나는 왜 이런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우리 불자들은 팔자타령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가 인연을 그렇게 지어놓고는... 인연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제가 불교공부. 선불교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인연이야기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쉬우니까요.

부처님 제자 중에 마승이라는 비구가 있었지요. 아주 점잖은 분입니다. 인격이 아주 고매한 분입니다. 어디서 탁발을 하고 노오란 가사를 입고 척 걸어가는데, 너무 고상하고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리불과 목건련이라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다가 저기서 노란 가사를 입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아, 벌써 풍기는 태도가 너무 근사하거든요. ‘야~, 저 사람은 어떤 스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일까?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일까?’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혜가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을 보고는 그만, 넋 나간 사람처럼 멍~ 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옆으로 지나가기에 붙들고는, “와, 당신 같은 사람을 나는 처음 봅니다.”

나도 이 인도 사회에서 “내노라.”하는 사리불이야, 그런데 당신 같은 인격자 처음 본다 이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스승을 모시고, 무엇을 공부하고 일상생활은 어떠냐고 그냥 따발총처럼 한꺼번에 질문을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승이라는 비구가 (5비구 중의 한분이라고 그러지요?) “나는 싯달태자가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이룬 그 분의 제자이고, 그 분에게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이 있느냐?”고, “그 분은 무엇을 가르치느냐”고 “나는 초보자로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들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마디만 일러주세요.” 사리불. 목건련이 얼마나 학구적인 사람입니까? 놓칠 사람이 아니지요. 붙들고 떼를 쓰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떼를 쓰니까 하나만 딱 일러 주겠다고, **諸法從緣生 諸法從緣滅(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 我佛大沙門 常作如是說(아불대사문 상작여시설).** 모든 것은 사물이 됐든 사건이 됐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계절이 바뀌는 일이 됐든, 사람이 출세하고 실패하는 일이 됐든 전부가 인연으로부터 이뤄지는 것이다. 또 인연으로부터 소멸하는 것이다.

우리 부처님 대 사문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이치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아주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가 전부 연기의 도리이고, 인연의 도리거든요. 이 현상은 연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인연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불자들은 큰 것을 건진 겁니다. 그러면 부를 따라서 사는 방법이 거기 나오지요. 인연 따라서 사는 방법이 거기 있지요. 무리수 두지 않는 방법이 거기 있지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는 길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인연이라는 낱말 한마디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선불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높은 차원으로 이야기하다가 괜히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 어쨌든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일하는 것을 보건데 크고 작은 일에 맞게 하여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문득 도가 합치되는 곳입니다. 이 속에 이르러 세속 생각을 하지 말며 또한 불법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뭐 세속적인 일이다. 불법이다. 그것을 굳이 나눌 것이 없다 이 겁니다. 그것을 괜히 이름 붙여서 그렇지 어디 불법 따로 있고, 세속 법이 따로 있나요? **一切法이 皆是佛法** 이라는데요.

**불법과 세속법은 모두 바깥일입니다.** 명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바깥일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빛을 돌이켜 비추어 보기를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행동할 때에 무슨 모양이 있으며, 하는 바를 이미 판단하고는 나의 마음과 뜻을 따라 두루 주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모자람과 남음이 없다.정히 이런 때가 되어 누구의 恩惠를 받았는가?’라고 하십시오.** 이 “은혜력” 하는 것도 다른 타력 신앙 같은 것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누구의 恩惠力을 받았는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전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기기묘묘한 그 존재가 나인데, 나 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웃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화 낼 줄 알고,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恩惠力을 받은 것이라고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공부하여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사람이 활쏘기를 배움에 저절로 적중하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분은 깨달음이 말하자면 999까지는 됐는데, 1이 모자라는 표현도 나오지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들 인생은 이대로 완성품이다.’ ‘이대로 완성품이다.’ 불교공부해서 더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뿐이다.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도통해도 그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아~! 내주머니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대로 완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전에서는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선불교에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불교는 불교의 완성이라고 저는 스스럼없이 씁니다.이 사실을 아는 일이 간화선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현재 이대로, 현재 이대로 아무리 탐욕이 많든 그것은 따지지 말라고요. 아무리 어리석든 그것도 따질 필요 없습니다. 현재 이대로 완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일.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한 마디에 알면, 육조스님 같이 그냥 한 마디에 알고, 두 마디에 아는 사람도 있고, 세 마디에 아는 사람도 있고, 네 마디에 아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30년 40년 앉아서 공부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가장 좋은 방편이 간화선이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도인들제자를 제일 많이 길러낸 마조스님은 馬駒踏殺天下人(마구답살천하인)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말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인다는 말입니다. 선불교에서 죽인다는 말은 참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말이거든요. 유치원생들에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말을 어린 아이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선불교에서는 죽인다는 말이 아주, 殺佛殺祖. 죽여도 파리를 죽이고 모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니 조사니 하는 것이 설사 내 가슴 속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부처고 조사고 그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정 되어야 된다고요. 철저히 부정 되었을 때 내 부처. 내 조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조스님이 그야말로 천하 사람들을 다 밟아 죽인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표현되는 것은 최고의 칭송입니다.

“말 망아지가 천하 사람들을 다 밟아 죽인다.” 이것은 최고의 칭송입니다. 더 이상의 칭송이 없습니다. 그런 분의 많은 제자 중에 “대주혜해 선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지요. 그 분이 처음에 마조스님이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아주 먼 길을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습니다.” 상당이 먼 데서 왔거든요. 몇 달이 걸려서 온 겁니다. 노자 돈도 많이 썼고요. “왜 여기 왔나?” “제가 먼 길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스님한테 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자기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보물창고 버려버리고 여기까지 왜 왔느냐? 내가보기에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에게 보물창고가 있습니까? 보물창고가 뭔데요?” 이러니까 “자네가 지금 나에게 묻고 것 있잖아? 자네가 나에게 불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왔다는 이 말할 줄 아는 사실이 이것이 그대의 보물창고야. 이것을 일러서 부처라고 하든지 조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문수라고 하든지 보현이라고 하든지 별별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거야.” ←이 말 한 마디에 그냥 눈이 환하게 밝아져버렸잖아요.

선불교는 바로 이러한 사실. 우리들에게 완전무결한 현재 내 처지가 어떻든, 내가 탐욕이 아무리 많든, 어리석음이 아무리 많든, 화를 아무리 잘 내든, 걸핏하면 비관에 빠지든, 걸핏하면 잘 웃든 아무 상관없이 이 모습 이대로 완전한 작품입니다. 더 이상 손댈 곳도 없는 완전한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선불교입니다. 그것이 얼른 가슴에 와 닿지 않으니까 “이 뭣꼬?” “이 뭣꼬?” “이 뭣꼬?”하고, 그렇게 참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옥아” “소옥아” 아무리 불러봤자 소옥이를 부르는 데는 별 볼일 없습니다. 婢奴素玉은 別無事(비노소옥별무사)라. 소옥이를 아무리 불러봐야 소옥이는 별 볼일 없다.  “소옥아”라고 불렀든 뭐라고 불렀든, 그저 소리 내는 바로 그 신호. 뭐라고 불렀든, 소리 내는 그 신호가 중요한 겁니다. 소리 낼줄 아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종을쳤든 꽹과리를 쳤든 소옥이라고 불렀든 개똥이라고 불렀든,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소리 내는데 의미가 있어요.

서장 대 강좌 10 - 4

회향강의에 징검다리 식으로 공부를 해도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렇지요? 하하하하하하 간화선 이라고 하여 화두를 들고 참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서장내용의 거의 주된 흐름이고, 거의 7~80%가 화두를 참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향을 하는 마당에서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우리 인간이 本有한, 본래 있는 존귀함이라고 할까? 지고한 가치에 대한 눈뜬 이것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으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재수 있는 사람은 말 한 마디 듣고도 눈 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십 년을 참구해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참구하는 방법이 사실은 후대에 와서 이렇게 개발이 된 것입니다.

대혜스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런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말 몇 마디 주고받으면 그것으로 끝났고, 끝 안 나면 그뿐이고요. 그랬었습니다.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건져야 되겠다. 건지려면 무슨 방법 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최선의 방법이 화두를 참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오늘 날 우리가 화두 참구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토요 참선 회 라든지, 철야정진이라든지, 시민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행하게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왜 지금 간화선인가?”하는 간화선 붐을 조성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다행한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사인 거인에게 답함.** ←이 짧은 편지 하나가 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들어서 소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최후로 이 대목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p. 226. 32. 여사인 거인에게 답함. 천 가지 의심과 만 가지 의심이 다만 하나의 의심입니다.** 우리 인생문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인생사. 자식에 대한 문제든, 사업에 대한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온갖 문제들이 하나의 의심으로 귀결될 수가 있다. 그것은 **화두 위에서 의심이 타파되면, 천 가지 의심과 만 가지 의심이 일시에 타파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 개개인의 장사 안 되는 문제까지, 자식이 말 안 듣는 문제까지도, 바로 이 화두하나 깨트리면 그 문제까지도 해결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화두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자식이 왜 부모 속을 썩이는가? 나라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세상은 왜 갈수록 자꾸 험해지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이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또 화두 위에 겨루어 나가십시오.** 다른 것. 그 문제에 나아가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 겁니다. 이번에 저는 대운하 문제가지고, 우리 선불교의 종주 시찰인 봉암사에서까지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참 섭섭한 일이더라고요. 시류에 왜 봉암사까지 그렇게 동조를 하고, 이러고저러고 옳다 그르다는 소리를 봉암사까지도 그런 데에 관심을 써야 하는가? 거기가 최후의 보루인데요. 최후의 보루가 그 문제에 휘말리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겠지요. 또 옳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우리 선불교. 한국불교의 최후의 보루가 봉암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그런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가? 그다음에 이젠 갈 곳이 없는 겁니다. 피난처가 없어요. 더 이상 피난처가 없다고요. 거기서까지 그렇게 세상일에 왈가왈부 하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만약 화두를 버리고 도리어 별도 문자 위에 가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고인의 공안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의 번뇌 가운데서 의심을 일으키면 다 이것은 삿된 마군의 무리입니다.** 천 가지 문제. 만 가지 문제가 오직 이 화두 하나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간화선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간화선이라고요. 그러면 화두 하나 해결하면 대운하 문제도 그 속에 해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 소리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그 얘기라고요. 자식이 말 안 듣는 문제도 이속에 다 포함되어요. 세상이 저렇게 험하고 곳곳에서 이해득실 가지고 날뛰고, 그것도 전부 이 간화선을 하는 정신으로는 그렇게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화두라고 하는 이 문제에 귀결시켜서 여기에서 답을 얻자고 해야 그것이 간화선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선입니다. 선의특징은 거기에 있습니다.

**첫째 화두를 드는 자리에서 알아채려고 하지 말며, 또 알음알이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다만 유의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곳에 나아가서 의심하면, 마음이 갈 곳이 없는 것이 늙은 쥐가 소뿔에 들어가 문득 넘어지고 끊어지는 곳을 만나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온갖 문제. 세상문제. 무엇 때문에 무슨 자연 파괴다. 뭐다. 뭐다. 도덕성 문제. 정직성 문제. 진실성 문제등등 물론 많지요. 그렇지만, 이 선불교. 불교의 최후의 보루가 또 선불교입니다. 불교의 완성이면서 최후의 보루가 선불교입니다. 한국에서는 선불교의 최후의 보루는 봉암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 간화선의 근본정신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오차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쥐를 잡는데 큰 물소 뿔 안에 냄새나는 좋은 먹을 것을 하나 떨어뜨려놓으면, 쥐가 냄새 맡고 거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갈수록 차츰차츰 좁아지니까 들어갈 때는 쉬웠는데, 들어가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미끼는 저~안에 있고요. 머리는 아직도 끝까지 닿지 않고요. 고소한 냄새가 풍기니까 욕심은 계속 미끼에 가 있고, 들여 밀려니까 머리가 받쳐서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려고 계속 머리를 들이밀고, 들이밀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쥐 잡는 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몰아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간화선법이라는 것이 인생을 몰고 가는 겁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 하자면 인생을 그렇게 걸고 하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시한 아마추어들이 함부로 덤빌 일이 아니라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수좌들도 그저 시간이나 보내고, 가서 시간이나 채우고, 철 채우고, 앉았던 시간 채우고, 죽비 치면 앉고, 방선죽비 치면 일어나는 이런 허수아비 식으로 해서는 꿈에도 못봐요. 꿈에도 못보는 겁니다. 화두 하나에 올인해야 됩니다. 인생 다 걸어야 된다고요.

이보십시오. 이것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천 가지 문제 만 가지 문제가 오직 화두 하나에 달려있다.** 이것이 간화선의 정신입니다. **늙은 쥐가 소뿔에 들어가 문득 넘어지고 끊어지는 곳을 만나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걸고, 거기에서 해결을 보자는 것이지요. **또 마음이 만약 시끄럽거든 다만** 어떤 문제로서 마음이 시끄럽던 간에, 이 간화선 하는 사람은 **다만 ‘개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의심할 뿐입니다. 만약 이 無字를 꿰뚫으면,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의 말씀과 모든 노숙의 말씀과 천 가지 만 가지로 다른 것을 일시에 꿰뚫어서 남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한결같이 남에게 묻되, 부처님의 말씀은 또 어떠하며, 조사의 말씀은 또 어떠하며, 모든 노숙의 말씀은 또 어떠한가 하면, 영원히 깨달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든, 운하를 10개를 파든 100개를 파든, 자연을 훼손을 하든 만들든, 화두납자. 참선납자는 그런 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인생을 사는 사람이 무슨 세상사 정치 어떻게 하고, 자연 파괴 어떻게 하고, 그런 데에 관심 하는 것은 딴 사람 몫입니다. 사실은 통탄할 일입니다. 운하가 파지는 것이 통탄할 일이 아니고, 그 문제를 문제시 하는 간화선의 보루. 최후의 보루인 봉암사에서까지 그 문제를 문제시 한다는 이 사실이 제가 보기에는 통탄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아니 해도 되잖아요. 그것 좀 보호됐으면 좋겠어요. 최후의 성역으로 보호됐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신도들을 초파일 날 하루 외에는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산문폐쇄 해서 수행자들끼리만 딱 산다고 그렇게까지 해놓고, 스스로 세상의 정치를 거기서 앉아서 끌어들여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봉암사를 제가 어릴 때 좋아해 가지고 거기 가서 산판하고 사는 어떤 대처승들. 우리가 작당해서 쫓아내고 제2정화를 거기서 한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오는 날 선방을 만든 겁니다.그 때 우리가 정화한 스님들이 “우리가 영원히 뼈를 봉암사에 묻자.” 이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옛날 신라 때 구산선문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그 정신. 그래서 오늘 날, 우리 종단에서 정한 종립선언 아닙니까? 평소에 신도도 안 받고 초파일 날 하루만 개방하는 걸로 국가에서도 허락을 해주고, 종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종단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며 보호되어온 곳인데, 어떻게 돼서 거기서 정치적 바람이 들어가서 그러고 있는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운하를 100개를 파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봉암사라고 하는, 간화선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서장을 보십시오. 간화선 제일지침서가 서장 아닙니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이 간화선을 하는 모든 정신입니다. 세상의 일체 천 가지 문제. 만 가지 문제는 오로지 화두 하나로 올인 하라 이겁니다.

오늘 서장강의 10회에 걸쳐서 회향을 하면서 쓴 소리도 좀 하고, 마음에 있는 소리도 좀 하고, ‘이것이 禪機. 선의 기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간화선의 정신은 나는 못 해도, 최소한도 간화선의 정신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서장공부를 부족하지만, 부족한대로한 의미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동안 제가 서장강의를 이렇게 하노라고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의 견해이고, 서장을 대혜스님의 마음에 들게 시원스럽게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그것은 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대혜스님이 칭찬을 하실지 꾸중을 하실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어쨌든 이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불자님들과, 또 여러 스님들과 이런 좋은 시간을 10회에 걸쳐서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말세에 아주 무량대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무비 큰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년에 걸쳐서 먼 거리를 마다하시지 않고,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에게 명품불교. 최상의 선불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선불교가 어떤 내용인가를 이때까지 의심을 가졌었습니다만, 명쾌하게 명품 선불교는 “평상심이 도이다. 우리 모두가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이고, 또한 부처이다.” 하는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스님께서 저희에게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 여러분들 모두 스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지고 있으셔서 여기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시고, 이런 좋은 만남을 가진 것이 너무 즐거우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 말씀은 저희를 ‘제자로서 인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고, 또한 스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고 스님께서 저희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우시지만, 저희 제자들이 원한다면 오셔서 저희에게 또 더 좋은 가르침을 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1년을 작년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 횟수로는 10회이지만, 우리 일상생활 24시간을 모두 이끌어 주십니다. 중국 선적지 순례를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느라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셔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곧 바로 다음 달부터 무비 큰 스님의 강좌를 또 들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진행합니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지만, 다음 강의는 금강경으로 무비 큰 스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두 달 정도는 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약속받는 의미에서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큰 스님께 삼배 올립시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_()\_**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_()\_**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_()\_**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_()\_**

성불 합시다. \_()()()\_